

#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 KICCE 소비실태조사 2025 - 하권 -

최효미·김은영·박은정·김태우·김길숙



#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5 - 하권 -

## 저 자

최효미, 김은영, 박은정, 김태우, 김길숙

##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은 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자 김 길 속 (삼육대학교 교수)

연구보고 2025-19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5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 761-003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 979-11-6865-133-3 [94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와 정부 지원금 수혜 여부,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및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활용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있는 기초 통계 자료로, 지난 2018년에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25년 8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다. 2025년 연구는 보고서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조사 관련 연구 내용은 상권, 자료 분석 관련 연구 내용은 하권으로 분권하여 제작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이자 연구 방법인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생활비 지출 실태, 정부 지원금 수혜 등 상세하고도 방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자료이다. 또한, ‘KICCE 소비실태조사’는 패널 조사 자료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매해 신생아(당해년도 상반기 및 전년도 하반기 출생아) 표본 가구를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패널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장점이 있다. 2025년 본조사에서는 1,830가구와 가구내 영유아 2,452명이 조사되었으며, 부스터표본 조사로 153개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2025년 연구에서는 2018~2024년까지 구축 완료된 자료를 활용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등 기초 분석 자료뿐 아니라, 농어촌 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및 부모급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풍부하게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의 질 제고를 위해 따끔한 충고와 자문을 아끼지 않은 전문가, 까다롭고 민감한 설문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신 패널 응답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방대한 분량의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주신 연구진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5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 일러두기

- 이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로, 2025년도 연구는 상하권으로 분권 제작됨.
- 상권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포함하며, 하권은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부터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까지 총 7개년의 자료를 활용한 기초 분석 및 심층 분석을 다루고 있음.
  - 기존에는 설문내용만을 분권 제작하였으며, 본문 내용은 하나의 보고서 안에 파트 구분을 두어 발간함. 전반부는 당해년도 조사 관련 내용이 제시되고, 후반부는 전년도 자료까지를 활용한 분석이 이어지면서 혼선이 빚어짐.
  - 이에 2025년 연구는 조사 관련 파트와 분석 관련 파트를 구분하여, 분권하여 제작함으로써 각 보고서의 가독성과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함.

[그림 1] 2025년 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연구 내용	보고서 구성
KICCE 소비실태 조사_2025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조사 설계 - 설문의 구성과 변화 - 조사 결과 및 응답자 특성	보고서 상권
기초 분석 (2018~2024)	-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변화 (생활비 지출 및 주요 가계 지표 지수) - 영유아 양육비용 변화	보고서 하권 II장
	-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보고서 하권 III장
	-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활용	보고서 하권 IV장
심층 분석	- 놓여준 거주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육아 지원 요구 * 2024 부스터표본 조사	보고서 하권 V장
	- 부모급여 효과성 분석(출생코호트 비교) * 2022~2024 데이터 활용	보고서 하권 VI장

주: 서론, 연구배경, 정책 제언 등은 공통 사항으로, 지면 관계상 생략.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는 ‘KICCE 소비실태조사’ II기 3차년도에 속하는 연구로, 2027년까지 5개년 연속과제로 진행될 예정인 연속과제임.

- ‘KICCE 소비실태조사’ I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되었으며, 2023년부터 ‘KICCE 소비실태조사’ II기 연구가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 중임.
- 연구과제명이 매년 변동함에 따르는 혼선을 줄이고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차수의 구분은 ‘KICCE 소비실태조사’ I기와 II기를 망라하여 조사 뒤에는 조사년도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매년 수행되었던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연구 과제명은 다음과 같음.

연구 기수	조사 차수	조사 년도	연구과제명	조사명
I 기	1차	2018년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
	2차	2019년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
	3차	2020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0
	4차	2021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5차	2022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II기	1차	2023년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2차	2024년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3차	2025년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주: I기 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총괄한 연구과제명을 기준으로 정리.

<b>요약</b>	<b>1</b>
<b>I. 서론</b>	<b>23</b>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5
2. 연구 내용	27
3. 연구 방법	28
4. 농어촌 지역의 정의	29
5.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응답자 특성	31
<b>II.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와 양육비용</b>	<b>39</b>
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41
2.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48
3. 영유아 가구의 주거 환경 및 거주지 선택	58
4. 양육 부담 및 삶의 만족도	63
<b>III.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b>	<b>73</b>
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75
2.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107
3.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124
<b>IV.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b>	<b>135</b>
1. 출산 및 육아휴직 등	137
2. 가족돌봄제도	143
3. 직장 지원 제도	146
4. 유연근무제도	148
5. 육아시간 지원 제도 개선 요구	153

---

<b>V.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분석</b>	<b>161</b>
1. 심층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개요 .....	163
2.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	169
3. 농어촌(부스터표본)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	179
4. 농어촌(부스터표본)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 활용 격차와 지원 요구 .....	191
5. 농어촌 영유아 가구 심층 면담 .....	214
<b>VI. 영유아 가구 정부지원금 수급 및 부모급여의 효과성</b>	<b>223</b>
1. 심층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개요 .....	225
2. 영유아 가구 정부지원금 수급 현황 .....	227
3. 부모급여의 양육부담 경감 효과 분석 .....	235
<b>VII. 결론 및 정책 제언</b>	<b>257</b>
1. 영유아 현금 급여 지원 체계 정비 .....	259
2.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	264
3. 연장보육 및 육아시간 지원 제도 실효성 제고 .....	269
4. 과도한 시간제 사교육 방지를 위한 지원 강화 .....	274
5. 농어촌 영유아 가구 육아 지원 강화 .....	277
<b>참고문헌</b>	<b>285</b>
<b>Abstract</b>	<b>289</b>

---



## 표 목차

〈표 Ⅰ-2-1〉 2025년 주요 연구 내용 .....	27
〈표 Ⅰ-3-1〉 영유아 부모 심층 면담 응답자 특성 현황: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 .....	29
〈표 Ⅰ-3-2〉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 .....	29
〈표 Ⅰ-5-1〉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특성(2018~2024년) .....	32
〈표 Ⅰ-5-2〉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의 자녀 구성(2018~2024년) .....	33
〈표 Ⅰ-5-3〉 지역규모별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18~2024년) .....	33
〈표 Ⅰ-5-4〉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여부(2024년) .....	34
〈표 Ⅰ-5-5〉 KICCE 소비실태조사 부모 특성(2024년) .....	35
〈표 Ⅰ-5-6〉 KICCE 소비실태조사 부모 근로 특성(2024년) .....	35
〈표 Ⅰ-5-7〉 아동 자료 특성 변화: 성별(2018~2024년) .....	36
〈표 Ⅰ-5-8〉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아동 표본 특성(2018~2024년): 영유아 .....	37
〈표 Ⅱ-1-1〉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2018~2024년, 영유아 가구) .....	42
〈표 Ⅱ-1-2〉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가구지출 총액(2024년) ..	42
〈표 Ⅱ-1-3〉 월평균 생활비 지출: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 (2018~2024년, 명목비용) .....	44
〈표 Ⅱ-1-4〉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2018~2024년, 영유아 가구표본) ..	45
〈표 Ⅱ-1-5〉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4년, 영유아 가구표본) .....	45
〈표 Ⅱ-1-6〉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2018~2024년) .....	46
〈표 Ⅱ-1-7〉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2018~2024년, 명목비용) .....	46
〈표 Ⅱ-1-8〉 가구특성별 세목별 월평균 가구소득(2024년): 명목비용 .....	47
〈표 Ⅱ-2-1〉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4년): 영유아 가구 .....	49
〈표 Ⅱ-2-2〉 비목별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4년, 명목비용) ..	49
〈표 Ⅱ-2-3〉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8~2024년) .....	50

---

〈표 II-2-4〉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2018~2024년, 영유아 가구) .....	51
〈표 II-2-5〉 월평균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4년) .....	52
〈표 II-2-6〉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4년, 월평균, 명목비용) .....	53
〈표 II-2-7〉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8~2024년) ..	54
〈표 II-2-8〉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4년, 명목비용) ..	55
〈표 II-2-9〉 가구특성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4년, 명목비용) .....	56
〈표 II-2-10〉 가구특성별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9~2024년) .....	57
〈표 II-2-11〉 가구특성별 가구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9~2024년) .....	58
〈표 II-3-1〉 거주 주택 종류 .....	59
〈표 II-3-2〉 거주 형태 .....	60
〈표 II-3-3〉 주택의 주거비 부담 정도 .....	61
〈표 II-3-4〉 자녀양육과 거주지 선택 관련성 .....	62
〈표 II-3-5〉 자녀 양육 시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주요 조건 .....	63
〈표 II-4-1〉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변화(2018~2024년) ..	64
〈표 II-4-2〉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변화(2018~2024년) .....	65
〈표 II-4-3〉 가구특성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2024년) .....	66
〈표 II-4-4〉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적 지출 축소 비목 변화 (2022~2024년) .....	67
〈표 II-4-5〉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적 지출 축소 비목(2024년) .....	67
〈표 II-4-6〉 아이 1명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시기별 양육비용 변화 (2022~2024년) .....	68
〈표 II-4-7〉 아이 1명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시기별 양육비용(2024년) .....	68
〈표 II-4-8〉 자녀 양육 시 경제적 지원 시기 변화(2022~2024년) .....	69
〈표 II-4-9〉 삶의 만족도 변화(2023~2024년) .....	70
〈표 II-4-10〉 시기별 사회경제적 위치 변화(2023~2024년) .....	70
〈표 II-4-11〉 시기별 사회경제적 위치(2024년) .....	71
〈표 III-1-1〉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2018~2024년) .....	75
〈표 III-1-2〉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2024년) .....	77

---

---

〈표 Ⅲ-1-3〉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2024년) ……	78
〈표 Ⅲ-1-4〉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 설립 유형(2024년) ……	79
〈표 Ⅲ-1-5〉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학원 유형(2024년) …	80
〈표 Ⅲ-1-6〉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타 육아서비스 유형(2024년) ……	80
〈표 Ⅲ-1-7〉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비중 및 이용자 수 (2018~2024년) ……	81
〈표 Ⅲ-1-8〉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2018~2024년) …	81
〈표 Ⅲ-1-9〉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 (2018~2024년) ……	82
〈표 Ⅲ-1-10〉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하루 평균 이용시간 (2024년) ……	83
〈표 Ⅲ-1-11〉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의 충분성 정도(2024년) …	84
〈표 Ⅲ-1-12〉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늘리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2024년) …	85
〈표 Ⅲ-1-13〉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이유(2024년) ……	86
〈표 Ⅲ-1-14〉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줄이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2024년) …	86
〈표 Ⅲ-1-15〉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 (명목비용, 2018~2024년) ……	87
〈표 Ⅲ-1-16〉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 (2024년) ……	88
〈표 Ⅲ-1-17〉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만족도(2018~2024년) ……	89
〈표 Ⅲ-1-18〉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 여부 및 희망하는 양육 형태(2024년) ……	90
〈표 Ⅲ-1-19〉 아동연령별 가장 희망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 (2024년) ……	90
〈표 Ⅲ-1-20〉 연도별 시간제 교육 이용(2018~2024년) ……	91
〈표 Ⅲ-1-21〉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유형별 이용 과목(2024년) ……	92
〈표 Ⅲ-1-22〉 영유아의 문화센터 이용기관(2024년) ……	93
〈표 Ⅲ-1-23〉 영유아의 문화센터 유형별 이용 과목(2024년) ……	93
〈표 Ⅲ-1-24〉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주당 이용 시간(2018~2024년) …	94
〈표 Ⅲ-1-25〉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명목비용, 2018~2024년) ……	94
〈표 Ⅲ-1-26〉 시간제 교육 서비스 만족도(2018~2024년) ……	95

---

---

〈표 Ⅲ-1-27〉 단시간 학원비용 만족도(2024년) .....	96
〈표 Ⅲ-1-28〉 비대면 기타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개선 필요 사항 (2021~2024년) .....	96
〈표 Ⅲ-1-29〉 사교육비용 부담 정도(2024년) .....	97
〈표 Ⅲ-1-30〉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2020~2024년) .....	98
〈표 Ⅲ-1-31〉 영유아의 기타서비스 이용 현황(2018~2024년) .....	99
〈표 Ⅲ-1-32〉 기타서비스 유형별 만족도(2018~2024년) .....	100
〈표 Ⅲ-1-33〉 시간제 일시보육 범주별 만족도(2022~2024년) .....	101
〈표 Ⅲ-1-34〉 키즈카페 이용 이유(2018~2024년) .....	102
〈표 Ⅲ-1-35〉 가구특성별 키즈카페 이용 이유(2024년) .....	103
〈표 Ⅲ-1-36〉 키즈카페 이용하지 않는 이유(2021~2024년) .....	104
〈표 Ⅲ-1-37〉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이유(2022~2024년) .....	105
〈표 Ⅲ-1-38〉 가구특성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이유(2024년) .....	105
〈표 Ⅲ-1-39〉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하지 않는 이유(2022~2024년) .....	106
〈표 Ⅲ-1-40〉 가구특성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하지 않는 이유(2024년) .....	106
〈표 Ⅲ-2-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2019~2024년, 중복응답) .....	108
〈표 Ⅲ-2-2〉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2024년, 중복응답) .....	109
〈표 Ⅲ-2-3〉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2019~2024년) .....	110
〈표 Ⅲ-2-4〉 민간도우미 구인 경로: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가정 (2022~2024년) .....	111
〈표 Ⅲ-2-5〉 가정 내 양육 및 부모 직접 돌봄 및 미디어 이용 시간 (2021~2024년) .....	111
〈표 Ⅲ-2-6〉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및 부모 직접 돌봄 시간(2024년) .....	112
〈표 Ⅲ-2-7〉 가구특성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2024년) .....	113
〈표 Ⅲ-2-8〉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의 부담 정도 변화 (2021~2024년) .....	114
〈표 Ⅲ-2-9〉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의 부담 이유 (2021~2024년, 순위별) .....	114
〈표 Ⅲ-2-10〉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의 부담 이유: 1순위 .....	115
〈표 Ⅲ-2-11〉 가구특성별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기기 사용 (TV, PC, 전자기기 등) 허용 여부 (2022~2024년) .....	116
〈표 Ⅲ-2-12〉 가구특성별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이용여부(2021~2024년) .....	117

---

---

〈표 Ⅲ-2-13〉 장난감/도서 대여 이용 빈도(2021~2024년) .....	117
〈표 Ⅲ-2-14〉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1년~2024년) .....	118
〈표 Ⅲ-2-15〉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여부 및 횟수(2021~2023년) .....	119
〈표 Ⅲ-2-16〉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1~2023년) .....	119
〈표 Ⅲ-2-17〉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정책 방향 (2021~2023년, 1+2순위) .....	120
〈표 Ⅲ-2-18〉 부모 지원 서비스별 이용 여부 및 이용횟수(2021~2024년) ..	121
〈표 Ⅲ-2-19〉 부모 지원 서비스별 제공기관(2021~2024년) .....	121
〈표 Ⅲ-2-20〉 부모 지원 서비스별 내용 분야(2021~2024년, 1+2순위) .....	122
〈표 Ⅲ-2-21〉 부모 지원 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 여부, 유료 여부 및 만족도(2021~2024년) .....	123
〈표 Ⅲ-2-22〉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2021~2024년, 1+2순위) ..	124
〈표 Ⅲ-3-1〉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어린이집 이용 자녀에 대한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2018~2024년) .....	125
〈표 Ⅲ-3-2〉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어린이집 이용 자녀를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2018~2024년) .....	125
〈표 Ⅲ-3-3〉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유치원 이용자녀에 대한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2018~2024년) .....	126
〈표 Ⅲ-3-4〉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유치원 이용자녀를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2018~2024년) .....	127
〈표 Ⅲ-3-5〉 정부 지원 부족 부분 변화(2018~2024년) .....	128
〈표 Ⅲ-3-6〉 가구특성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2024년) .....	129
〈표 Ⅲ-3-7〉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2018~2024년) .....	130
〈표 Ⅲ-3-8〉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2018~2024년) .....	130
〈표 Ⅲ-3-9〉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2018~2024년) .....	131
〈표 Ⅲ-3-10〉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2018~2024년) .....	132
〈표 Ⅲ-3-11〉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2018~2024년) .....	133
〈표 Ⅲ-3-12〉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2018~2024년) .....	133
〈표 Ⅲ-3-13〉 육아지원 부족한 시기 변화(2022~2024년) .....	134
〈표 Ⅲ-3-14〉 시기별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2022~2024년) .....	134
〈표 Ⅳ-1-1〉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2021~2024년) .....	137

---

---

〈표 IV-1-2〉 가구특성별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부, 2024년) .....	138
〈표 IV-1-3〉 가구특성별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모, 2024년) .....	139
〈표 IV-1-4〉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2022~2024년) .....	139
〈표 IV-1-5〉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2024년: 주당) .....	140
〈표 IV-1-6〉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도움정도 (2023~2024년) .....	140
〈표 IV-1-7〉 출산휴가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	141
〈표 IV-1-8〉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	142
〈표 IV-1-9〉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2023~2024년) .....	142
〈표 IV-2-1〉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2021~2024년) .....	143
〈표 IV-2-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 변화 (2022~2024년: 주당) .....	143
〈표 IV-2-3〉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움정도(2023~2024년) .....	144
〈표 IV-2-4〉 가족돌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	144
〈표 IV-2-5〉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	145
〈표 IV-2-6〉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2023~2024년) .....	145
〈표 IV-3-1〉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휴직, 자녀돌봄 휴가 제도 유무 (2023~2024년) .....	146
〈표 IV-3-2〉 부모의 직장 내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휴직, 자녀돌봄 휴가 제도 이용 경험(2023~2024년) .....	147
〈표 IV-3-3〉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휴직, 자녀돌봄 휴가 제도 도움정도 (2023~2024년) .....	147
〈표 IV-4-1〉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변화(2021~2024년) .....	148
〈표 IV-4-2〉 유연근무제도 도움 정도 변화(2023~2024년) .....	149
〈표 IV-4-3〉 재택근무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	149
〈표 IV-4-4〉 시차출퇴근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	150
〈표 IV-4-5〉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	151

---

---

〈표 IV-4-6〉 원격근무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	151
〈표 IV-4-7〉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2023~2024년) .....	152
〈표 IV-4-8〉 탄력적 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	152
〈표 IV-4-9〉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2023~2024년) .....	153
〈표 IV-5-1〉 개선이 필요한 육아 시간 지원 정책 변화(2023~2024년) .....	154
〈표 IV-5-2〉 개선이 필요한 육아 시간 지원 정책: 1+2순위(2024년) .....	155
〈표 IV-5-3〉 가족돌봄휴직/휴가 개선방향: 1+2순위(2024년) .....	156
〈표 IV-5-4〉 육아휴직 개선방향: 1+2순위(2024년) .....	157
〈표 IV-5-5〉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선방향: 1+2순위(2024년) .....	158
〈표 IV-5-6〉 출산휴가 개선방향: 1+2순위(2024년) .....	159
〈표 IV-5-7〉 유연근무 개선방향: 1+2순위(2024년) .....	160
〈표 V-1-1〉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 특성 .....	166
〈표 V-1-2〉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 부모 특성 .....	167
〈표 V-1-3〉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 부모 근로 특성 .....	168
〈표 V-1-4〉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 아동 특성 .....	169
〈표 V-2-1〉 농어촌(부스터표본)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 .....	170
〈표 V-2-2〉 가구특성별 농어촌(부스터표본)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	171
〈표 V-2-3〉 가구특성별 농어촌(부스터표본)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	172
〈표 V-2-4〉 농어촌(부스터표본) 지자체 및 직장 출산지원금 .....	173
〈표 V-2-5〉 농어촌(부스터표본)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월평균) ..	174
〈표 V-2-6〉 농어촌(부스터표본)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	175
〈표 V-2-7〉 농어촌(부스터표본)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	176
〈표 V-2-8〉 농어촌(부스터표본)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적 지출 축소 비목 .....	177
〈표 V-2-9〉 농어촌(부스터표본) 거주 주택 종류 .....	177
〈표 V-2-10〉 농어촌(부스터표본) 거주 형태 .....	178
〈표 V-2-11〉 농어촌(부스터표본) 주택의 주거비 부담 정도 .....	178
〈표 V-3-1〉 농어촌(부스터표본)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	179
〈표 V-3-2〉 농어촌(부스터표본)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 .....	180
〈표 V-3-3〉 농어촌(부스터표본)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 .....	180

---

---

〈표 V-3-4〉 농어촌(부스터표본)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	181
〈표 V-3-5〉 농어촌(부스터표본) 문화센터 이용기관 .....	181
〈표 V-3-6〉 농어촌(부스터표본)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시간 .....	182
〈표 V-3-7〉 농어촌(부스터표본)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	182
〈표 V-3-8〉 농어촌(부스터표본) 사교육 비용 부담정도 .....	183
〈표 V-3-9〉 농어촌(부스터표본) 기타서비스 이용 현황 .....	184
〈표 V-3-10〉 농어촌(부스터표본)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중복응답) .....	185
〈표 V-3-11〉 농어촌(부스터표본)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시간 .....	185
〈표 V-3-12〉 농어촌(부스터표본)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	186
〈표 V-3-13〉 농어촌(부스터표본)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 정도 ..	186
〈표 V-3-14〉 농어촌(부스터표본)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이유: 1+2순위 .....	187
〈표 V-3-15〉 농어촌(부스터표본)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이용 여부 .....	188
〈표 V-3-16〉 농어촌(부스터표본)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제공기관 .....	189
〈표 V-3-17〉 농어촌(부스터표본)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이용 여부 및 횟수	189
〈표 V-3-18〉 농어촌(부스터표본)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제공기관 .....	190
〈표 V-3-19〉 농어촌(부스터표본)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정책 방향: 1+2순위 .....	191
〈표 V-4-1〉 농어촌(부스터표본) 자녀양육과 거주지 선택 관련성 .....	192
〈표 V-4-2〉 농어촌(부스터표본) 자녀 양육 시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주요 조건 .....	193
〈표 V-4-3〉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정도: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 .....	194
〈표 V-4-4〉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불충분 이유: 보육, 교육, 돌봄기관 및 서비스 .....	196
〈표 V-4-5〉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정도: 문화 및 놀이시설 및 서비스 .....	198
〈표 V-4-6〉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불충분 이유: 문화 및 놀이시설 및 서비스 .....	200
〈표 V-4-7〉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정도: 보건/의료시설 .....	201
〈표 V-4-8〉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불충분 이유: 보건/의료시설 .....	203

---

---

〈표 V-4-9〉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정도: 지역 공동체	204
〈표 V-4-10〉 농어촌 지역의 육아 어려움	205
〈표 V-4-11〉 농어촌(부스터표본) 육아의 장점(순위별)	206
〈표 V-4-12〉 보육,교육,돌봄 및 문화,놀이시설 등 충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 OLS	207
〈표 V-4-13〉 보건의료시설 및 지역공동체 충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 OLS	208
〈표 V-4-14〉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 격차: oaxaca decomposition	211
〈표 V-4-15〉 농어촌(부스터표본)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12
〈표 V-4-16〉 시기별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213
〈표 V-5-1〉 농어촌 영유아 가구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214
〈표 VI-2-1〉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률(2024년): 2022. 1. 1. 이후 출생아	227
〈표 VI-2-2〉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률(2024년): 2021. 12. 31. 이전 출생아	228
〈표 VI-2-3〉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률(2024년):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급여	228
〈표 VI-2-4〉 지자체 출산지원금(2024년)	229
〈표 VI-2-5〉 직장 출산지원금(2024년)	230
〈표 VI-2-6〉 부모급여 활용처: 1+2순위	231
〈표 VI-2-7〉 첫만남 이용권 활용처: 1+2순위	232
〈표 VI-2-8〉 현금성 지원금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정도	233
〈표 VI-2-9〉 세제 혜택 수혜 여부(2019~2024년)	234
〈표 VI-2-10〉 세제혜택 구체적 지원금액 인지 비율(2019~2024년)	234
〈표 VI-3-1〉 조사시점별 코호트 연령	237
〈표 VI-3-2〉 코호트별 부모급여 유형에 따른 현금지급액	237
〈표 VI-3-3〉 가구특성별 기초 통계량: 0세	239
〈표 VI-3-4〉 부모 및 아동특성별 기초 통계량: 0세	240
〈표 VI-3-5〉 급여형태별 기초 통계량: 0세	241
〈표 VI-3-6〉 가구특성별 기초 통계량: 1세	242
〈표 VI-3-7〉 부모 및 아동특성별 기초 통계량: 1세	243
〈표 VI-3-8〉 급여형태별 기초 통계량: 1세	243

---

---

〈표 VI-3-9〉 코호트별 부모급여 평균 현금수급액 및 월평균 양육비용	244
〈표 VI-3-10〉 코호트별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	245
〈표 VI-3-11〉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7
〈표 VI-3-12〉 코호트별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 0-1세	249
〈표 VI-3-13〉 가구소득별, 자녀수별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 0세	249
〈표 VI-3-14〉 가구소득별, 자녀수별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 1세	250
〈표 VI-3-15〉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252
〈표 VI-3-16〉 코호트별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0세	253
〈표 VI-3-17〉 코호트별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1세	254

---

---



## 그림 목차

[그림 Ⅲ-1-1]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2018~2024년) .....	76
[그림 Ⅵ-3-1] 부모급여 도입 전후 지급 비교 .....	236
[그림 Ⅶ-1-1] 아동 대상 현금 급여 지원 체계 정비 방안 .....	262
[그림 Ⅶ-3-1] 유보통합 시범학교의 운영 시간 구성 .....	272



## 1. 서론

###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 지출 행태를 매년 조사해왔으며, 표본 추적 조사 등을 통한 패널 자료의 성격을 갖추고 있어, 정책 변화에 따른 영유아 가구의 행태 변화를 연구하기에 매우 적합한 자료임.
- 올해 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조사 연구 및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부터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까지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분석 연구를 분권 제작하였음.
  - 이 연구는 보고서의 하권으로,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기초 분석 및 심층 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함.
- 2025년 하권은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7차년도(2024년) 자료를 활용한 기초분석과 심층 분석으로 구성됨.
  - 기초분석은 크게 영유아 가구의 가계 지출 및 양육비용에 관한 부분과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활용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됨.
    - 영유아 가구의 가계 지출 및 양육비용에 관한 부분과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핵심 주제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계열 자료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음.
  - 심층 분석 주제는 2024년 부스터표본 조사 실시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 방안 및 부모급여의 효과성(코호트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심층분석 1: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 방안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에서 부스터표본으로 조사된 농어촌 표본은 도농복합지를 제외한 순수한 읍면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 지출 양태 뿐 아니라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등이 기존의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의 고충 및 제도 개선 요구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심층분석 2: 부모급여 효과성 분석
  - 2023년 제도 도입 이후의 부모급여 수급 여부를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출생코호트를 고려한 각 연령별 코호트 분석을 실시하고, 2024년 수급액 증가와 같은 정책 변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부모급여의 효과성을 보다 정밀하고 명확하게 추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향후 아동 대상의 급여 정책의 발전적 방향과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숙고하고자 함.

## 나. 연구 내용

□ 2025년 하권의 연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기초분석	주제별 심층 분석
주요 설문 및 연구 내용	<b>영유아 가구의 일반 특성</b>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 가구소득, 아동 및 영유아 특성 등  <b>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b> (시계열 분석 중심) -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 영유아 양육비용 실태  <b>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b> (시계열 분석 중심) -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b>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b>	<b>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요구</b> -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육아 서비스 활용 실태 -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의 육아 인프라 이용 격차 및 제도 개선 요구  <b>부모급여 효과성 분석</b> - 양육비용 총분성 및 급여 지원 수준의 효과 분석 - 출생코호트 비교 중심

##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4)를 활용한 자료 분석

- 기 구축 완료된 총 7개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분석 및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음. 심층 분석 주제인 농어촌 영유아 가구 관련 분석은 2024년에 실시된 부스텨표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함.

## □ 심층 면담(FGI)

-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의 정책적 요구를 고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하여 영유아 자녀의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표본 대상인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집단 면담 방식으로 진행함.

##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 연구 방향 설정, 조사 설계, 설문 문항 수정 및 보완, 연구 결과의 타당성 검토, 정책 방안 도출 등 연구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10회 실시함.

## 라. 농어촌 지역의 정의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표본 조사에서 의미하는 농어촌 지역이란,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속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도농복합지역을 제외한 순수한 농어촌 지역만을 부스터표본의 표집 대상 지역으로 삼음.
- 읍면지역은 본조사 기준 지역규모를 지칭하는 읍면지역(도농복합지 포함)과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표본인 농어촌 지역(도농복합지 제외)으로 구분되므로 주의가 요구됨.

## 마.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응답자 특성

- 2018년 1,648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7차년도) 1,821가구임.
- 전년도 조사 표본 추적 조사, 이탈 가구 대체조사 시행 및 매해 신규(신생아) 표본을 구축으로 해마다 전체 표본이 조금씩 증가함.
- 평균 가구원 수는 2018년(1차년도) 3.8명에서 2019년(2차년도) 3.9명으로 증가한 이후 유지되다가 2023년(6차년도) 3.8명으로 줄어든 후 유지되고 있음.
- 맞벌이 가구는 49.3%로 나타남.
- 가구당 평균 자녀수는 2018년(1차년도) 1.7명에서 2019년(2차년도) 1.8명으로 늘어난 이후 2024년(7차년도)까지 유지하고 있음.
- 지역규모별 표본의 특성에서 대도시 비중은 39.7%로 나타남. 읍면지역은 15.0%로 나타남.

□ 부모특성

- 모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모보다 부의 연령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와 모의 학력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거나, 부의 학력이 모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부는 97.7%가 취업 상태인 반면 모는 40.9%만이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부는 임금근로자가 79.7%, 비임금근로자는 18.0%로 나타났으며, 모는 임금근로자는 31.6%, 비임금근로자는 9.3%로 나타남.

□ 아동표본

- 2018년(1차년도) 2,277명에서 증가하여 2024년(7차년도) 2,434명으로 나타남. 그 중 남아는 2018년(1차년도) 51.1%로 여아 48.9%보다 많았고, 이후 남아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다 2024년(7차년도)에 51.0%로 나타남.

## 2.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와 양육비용

### 가.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 영유아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은 명목비용 기준 2024년 388만8천원으로, 2023년에 비해 11만3천원가량 상승함. 실질비용 환산 시 2024년 생활비 지출 총액은 339만1천원으로 2023년 339만5천원에 비해 소폭 하락함.
- 엔젤지수: 2024년 기준 29.1로, 202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코로나 19 초기였던 2020년(3차년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슈바베지수<sup>1)</sup>: 1차년도(2018년)~7차년도(2024년) 기간 동안 변동이 크지 않고 꾸준히 8점대 수준을 보였으며, 2024년에는 8.1이었음.
- 엔젤지수<sup>2)</sup>: 2024년 26.6으로, 2023년에 비해서는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를 보였음.

---

1) 가구 생활비 중 주거비의 비중

2) 생활비 지출 총액 중 양육비의 비중

## □ 가구소득

- 가구소득은 2024년 명목비용 기준 579만7천원으로 2023년 560만1천원에 비해 19만6천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실질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2024년 기준 505만7천원임.
- 맞벌이 가구들은 2023년 대비 명목비용 기준 소득이 36만4천원 증가한 데 반해, 외벌이 가구들은 3만3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다자녀 가구가 가구소득도 많은 특징은 유지되었으며, 대도시나 중소도시 에 비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소득의 수준이 40만원 이상 적은 현상이 발견됨.

## 나.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 □ 가구당 양육비용

- 2024년 명목비용 기준 149만8천원으로, 전년도인 2023년 150만6천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실질 비용 환산 시 2024년은 130만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4만7천원 감소함.
- 비목별로는 교육보육비(42만6천원), 식비(34만5천원), 여가문화생활비(24만2천원) 순으로, 양육비용 지출 양태 자체는 전년도와 큰 변화 없었음.
-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은 2024년 28.0%로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비해서는 1%p가량 높은 수치를 보임.
- 가구특성별로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에서 가구당 양육비용이 67.6%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생활비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은 2024년 기준 36.8%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

## □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 명목비용은 2024년 78만5천원으로 2023년 80만7천원에 비해 2만2천원이 감소한 수치를 보임. 실질비용 환산 시 68만4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자녀의 연령별로 2세가 69만원으로 가장 낮고, 6세가 92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음. 2024년에는 2세 이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양육비용도 증가하지만, 0세와 1세의 양육비용은 2세에 비해 높은 현상이 발견됨.
- 가구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은 2024년 19.9%로, 전년에 비해 1.4%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비목별로는 식비(18만7천원), 교육/보육비(18만2천원), 여가 및 문화생활비(13만9천원) 순이었음.
- 가구특성별로는 맞벌이 가구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높은 경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음.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서 감소폭이 확연하게 큰 현상이 발견됨.
- 2024년 기준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가구소득 대비 14.8%, 가구 생활비 대비 19.9%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경향이 발견됨. 299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생활비 감소폭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다. 영유아 가구의 주거 환경 및 거주지 선택

- 응답 대상 가구의 85.6%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10.4%였음. 거주 형태는 자가(57.9%), 전세(29.5%), 월세(7.1%) 등이었음.
- 자녀양육과 거주지 선택 관련성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2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과 가까이 살기 위해'가 20.1%였음.
- 2024년 응답 기준 자녀 양육 시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주요 조건으로 아동 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이 31.2%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26.4%),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25.0%) 순이었음.

#### 라. 양육 부담 및 삶의 만족도

##### □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인식은 1차년도(2018년)는 약간 낮았으나, 이후 3점(보통)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은 2024년에도 교육보육비가 가장 높긴 하나, 그 비중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식비가 부담된다는 응답(24.8%)이 201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 지출 축소 비목으로 식비를 줄인다는 응답이 꾸준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보육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6.4%에 그쳐, 매해 유지되는 경향성이라 볼 수 있음.

#### □ 영유아 가구의 삶의 만족도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2024년 기준 평균 3.5점으로,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3.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 가.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 반일제이상 기관

-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소폭 감소(2018년 51.1% → 2024년 49.5%)했고, 유치원 이용 비율은 유사한 수준(2018년 27.7% → 2024년 27.9%)이었으며, 반일제이상 학원 등은 2024년 1.1%였음.
  - 미이용 비율은 2018년에는 18.0%에서 2020년 27.6%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4년에는 21.4%로 나타났음.
-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이용 비율은 72.1%,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은 79.8%, 반일제이상 학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은 39.2% 임
-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대체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35~36시간 내외, 반일제이상 학원은 28~35시간까지로 해마다 다르게 나타남.
- 월평균 이용비용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비용이 큰 변동이 없었던 것에 비해 반일제이상 학원비용은 7차년도(2024년)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120만3천원으로 나타나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음.
- 서비스 만족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만족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함.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평균 점수는 매해 4.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 시간제 교육

- 연도별 시간제 교육 이용을 살펴보면<sup>3)</sup>, 유형에 따라 이용률이 다른 증감 양상을 보임.
  - 주로 단시간 학원(23.2%), 방문형 학습지(23.2%), 문화센터(12.1%)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7%였음.
  - 단시간 학원의 경우에는 체육(61.9%), 미술(35.4%) 등의 예체능 과목을, 방문형 학습지는 한글(44.3%), 수학 및 과학(28.9%)으로 학습 위주 과목들을 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었음.
-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주당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단시간 학원 4.3시간, 방문형 학습지의 경우 매해 주당 0.6시간, 방문형 학습지의 경우 0.7시간 등임.
- 월평균 이용비용은 2024년 기준 단시간 학원이 20만7천원, 방문형 학습지 9만9천원,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13만3천원, 개인지도 및 그룹활동 20만7천원 등임.

#### □ 기타서비스(시간제 일시보육)

- 기타서비스 이용 비중은 7차년도(2024)에 1.3%였으며, 월평균 이용 횟수 13.5회, 회당 이용 시간 4.0시간으로 가장 많았음.
- 월평균 비용은 1차년도(2018년)부터 5차년도(2022년)까지 7만원 아래를 유지하다가 6차년도(2023년)에 13만6천원으로 급증한 이후 7차년도(2024)에 11만6천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 나.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 전체 영유아 가구 중 개별돌봄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는 2024년 기준 11.9%임.
  - 제공자는 조부모라는 응답률이 매해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3차년도(2020년)만 제외하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로 나타남.

3) EBS 방송시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교육에 해당함.

-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 3차년도(2020년)를 제외하면 6.5~8.7% 비중을 유지하다가 7차년도(2024년)에 10.3%로 다소 증가함.
-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은 3차년도(2020년) 11.9%에서 6차년도(2023년) 7.5%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7차년도(2024년)에 3.7%까지 떨어졌음.

□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 가정 내 양육 시간은 평일 8시간 내외, 주말 13시간 내외였고, 2024년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평일 7.9시간, 주말 13.1시간이었음.
- 가정 내 양육 및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은 평일의 경우 맞벌이 가구가,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주말의 경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더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 미디어 이용 시간은 평일 1.1시간, 주말 1.7시간으로, 해마다 차츰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률은 2023년에 8.9%로 가장 높았으며, 도서 대여 서비스 이용률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여 2024년에 19.3%로 가장 높았음.
-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 비율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0.2%로 가장 높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5.2%를 기록함.

□ 부모 지원 서비스

- 부모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관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음.
- 부모교육 이용경험은 2021년 7.7%에서 2023년 14.7%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24년 12.4%로 다소 감소함.
- 부모상담의 경우 이용경험이 2021년 11.4%에서 2023년 21.3%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24년에 16.4%로 감소하였고 이용횟수는 1.4회를 유지함.
- 육아멘토의 경우 이용경험은 3개년 모두 1.0% 이하로 가장 낮았으며, 이용 횟수는 2021년 2.3회였으나 2024년에는 1.6회로 감소함.

다.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희망하는 양육형태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의 양육(31.2%)을 원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희망하는 양육형태는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26.2%)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원 등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형태의 양육과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의 양육을 원하는 비율(25.2%)도 유사하게 높았음.
-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있어서 정부 지원 중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에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4.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

##### 가. 출산 및 육아휴직 등

- 영유아 가구 부모의 휴가/휴직 이용 경험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모두 해마다 이용률이 증가하여 4년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집단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30~33시간 정도의 분포를 보였음.
  - 지난 2년간의 휴가/휴직의 도움 정도는 모두 4.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전반적으로 부모다는 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나. 가족돌봄제도

-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부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족돌봄휴가는 부의 경우 점차 늘어나다 7차년도에 다시 감소하였고, 모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지난 3년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은 부 29.5~30.0시간, 모 27.0~28.8시간으로 부의 근로시간이 모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 다. 직장 지원 제도

-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 등 이 외에도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제도 관련하여 부모 모두 2024년에 각 제도가 있다는 비율이 증가하였음.
  - 도움 정도는 모든 제도에서 평균 4.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라. 유연근무제도

- 부모의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을 4~7차년도 자료로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용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기타 유형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 유연근무제도의 도움 정도는 3.8~4.6점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마. 육아시간 지원 제도 개선 요구

- 2024년에는 대체적으로 2023년에 비해 육아휴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였음.
  - 1+2순위의 경우, 2023년에는 가족돌봄 휴직/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 순이었으며, 2024년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 가족돌봄 휴직/휴가 순이었음.
  -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가족돌봄 휴직/휴가의 경우 전체적으로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49.6%)이,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용 지원의 확대(53.7%)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48.6%)가, 유연근무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49.4%)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음.

## 5.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분석

### 가. 심층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개요

- 심층 분석 필요성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024년 부스터표본으로 순수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 162가구를 추가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농어촌 영유아 가구가 처한 육아 현실을 개관하고 실효성 높은 육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2024년 조사된 ‘KICCE 소비실태조사’ 부스터표본뿐 아니라 본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농어촌 지역 영유아 가구가 처한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음.

□ 분석 자료 및 분석 내용

- 심층 분석은 2024년 조사된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 분석의 내용은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육아서비스 이용, 그리고 거주 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 인식과 육아지원 요구 등임.
- 거주 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대한 분석은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결과의 기초 분석뿐 아니라 회귀 분석(OLS) 및 오히카 요인 분해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도농 지역 간 인식 격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보았음.

나.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 생활비 지출 및 소득

- 월평균 생활비는 총 332만5천원으로, 본조사(전체 영유아 가구) 표본<sup>4)</sup>에 비해 19만3천원가량 적은 것으로 분석됨.
  - 대부분 비목에서 비목별 비중이 유사하였지만, 본조사 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보다 식비(외식비 포함)에서 10만6천원을, 교육/보육비에서는 17만9천원을 더 지출하였음.
-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가구소득은 529만6천원으로 본조사 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가구소득보다 50만1천원 더 높았음.

□ 농어촌(부스터표본) 양육비용 실태

-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월평균 69만9천원으로 본조사의 78만5천원보다 8만6천원이 적었음.
-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은 식비로 27.8%였으며, 부담되는 비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4.8%로 나타남.

다. 농어촌(부스터표본)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 농어촌(부스터표본)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어린이집을 62.6%가, 유치원을 23.2%가 이용하고 있었고,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도 14.2%가 있었음.

4) 이하 '본조사 표본'으로 표기

-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유치원이 39시간, 어린이집이 38.6시간으로 어린이 집보다 유치원을 약 24분 더 오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은 어린이집의 경우 농어촌(부스터표본)은 4만원, 본조사 표본은 8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유치원 또한 농어촌(부스터표본)의 이용비용(2만8천원)보다 본조사 표본의 월평균 이용비용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은 단시간 학원이 16.1%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형 학습지(12.8%), 문화센터(10.0%) 순이었고,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0%로 본조사 표본에 비해 5.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 농어촌(부스터표본)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농어촌(부스터표본)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와 조부모·친인척의 활용이 높고,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은 거의 없는 반면, 본조사 표본은 민간 육아도우미와 조부모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정 내 양육과 부모 직접 돌봄은 평일 7시간10분, 주말 13시간30분,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은 평일 7시간29분, 주말 13시간34분이었음.
-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평일 1시간19분, 주말 2시간5분으로 본조사 표본보다 이용시간이 전체적으로 더 길었음.

### 라. 농어촌(부스터표본)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 활용 격차와 지원 요구

#### □ 자녀 양육과 거주 선택 관련성

- ‘아빠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가 26.4%로 가장 많은 반면, 본조사에서는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의 집에 살기 위해서’가 23.7%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음.
- 자녀 양육 시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주요 조건은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30.9%)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본조사에서는 ‘아동 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31.2%)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 거주지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

-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충분 정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통 수준으로, 본조사 표본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고, 학원 사교육 기관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큰 편차를 보였음.

- 거주지역의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의 충분 정도는 평균 점수가 2점 후반에서 4점대의 점수를 보였으며, 본조사 표본과 농어촌(부스터표본) 간 큰 편차를 보였음.
- 거주지역의 보건/의료시설의 충분성은 전반적으로 본조사의 평균 점수가 농어촌(부스터표본)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으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충분 정도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은 평균 2.7점인데 반해 본조사는 4.4점이 나와, 큰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함에 따르는 육아 어려움 관련하여 5점 만점 기준 보통 수준(3점대)이었고,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 육아의 장점 1순위(54.3%)로 아이의 신체 건강이나 정서 발달에 좋은 자연 친화적 환경이라고 답했음.

□ 농어촌 지역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 활용 격차 분석

-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대한 인식에 영유아 가구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OLS 분석하고, 인식의 격차가 가구 특성 등의 차이에 근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별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검증해 봄.
- 농어촌 영유아 가구가 느끼는 보육, 교육,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가구원수,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 모학력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됨.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들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들에 비해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히려 요인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차이적 특성보다는 차별적 특성이 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부스터표본)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45.1%)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25.3%), 기저귀 등 양육 물품 지원(10.5%)의 순으로 나타남.
- 시기별(임신·출산기, 영아기, 유아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육아지원 범주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기 전 시기에 걸쳐 비용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마. 농어촌 영유아 가구 심층 면담

### □ 심층 면담 개요

-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정성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 2개 집단, 총 10명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음.

### □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충분성에 대한 인식

- 상대적으로 충분한 편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음.
- 농어촌 특성상 휴일(토요)돌봄이나 긴급 돌봄 등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충분성에 대한 인식

- 자녀수에 따라 큰 인식 차를 보였고, 대부분 시설 추가 확충보다는 인근 생활권역까지의 교통 편의성 제고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라도 이용 편의성 증진을 더욱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음.
- 영유아 놀이시설의 경우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근거리 위치 희망, 안전성이 확보된 놀이공간의 필요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 보건, 의료시설 및 서비스 충분성에 대한 인식

- 가장 부족한 육아인프라로 지목되었으며, 양육 과정에서 가장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었음.
- 소아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의 의료 기관이 좀 더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였음.

### □ 지역공동체 및 육아커뮤니티 충분성에 대한 인식

- 지역 토박이의 경우 마을 공동체가 자녀들을 돌보는 문화 등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입장을 보인 데 반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가정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 정도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지역 정부의 정책 홍보방식으로, 육아지원 정책 또한 현수막 등을 통해 접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SNS나 문자 알림 등을 통한 직접적인 소통 방식을 좀 더 선호하였음.

□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 최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안전한 생활 환경과 인접 지역의 육아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지역 간 협력)과 교통 편의성 제고 요구가 높았음.
- 양육비용 지원이나 임신출산지원 중 특히 산후도우미 지원, 아이들의 교육비 지원 등의 요구도 있었음.

## 6. 영유아 가구 정부지원금 수급 및 부모급여의 효과성

### 가. 심층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개요

□ 심층 분석 필요성

- 심층 분석을 통해 부모급여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음. 특히 부모급여 수급액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영유아 가구들의 양육비용에 대한 충분성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음.
- 부모급여 제도 도입 전후인 2022년부터 2024년 3개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호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녀 연령 변화에 따르는 효과를 분리하고자 하였음.

### 나. 영유아 가구 정부지원금 수급 현황

□ 정부지원금

- 2022년 이후 출생한 영유아 중 전액 현금 부모급여를 수급한 비중이 44.7%, 현금과 바우처를 받은 비중 32.7%,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을 선택한 경우 0.2%이며, 부모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22.3%였음.
- 2021년 이전 출생아의 5.6%만이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하였으며,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 94.4%였음.
- 출산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10.7%,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7.8%였음.
- 부모급여 활용처는 대부분 식비(외식비 포함) 67.7%, 개인유지비(목욕/세탁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가 52.8% 순이었음.

- 첫만남이용권 활용처도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식비(47.1%)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산후조리비에 활용했다는 응답(40.7%)도 높았음.
- 현금성 지원금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 정도는 2023년에 비해 매우 도움 된다는 응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 세제 혜택

- 2024년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다는 응답은 74.5%였으며,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17.2%, 자녀장려금 6.7%,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29.3% 등이었으며,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응답도 25.5%에 달했음.
- 세제 혜택 지원 제도별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 인지율은 계속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2024년 15.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다. 부모급여의 양육부담 경감 효과 분석

#### □ 분석 목적

- 부모급여 수급액이 전체 양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핵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부모들이 인식하는 양육비용의 충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부모급여가 실제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지를 규명함과 동시에 가구 특성별로 효과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하였음.

#### □ 분석 자료

-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자료이며, 2022년, 2023년에 데이터 수집 마지막 월인 4월 시점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 코호트는 2022년 1월~4월생, 2022년 5월~12월생, 2023년 1~4월생, 2023년 5~12월생, 2024년 1~4월생으로 구분됨.
- 본 분석에서는 응답 가구가 이용한 양육지원 종류에 따라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음.

#### □ 기초 통계량

- 3개년 원자료('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4')에서 추출한 0세 분석에 활용된 관측치는 총 737명임. 코호트1은 109명, 코호트2는 194명, 코호트3은 126명, 코호트4는 201명, 코호트5는 107명이었음.

- 1세 분석에 활용된 관측치는 총 456명임. 코호트1은 123명, 코호트2는 211명, 코호트3은 122명이다. 코호트4와 코호트5는 2024년 4월까지 자료에서는 1세 데이터가 조사되지 않았음.

□ 코호트별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

- 코호트별 0세와 1세의 월평균 부모급여(영아수당) 현금수급액은 0세의 경우 지급액이 높아짐에 따라 현금 수급액 평균도 상승하였고, 1세의 경우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월평균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전체 0세 가구는 월평균 68만1천원, 코호트별로는 66만5천원~69만2천원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구의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0세, 1세 연령별로 OLS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독립변수로 가구 특성(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자녀수), 부모 특성(연령, 학력), 지역 특성(지역 규모), 아동 성별 및 코호트 변수를 포함하였음.
- 부모급여는 외벌이 가구이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용을 보전하는 효과가 크며, 최근 코호트일수록 그 효과가 점차 강화되고 있었음.

□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0, 1세 가구가 인식하는 양육비용의 충분성을 부모급여의 양육비용 경감 효과로 보고,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양육비용의 충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코호트 및 가구특성별로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고, 다중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한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충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0세 가구와 1세 가구 각각 실시하였음.
  - 0세 가구 전체 평균은 3.2점(5점 척도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 평균은 코호트 간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0세 시기 가구소득은 낮을수록 충분성 인식이 낮았으며, 자녀수는 많을수록 충분성 인식 수치가 낮아졌음. 특히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충분성 인식이 5점 만점 기준 2.3점으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확연히 낮은 점수를 보였음.

- 1세 시기 가구소득과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도 0세와 경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시사점

- 현금급여 지급액이 2022년~2024년에 걸쳐 점차 증가함에 따라, 최근 코호트일수록 부모급여 현금수급액의 양육비용 보전 효과가 커졌음.
- 0세 가구는 부모급여 현금수급액의 비중이 클수록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이 낮아졌으나, 1세 가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최근 코호트일수록 부모급여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양육비용 부담 경감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급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향후 아동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급여를 확대할 경우 실질적인 지원 수요가 높은 집단에 대한 차등 지원이 필요할 것임.

## 7. 결론 및 정책 제언

### 가. 영유아 현금 급여 지원 체계 정비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지원 수준 격차 축소 필요

- 영유아기 현금 급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가정양육수당은 아동 급여 지원 체계에 포함하여 정비
- 영유아기 현금 급여의 지원금 수준 연령에 따른 조정 관련 전향적 검토 요구

□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검토

- 양육비용 부담 가중 집단 추가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요구
  - 가정양육수당 제도 변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 및 가정양육수당 추가 지원 집단인 농어촌 영유아 가구와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플러스(가칭) 지원 제도에 포함하여 지원 필요

□ 물가상승에 연동되는 현금 급여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실질적인 양육 필요 반영한 적정 수준의 비용 산출 후, 이에 근거한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조정되는 방식으로 지원금 수준 결정 체계 정비 필요

## 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 □ 육아 필수재 물가 관리를 위한 기업 지원 강화

- 육아용품 시장의 물가의 안정적 관리 관련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요구
  -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현금 급여와 같은 확장적 정책보다는 좀 더 간접적 방식으로 시장 가격 조정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육아 필수재의 가격 관리를 위한 기업 지원은 세제 혜택이나 원자재 가격 보조 등의 방식의 추가적인 검토

### □ 저소득 가구 지원

- 저소득 가구 영유아의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아동 보호 조치 필요
  -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등을 통한 현금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육아용품은 유아기 아동에 대한 지원 포함 형태로 구성
  - 물품 지원은 배송서비스 등을 겸하는 형태가 적절

## 다. 연장보육 및 육아시간 지원 제도 실효성 제고

### □ 아침돌봄 및 저녁돌봄, 연장보육 이용 편의 증진 필요

- 하루 8시간 정도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은 희망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필요
- 안정적인 아침돌봄 및 저녁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함께 영유아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시간 제공
- 돌봄 사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의 모색 시급

### □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육아시간 지원 제도 관련 '제도의 의무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 제도 도입을 위하여 일자리의 업종 및 직종,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한 매우 세밀한 정책 설계 필요,
  - 육아시간 지원 제도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라. 과도한 시간제 사교육 방지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속적인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감소 유인
  - 저녁돌봄 시간 등에 아동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제공
  -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집단의 경우 학습지 지원 등을 통한 지원
  -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의 교육활동 지원 필요

## 마. 농어촌 영유아 가구 육아 지원 강화

### □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긴급돌봄서비스 연계

-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공급망 구축
-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이동형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원 확대 검토
-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이동 수단 및 농어촌 지역의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 거점 보건/의료기관 인근 등에 환아의 다른 형제자매를 위한 긴급돌봄 기관 (혹은 서비스) 확충 및 상시 운영
  - 마을 돌봄 사업 등의 농어촌 확산 등도 적극적 검토 필요

### □ 생활권역을 고려한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진 및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 농어촌 지역의 공공시설 및 공용 공간 등을 활용한 복합 문화시설 확충 필요
  - 복합 문화시설 또는 다목적 공공시설의 확충
  - 광역의 생활권역을 감안하여 거주 지역에서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 제고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문화시설 이용의 편의성뿐 아니라 일부 비용 보조 등의 추가 지원 필요
  -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인근 농어촌 거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완화 방안 검토
  - 지자체 간 상생 협력 모델 구축

### □ 교통 및 이동 서비스 지원 강화

- 농어촌 지역 영유아 가구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검토 및 농어촌으로 찾아오는 적극적 서비스 지원

-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비대면 교육활동 및 예체능 활동에 대한 방과후 활동 지원, 공적 지원을 통한 교사 확보 및 지원
- 정책 홍보 및 육아커뮤니티 활성화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적극적인 안내 및 권유 필요
  - SNS나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젊은 부모들에게 익숙한 매체를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안내와 홍보

# I

## 서론

- 0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02 연구 내용
- 03 연구 방법
- 04 농어촌 지역의 정의
- 05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응답자 특성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올해 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조사 연구와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부터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까지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분석 연구를 분권 제작하였으며, 하권인 이 연구는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기초 분석 및 심층 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보고서 하권은 크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7차년도(2024년) 자료를 활용한 기초 분석과 심층 분석으로 구분되는데, 2025년 심층 분석의 주제는 2024년 부스터표본 조사를 실시한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 방안과 부모급여의 효과성(코호트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기초 분석은 크게 영유아 가구의 가계 지출 및 양육비용에 관한 부분과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활용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된다. 영유아 가구의 가계 지출 및 양육비용에 관한 부분과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는 주제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계열 자료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심층 분석 주제 중 하나인 부모급여 효과성의 경우 2024년 확대된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출생코호트 간 비교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3년에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편입 확대되면서 영아에 대한 현금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3~7). 또, 2024년에는 부모급여의 지원금 수준이 크게 확대되어, 0세의 경우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 1. 12.)<sup>5)</sup>.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여 부모급여 수급 관련 설문을 보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속적인 아동 대상 급여 지원의 확대 목표

---

5) 지원 대상은 2023년과 동일하게 만2세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함.

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급여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필요한 수순이라 사료된다.

다수의 선행 연구(Blow et al., 2005; Edmonds, 2002; Jones et al., 2019; Kooreman, 2000; Raschke, 2012; Raschke, 2015)에 따르면, 아동 대상 급여 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은 가구의 소비 지출 양태 변화(비용 부담 완화)와 빈곤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효과로 요약될 수 있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 지출 행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매년 조사해왔으며, 표본 추적 조사 등을 통해 패널 자료의 성격을 갖추고 있어, 정책 변화에 따른 영유아 가구의 행태 변화를 연구하기에 매우 적합한 자료이다.

지난 2023년의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수당이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으며(최효미 외, 2023), 2024년에는 2023년에 제도가 도입되어 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부모 급여(영아수당 포함)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최효미 외, 2024a). 2년에 걸쳐 아동 급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부모급여의 효과성 분석을 또다시 심층 분석의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2024년 실시된 부모급여 효과성 분석이 2023년 자료를 활용한 부모급여 효과성(횡단 분석)에 국한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2024년의 심층 분석의 한계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조사 시점(5월~8월)으로 인해 2023년생의 경우 상반기 출생아(127명)만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문 구조상 부모급여 수급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sup>6)</sup>만 확인되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수급자 표본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라는 점이다.

올해 부모급여의 효과성 분석은 2023년 제도 도입 이후의 부모급여 수급 여부를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출생코호트를 고려한 각 연령별 코호트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2024년 수급액 증가와 같은 정책 변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부모급여의 효과성을 보다 정밀하고 명확하게 추출해 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아동 대상의 급여 정책의 발전적 방향과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숙고해보고자 한다.

한편, 또 다른 심층 분석 주제인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표본이었던 농어촌 거주 영

6) 지원금 수급은 전년도 5월부터 당해년도 4월까지의 수급 여부를 월별로 조사하고 있음.

유아 가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분석은 부스터표본 조사의 전반적인 기초 분석 내용과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 활용 격차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부스터표본으로 조사된 농어촌 표본은 도농복합지를 제외한 순수한 읍면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 지출 양태뿐 아니라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등이 기존의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의 고충과 제도 개선 요구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심층 분석으로 구분하여 장을 구성하였다.

## 2. 연구 내용

2025년 하권의 연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부터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를 활용한 기초 분석으로 영유아 가구의 가계 지출 및 양육비용 등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둘째,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및 이용 행태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및 소비 실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등을 파악한다. 넷째, 심층 분석 연구로 부모급여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숙고해보고, 육아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I-2-1〉 2025년 주요 연구 내용

구분	주요 설문 및 연구 내용
기초 분석	영유아 가구의 일반 특성(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 가구소득, 아동 및 영유아 특성 등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시계열 분석 중심) -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 영유아 양육비용 실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시계열 분석 중심) -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

구분	주요 설문 및 연구 내용
주제별 심층 분석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의 육아 인프라 이용 격차 및 제도 개선 요구 부모급여 효과성 분석 - 양육비용 충분성 및 급여 지원 수준의 효과 분석 - 출생코호트 비교 중심

주: 기초 분석 및 주제별 심층 분석은 기 구축 자료(2018년~2024년)를 활용한 분석임.

### 3. 연구 방법

#### 가. 문헌연구

심층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 및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다. 올해 연구에서는 특히 심층 분석 연구와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육아 지원 요구 및 부모급여 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 나.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4)를 활용한 자료 분석

기 구축이 완료된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총 7개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 분석 및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심층 분석 주제인 농어촌 영유아 가구 관련 분석은 2024년에 실시된 부스터표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다. 심층 면담(FGI)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의 정책적 필요성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 있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앞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표본 대상이었던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집단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의 <표 I-3-1>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I-3-1〉 영유아 부모 심층 면담 응답자 특성 현황: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

회차	일시	참석자 수	대상자 특성	주요 면담 내용
1회	9. 25(오전)	5명	유아자녀가 있는 농어촌 거주 가구	농어촌 거주 가구의 정책 수요
2회	9. 25(오후)	5명	영아자녀가 있는 농어촌 거주 가구	농어촌 거주 가구의 정책 수요

##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연구의 방향 설정, 조사 설계, 설문 문항 수정 및 보완, 연구 결과의 타당성 검토, 정책 방안 도출 등 연구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I-3-2〉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

회차	일시	참석자	주요 자문 내용
1회	3. 10	조사 분야 2인	농어촌 조사결과 정리 방안 논의
2회	3. 17	육아 정책 분야 1인	연구 방향 설정(착수보고)
3회	3. 17	육아정책 분야 4인 및 조사 분야 2인	보육실태조사와 소비실태조사 적용 논의
4회	4. 30	조사분야 2인	실질변수 조정에 관한 논의
5회	5. 30	조사분야 4인	2024년 본조사 결과 및 농어촌 결과표 논의
6회	6. 18	경영학, 법학, 사회복지 등 3인	조사업체 선정 및 조사관련 자문
7회	6. 19	육아정책 분야 1인, 사회복지 분야 2인	중간보고
8회	8. 1	조사분야 3인	조사진행 상황 점검
9회	9. 4	조사분야 2인	조사결과 재산출 및 오류 확인
10회	10. 21	사회복지 분야 2인	최종보고

주: 전문가 자문회의는 상권의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현황(표 I-3-1)과 중복되는 사항임.

## 4. 농어촌 지역의 정의<sup>7)</sup>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표본 조사에서 의미하는 농어촌 지역이란,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속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도농복합지역을 제외한 순수한 농어촌 지역만을 부스터표본의 표집 대상 지역으로 삼았다(최효미 외, 2024a: 53). 기존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부터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까지 본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역규모를

7) 용어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최효미 외(2024a) pp.53~54의 내용을 포괄 인용하였음.

구분할 때 농어촌 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2018년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에서는 17개 시도에서 조사구를 지정하고, 표집된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구축하였다(최효미 외, 2018: 83~85). 이후 차수 조사에서는 전년도 표본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표집 단위(조사구)는 크게 변동되지 않았으며, 대체표본과 신생아 표본의 경우에도 이전 조사구를 최대한 유지하는 형태로 표본 구축이 진행되었다. 최초 조사당시부터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시군구 단위 표집이 아닌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를 기준으로 표본 추출 단위로 하고 있었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표본은 기존의 표본 구축 방식을 준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을 지칭한다(최효미 외, 2024a: 53). 단, 조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에서 지정한 읍면지역의 상당수가 2024년 기준 도농복합지역에 속하여 읍면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최효미 외, 2024a: 53).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표본은 도농복합지역을 제외한 순수한 농어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표본의 표집 지역은 기존의 조사구와는 다른 읍면지역(별도의 조사구)을 지정하여 진행하였다(최효미 외, 2024a: 54). 이는 읍면 지역 내에서도 보다 다양한 지역의 특성이 표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최근 심각한 저출생으로 인해 기존 조사구 내에서는 신규 추가 표본의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결과이다<sup>9)</sup>. 단, 농어촌 지역 거주 영유아 가구가 극히 드물다는 점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부스터표본의 조사구는 군단위로 지정 하되, 군내 도농복합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서만 표집이 이뤄지도록 조정하였다(최효미 외, 2024a: 54).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읍면지역은 본조사 기준 지역규모를 지칭하는 읍면지역(도농복합지 포함)과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표본인 농어촌 지역(도농복합지 제외)으로 구분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8) 2023년 본조사(영유아 가구) 표본 중 읍면지역 거주 표본에서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 순수 농어촌인 읍면지역의 응답자는 20개 남짓에 불과함.

9)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영유아의 절대적 숫자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기존 조사구 내에서 이미 포화상태의 표집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5.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응답자 특성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전년도 조사 표본을 추적 조사하고 이탈한 가구에 대해서 대체조사를 시행하며, 매해 신규(신생아) 표본을 구축하기 때문에 해마다 전체 표본이 조금씩 증가한다. 또한, 전년도 조사 표본 중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령기에 접어들면 더 이상 추적 조사하지 않지만, 후속 출산 등으로 인해 막내 자녀의 연령이 낮아질 경우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표본이 확장되는 부분도 있다. 첫 조사인 2018년 1,648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7차년도) 1,821가구로 증가하였다<sup>10)</sup>.

가구원 수는 2018년(1차년도) 3명이하가 37.0%에서 점차 줄어들다가 2021년(4차년도)부터 증가하며 2024년(7차년도) 38.7%로 비중이 늘어났다. 4명인 가구는 2018년(1차년도) 47.4%에서 계속 증가해 2021년(4차년도) 51.5%까지 증가한 후 이후 줄어들어 2024년(7차년도) 46.6% 수준으로 낮아졌다. 가구원 수 5명이상인 경우도 2018년(1차년도) 15.7%에서 2020년(3차년도) 17.5%까지 증가한 후 계속 줄어들어 2024년(7차년도) 14.7%로 나타났다. 즉, 대체로 3명이하 비중은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4명이상인 가구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 가구원수는 2018년(1차년도) 3.8명에서 2019년(2차년도) 3.9명으로 증가한 이후 유지하다가 2023년(6차년도) 3.8명으로 줄어들고 유지하고 있다.

한편, 맞벌이 가구는 2018년(1차년도) 46.2%에서 2021년(4차년도) 42.1%까지 줄어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4년(7차년도)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3%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99만원이하인 가구 비중이 2018년(1차년도) 13.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4년(7차년도) 3.0%까지 감소하였으며, 600만원이상인 가구는 2018년(1차년도) 19.9%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4년(7차년도) 40.9%까지 증가하였다. 가구소득별 연도가 지남에 따라 소득이 낮은 구간의 비중이 줄고 소득이 높은 구간의 비중은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전년도 표본을 추적 조사하는 조사 특성에 따라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결과로 사료된다.

10) 2~4차년도에는 막내자녀 기준 초등 이상도 추적 조사하였으나, 영유아 가구 표본만을 대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

〈표 I-5-1〉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특성(2018~2024년)

단위: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표본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전체		1,648 (100.0)	1,665 (100.0)	1,679 (100.0)	1,709 (100.0)	1,730 (100.0)	1,773 (100.0)	1,821 (100.0)
가구원 수	3명이하	609 (37.0)	542 (32.6)	527 (31.4)	541 (31.7)	572 (33.1)	620 (35.0)	705 (38.7)
	4명	781 (47.4)	843 (50.6)	858 (51.1)	880 (51.5)	871 (50.3)	869 (49.0)	849 (46.6)
	5명이상	258 (15.7)	280 (16.8)	294 (17.5)	288 (16.9)	287 (16.6)	284 (16.0)	267 (14.7)
평균 가구원수		3.8	3.9	3.9	3.9	3.9	3.8	3.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62 (46.2)	738 (44.3)	735 (43.8)	720 (42.1)	767 (44.3)	835 (47.1)	898 (49.3)
	외벌이	886 (53.8)	927 (55.7)	944 (56.2)	989 (57.9)	963 (55.7)	938 (52.9)	923 (50.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4 (13.6)	133 (8.0)	192 (11.4)	135 (7.9)	87 (5.0)	45 (2.5)	55 (3.0)
	300~399만원 이하	441 (26.8)	469 (28.2)	482 (28.7)	410 (24.0)	246 (24.6)	274 (15.5)	239 (13.1)
	400~499만원 이하	384 (23.3)	412 (24.7)	428 (25.5)	441 (25.8)	447 (25.8)	472 (26.6)	402 (22.1)
	500~599만원 이하	271 (16.4)	312 (18.7)	260 (15.5)	322 (18.8)	334 (19.3)	366 (20.6)	381 (20.9)
	600만원 이상	328 (19.9)	339 (20.4)	317 (18.9)	401 (23.5)	436 (25.2)	616 (34.7)	744 (40.9)

주: 1, 5, 6, 7차년도 조사는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영유아 가구와 전체 가구 응답 결과가 동일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가구당 평균 자녀수는 2018년(1차년도) 1.7명에서 2019년(2차년도) 1.8명으로 늘어난 이후 2024년(7차년도)까지 유지하고 있다. 자녀가 한 명인 가구는 2018년(1차년도) 38.7%에서 2021년(4차년도) 32.2%까지 줄어든 후 증가해 2024년(7차년도) 36.5%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는 2018년(1차년도) 11.7%에서 계속 증가하다 2020년(3차년도) 14.7%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24년(7차년도) 13.5%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자녀 가구 비중 감소세를 감안할 때 소비실태조사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아직까지도 높은 편에 속하는 상황이다.

〈표 I-5-2〉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의 자녀 구성(2018~2024년)

단위: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전체	1,648 (100.0)	1,665 (100.0)	1,679 (100.0)	1,709 (100.0)	1,730 (100.0)	1,773 (100.0)	1,821 (100.0)	
자녀수	1명	638 ( 38.7)	559 ( 33.6)	543 ( 32.3)	551 ( 32.2)	583 ( 33.7)	628 ( 35.4)	664 ( 36.5)
	2명	818 ( 49.6)	878 ( 52.7)	889 ( 53.0)	910 ( 53.2)	900 ( 52.0)	894 ( 50.4)	912 ( 50.1)
	3명 이상	192 ( 11.7)	228 ( 13.7)	247 ( 14.7)	248 ( 14.5)	247 ( 14.3)	251 ( 14.2)	245 ( 13.5)
평균 자녀수	1.7	1.8	1.8	1.8	1.8	1.8	1.8	

주: 1, 5, 6, 7차년도 조사는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영유아 가구와 전체 가구 응답 결과가 동일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지역규모별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도시의 비중은 2018년(1차년도) 40.2% 이후로 39%대를 유지하여 2024년(7차년도) 기준 39.7%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은 2018년~2019년 16%대에서 2020년 이후로 15%대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3년(6차년도) 13.0%, 2024년(7차년도)에 다시 15.0%로 변동이 있었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전년도 표본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동일 조사구 내에서 대체 표본과 신생아 표본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규모별 응답자 비중의 변화는 영유아 가구의 지역 간 이동의 비중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I-5-3〉 지역규모별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18~2024년)

단위: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전체	1,648 (100.0)	1,665 (100.0)	1,679 (100.0)	1,709 (100.0)	1,730 (100.0)	1,773 (100.0)	1,821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662 ( 40.2)	664 ( 39.9)	670 ( 39.9)	670 ( 39.2)	683 ( 39.5)	708 ( 39.9)	723 ( 39.7)
	중소도시	717 ( 43.5)	728 ( 43.7)	746 ( 44.4)	781 ( 45.7)	788 ( 45.5)	834 ( 47.0)	825 ( 45.3)
	읍면지역	269 ( 16.3)	273 ( 16.4)	263 ( 15.7)	258 ( 15.1)	259 ( 15.0)	231 ( 13.0)	273 ( 15.0)

주: 1, 5, 6, 7차년도 조사는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영유아 가구와 전체 가구 응답 결과가 동일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는 0.8%로 나타났다. 맞벌이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가 없었으며, 외벌이의 1.6%만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99만원이하 가구가 16.4%, 300~399만원이하의 2.1%만이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0.4%, 중소도시 1.2%, 읍면지역 0.7%로 나타나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5-4〉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여부(2024년)

단위: %(명)

구분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여부		계(수)	
		해당	비해당		
전체		0.8	99.2	100.0	( 1,8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0.0	100.0	100.0	( 898)
	외벌이	1.6	98.4	100.0	( 923)
	$\chi^2$	14.715(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6.4	83.6	100.0	( 55)
	300~399만원 이하	2.1	97.9	100.0	( 239)
	400~499만원 이하	0.2	99.8	100.0	( 402)
	500~599만원 이하	0.0	100.0	100.0	( 381)
	600만원 이상	0.0	100.0	100.0	( 744)
	$\chi^2$	178.258(4)***(b)			
지역규모	대도시	0.4	99.6	100.0	( 723)
	중소도시	1.2	98.8	100.0	( 825)
	읍면지역	0.7	99.3	100.0	( 273)
	$\chi^2$	3.030(2)			

주: (b)는 카이제곱 기본 가정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전체 셀의 2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 의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모특성을 살펴보면, 모의 연령은 30대가 61.8%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이 35.4%, 20대 2.7%, 모 없음 0.2% 순으로 나타났다. 부의 연령은 40대 이상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42.9%, 부 없음 0.6%, 20대 0.5% 순으로 나타나 모보다 부의 연령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56.7%, 전문대(2~3년제) 졸업 21.1%, 고졸 15.6%, 대학원 이상 6.5%, 고졸미만 0.1%로 나타났으며, 부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61.5%, 전문대(2~3년제) 졸업 16.3%, 고졸 14.5%, 대학원 이상 7.6%, 고졸 미만 0.2%로 나타나 부와 모의 학력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나, 부의 학력이 모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I-5-5〉 KICCE 소비실태조사 부모 특성(2024년)

단위: 가구(%)

구분		모		부	
전체		1,821	(100.0)	1,820	(100.0)
연령	20대	49	( 2.7)	10	( 0.5)
	30대	1,125	( 61.8)	781	( 42.9)
	40대 이상	644	( 35.4)	1,018	( 55.9)
	배우자 없음	3	( 0.2)	11	( 0.6)
학력	고졸 미만	1	( 0.1)	3	( 0.2)
	고졸	283	( 15.6)	262	(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384	( 21.1)	296	( 16.3)
	4년제 대학 졸업	1,031	( 56.7)	1,113	( 61.5)
	대학원 이상	119	( 6.5)	137	( 7.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부모의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부는 97.7%가 취업 상태인 반면 모는 40.9%만이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는 임금근로자가 79.7%, 비임금근로자는 18.0%로 나타났으며, 모는 임금근로자는 31.6%, 비임금근로자는 9.3%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의 77.3%가 임금근로자인데 반해 취업부의 81.6%가 임금근로자로, 모가 비임금근로를 하는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모가 9.4%인 반면 부는 1.4%만이 휴직 중으로, 모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엿볼 수 있었다.

부모의 직업군은 성별에 무관하게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부는 43시간38분으로 모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35시간53분보다 약 7시간45분가량 긴 것으로 조사됐다.

〈표 I-5-6〉 KICCE 소비실태조사 부모 근로 특성(2024년)

단위: 가구 (%), 시, 분

구분		본인(여성)		배우자(남성)		
전체		1,818	(100.0)	1,811	(100.0)	
취업여부 및 근로형태	취업	임금근로자	574	( 31.6)	1,444	( 79.7)
		비임금근로자	169	( 9.3)	326	( 18.0)
		무급가족종사자	-	-	-	-
		계	743	( 40.9)	1,770	( 97.7)
	휴직 중	171	( 9.4)	25	( 1.4)	
	학업 중	4	( 0.2)	0	( 0.0)	
	구직 중	30	( 1.7)	10	( 0.6)	
	미취업	870	( 47.9)	6	( 0.3)	

구분		본인(여성)	배우자(남성)
직업군	관리자	19 ( 2.1)	138 ( 7.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86 ( 20.4)	224 ( 12.5)
	사무 종사자	382 ( 41.8)	707 ( 39.4)
	서비스 종사자	210 ( 23.0)	277 ( 15.4)
	판매 종사자	81 ( 8.9)	129 ( 7.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 ( 0.2)	5 ( 0.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 ( 1.1)	162 ( 9.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 ( 0.9)	100 ( 5.6)
	단순노무 종사자	13 ( 1.4)	24 ( 1.3)
군인	3 ( 0.3)	29 ( 1.6)	
노동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시간)	35시간 53분	43시간 38분
계		683	1,737

주: 노동시간은 취업인 경우(휴직자 제외)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아동표본은 2018년(1차년도) 2,277명에서 대체로 증가하여 2024년(7차년도) 2,434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남아는 2018년(1차년도) 51.1%로 여아 48.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로 남아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다 2024년(7차년도)에 2018년 수준인 51.0%로 나타났다.

<표 I-5-7> 아동 자료 특성 변화: 성별(2018~2024년)

단위: %(명)

구분	영유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100.0 (2,277)	100.0 (2,324)	100.0 (2,368)	100.0 (2,403)	100.0 (2,393)	100.0 (2,422)	100.0 (2,434)	
성별	남아	51.1 (1,163)	53.6 (1,245)	52.8 (1,250)	51.7 (1,243)	52.6 (1,259)	50.4 (1,221)	51.0 (1,241)
	여아	48.9 (1,114)	46.4 (1,079)	47.2 (1,118)	48.3 (1,160)	47.4 (1,134)	49.6 (1,201)	49.0 (1,193)

주: 1) 1, 5, 6, 7차년도 조사는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영유아 가구와 전체 가구 응답 결과가 동일함.  
 2) 아동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아동 표본 기준 맞벌이가구 비중은 2018년(1차년도) 44.2%에서 2021년(4차년도) 41.0%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4년(7차년도) 48.9%까지 상승하였다.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299만원이하는 2018년(1차년도) 14.2%에서 계속 감소하여 2024년(7차년도) 2.6%로 나타났으며, 600만원이상은 2018년(1차년도)

19.2%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4년(7차년도) 41.4%로 나타났다. 자녀가 한명인 경우는 2018년(1차년도) 28.8%에서 2021년(4차년도) 23.0%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24년(7차년도) 28.3%로 나타났다. 3명 이상인 경우 2018년(1차년도) 15.7%에서 2021년(4차년도) 19.5%까지 증가한 후 줄어들어 2024년(7차년도) 16.1%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아동 표본 기준으로 읍면지역 2018년(1차년도) 17.3%에서 2024년(7차년도) 15.8%로 다소 줄고, 중소도시 비중은 2018년(1차년도) 42.8%에서 2024년(7차년도) 45.4%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표 I-5-8〉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아동 표본 특성(2018-2024년): 영유아

단위: %, (명)

구분		1차조사 (2018년)	2차조사 (2019년)	3차조사 (2020년)	4차조사 (2021년)	5차조사 (2022년)	6차조사 (2023년)	7차년도 (2024년)
전체		100.0 (2,277)	100.0 (2,324)	100.0 (2,368)	100.0 (2,403)	100.0 (2,393)	100.0 (2,422)	100.0 (2,43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4.2 (1,007)	42.1 (978)	42.3 (1,001)	41.0 (985)	42.8 (1,024)	45.7 (1,108)	48.9 (1,191)
	외벌이	55.8 (1,270)	57.9 (1,346)	57.7 (1,367)	59.0 (1,418)	57.2 (1,369)	54.3 (1,314)	51.1 (1,24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4.2 ( 322)	7.4 (172)	5.3 (126)	5.8 (139)	4.3 (103)	2.4 (58)	2.6 (62)
	300~399만원 이하	27.8 ( 634)	28.2 (655)	16.6 (392)	22.3 (536)	20.7 (494)	14.5 (350)	12.0 (293)
	400~499만원 이하	21.6 ( 492)	26.1 (608)	29.8 (705)	26.5 (637)	24.3 (582)	26.7 (647)	22.4 (546)
	500~599만원 이하	17.2 ( 392)	17.8 (414)	21.3 (504)	19.0 (456)	20.4 (489)	21.0 (508)	21.5 (524)
	600만원 이상	19.2 ( 437)	20.5 (475)	27.0 (640)	26.4 (634)	30.3 (724)	35.5 (860)	41.4 (1,008)
총 자녀수	1명	28.8 ( 655)	24.4 (567)	23.5 (556)	23.0 (553)	24.6 (590)	26.7 (647)	28.3 (689)
	2명	55.6 (1,266)	58.2 (1,352)	57.6 (1,364)	57.5 (1,381)	56.7 (1,356)	55.0 (1,331)	55.6 (1,352)
	3명 이상	15.7 ( 357)	17.4 (404)	18.9 (448)	19.5 (470)	18.7 (447)	18.3 (444)	16.1 (393)
지역 규모	대도시	39.9 ( 909)	39.4 (916)	40.9 (968)	38.5 (925)	38.2 (915)	38.6 (935)	38.8 (944)
	중소도시	42.8 ( 975)	43.4 (1,008)	44.1 (1,044)	44.5 (1,069)	45.1 (1,079)	45.6 (1,104)	45.4 (1,106)
	읍면지역	17.3 ( 393)	17.2 (400)	15.0 (356)	17.0 (409)	16.7 (399)	15.8 (383)	15.8 (38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 II

##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와 양육비용

- 0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 02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 03 영유아 가구의 주거 환경 및 거주지 선택
- 04 양육 부담 및 삶의 만족도



## II.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와 양육비용

II장은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4년 자료를 기준으로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생활비 지출 및 소득, 주거 현황 등)와 양육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양육비용은 당연히 생활비 지출의 한 부분이기에는 하나, ‘KICCE 소비실태조사’가 다른 가구 패널조사나 행정통계들과는 차별적으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문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절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장에서 제시한 실질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기준으로 환산된 값으로, 각 연도 조사시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평균한 값을 적용하였다<sup>11)</sup>.

### 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 가.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2024년 영유아 가구의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은 명목비용 기준 388만 8천원으로, 2023년에 비해 11만3천원가량 상승하였다. 그러나, 실질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2024년 생활비 지출 총액은 339만1천원으로 2023년 339만5천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2024년 가파른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이다.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은 2021년 이후 실질비용의 상승이 크지 않고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명목 비용은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경향성을 감안할 때, 2021년 이후 가파른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영유아 가구에도 동일하게 가계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11) 1차년도(2018년) 98.78, 2차년도(2019년) 99.44, 3차년도(2020년) 99.59, 4차년도(2021년) 102.12, 5차년도(2022년) 108.15, 6차년도(2023년) 111.19, 7차년도(2024년) 114.63을 적용하여 환산함.

〈표 II-1-1〉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2018~2024년, 영유아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7차년도 (2024)
명목비용	311.9	328.0	322.5	343.5	364.0	377.5	388.8
실질비용	315.8	329.9	323.8	336.4	336.5	339.5	339.1
(수)	(1,648)	(1,665)	(1,679)	(1,708)	(1,730)	(1,773)	(1,821)

주: 1) 본 연구에서는 가구 지출 비목 중 1,2,3,4,5,6,7,8,9,10,11-2,13 항목의 합산값만을 "가구 생활비"로 정의 하였음, 이에 '가구생활비 지출 총액'에는 11-1(저축), 11-3(원금상환), 11-4(이자상환), 12(이전지출)에 대한 지출액이 합산에서 제외됨.

2) 실질비용은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식비가 전체 생활비 지출 총액의 23.1%인 평균 109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 자체는 2023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2.5%였으나(최효미 외, 2024a: 146), 2024년 23.1%로 다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실질비용 기준 식비는 2023년 339만5천원이었는데(최효미 외, 2024a: 146) 2024년 339만1천원으로 오히려 약간 감소한 상황으로, 높은 물가상승에 따른 영유아 가구의 식비 부담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축, 원금 상환 등 비소비지출을 포함한 가구 총 지출액은 2024년 월평균 500만4천원으로, 금융상품 관련 지출이 144만9천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중에서 저축이 월평균 51만3천, 보험 44만1천원, 원금상환 20만7천원, 이자상환이 20만4천원 등이었다.

〈표 II-1-2〉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가구지출 총액(2024년)

단위: %, 만원

구분	가구생활비 지출총액(주)			가구 지출 총액 (명목비용)
	평균 (명목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실질비용)	
총계	388.8	100.0	339.1	500.4
1. 식비(외식비포함)	109.6	23.1	95.6	109.6
1-1. 외식비	32.6	6.8	28.4	32.6
2. 주거/관리비	30.2	6.5	26.3	30.2
2-1. 관리비및수도/광열비	24.5	5.3	21.4	24.5
2-2. 월세	3.9	0.8	3.4	3.9

구분	가구생활비 지출총액(주)			가구 지출 총액 (명목비용)
	평균 (명목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실질비용)	
3.기기/집기	9.1	1.5	7.9	9.1
3-1 PC/노트북/태블릿PC	1.7	0.3	1.5	1.7
4.피복비(의류및신발)	23.4	4.8	20.4	23.4
5.보건/의료비	13.8	2.8	12.0	13.8
6.교육/보육비	45.5	8.4	39.7	45.5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42.9	8.4	37.5	42.9
7-1.가족여행 등	28.7	5.6	25.1	28.7
7-2.관람 체험학습	4.6	0.9	4.0	4.6
7-3.완구	4.0	0.8	3.5	4.0
7-4.도서구매	4.4	0.9	3.9	4.4
8.교통비	28.9	6.2	25.2	28.9
9.통신비	17.6	3.8	15.3	17.6
9-1.휴대전화비	9.9	2.2	8.7	9.9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7.0	3.6	14.8	17.0
11.금융상품(저축 및 보험납입금)	44.1	9.0	38.5	144.9
11-1.저축	-	-	-	51.3
11-2.보험	44.1	9.0	38.5	44.1
11-3.원금상환	-	-	-	20.7
11-4.이자상환	-	-	-	20.4
11-5.주식, 암호화폐	-	-	-	6.5
12.이전지출	-	-	-	10.8
13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0.6	0.1	0.5	0.6
14.기타상품및서비스	6.2	1.3	5.4	6.2

주: 본 연구에서는 가구 지출 비목 중 1,2,3,4,5,6,7,8,9,10,11-2,13,14 항목의 합산값만을 “가구 생활비”로 정의하였음. 이에 ‘가구생활비 지출 총액’에는 11-1(저축), 11-3(원금상환), 11-4(이자상환), 12(이전지출)에 대한 지출액이 합산에서 제외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에도 식비가 가장 높아서 109만6천원이었다.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의 지출 패턴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식비와 다른 비목들 사이의 편차가 갈수록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식비는 2018년 81만1천원에서 2024년 28만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두 번째로 높은 지출액을 보이는 교육보육비는 2018년 41만원에서 2024년 45만5천원으로 4만5천원 증가한 것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24년에는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이 42만9천원으로, 2023년 36만8천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가장 큰 비목이었다. 2024년 여가문화생활비가 증가한 이유는 가족여행 비용이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에 기인하며, 관람 및 체험학습 이용비용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완구 구매 비용은 전년에 비해 4천원 가량 감소한 데 반해, 도서 구매 비용은 전년에 비해 4천원 증가하였다. 가족여행 비용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과 2021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2022년부터 2018년의 지출 수준을 웃돌기 시작하여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가족여행비의 증가가 실제 이용 빈도 등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인지, 식비와 유사하게 물가상승의 영향인지는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로는 구분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표 II-1-3〉 월평균 생활비 지출: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2018~2024년, 명목비용)

단위: 만원,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총계	278.6	294.3	289.5	310.5	328.0	341.3	351.8
1.식비(외식비포함)	81.1	83.3	94.1	95.0	98.6	103.8	109.6
1-1.외식비	25.0	26.1	27.5	28.4	30.8	32.2	32.6
3.기기/집기	6.2	8.0	10.9	13.1	13.6	8.3	9.1
4.피복비(의류및신발)	18.3	18.6	18.8	20.3	21.9	24.1	23.4
5.보건/의료비	7.0	8.9	11.4	12.6	13.3	14.2	13.8
6.교육/보육비	41.0	43.1	30.0	39.8	41.4	47.9	45.5
7.여가및문화생활비	32.3	31.6	22.8	26.0	33.5	36.8	42.9
7-1.가족여행 등	19.8	19.2	11.0	14.4	20.0	24.2	28.7
7-2.관람 체험학습	4.1	4.0	1.2	1.7	3.5	3.9	4.6
7-3.완구	4.0	4.1	4.6	4.8	4.8	4.4	4.0
7-4.도서구매	4.5	4.3	4.9	4.5	4.4	4.0	4.4
8.교통비	26.4	27.6	26.1	26.5	28.4	28.2	28.9
9.통신비	17.1	17.6	17.9	18.1	18.4	18.5	17.6
9-1.휴대전화비	12.5	12.2	12.8	13.4	12.2	12.6	9.9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9	13.5	14.7	15.1	16.1	16.4	17.0
11-2.보험	36.3	42.0	42.8	44.1	42.7	43.2	44.1

주: 1) 비목 및 세목별 지출액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으며, 총계 대비 각 비목별 비중은 가구별로 각각 비중을 산출한 후 평균한 값임.

2) 양육비용과 비목을 일치시킨 생활비 지출은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주거비, 이전 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영유아 가구의 '엔젤지수'는 2024년 기준 29.1로, 202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3차년도 조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구 생활비 중 주거비의 비중을 의미하는 '슈바베지수'는 1차년도(2018년)~7차년도(2024년) 기간 동안 변동이 크지 않고 꾸준히 8점대 수준을 보였으며, 2024년에는 8.1이었다. 생활비 지출 총액 중 양육비의 비중을 의미하는 '엔젤지수'는 2024년 26.6으로, 2023년에 비해서는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를 보였으나, 2023년의 엔젤지수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2022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표 II-1-4〉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2018~2024년, 영유아 가구표본)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엔젤지수	26.5	26.1	30.0	28.4	28.0	28.3	29.1
슈바베지수	8.7	8.4	8.5	8.1	8.3	8.2	8.1
엔젤지수	29.1	26.5	26.7	27.2	26.9	29.0	26.6

주: 1)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가구특성별로로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엔젤지수는 낮고 엔젤지수는 높은 특징이 유지되었으며,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엔젤지수는 낮고 엔젤지수는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표 II-1-5〉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2024년, 영유아 가구표본)

구분	엔젤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전체	29.1	8.1	26.6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28.1	7.9	27.0
	외벌이	30.0	8.3	26.3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0.3	10.7	24.5
	300~399만원 이하	30.8	9.3	25.6
	400~499만원 이하	30.6	8.4	26.5
	500~599만원 이하	29.3	8.1	26.7
	600만원 이상	27.6	7.5	27.2

주: 1)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나. 가구소득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2024년(명목비용) 579만7천원으로 2023년 560만1천원에 비해 19만6천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높은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2024년 기준 505만7천원으로 가구소득이 202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에 그쳤으며, 이는 2021년의 실질 가구소득에 비해서 여전히 5만5천원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I-1-6〉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2018~2024년)

단위: 만원, 가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명목 비용	462.9	494.2	526.4	522.0	541.4	560.1	579.7
실질 비용	468.7	497.0	528.6	511.2	500.5	503.8	505.7
(수)	(1,648)	(1,665)	(1,679)	(1,708)	(1,730)	(1,773)	(1,82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가구특성별 월평균 총 가구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3년 대비 맞벌이 가구들은 명목비용 기준 소득이 36만4천원 증가한 데 반해, 외벌이 가구들은 명목비용 기준으로도 3만3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4년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가구소득 격차가 좀 더 크게 벌어졌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자녀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가 가구소득도 많은 특징은 2024년에도 유지되었으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소득(2024년 기준)의 수준이 40만원이상 적은 현상이 발견되었다.

〈표 II-1-7〉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2018~2024년, 명목비용)

단위: 만원, (가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462.9 (1,648)	494.2 (1,665)	526.4 (1,679)	522.0 (1,708)	541.4 (1,730)	560.1 (1,773)	579.7 (1,8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40.8 ( 762)	576.2 ( 738)	599.4 ( 735)	600.8 ( 719)	633.3 ( 767)	640.1 ( 835)	676.5 ( 898)
	외벌이	396.0 ( 886)	429.0 ( 927)	469.6 ( 944)	464.7 ( 989)	468.1 ( 963)	488.9 ( 938)	485.6 ( 923)
자녀수	1명	455.7 ( 638)	478.3 ( 559)	493.2 ( 543)	481.8 ( 550)	494.2 ( 583)	524.7 ( 628)	554.2 ( 664)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명	461.8 ( 818)	502.2 ( 878)	542.2 ( 889)	542.1 ( 910)	563.9 ( 900)	572.6 ( 894)	593.1 ( 912)
	3명이상	491.9 ( 192)	503.0 ( 228)	542.9 ( 247)	537.5 ( 248)	570.5 ( 247)	604.3 ( 251)	599.3 ( 245)
지역 규모	대도시	477.3 ( 662)	494.0 ( 664)	516.3 ( 670)	536.6 ( 696)	552.3 ( 683)	576.6 ( 708)	589.7 ( 723)
	중소도시	459.7 ( 717)	502.9 ( 728)	540.1 ( 746)	524.3 ( 781)	541.9 ( 788)	554.4 ( 834)	583.2 ( 825)
	읍면지역	436.2 ( 269)	471.8 ( 273)	513.5 ( 263)	470.2 ( 231)	511.1 ( 259)	530.1 ( 231)	543.1 ( 27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세목별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99.5%로 대부분의 영유아 가구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522만2천원을 응답하였다. 즉, 가구소득의 대부분은 근로소득 혹은 사업자소득이었다. 한편, 모든 응답 대상 가구가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모든 영유아 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은 평균 50만3천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56만6천원, 외벌이 가구는 44만2천원을 응답하였다. 이는 맞벌이 가구 중 육아휴직 급여 등을 수급하는 경우 수급액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표 II-1-8〉 가구특성별 세목별 월평균 가구소득(2024년): 명목비용

단위: %, 만원, (가구)

구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 소득 및 사회보험 소득	사적 이전소득	기타소득	월평균 총 가구 소득	계(수)	
소득보유비율(%)	99.5	3.2	100.0	5.1	2.3	100.0	100.0 (1,821)	
전체	522.2	2.3	50.3	2.7	2.3	579.7	(1,821)	
맞벌이 가구여부	맞벌이	613.2	2.8	56.6	2.1	1.8	676.5	( 898)
	외벌이	433.6	1.8	44.2	3.2	2.7	485.6	( 923)
자녀수	1명	500.8	1.9	47.1	2.1	2.2	554.2	( 664)
	2명	533.5	2.1	51.9	3.0	2.6	593.1	( 912)
	3명이상	537.8	4.0	53.0	3.3	1.3	599.3	( 245)

구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 소득 및 사회보험 소득	사적 이전소득	기타소득	월평균 총 가구 소득	계(수)
지역 규모	대도시	533.7	2.3	49.5	1.9	2.4	589.7	( 723)
	중소도시	527.7	2.5	48.2	2.7	2.0	583.2	( 825)
	읍면지역	474.8	1.9	58.9	4.9	2.7	543.1	( 273)

주: 1) 근로소득은 본인의 근로소득+배우자 근로소득+기타 가구원 근로소득으로 계산함.  
 2) 소득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한 후 계산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2.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 가. 가구당 양육비용<sup>12)</sup>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 지출(명목비용)은 2024년 149만8천원으로, 전년도인 2023년 150만6천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를 실질 비용으로 환산한 경우 2024년 가구당 양육비용은 130만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4만7천원이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 양육비용은 감소한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명목비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4년에는 명목 비용 자체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가구의 위축된 양육비용 지출을 짐작할 수 있었다.

비목별로는 교육/보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서 월평균 42만6천원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식비(34만5천원), 여가문화생활비(24만2천원) 순으로, 양육비용 지출 양태 자체는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총 양육비용'은 본 조사의 표본인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모든 자녀(초등학생 이상 자녀까지 포함)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함.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만을 의미하는 '영유아 양육비'와 차이가 있음.

〈표 II-2-1〉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4년): 영유아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가구당 양육비용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7차년도 (2024년)
명목비용	115.1	123.8	117.5	130.5	137.7	150.6	149.8
실질비용 (수)	(1,648)	(1,665)	(1,679)	(1,708)	(1,730)	(1,773)	(1,821)

주: 1) 가구당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2) 실질비용은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기준 각년도 소비자물가를 반영하여 환산한 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2018~2023년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 변화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식비(외식비포함)'가 더 많이 지출되었던 3차년도(2020년)를 제외하면 1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 '교육/보육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보육비'는 1차년도(2018년) 39만2천원에서 2차년도(2019년) 40만2천원으로 증가한 뒤 3차년도(2020년) 28만9천원으로 급감했으나, 이후 6차년도(2023년) 45만7천원으로 증가하였다. 6차년도(2023년) 기준, '식비(외식비포함)'의 평균 명목비용은 34만4천원으로 '교육/보육비' 다음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식비(외식비포함)'는 1차년도(2018년) 24만4천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3차년도(2020년) 31만3천원에서 4차년도(2021년) 30만3천원으로 약간 감소했으나, 다시 6차년도(2023년)까지 점차 증가했다.

〈표 II-2-2〉 비목별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4년, 명목비용)

단위: (가구),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총계 (사례수)	115.1 (1,648)	123.8 (1,665)	117.5 (1,679)	130.5 (1,708)	137.7 (1,730)	150.6 (1,773)	149.8 (1,821)
1.식비(외식비포함)	24.4	26.3	31.3	30.3	32.4	34.4	34.5
1-1.외식비	5.9	6.3	7.3	7.1	8.4	8.1	8.3
3.기기/집기	2.9	3.3	4.3	5.4	5.6	3.5	4.2
4.피복비(의류및신발)	9.3	9.9	10.5	11.4	12.8	14.0	12.9
5.보건/의료비	4.4	5.3	6.5	7.0	7.9	8.7	8.2
6.교육/보육비	39.2	42.0	28.9	38.7	36.1	45.7	42.6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7.여가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9.2	18.2	15.0	16.7	20.2	21.4	24.2
7-1.가족여행 등	8.9	8.7	5.2	6.8	9.2	11.1	13.4
7-2.관람 체험학습	2.3	2.2	0.7	1.1	2.2	2.4	3.1
7-3.완구	3.8	3.7	4.4	4.7	4.7	4.2	3.7
7-4.도서구매	4.2	3.6	4.5	4.2	4.1	3.7	4.0
8.교통비	0.6	0.8	1.0	0.7	1.1	0.8	1.1
9.통신비	0.5	0.6	0.9	0.7	0.8	0.8	1.0
9-1.휴대전화비	0.4	0.5	0.7	0.6	0.6	0.7	0.7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2	5.7	6.6	6.8	7.5	7.8	8.0
11-2.보험	9.4	11.7	12.5	12.8	13.2	13.5	13.0

주: 가구당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의 비중은 2024년 28.0%로 전년에 비해서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비해서는 1%p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실질적으로 전년에 비해 가구당 양육비용 총액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가구특성별로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에서 가구당 양육비용이 67.6%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수에 따라서도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이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즉,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은 증가하지만, 아동 1인당 양육비용은 감소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II-2-3〉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8~2024년)

단위: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전체	27.3	27.9	24.2	28.0	27.0	28.8	28.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4.4	24.9	22.5	25.2	25.6	26.4	25.6
	외벌이	29.9	30.4	25.4	29.9	28.1	31.0	30.4
	<i>t</i>	-4.3***	-3.3***	-3.3***	-2.5*	-2.9**	-2.0*	-3.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9.2	48.8	49.2	52.9	36.5	82.6	67.6
	300~399만원	28.2	28.8	25.5	30.1	28.4	31.6	30.8

II.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와 양육비용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400~499만원	26.6	27.8	23.1	26.2	27.1	27.9	28.8
	500~599만원	25.7	25.4	23.2	25.3	25.8	27.6	27.1
	600만원 이상	20.6	21.7	19.9	22.3	22.3	25.2	24.3
	F	18.6***	16.3***	65.1***	15.6***	17.9***	16***(a)	36.8***(a)
총 자녀수	1명	19.6	18.8	17.0	18.6	17.6	17.7	18.3
	2명	30.2	30.7	25.6	28.8	29.5	31.3	30.9
	3명이상	40.5	40.0	34.7	45.5	40.0	47.8	44.0
	F	62.7***	39.9***	102.9***	42.9***	181.6***	39.6***(a)	102.2***(a)

주: 1)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가구당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을 합산한 금액,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아동당 비용을 기준으로 함.

3)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

가구 생활비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은 2024년 기준 36.8%로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가구 생활비 지출액이 증가하였으나, 가구당 양육비용은 소폭 감소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 가구들은 생활비 지출 여력 내에서 자녀를 위한 생활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비목별로는 가구 생활비 지출액 중 교육/보육비는 대부분이 자녀를 위해 사용된 비용이었으며, 완구와 도서구매 비용도 성인을 위한 지출이라기보다는 아동을 위한 지출이 대부분인 비목이었다.

〈표 II-2-4〉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2018~2024년, 영유아 가구)

단위: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총계	35.8	36.6	35.5	36.6	36.5	38.1	36.8
1. 식비(외식비포함)	30.7	32.4	33.2	32.6	33.3	33.7	31.3
1-1. 외식비	25.8	25.4	27.9	25.7	28.5	25.6	25.9
3. 기기/집기	50.4	44.0	43.7	43.7	51.1	36.3	41.5
4. 피복비(의류및신발)	54.1	56.4	58.3	59.4	59.9	59.9	57.3
5. 보건/의료비	71.5	68.1	61.9	59.7	61.8	65.4	62.9
6. 교육/보육비	96.6	96.5	96.1	97.4	91.8	96.1	94.6
7.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62.9	62.0	69.7	68.4	63.7	60.6	57.2
7-1. 가족여행 등	45.7	46.7	47.5	45.6	45.4	45.3	45.7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7-2.관람 체험학습	61.8	56.3	58.8	61.4	66.1	64.2	66.1
7-3.완구	95.0	91.0	94.7	97.5	98.7	97.5	93.6
7-4.도서구매	92.4	85.4	90.6	94.3	95.1	94.0	91.3
8.교통비	3.0	3.2	4.2	3.1	4.4	3.0	4.0
9.통신비	2.5	3.1	4.4	3.8	4.0	3.9	4.8
9-1.휴대전화비	3.1	3.7	5.1	4.6	4.6	4.9	6.1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42.5	43.7	44.5	46.0	47.9	48.7	47.0
11-2.보험	30.4	31.2	32.6	31.9	33.5	34.0	32.7

주: 가구당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으로, 생활비 대비 비율은 각 가구별로 "(가구당 양육비용/가구 총소비지출)\*100"로 변수를 생성한 후에 이 비중을 평균한 값. (예: 식비 총양육비용 비율 = (전체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가구 전체 소비지출)\*10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 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명목비용)은 2024년 78만5천원으로 2023년 80만7천원에 비해 2만2천원이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실질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양육비용은 68만4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2-5〉 월평균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4년)

단위: 만원,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7차년도 (2024년)
명목비용	65.9	66.0	61.0	67.0	70.5	80.7	78.5
실질비용	66.7	66.4	61.3	65.5	65.2	72.6	68.4
(수)	(2,298)	(2,334)	(2,368)	(2,403)	(2,395)	(2,422)	(2,434)

주: 1) 가구당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자녀의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는 2세가 69만원으로 가장 낮고, 6세가 92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당 양육비용도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면, 2024년에는 2세 이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양육비용도 증가하지만, 0세와 1세의 양육비용은 2세에 비해 높은 현상이 발견되었다. 0세의 양육비용이 1세 비해 높은 경우는 이

전에도 종종 발견되는 현상으로, 갓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육아용품의 구매가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2024년 1세의 양육비용이 2세에 비해 조금이지만 높게 나타난 현상은 이전과는 다른 양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첫만남 이용권 및 부모급여의 지원에 따른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2-6〉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4년, 월평균, 명목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전체	65.9 (2,298)	66.0 (2,334)	61.1 (2,368)	67.0 (2,403)	70.5 (2,395)	80.7 (2,422)	78.5 (2,434)
연령 <sup>주2)</sup>							
0세	53.5 ( 128)	53.7 ( 161)	53.1 ( 158)	52.8 ( 161)	63.8 ( 156)	69.4 ( 156)	71.2 ( 161)
1세	51.1 ( 267)	53.7 ( 298)	53.9 ( 321)	56.6 ( 316)	59.7 ( 321)	70.4 ( 317)	70.3 ( 323)
2세	57.2 ( 299)	58.6 ( 296)	53.4 ( 331)	61.2 ( 354)	60.0 ( 335)	73.2 ( 343)	69.0 ( 341)
3세	59.7 ( 360)	59.2 ( 337)	59.4 ( 333)	63.1 ( 367)	67.9 ( 396)	72.0 ( 381)	70.8 ( 365)
4세	70.4 ( 372)	67.5 ( 410)	61.3 ( 379)	70.2 ( 363)	73.3 ( 379)	81.2 ( 411)	79.0 ( 400)
5세	74.3 ( 407)	72.3 ( 408)	66.0 ( 424)	71.7 ( 404)	81.2 ( 392)	92.0 ( 400)	87.5 ( 424)
6세	77.2 ( 465)	82.7 ( 423)	71.9 ( 422)	80.7 ( 438)	79.6 ( 416)	95.7 ( 414)	92.3 ( 420)
F	27.0***(a)	24.2***(a)	15.2***(a)	18.6***(a)	16.8***(a)	19.8***(a)	13.6***(a)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연령은 생활연령을 의미함.

3)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2024년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은 19.9%로, 전년에 비해 1.4%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비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의 감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아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I-2-7〉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8-2024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전체	20.8 (2,298)	19.9 (2,334)	18.9 (2,368)	19.3 (2,403)	19.4 (2,395)	21.3 (2,422)	19.9 (2,434)
연령 <sup>주2)</sup>							
0세	18.1 ( 128)	16.7 ( 161)	17.9 ( 158)	16.8 ( 161)	18.4 ( 156)	20.1 ( 156)	19.8 ( 161)
1세	17.9 ( 267)	17.4 ( 298)	17.7 ( 321)	17.4 ( 316)	17.9 ( 321)	20.5 ( 317)	19.0 ( 323)
2세	19.4 ( 299)	18.4 ( 296)	17.4 ( 331)	18.4 ( 354)	18.2 ( 335)	20.0 ( 343)	18.7 ( 341)
3세	19.9 ( 360)	18.4 ( 337)	18.1 ( 333)	18.5 ( 367)	19.0 ( 396)	19.9 ( 381)	18.6 ( 365)
4세	21.4 ( 372)	20.7 ( 411)	19.1 ( 379)	19.6 ( 363)	20.0 ( 379)	21.1 ( 411)	20.0 ( 400)
5세	22.8 ( 407)	21.3 ( 408)	20.2 ( 424)	20.2 ( 404)	20.9 ( 392)	22.6 ( 400)	21.0 ( 424)
6세	22.8 ( 465)	23.1 ( 423)	20.8 ( 422)	21.9 ( 438)	20.6 ( 416)	23.5 ( 414)	21.7 ( 420)
F	17.6***	23.9***	9.2***	14.7***	8.0***	9.3***	7.5***(a)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연령은 생활연령을 의미함.

3)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식비가 가장 많아서 월평균 18만7천원이 들었으며, 다음으로 교육/보육비 18만2천원, 여가 및 문화생활비 13만9천원 순이었다. 식비가 교육/보육비보다 다 높았던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24년이 처음으로, 영유아 가구의 1인당 양육비용 감소가 교육/보육비의 감소에 기인함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여가문화생활비도 2023년 대비 감소폭이 큰 비목으로 특히 가족여행 비목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전년 대비 1인당 양육비용 총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식비 지출액은 소폭 증가하여, 영유아 가구의 육아 필수재에 대한 부담이 다소 증가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II-2-8〉 비록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4년, 명목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총계 (사례수)	65.9 (2,298)	66.0 (2,334)	61.0 (2,368)	67.0 (2,403)	70.5 (2,395)	80.7 (2,422)	78.5 (2,434)
1. 식비(외식비포함)	13.8	13.8	16.4	16.0	17.2	18.3	18.7
1-1. 외식비	3.3	3.3	3.8	3.6	4.2	4.1	4.3
3. 기기/집기	1.8	1.8	2.4	2.5	2.6	1.7	2.6
4. 피복비(의류및신발)	5.3	5.3	5.8	6.2	6.8	7.7	7.3
5. 보건/의료비	2.7	2.7	3.7	4.0	4.5	4.9	4.8
6. 교육/보육비	22.0	22.0	12.9	17.4	15.6	19.9	18.2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1.3	11.3	8.4	9.4	11.3	15.4	13.9
7-1. 가족여행 등	5.2	5.2	2.8	3.8	5.1	9.4	7.7
7-2. 관람 체험학습	1.3	1.3	0.4	0.5	1.1	1.3	1.6
7-3. 완구	2.4	2.4	2.7	2.9	2.9	2.7	2.4
7-4. 도서구매	2.5	2.5	2.4	2.2	2.2	2.0	2.2
8. 교통비	0.2	0.2	0.5	0.3	0.6	0.4	0.6
9. 통신비	0.0	0.0	0.1	0.0	0.1	0.0	0.1
9-1. 휴대전화비	0.0	0.0	0.1	0.0	0.0	0.0	0.1
10. 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3.2	3.2	4.0	4.2	4.6	4.8	5.1
11-2. 보험	5.5	5.5	6.9	7.0	7.2	7.4	7.3

주: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가구특성별로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1인당 양육비용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1인당 양육비용이 높은 경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표 II-2-9〉 가구특성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4년, 명목비용)

단위: 만원(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6차년도(2023년)	7차년도(2024년)
전체		65.9 (2,298)	66.0 (2,334)	61.1 (2,368)	67.0 (2,403)	70.5 (2,395)	80.7 (2,422)	78.5 (2,43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4.5 (1,031)	73.5 (1,000)	68.4 (1,004)	74.5 ( 991)	77.1 (1,033)	87.4 (1,111)	85.6 (1,186)
	외벌이	58.9 (1,267)	60.5 (1,333)	55.7 (1,364)	61.7 (1,412)	65.5 (1,362)	75.0 (1,311)	71.7 (1,248)
	<i>t</i>	7.9***	7.6***	8.9***	7.6***	6.9***	6.5***	6.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4.3 ( 311)	53.1 ( 170)	51.8 ( 124)	51.5 ( 143)	50.1 ( 106)	60.1 ( 60)	60.1 ( 66)
	300~399만원 이하	55.0 ( 623)	54.1 ( 646)	51.2 ( 391)	58.9 ( 534)	59.6 ( 507)	68.1 ( 359)	62.8 ( 302)
	400~499만원 이하	64.7 ( 515)	63.1 ( 606)	53.6 ( 709)	60.2 ( 631)	63.2 ( 567)	69.8 ( 639)	68.8 ( 537)
	500~599만원 이하	73.5 ( 396)	72.6 ( 424)	64.3 ( 504)	68.0 ( 461)	71.2 ( 492)	79.0 ( 503)	75.0 ( 525)
	600만원 이상	90.6 ( 451)	84.5 ( 487)	74.8 ( 640)	83.3 ( 634)	86.2 ( 723)	96.5 ( 861)	91.3 (1,004)
	<i>F</i>	72.3***	48.61***	47.4***	42.7***	48.7***	46.5***(a)	33.7***(a)
총 자녀수	1명	83.3 ( 638)	83.3 ( 559)	61.1 ( 946)	79.3 ( 550)	82.2 ( 583)	91.8 ( 628)	91.9 ( 664)
	2명	61.2 (1,300)	63.2 (1,361)	60.3 (1,050)	66.2 (1,385)	69.2 (1,364)	80.9 (1,347)	77.1 (1,361)
	3명이상	51.8 ( 360)	52.4 ( 413)	63.2 ( 372)	54.7 ( 468)	59.1 ( 448)	64.4 ( 447)	61.2 ( 409)
	<i>F</i>	96.19***	78.64***	0.93	48.0***	42.4***	46.9***(a)	50.8***(a)
지역 규모	대도시	71.6 ( 929)	70.5 ( 910)	74.9 ( 543)	70.4 ( 998)	73.0 ( 950)	83.7 ( 978)	81.2 ( 985)
	중소도시	63.4 ( 985)	62.3 (1,036)	59.7 (1,376)	65.0 (1,077)	69.7 (1,094)	80.4 (1,137)	78.5 (1,087)
	읍면지역	58.5 ( 384)	65.9 ( 387)	48.5 ( 449)	62.9 ( 328)	66.3 ( 351)	72.5 ( 307)	70.9 ( 362)
	<i>F</i>	17.42***	9.5***	78.2***	6.4***	3.74**	6.8**(a)	5.7**(a)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  $p < .01$ , \*\*\*  $p < .001$ .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2024년 기준 14.8%로, 전년에 비해 0.8%p가량 감소하였다. 가구특성별로 외벌이 가구에서의 감소폭이 맞벌이 가구에 비해서 더 컸으며,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서 감소폭이 확연하게 큰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외벌이 가구 혹은 저소득 가구에서 더욱 크게 작용하여 양육비용을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표 II-2-10〉 가구특성별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9~2024년)

단위: (명), %

구분	가구소득 대비 비중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총계 (사례수)	15.8 (2,298)	14.9 (2,334)	12.7 (2,368)	14.3 (2,403)	14.2 (2,395)	15.6 (2,422)	14.8 (2,43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4.5	13.9	12.3	13.3	13.5	14.3	13.6
	외벌이	16.9	15.7	13.1	15.0	14.8	16.7	15.8
	<i>t</i>	-3.6***	-3.1**	-1.8	-2.9**	-3.1**	-3**	-4.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3.7	28.3	29.6	26.4	22.9	43.3	37.4
	300~399만원	16.5	15.7	14.3	16.5	15.8	19.3	18.0
	400~499만원	15.1	14.4	12.1	13.6	13.9	15.7	15.5
	500~599만원	14.1	13.5	11.8	12.4	12.9	14.7	14.0
	600만원 이상	11.8	11.2	9.9	10.8	10.4	12.6	12.3
	<i>F</i>	28.6***	48.7***	115.4***	44.8***	67.7***	42.9***(a)	89.5***(a)
총 자녀수	1명	19.6	18.8	17.0	18.6	17.6	18.4	18.3
	2명	15.0	14.2	12.0	13.4	13.7	14.9	14.0
	3명이상	12.2	12.1	9.8	11.7	11.4	13.7	11.6
	<i>F</i>	29.2***	29.2***	72.5***	35.1***	52.4***	9.9***	48.7***(a)

주: 1) 아동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  $p < .01$ , \*\*\*  $p < .001$ .

가구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2024년 기준 19.9%로, 앞서 결과 들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경향이 발견된다. 다만, 가구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299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도 다른 소득구간의 가구들과 비슷한 수준이 생활비 감소폭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가구소득 대비 1인당 양육비용의 감소폭이

299만원이하 가구에서 컸던 것을 감안할 때, 저소득 가구들은 양육비용뿐 아니라 가구생활비 지출액 자체를 줄여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을 위험이 높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II-2-11〉 가구특성별 가구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9~2024년)

단위: (명), %

구분	가구생활비 대비 비중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총계 (사례수)	20.8 (2,298)	19.9 (2,334)	18.9 (2,368)	19.3 (2,403)	19.4 (2,395)	21.3 (2,422)	19.9 (2,43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1.7	20.6	19.5	19.9	19.7	21.7	20.4
	외벌이	20.1	19.4	18.5	18.9	19.2	20.9	19.5
	<i>t</i>	4.6***	3.4***	2.7**	2.9**	1.4	2.3*	2.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0.0	21.7	21.1	20.5	19.7	22.5	20.5
	300~399만원	20.4	19.3	19.5	19.8	19.2	22.0	20.3
	400~499만원	21.0	19.6	18.1	19.0	19.5	20.9	19.8
	500~599만원	21.0	20.3	19.3	18.7	19.3	21.2	19.4
	600만원 이상	21.7	20.2	18.9	19.3	19.1	21.2	20.2
	<i>F</i>	2.2	2.9*	4.3**	2.1	1.2	1.2(a)	0.9(a)
총 자녀수	1명	27.6	26.9	25.9	25.9	25.8	27.9	26.3
	2명	19.2	18.9	18.1	18.8	18.7	20.6	18.9
	3명이상	14.7	13.9	13.3	13.2	13.5	14.0	13.1
	<i>F</i>	413.9***	372.2***	384.4***	383.4***	416.3***	448.7***(a)	431.9***(a)

주: 1) 아동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

### 3. 영유아 가구의 주거 환경 및 거주지 선택

응답 대상 가구의 85.6%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10.4%였다.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저소득 가구들이 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21.8%로 높았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 비중이 감소하고 아파트 거주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한편, 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대도시에서 17.8%로 매우 높고,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 비중이 9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 거주 주택 종류

단위: %(명)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상가 주택	기타	계(수)
전체		2.5	85.6	10.4	1.2	0.4	100.0 (1,8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3	85.6	9.5	1.3	0.2	100.0 ( 898)
	외벌이	1.6	85.5	11.4	1.0	0.5	100.0 ( 923)
	$\chi^2$	8.735(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8	72.7	21.8	1.8	1.8	100.0 ( 55)
	300~399만원	3.3	76.2	19.2	0.8	0.4	100.0 ( 239)
	400~499만원	2.0	82.8	12.9	2.0	0.2	100.0 ( 402)
	500~599만원	3.4	85.6	9.7	1.0	0.3	100.0 ( 381)
	600만원 이상	2.0	91.0	5.8	0.8	0.4	100.0 ( 744)
	$\chi^2$	59.288(16)***(b)					
총 자녀수	1명	2.6	83.6	13.0	0.5	0.5	100.0 ( 664)
	2명	2.0	87.8	8.8	1.1	0.3	100.0 ( 912)
	3명이상	4.1	82.4	9.8	3.3	0.4	100.0 ( 245)
	$\chi^2$	23.670(8)**(b)					
지역 규모	대도시	2.6	77.2	17.8	2.1	0.3	100.0 ( 723)
	중소도시	2.1	90.8	6.2	0.6	0.4	100.0 ( 825)
	읍면지역	3.3	91.9	3.7	0.4	0.7	100.0 ( 273)
	$\chi^2$	85.602(8)***(b)					

주: (b)는 카이제곱 기본 가정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전체 셀의 2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 의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1$ , \*\*\*  $p < .001$ .

가구의 거주 형태별로는 자가인 경우가 57.9%였으며, 전세 29.5%, 월세 7.1% 등이었다. 자가 비중은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자가 비중이 61.8%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가 비중이 52.1%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I-3-2〉 거주 형태

단위: %(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	기타(사택, 무상거주)	계(수)
전체		57.9	29.5	7.1	5.4	100.0 (1,8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2.0	25.8	6.8	5.3	100.0 ( 898)
	외벌이	54.0	33.0	7.5	5.5	100.0 ( 923)
$\chi^2$		13.466(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9.1	29.1	27.3	14.5	100.0 ( 55)
	300~399만원	50.2	34.3	9.2	6.3	100.0 ( 239)
	400~499만원	52.5	36.1	7.0	4.5	100.0 ( 402)
	500~599만원	54.3	31.8	8.1	5.8	100.0 ( 381)
	600만원 이상	67.3	23.3	4.6	4.8	100.0 ( 744)
$\chi^2$		92.936(12)***				
총 자녀수	1명	48.8	38.9	5.9	6.5	100.0 ( 664)
	2명	63.8	24.5	7.6	4.2	100.0 ( 912)
	3명이상	60.8	22.9	9.0	7.3	100.0 ( 245)
$\chi^2$		55.179(6)***				
지역 규모	대도시	52.1	33.5	6.8	7.6	100.0 ( 723)
	중소도시	61.8	29.1	5.9	3.2	100.0 ( 825)
	읍면지역	61.5	20.1	11.7	6.6	100.0 ( 273)
$\chi^2$		43.646(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1$ , \*\*\*  $p < .001$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3.3점으로 보통 수준의 부담을 응답하였다. 주거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은 자가의 경우 주택구입의 대출 원리금 비용 및 재산세 및 종부세, 전세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월세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및 월세액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최효미, 2024: 446). 주택 거주 형태에 따라 부담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자가와 전세인 경우 적당하다는 응답이 40% 초반인 데 반해, 월세인 경우에는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23.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서 오히려 주택의 주거비가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99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16.4%,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이 36.4%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자녀가 많아질수록 적당하다는 응답 비중이 낮은 특징이 발견되며, 자녀가 1명인 경우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3〉 주택의 주거비 부담 정도

단위: %, 점, (명)

구분	부담정도					평균 점수	(수)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전체	6.6	12.9	40.0	29.1	11.5	3.3	(1,8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3	13.5	36.0	29.8	13.4	3.3	( 898)
	외벌이	5.9	12.2	43.9	28.4	9.6	3.2	( 923)
	$\chi^2/t$	15.035(4)**					1.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5	12.7	29.1	36.4	16.4	3.5	( 55)
	300~399만원 이하	3.3	12.1	46.4	26.4	11.7	3.3	( 239)
	400~499만원 이하	7.7	10.9	37.3	33.3	10.7	3.3	( 402)
	500~599만원 이하	6.6	11.0	45.1	25.2	12.1	3.3	( 381)
	600만원 이상	7.1	15.1	37.5	29.2	11.2	3.2	( 744)
	$\chi^2/F$	26.211(16)					0.9	
총 자녀수	1명	7.1	11.3	42.8	29.4	9.5	3.2	( 664)
	2명	5.9	13.5	39.0	28.8	12.7	3.3	( 912)
	3명이상	7.8	14.7	35.9	29.4	12.2	3.2	( 245)
	$\chi^2/F$	9.744(8)					0.7	
지역 규모	대도시	5.4	14.5	38.6	30.8	10.7	3.3	( 723)
	중소도시	7.6	10.7	40.0	28.6	13.1	3.3	( 825)
	읍면지역	6.6	15.0	43.6	26.0	8.8	3.2	( 273)
	$\chi^2/F$	15.554(8)*					1.8	
주택 거주 형태	자가	4.9	12.6	40.9	30.0	11.6	3.3	(1,055)
	전세	5.0	11.4	40.6	32.8	10.2	3.3	( 537)
	월세	5.4	14.6	34.6	22.3	23.1	3.4	( 130)
	기타	34.3	21.2	33.3	9.1	2.0	2.2	( 99)
	$\chi^2/F$	173.527(12)***					36.9***(a)	

주: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

거주지를 결정할 때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떤 사항을 주로 고려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2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과 가까이 살기 위해’가 20.1%였다. 맞벌이 가구들은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과 가까이 살기 위해’라는 응답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외벌이 가구들은 ‘아빠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서’(17.8%)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역규모별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과 가까이 살기 위해’라는 응답이 32.7%로 높은 반면, 중소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30.8%로 높았고,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아빠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서’(21.0%)라는 응답이 높았다.

〈표 II-3-4〉 자녀양육과 거주지 선택 관련성

단위: 가구 (%)

구분	거주지 양육관련 유무	거주를 결정하게 된 사유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전체	37.0	20.1	4.2	11.6	15.5	12.7	23.7	11.3	0.7	(1,821)	
맞벌이 가구	맞벌이	41.6	23.6	6.7	6.7	14.2	10.5	25.2	11.8	1.3	( 898)
	외벌이	32.4	15.8	1.0	17.8	17.2	15.5	21.9	10.8	0.0	( 923)
여부	$\chi^2$	16.729(1)***								44.540(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4.5	21.1	5.3	5.3	21.1	21.1	15.8	10.5	0.0	( 55)
	300~399만원 이하	38.9	11.8	0.0	17.2	20.4	15.1	25.8	9.7	0.0	( 239)
	400~499만원 이하	36.1	16.0	2.1	20.8	12.5	11.8	20.8	14.6	1.4	( 402)
	500~599만원 이하	33.3	23.0	4.0	9.5	13.5	12.7	23.0	13.5	0.8	( 381)
	600만원 이상	38.8	23.6	6.6	6.6	16.0	11.8	25.3	9.4	0.7	( 744)
	$\chi^2$	3.950(4)		47.543(28)*(b)							
총 자녀수	1명	30.4	25.7	5.0	16.3	16.3	6.9	23.8	5.9	0.0	( 664)
	2명	40.0	17.4	3.6	10.5	14.3	15.4	25.1	12.7	1.1	( 912)
	3명이상	43.3	19.0	4.8	6.7	18.1	14.3	19.0	17.1	1.0	( 245)
	$\chi^2$	20.034(2)***		32.584(14)**							
지역 규모	대도시	34.7	32.7	3.6	10.4	16.7	13.9	14.7	7.6	0.4	( 723)
	중소도시	36.0	13.6	4.7	8.8	14.9	12.2	30.8	13.6	1.4	( 825)
	읍면지역	45.8	10.5	4.0	21.0	14.5	11.3	25.0	13.7	0.0	( 273)
	$\chi^2$	11.019(2)**		67.439(14)***							

주: 1) ①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② 엄마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③ 아빠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④ 지역 내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등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⑤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⑥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⑦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

2) (b)는 카이제곱 기본 가정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전체 셀의 2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 의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

한편, 자녀 양육 시 좋은 주거지가 갖추어야 할 주요 조건으로는 2024년 응답 기준 아동 관련 인프라(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가 많은 곳이 3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이 26.4%,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 25.0% 순이었다. 이 문항은 1차년도 조사인 2018년과 6차년도 조사인 2023년에 설문에 포함되어 조사가 되었는데, 이전 조사에서는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2018년 36.7%, 2023년 32.1%로 가장 높아져 2024년 경향성이 크게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5〉 자녀 양육 시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주요 조건

단위: %, (가구)

구분		2018	2023	2024
자녀 양육 시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주요 조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	26.4	27.4	26.4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접근성이 좋은 곳	12.1	13.4	16.3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 (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	36.7	32.1	25.0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 (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	24.1	26.5	31.2
	주거 밀집지역	0.4	0.5	0.9
	기타	0.4	0.1	0.2
(수)		(1,648)	(1,773)	(1,821)

자료: 1) 최호미 외(2018). p.170. 〈표 V-1-14〉.  
2) 'KICCE 소비실태조사' 1, 6, 7차년도 원자료.

## 4. 양육 부담 및 삶의 만족도

### 가. 양육부담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인식은 1차년도(2018년) 약간 낮았으나, 이후로는 3점(보통)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용의 충분성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다 자녀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엿볼 수 있다.

〈표 II-4-1〉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변화(2018~2024년)

단위: 점,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전체	2.5	(1,648)	3.0	(1,665)	3.0	(1,679)	3.0	(1,709)	2.9	(1,730)	2.9	(1,773)	3.0	(1,8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6 ( 761)	3.1 ( 738)	3.2 ( 735)	3.1 ( 720)	3.0 ( 767)	2.9 ( 835)	3.1 ( 898)						
	외벌이	2.4 ( 887)	3.0 ( 927)	2.9 ( 944)	2.9 ( 989)	2.9 ( 963)	2.9 ( 938)	3.0 ( 923)						
	<i>t</i>	5.8***	2.2**	5.1***	4.1***	2.2*	2.0*	1.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 ( 359)	2.7 ( 239)	2.5 ( 118)	2.6 ( 200)	2.6 ( 145)	2.5 ( 45)	2.5 ( 55)						
	300~399만원	2.4 ( 474)	2.9 ( 468)	2.9 ( 372)	2.9 ( 476)	2.8 ( 495)	2.6 ( 274)	2.8 ( 239)						
	400~499만원	2.6 ( 374)	3.0 ( 435)	3.0 ( 512)	3.0 ( 448)	2.9 ( 419)	2.8 ( 472)	3.0 ( 402)						
	500~599만원	2.6 ( 201)	3.1 ( 268)	3.1 ( 296)	3.2 ( 293)	3.0 ( 301)	2.8 ( 366)	3.0 ( 381)						
	600만원 이상	2.7 ( 240)	3.3 ( 255)	3.3 ( 381)	3.3 ( 292)	3.2 ( 370)	3.1 ( 616)	3.2 ( 744)						
	<i>F</i>	25.2***	17.2***	21.8***	28.3***	20.5***(a)	23***(a)	14.3***(a)						
총 자녀수	1명	2.6 ( 638)	3.1 ( 559)	3.2 ( 543)	3.2 ( 551)	3.0 ( 583)	3.1 ( 628)	3.2 ( 664)						
	2명	2.5 ( 818)	3.0 ( 878)	3.0 ( 889)	3.0 ( 910)	2.9 ( 900)	2.8 ( 894)	2.9 ( 912)						
	3명이상	2.3 ( 192)	2.8 ( 228)	2.8 ( 247)	2.7 ( 248)	2.7 ( 247)	2.6 ( 251)	2.7 ( 245)						
	<i>F</i>	15.0***	15.5***	16.6***	25.4***	13.3***(a)	30.8***(a)	37.4***(a)						

주: 1) 1차년도는 4점 척도, 2~4차는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함.

2)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01$ .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은 2024년에도 교육보육비가 가장 높긴 하나, 그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식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201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식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5차년도(2022년)에 2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다 이후 조금 감소하기는 하지만, 2024년도에도 24.8%가 이에 응답하여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예년에 비해 부담된다는 응답이 증가한 비목은 원리금 상환으로, 2023년 12.6%, 2024년 14.6%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부담되는 비목이 없다는 응답 비중도 2024년에는 10.0% 있었다.

〈표 II-4-2〉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변화(2018~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수)	(1,648)	(1,665)	(1,679)	(1,709)	(1,730)	(1,773)	(1,821)
1. 식비(외식비포함)	17.7	15.5	18.7	24.3	28.7	26.1	24.8
2. 주거 관리비	4.0	2.7	1.5	1.3	1.9	2.7	2.8
3. 기기/집기	0.8	0.8	0.5	0.6	0.5	0.7	0.5
4. 피복비(의류및신발)	1.8	2.0	1.8	1.9	2.1	0.8	0.9
5. 보건/의료비	1.6	1.6	1.3	1.5	1.4	1.4	0.8
6. 교육/보육비	44.6	48.8	54.6	40.6	35.3	32.5	28.9
7.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5.0	3.5	2.5	2.8	4.0	2.4	4.4
8. 교통비/통신비	0.8	1.0	0.2	0.3	0.5	0.3	0.4
9. 개인유지비	7.0	7.7	6.8	11.0	9.7	6.3	6.4
10. 금융상품	4.1	4.1	2.4	4.1	5.0	4.9	4.8
11. 원리금 상환	-	11.0	7.8	9.5	9.9	12.6	14.6
12. 이전지출	0.7	1.0	0.7	1.0	0.3	0.3	0.4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5	0.5	1.2	0.1	0.6	0.1	0.1
14. 부담되는 항목없음	11.3	-	-	0.8	-	8.9	10.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자녀 양육시 부담되는 비목은 맞벌이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식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데 반해, 맞벌이 가구는 교육보육비와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저소득 가구에서 식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45.5%에 달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총 자녀수에 따라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식비가 부담된다는 응답(33.1%)과 교육보육비(36.7%)가 동시에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36.4%)이 자녀가 1명인 경우(15.8%)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양태를 보이는데, 식비가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23.0%)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녀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교육보육비 지출이 크게 변동하는 데 반해, 2명에서 3명이 될 때는 식비 부담이 증가함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보육비 부담(33.7%)을 좀 더 크게 느끼는 데 반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대출 등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감(17.1%)이 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4-3〉 가구특성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항목														(수)		
	식비	주거 / 관리비	기거 / 집기	파복비	보건 / 의료비	교육 / 보육비	여가 / 문화생활비	교통 / 통신비	개인 유지비	금융 상품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이전 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모름 / 무응답		부담 되는 항목 없음	
전체	24.8	2.8	0.5	0.9	0.8	28.9	4.4	0.4	6.4	4.8	14.6	0.4	0.1	-	10.0	(1,821)	
맞벌이 가구	맞벌이	20.2	2.8	0.6	0.9	31.5	3.5	0.3	5.2	5.8	17.6	0.8	0.1	-	10.2	( 898)	
	외벌이	29.4	2.8	0.5	0.9	1.1	26.4	5.3	0.5	7.6	3.9	11.7	0.0	0.0	-	9.9	( 923)
여부	$\chi^2$	51.544(13)*** (b)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5.5	1.8	0.0	0.0	0.0	25.5	5.5	1.8	1.8	3.6	5.5	0.0	0.0	-	9.1	( 55)
	300~399만원 이하	32.2	3.8	0.4	0.0	1.7	21.8	5.9	1.3	9.2	6.7	12.1	0.0	0.0	-	5.0	( 239)
	400~499만원 이하	31.3	3.5	0.2	1.5	0.5	26.4	4.7	0.5	7.7	2.7	10.2	0.0	0.0	-	10.7	( 402)
	500~599만원 이하	23.1	2.6	0.8	0.5	1.0	28.3	3.4	0.5	7.9	5.5	16.3	0.5	0.0	-	9.4	( 381)
	600만원 이상	18.3	2.3	0.7	1.1	0.7	33.2	4.2	0.0	4.4	5.1	17.6	0.7	0.1	-	11.7	( 744)
	$\chi^2$	116.085(52)*** (b)															
총 자녀수	1명	24.2	2.7	0.9	1.2	0.6	15.8	5.1	0.9	10.2	4.8	14.0	0.8	0.0	-	18.7	( 664)
	2명	23.0	3.0	0.3	0.8	0.7	36.4	4.3	0.1	4.6	5.3	15.6	0.2	0.0	-	5.8	( 912)
	3명 이상	33.1	2.4	0.4	0.4	2.0	36.7	2.9	0.4	2.9	3.3	12.7	0.0	0.4	-	2.4	( 245)
	$\chi^2$	204.637(26)*** (b)															
지역 규모	대도시	21.7	2.6	0.7	0.4	0.8	33.7	5.7	0.1	7.7	4.8	12.9	0.4	0.0	-	8.3	( 723)
	중소도시	26.8	2.9	0.5	1.5	0.7	26.7	3.4	0.5	5.2	4.2	17.1	0.4	0.1	-	10.1	( 825)
	읍면지역	27.1	2.9	0.4	0.4	1.1	23.1	4.0	1.1	6.6	6.6	11.7	0.4	0.0	-	14.7	( 273)
	$\chi^2$	52.658(26)** (b)															

주: (b)는 카이제곱 기본 가정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전체 셀의 2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 의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1$ , \*\*\*  $p < .001$ .

앞으로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면 어떠한 지출부터 줄여나갈 것인지를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는 식비를 줄인다는 응답이 2022년 조사 이후 꾸준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가 및 문화생활비가 2024년 기준 25.9%로 다음을 차지했다. 양육비용에서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교육보육비의 경우, 향후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2.9%에 그쳐, 교육보육비의 높은 비탄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표 II-4-4〉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적 지출 축소 비목 변화(2022-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5차년도(2022년)	6차년도(2023년)	7차년도(2024년)
(수)	(1,730)	(1,773)	(1,821)
1. 식비(외식비포함)	35.0	37.7	37.7
2. 주거/관리비	0.6	1.7	1.1
3. 기기/집기	1.7	1.5	1.5
4. 피복비(의류및신발)	10.7	10.1	6.6
5. 보건/의료비	0.8	0.7	0.1
6. 교육/보육비	5.9	2.8	2.9
7.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22.8	22.2	25.9
8. 교통비/통신비	0.5	1.1	1.5
9. 개인유지비	11.2	10.9	10.1
10. 금융상품	7.5	7.5	8.1
12. 이전지출	1.9	1.4	1.9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5	0.6	0.3
14.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	0.2	-
15. 모름/무응답	1.0	1.5	2.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7차년도 원자료.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면 어떤 비용부터 지출을 축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식비, 여가문화생활비, 개인유지비, 피복비 순으로, 교육보육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6.4%에 그쳐 높은 교육열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매해 유지되는 경향성이라 볼 수 있다.

〈표 II-4-5〉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적 지출 축소 비목(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적 지출 축소 비목														(수)
	식비	주거 / 관리비	기기 / 집기	피복비	보건 / 의료비	교육 / 보육비	여가 / 문화 생활비	교통 / 통신비	개인 유지비	금융 상품	이전 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반려 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모름 / 무응답	
1+2순위	49.9	4.9	4.2	21.5	0.8	6.4	47.7	4.9	27.8	17.1	4.6	1.5	0.2	2.3	(1,821)
1순위	37.7	1.1	1.5	6.6	0.1	2.9	25.9	1.5	10.1	8.1	1.9	0.3	-	2.3	(1,821)
2순위	12.2	3.8	2.7	14.8	0.7	3.5	21.9	3.3	17.7	9.1	2.6	1.2	0.2	0.0	(1,82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한편, 아이 1명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시기별 예상 양육비용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2024년 기준 초등학생이 경우 평균 87만원, 중고등학생의 경우 145만2천원이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양육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6〉 아이 1명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시기별 양육비용 변화(2022~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6차년도(2023년)		7차년도(2024년)	
	평균	(수)	평균	(수)
초등학생	85.3	(1,773)	87.0	(1,821)
중·고등학생	141.6	(1,773)	145.2	(1,82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예상 양육비용을 좀 더 높게 응답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반면,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아동 1인당 예상 양육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4-7〉 아이 1명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시기별 양육비용(2024년)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금액	(수)	금액	(수)
전체		87.0	(1,821)	145.2	(1,8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93.1	( 898)	153.9	( 898)
	외벌이	81.0	( 923)	136.6	( 923)
	<i>t</i>	5***		4.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5.2	( 55)	129.6	( 55)
	300~399만원	80.4	( 239)	134.2	( 239)
	400~499만원	79.4	( 402)	133.5	( 402)
	500~599만원	81.2	( 381)	135.8	( 381)
	600만원 이상	97.1	( 744)	160.9	( 744)
	<i>F</i>	12.4***(a)		14.3***(a)	
총 자녀수	1명	86.6	( 664)	145.0	( 664)
	2명	88.4	( 912)	146.3	( 912)
	3명이상	83.1	( 245)	141.4	( 245)
	<i>F</i>	1.0		0.4(a)	

구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금액	(수)	금액	(수)
지역 규모	대도시	90.3	( 723)	152.3	( 723)
	중소도시	86.0	( 825)	142.7	( 825)
	읍면지역	81.4	( 273)	133.7	( 273)
	<i>F</i>	3.3*		6.9**	

주: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

자녀 양육 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년에 비해 13.2%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미성년 시기까지 지원하면 된다는 응답과 취업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8> 자녀 양육 시 경제적 지원 시기 변화(2022~2024년)

단위: %(가구)

구분	미성년 시기까지 지원 (고교졸업까지)	대학 졸업까지 지원	취업이 될 때까지는 지원	결혼할 때까지 지원	손자녀 양육까지 지원	기타	계(수)
6차년도(2023년)	20.2	40.2	32.3	6.5	0.5	0.3	100.0 (1,773)
7차년도(2024년)	14.6	53.4	27.5	4.1	0.5	-	100.0 (1,82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 나. 삶의 만족도

영유아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2024년 기준 평균 3.5점으로,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삶의 만족도 항목별로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 4.0점이었으며,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3.1점이었다. 항목별 삶의 만족도 또한 2023년과 2024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9〉 삶의 만족도 변화(2023~2024년)

단위: %(가구)

구분	6차년도(2023년)		7차년도(2024년)	
	평균	(수)	평균	(수)
가구의 경제적 수준	3.2	(1,773)	3.2	(1,821)
여가생활	3.1	(1,773)	3.1	(1,821)
주거환경	3.5	(1,773)	3.6	(1,821)
가족관계	4.0	(1,773)	4.0	(1,821)
자녀돌봄(양육)	3.5	(1,773)	3.5	(1,821)
사회적 친분관계	3.6	(1,773)	3.6	(1,821)
자아성취	3.2	(1,773)	3.2	(1,821)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3.5	(1,773)	3.5	(1,82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영유아 가구들은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중 혹은 중하라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높는데, 2024년 기준 39.1%가 중중, 30.8%가 중하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미래의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중상에 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중에 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30.2%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0〉 시기별 사회경제적 위치 변화(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6차년도(2023년)				7차년도(2024년)			
		결혼당시	현재	미래	(수)	결혼당시	현재	미래	(수)
상층	상상	0.3	0.1	2.5	(1,773)	0.4	0.1	3.0	(1,821)
	상중	3.4	1.9	6.7	(1,773)	2.3	1.7	5.5	(1,821)
	상하	1.5	1.9	9.9	(1,773)	2.4	2.6	9.5	(1,821)
중층	중상	9.5	10.1	28.7	(1,773)	9.2	11.0	33.2	(1,821)
	중중	32.5	38.9	32.3	(1,773)	32.9	39.1	30.2	(1,821)
	중하	31.2	32.1	14.6	(1,773)	31.6	30.8	13.3	(1,821)
하층	하상	15.3	9.4	3.7	(1,773)	15.0	10.8	3.5	(1,821)
	하중	4.7	3.8	1.0	(1,773)	4.8	2.9	1.4	(1,821)
	하하	1.5	1.9	0.7	(1,773)	1.4	1.1	0.4	(1,82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좀 더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들의 경우 미래에도 하층에 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16.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 집단의 경우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34.5%로 미래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엿볼 수는 있었다.

〈표 II-4-11〉 시기별 사회경제적 위치(2024년)

단위: 점

구분	결혼당시			현재			미래			계(수)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전체	5.2	73.6	21.2	4.4	80.9	14.7	18.0	76.7	5.3	100.0 (1,8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9	78.8	15.3	5.3	85.1	9.6	20.8	75.7	3.5	100.0 ( 898)
	외벌이	4.4	68.6	27.0	3.5	76.8	19.7	15.3	77.6	7.2	100.0 ( 923)
	$\chi^2$	37.888(2)***			39.306(2)***			19.669(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8	67.3	30.9	1.8	63.6	34.5	12.7	70.9	16.4	100.0 ( 55)
	300~399만원	6.7	65.7	27.6	4.2	70.3	25.5	11.3	80.3	8.4	100.0 ( 239)
	400~499만원	3.5	69.4	27.1	3.0	76.6	20.4	14.2	78.1	7.7	100.0 ( 402)
	500~599만원	5.2	74.5	20.2	3.9	81.9	14.2	16.3	80.1	3.7	100.0 ( 381)
	600만원 이상	5.8	78.5	15.7	5.6	87.4	7.0	23.5	73.4	3.1	100.0 ( 744)
	$\chi^2$	35.202(8)***			88.394(8)***			55.624(8)***			
총 자녀수	1명	5.4	70.5	24.1	4.8	80.1	15.1	15.2	79.5	5.3	100.0 ( 664)
	2명	5.6	76.8	17.7	4.4	82.5	13.2	20.2	75.0	4.8	100.0 ( 912)
	3명이상	2.9	70.6	26.5	3.3	77.1	19.6	17.6	75.1	7.3	100.0 ( 245)
	$\chi^2$	16.664(4)**			7.250(4)			8.717(4)			
지역 규모	대도시	4.1	74.7	21.2	4.3	82.8	12.9	19.5	75.7	4.8	100.0 ( 723)
	중소도시	6.4	74.9	18.7	4.8	79.6	15.5	16.6	77.8	5.6	100.0 ( 825)
	읍면지역	4.0	67.0	28.9	3.3	79.5	17.2	18.3	75.8	5.9	100.0 ( 273)
	$\chi^2$	16.777(4)**			4.929(4)			2.637(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1$ , \*\*\*  $p < .001$ .



# III

##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 0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02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03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 Ⅲ.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 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가. 반일제이상 기관

###### 1) 이용기관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18년 51.1%에서 중간에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4년 49.5%로 소폭 감소했고, 유치원 이용 비율은 2018년 27.7%에서 중간에 변동이 있었으나 2024년에는 27.9%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일제이상 학원 등은 2018년 3.2%였으나 이후 1%대를 유지하면서 2024년에는 1.1%였다.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율은 2018년에는 18.0%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7.6%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중간에 변동은 있으나 차츰 감소하는 추세로 2024년에는 21.4%로 나타났다.

〈표 Ⅲ-1-1〉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2018~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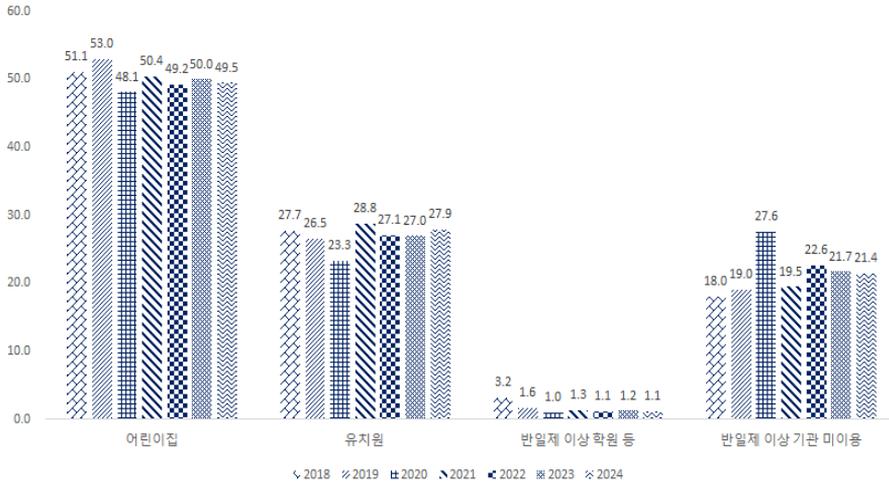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2018년	100.0 (2,277)	51.1 (1,163)	27.7 ( 630)	3.2 ( 74)	18.0 ( 410)
2019년	100.0 (2,333)	53.0 (1,235)	26.5 ( 617)	1.6 ( 37)	19.0 ( 443)
2020년	100.0 (2,368)	48.1 (1,139)	23.3 ( 551)	1.0 ( 24)	27.6 ( 653)
2021년	100.0 (2,371)	50.4 (1,196)	28.8 ( 682)	1.3 ( 31)	19.5 ( 462)
2022년	100.0 (2,393)	49.2 (1,177)	27.1 ( 648)	1.1 ( 27)	22.6 ( 542)
2023년	100.0 (2,422)	50.0 (1,212)	27.0 ( 655)	1.2 ( 29)	21.7 ( 526)
2024년	100.0 (2,434)	49.5 (1,205)	27.9 ( 680)	1.1 ( 27)	21.4 ( 522)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그림 III-1-1]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2018~2024년)

단위: %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2024년도 영유아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율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반일제이상 기관의 미이용 비율은 외별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치원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일관되지는 않았다.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율은 가구소득이 400~599만원인 경우에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600만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일제이상 학원 등의 이용 비율은 6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3명 이상일 경우에 어린이집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3세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5세의 유치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세부터는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표 III-1-2〉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2024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전체		49.5	27.9	1.1	21.4	100.0 (2,43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2.1	28.9	1.2	17.8	100.0 (1,191)
	외벌이	47.0	27.0	1.0	24.9	100.0 (1,243)
	$\chi^2$	18.622(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8.7	29.6	-	11.7	100.0 ( 172)
	300~399만원	56.0	25.6	-	18.4	100.0 ( 493)
	400~499만원	44.9	26.8	0.3	28.0	100.0 ( 697)
	500~599만원	49.0	31.0	1.2	18.9	100.0 ( 512)
	600만원 이상	47.3	28.1	3.3	21.3	100.0 ( 560)
	$\chi^2$	79.021(16)***(b)				
총 자녀수	1명	48.2	17.6	0.5	33.7	100.0 ( 689)
	2명	48.2	32.0	1.4	18.4	100.0 (1,352)
	3명이상	56.3	32.2	0.9	10.6	100.0 ( 393)
	$\chi^2$	124.128(8)***(b)				
지역 규모	대도시	47.8	28.4	1.4	22.4	100.0 ( 944)
	중소도시	50.3	28.3	1.1	20.3	100.0 (1,106)
	읍면지역	51.6	25.6	0.3	22.6	100.0 ( 384)
	$\chi^2$	9.145(8)(b)				
자녀 연령	0세(2024년생)	1.3	-	-	98.7	100.0 ( 299)
	1세(2023년생)	41.1	-	-	58.9	100.0 ( 298)
	2세(2022년생)	85.7	0.3	-	14.0	100.0 ( 323)
	3세(2021년생)	95.6	2.2	0.6	1.6	100.0 ( 340)
	4세(2020년생)	53.4	45.4	1.0	0.3	100.0 ( 355)
	5세(2019년생)	38.6	58.9	2.6	-	100.0 ( 394)
	6세(2018년생)	31.9	65.5	2.6	-	100.0 ( 425)
	$\chi^2$	2518.627(24)***(b)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b)는 카이제곱 기본 가정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전체 셀의 2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 의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2024년도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을 살펴보면 국공립 34.7%, 사회복지법인 3.8%, 법인·단체 1.9%, 민간 45.5%, 가정 10.7%, 직장 3.3%로, 민간 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600만원 이상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아서 다른 소



특 구간과 다른 양상을 보였고, 가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은 높아지고 민간어린이집의 이용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영향으로 사료된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민간어린이집의 이용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가정어린이집의 이용률은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2024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모름	계(수)
전체		34.7	3.8	1.9	45.5	10.7	3.3	0.2	-	100.0 (1,20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5.3	4.2	1.2	40.3	12.7	5.9	0.3	-	100.0 ( 621)
	외벌이	34.0	3.4	2.6	51.0	8.5	0.5	-	-	100.0 ( 585)
		$\chi^2$ 44.912(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9.1	8.1	3.9	49.6	8.2	1.1	-	-	100.0 ( 101)
	300~399만원	35.2	2.3	3.4	49.5	8.3	1.3	-	-	100.0 ( 276)
	400~499만원	33.4	3.8	1.0	48.1	9.6	3.5	0.6	-	100.0 ( 313)
	500~599만원	35.4	2.9	1.5	46.6	11.2	2.4	-	-	100.0 ( 251)
	600만원 이상	37.1	4.6	1.0	35.7	14.7	6.8	-	-	100.0 ( 265)
		$\chi^2$ 51.230(24)*** <sup>(b)</sup>								
총 자녀수	1명	30.6	2.0	1.7	47.6	14.5	3.7	-	-	100.0 ( 332)
	2명	34.5	3.7	2.0	46.7	9.4	3.4	0.3	-	100.0 ( 652)
	3명이상	41.5	6.8	1.7	39.1	8.6	2.2	-	-	100.0 ( 221)
		$\chi^2$ 23.841(12)*								
지역 규모	대도시	41.2	3.2	2.8	43.0	7.8	2.0	-	-	100.0 ( 451)
	중소도시	30.5	4.5	1.6	44.9	14.9	3.7	-	-	100.0 ( 557)
	읍면지역	31.8	3.4	0.5	53.0	5.4	5.0	1.0	-	100.0 ( 198)
		$\chi^2$ 50.171(1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01$ .

2024년도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 설립 유형을 보면, 국·공립 34.4%, 사립 65.6%였다.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사립유치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299만원 이하에서 51.5%

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 이용률은 500만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70.1%) 가구소득별로 이용하는 유치원 설립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이 높아지고 사립유치원 이용률은 감소하였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감소하고, 사립유치원 이용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 설립 유형(2024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립	계(수)
전체		34.4	65.6	100.0 (68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0.0	70.0	100.0 (344)
	외벌이	38.9	61.1	100.0 (336)
	$\chi^2$	5.916(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1.5	48.5	100.0 ( 51)
	300~399만원	38.4	61.6	100.0 (126)
	400~499만원	34.5	65.5	100.0 (187)
	500~599만원	29.9	70.1	100.0 (159)
	600만원 이상	30.0	70.0	100.0 (157)
	$\chi^2$	9.893(4)*		
총 자녀 수	1명	28.2	71.8	100.0 (121)
	2명	32.2	67.8	100.0 (433)
	3명이상	47.7	52.3	100.0 (126)
	$\chi^2$	12.845(2)**		
지역 규모	대도시	25.2	74.8	100.0 (268)
	중소도시	35.5	64.5	100.0 (313)
	읍면지역	55.7	44.3	100.0 ( 98)
	$\chi^2$	29.724(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

2024년도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학원 유형을 살펴보면, 영어학원이 8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타 6.9%, 놀이학원 6.8%, 체육학원 3.3% 순이었다. 단, 반일제이상 학원 응답자 수가 많지 않아 가구특성별 차이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 III-1-5〉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학원 유형(2024년)

단위: %(명)

영어학원	예능학원	놀이학원	체육학원	기타	계(수)
83.1	-	6.8	3.3	6.9	100.0 (2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2024년도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타 육아서비스 유형은 예능학원이 2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은 기타 교육서비스 19.9%, 문화센터 등 12.1%, 학습관련 학원 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타 육아서비스 유형(2024년)

단위: %(명)

문화센터 등	예능학원	학습관련 학원	기타 교육서비스	계(수)
12.1	20.4	6.9	19.9	100.0 (2,43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2)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이용 기관별로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3차년도(2020년)의 42.4%를 제외하면, 1차년도(2018년) 65.1%에서 6차년도(2023년) 73.9%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7차년도(2024년)에는 72.1%로 다소 감소하였다.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은 1차년도(2018년)부터 3차년도(2020년)까지는 감소하다가 4차년도(2021년)에 73.5%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2년간 증가하였으나, 7차년도(2024년)에는 79.8%로 다소 감소하였다. 반일제이상 학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은 1차년도(2018년)부터 3차년도(2020년)까지는 감소하다가 4차년도(2021년)와 5차년도(2022년)에는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6차년도(2023년도)부터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표 III-1-7〉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비중 및 이용자 수(2018~2024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특별활동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반일제이상 학원 특성화 프로그램	
1차년도(2018년)	65.1	(726)	66.4	(401)	59.1	(44)
2차년도(2019년)	65.9	(734)	52.1	(288)	47.2	(18)
3차년도(2020년)	42.4	(459)	42.3	(211)	42.7	(10)
4차년도(2021년)	66.3	(792)	73.5	(501)	51.0	(16)
5차년도(2022년)	71.7	(843)	84.2	(545)	54.5	(15)
6차년도(2023년)	73.9	(896)	84.7	(554)	45.1	(13)
7차년도(2024년)	72.1	(869)	79.8	(543)	39.2	(10)

주: 해당 기관 이용자 중 특별활동 이용자 비중 및 이용자 수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를 살펴보면, 대체로 3개 내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비해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많았으며, 반일제이상 학원을 다니는 경우 4차년도(2021년)부터 6차년도(2023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과목 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았다.

〈표 III-1-8〉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2018~2024년)

단위: 개, (명)

구분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 수		유치원특성화 프로그램 과목 수		반일제이상 학원 특성화 프로그램 과목 수	
1차년도(2018년)	3.0	(726)	3.1	(401)	2.9	(44)
2차년도(2019년)	3.0	(734)	3.1	(288)	2.9	(18)
3차년도(2020년)	2.9	(459)	2.9	(211)	2.9	(10)
4차년도(2021년)	2.7	(792)	3.2	(501)	3.4	(16)
5차년도(2022년)	3.0	(843)	3.0	(545)	3.2	(15)
6차년도(2023년)	2.9	(896)	3.3	(554)	3.6	(13)
7차년도(2024년)	2.9	(869)	3.3	(543)	2.9	(10)

주: 특별활동 이용자(괄호는 이용자 수) 기준 평균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 3) 이용시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대체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35~36시간 내외, 반일제이상 학원은 28~35시간까지 해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 시행되었던 2020년에 37.5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의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7차년도(2024년)에는 36.9시간으로 어린이집과 이용시간이 같았다. 한편 반일제이상 학원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5차년도(2022년)에 35.1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차년도(2024년)에는 32.0시간이었다.

〈표 III-1-9〉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2018~2024년)

단위: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1차년도(2018년)	34.9	(1,163)	34.4	(630)	28.3	(74)
2차년도(2019년)	35.4	(1,235)	34.4	(617)	29.7	(37)
3차년도(2020년)	37.5	(1,139)	34.5	(551)	34.5	(24)
4차년도(2021년)	35.0	(1,196)	34.5	(682)	29.5	(31)
5차년도(2022년)	34.9	(1,233)	34.8	(678)	35.1	(28)
6차년도(2023년)	35.5	(1,212)	35.5	(655)	30.5	(29)
7차년도(2024년)	36.9	(1,205)	36.9	(680)	32.0	(27)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함. 괄호의 수치는 해당 서비스 전체 이용자 수.  
 3) 3차년도 이용시간은 시간표로 조사된 시간을 합산한 값이며, 그 외 차수는 하루 이용시간에 5일로 곱하여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2024년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구 여부와 지역규모, 유치원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에 비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모든 기관의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게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7.3시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통계적 기본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시간이 긴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유치원을 상대적으로 오래 이용했다.

〈표 III-1-10〉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하루 평균 이용시간(2024년)

단위: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전체		7.4 (1,205)	7.4 (680)	6.4	(2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8 ( 621)	7.6 (344)	6.6	(14)
	외벌이	7.0 ( 585)	7.1 (336)	6.2	(12)
<i>t</i>		12.2***	6.7***	0.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1 ( 101)	7.4 ( 51)	-	-
	300~399만원 이하	7.1 ( 276)	7.1 (126)	-	-
	400~499만원 이하	7.4 ( 313)	7.4 (187)	6.6	( 2)
	500~599만원 이하	7.6 ( 251)	7.4 (159)	6.1	( 6)
	600만원 이상	7.6 ( 265)	7.5 (157)	6.5	(19)
	<i>F</i>	10***(a)	3.3*(a)	0.4	
총 자녀수	1명	7.3 ( 332)	7.5 (121)	6.5	( 4)
	2명	7.4 ( 652)	7.3 (433)	6.4	(19)
	3명이상	7.5 ( 221)	7.6 (126)	6.4	( 4)
	<i>F</i>	2.7(a)	3.4*(a)	0	
지역 규모	대도시	7.3 ( 451)	7.4 (268)	6.6	(13)
	중소도시	7.5 ( 557)	7.4 (313)	6.1	(12)
	읍면지역	7.5 ( 198)	7.4 ( 98)	7.0	( 1)
	<i>F</i>	4.7**	0.2	0.7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

2024년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의 충분성 정도를 살펴보면, 현재 이용시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88.8%로 가장 많았고,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6.0%,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는 응답이 3.2%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현재 이용시간이 적당하다와 지금보다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은 외벌이 가구, 지금보다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응답은 맞벌이 가구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자녀수에 따라 현재 이용시간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자녀수가 2명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금보다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표 III-1-11〉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의 충분성 정도(2024년)

단위: %, (명)

구분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계(수)	
전체		1.6	6.0	88.8	3.2	0.4	100.0 (1,912)	
맞벌이 가구	맞벌이	1.7	5.3	86.6	5.6	0.8	100.0 ( 979)	
	외벌이	1.5	6.7	91.0	0.7	-	100.0 ( 933)	
여부		$\chi^2$					45.377(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3	9.6	86.7	1.3	-	100.0 ( 152)	
	300~399만원 이하	2.6	6.2	89.8	1.4	-	100.0 ( 402)	
	400~499만원 이하	2.0	7.0	87.6	2.7	0.8	100.0 ( 502)	
	500~599만원 이하	1.4	5.2	87.6	5.3	0.5	100.0 ( 415)	
	600만원 이상	0.2	4.3	91.0	4.2	0.4	100.0 ( 441)	
			$\chi^2$					33.747(16)**(b)
총 자녀수	1명	1.0	5.1	87.7	5.6	0.6	100.0 ( 457)	
	2명	1.6	6.3	89.4	2.3	0.4	100.0 (1,104)	
	3명이상	2.5	6.3	88.0	3.2	-	100.0 ( 351)	
			$\chi^2$					17.397(8)*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b)는 카이제곱 기본 가정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전체 셀의 2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 의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

2024년도 반일제이상 기관별 이용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늘리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5.9시간, 유치원 5.5시간으로 하루 한 시간 정도 더 길게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희망 이용시간이 좀 더 긴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희망 이용시간이 자녀가 2명이하인 경우에 비해 길어서, 주당 8.4시간을 더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현재 이용시간별로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 4시간미만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주당 11.2시간(하루 약 2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나, 관측치가 3개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현재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현재도 장시간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주당 7.2시간,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5.5시간을 추가적으로 더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현재 이용시간 빈도가 가장 높은 6시간이상 8시간 미만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은 주당 5.1시간, 유치원은 5.4시간 더 길게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하루 평균 7~9시간 정도 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을 엿볼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반일제이상 기관을 현재보다 더 길게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대체로 부모의 근로시간과 맞추어 하루 1시간 정도를 더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현재 어린이집을 비교적 장시간(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미만)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다른 경우보다 더 긴 시간이 연장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1-12〉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늘리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2024년)

단위: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전체		5.9 (88)	5.5 (56)	4.1 ( 2)	
맞벌이 가구	맞벌이	6.9 (37)	5.6 (30)	4.1 ( 2)	
	외벌이	5.2 (50)	5.5 (26)	- -	
여부	<i>t</i>	1.8	0.1	-	
총 자녀수	1명	5.9 (23)	5.5 ( 5)	- -	
	2명	4.8 (45)	6.0 (40)	4.1 ( 2)	
	3명이상	8.4 (20)	4.0 (11)	- -	
	<i>F</i>	4.9**(a)	1.7	-	
현재 이용 시간	4시간 미만	11.2 ( 3)	- -	- -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8.8 ( 6)	6.9 ( 6)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5.1 (62)	5.4 (39)	4.1 ( 2)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7.2 (16)	5.5 (10)	- -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2.0 ( 1)	2.0 ( 1)	- -	
	12시간 이상	- -	- -	- -	
	<i>F</i>	2.9*(a)	0.9(a)	na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1$ .

2024년도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이유는 아이가 혼자 남는 걸 싫어해서라는 응답률이 3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18.6%, 눈치가 보여서 12.4%, 이용 자격 때문에 10.7% 순이었다.

〈표 III-1-13〉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이유(2024년)

단위: %, (명)

이용 자격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아이가 혼자 남는 걸 싫어해서	비용 부담 때문에	다른 일정 때문에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특별활동이 없어 아이가 지루해해서	기타	계(수)
10.7	12.4	35.9	5.4	3.5	18.6	2.4	10.9	100.0 (146)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한편, 2024년도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줄이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7.1시간, 유치원 7.6시간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서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응답이 현격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맞벌이 가구 아동의 기관 이용시간이 외벌이 가구 아동에 비해 긴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현재 이용시간이 길수록 줄이고 싶은 시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1-14〉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줄이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2024년)

단위: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7.1	(49)	7.6	(2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0	(45)	8.0	(17)
	외벌이	7.5	( 4)	5.0	( 3)
	<i>t</i>	-0.4		1.1	
현재 이용 시간	4시간 미만	-	-	-	-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6.4	( 7)	4.3	( 6)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6.5	(31)	8.7	(1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9.0	(11)	10.0	( 1)
	12시간 이상	-	-	-	-
<i>F</i>		3.9*		3.0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은 응답자가 없어 제시하지 않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4) 이용비용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1차년도(2018년) 6만6천원에서 2차년도(2019년) 7만8천원으로 증가했다가 3차년도(2020년) 6만1천원으로 다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7차년도(2024년)에는 8만원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1차년도(2018년) 14만2천원부터 7차년도(2024년) 13만1천원까지 등락을 반복하였다. 반일제이상 학원 등의 경우 1차년도(2018년) 52만2천원에서 6차년도(2023년) 125만1천원까지 증가하다가 7차년도(2024년)에 다소 감소하여 120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비용이 큰 변동이 없었던 것에 비해 반일제이상 학원비용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15〉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명목비용, 2018-2024년)

단위: 만원(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1차년도(2018년)	6.6(1,163)	14.2(630)	57.2(74)
2차년도(2019년)	7.8(1,235)	15.0(617)	71.2(37)
3차년도(2020년)	6.1(1,139)	13.7(551)	88.4(24)
4차년도(2021년)	7.1(1,196)	14.1(682)	92.0(31)
5차년도(2022년)	7.6(1,233)	12.9(678)	106.6(28)
6차년도(2023년)	7.6(1,212)	13.3(655)	125.1(29)
7차년도(2024년)	8.0(1,205)	13.1(680)	120.3(27)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 괄호는 해당 서비스 전체 이용자 수.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2024년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을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 보았다. 유치원 이용비용은 총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수가 적을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의 경우 유치원 이용비용이 도시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6〉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2024년)

단위: 만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전체		8.0 (1,147)	13.1 (680)	120.3 (2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6 ( 592)	13.5 (344)	123.5 (14)
	외벌이	8.4 ( 555)	12.8 (336)	116.8 (12)
		<i>t</i>	0.5	0.3
총 자녀수	1명	7.5 ( 317)	15.6 (121)	142.1 ( 4)
	2명	8.2 ( 623)	13.5 (433)	119.9 (19)
	3명이상	8.1 ( 207)	9.4 (126)	100.2 ( 4)
	<i>F</i>	1.0	3.8*	0.5
지역 규모	대도시	8.2 ( 428)	16.9 (268)	131.5 (13)
	중소도시	8.3 ( 533)	12.5 (313)	104.4 (12)
	읍면지역	6.8 ( 186)	5.1 ( 98)	154.0 ( 1)
	<i>F</i>	3.2*	16***(a)	0.9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01$ .

### 5) 서비스 만족도

반일제이상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1차년도(2018년) 평균 3.9점, 만족 비중 75.7%에서 7차년도(2024년) 평균 4.2점, 만족 비중 92.8%로 만족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1차년도(2018년) 평균 3.9점, 만족 비중 77.2%에서 7차년도(2024년) 평균 4.2점, 만족 비중 91.2%로 해마다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했다.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평균 점수는 매해 4.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만족 비중은 1차년도(2018년) 87.4%에서 3차년도(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7차년도(2024년)에 89.8%를 나타냈다.

〈표 III-1-17〉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만족도(2018~2024년)

단위: %, 점 (명)

구분	어린이집 서비스			유치원 서비스			반일제이상 학원 서비스		
	만족 비중	평균 점수	(수)	만족 비중	평균 점수	(수)	만족 비중	평균 점수	(수)
1차년도(2018년)	75.7	3.9	(1,163)	77.2	3.9	(630)	87.4	4.0	(74)
2차년도(2019년)	79.6	3.9	(1,235)	82.2	4.0	(617)	87.2	4.2	(37)
3차년도(2020년)	84.3	4.0	(1,139)	83.0	4.0	(551)	82.1	4.0	(24)
4차년도(2021년)	86.8	4.0	(1,196)	85.1	4.0	(682)	82.6	4.0	(29)
5차년도(2022년)	89.8	4.1	(1,233)	87.5	4.1	(678)	84.8	4.0	(28)
6차년도(2023년)	92.5	4.2	(1,212)	89.9	4.2	(655)	83.6	4.1	(29)
7차년도(2024년)	92.8	4.2	(1,205)	91.2	4.2	(680)	89.8	4.1	(27)

주: '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로 역코드 하여 산출한 수치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 6) 희망 양육형태

2024년도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원하는 형태라는 응답이 96.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6세(2018년생)에서 응답률이 97.6%로 가장 높았다. 희망하는 양육 형태는 가정에서 부모가 돌봄이라는 응답률이 29.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가정에서 부모가 돌봄+시간제 양육지원 이용이라는 응답 24.1%, 유치원 이용 22.7%,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16.1% 순이었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로 매우 낮았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유치원 이용 응답률은 5세에 51.0%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응답률은 6세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다만, 각 연령별 분석의 경우 관측치가 많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표 III-1-18〉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 여부 및 희망하는 양육 형태(2024년)

단위: %, (명)

구분	원하는 양육 형태 여부		자녀 연령대별 가장 희망하는 양육 형태							기타	계(수)
	원하는 형태임	(수)	유치원 이용	어린이집 이용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돌봄+시간제 양육 자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대리 돌봄			
전체	96.3	(1,885)	22.7	2.8	16.1	29.1	24.1	2.6	2.6	100.0 (70)	
아동 연령	0세(2024년생)	50.0 ( 4)	-	-	-	100.0	-	-	-	100.0 ( 2)	
	1세(2023년생)	88.3 ( 123)	-	-	-	56.2	31.1	12.7	-	100.0 (14)	
	2세(2022년생)	96.6 ( 278)	20.7	-	-	28.8	50.4	-	-	100.0 ( 9)	
	3세(2021년생)	96.9 ( 333)	9.1	-	18.1	27.3	36.3	-	9.1	100.0 (10)	
	4세(2020년생)	96.9 ( 351)	49.7	9.0	16.1	-	17.0	-	8.2	100.0 (11)	
	5세(2019년생)	96.6 ( 384)	51.0	-	13.0	28.3	7.6	-	-	100.0 (13)	
	6세(2018년생)	97.6 ( 414)	10.1	9.9	59.9	10.1	10.1	-	-	100.0 (10)	
	$\chi^2$	48.168(6)***(b)	64.556(36)**								

주: (b)는 카이제곱 기본 가정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전체 셀의 2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 의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1$ , \*\*\*  $p < .001$ .

2024년도 가장 희망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을 하고 있어서라는 응답률이 36.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비용 부담 24.0%,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10.9%,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6.8%,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5.2% 순이었다.

〈표 III-1-19〉 아동연령별 가장 희망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2024년)

단위: %, (명)

비용 부담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코로나19로 중단, 대기가 길어서 등)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이용 신청을 했으나 떨어져서)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서비스 이용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24.0	36.1	6.8	10.9	-	5.2	3.8	2.6	9.3	100.0 (7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나. 시간제 교육

### 1) 이용기관

연도별 시간제 교육 이용을 살펴보면<sup>13)</sup>, 단시간 학원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차년도(2020년)를 제외하고 1차년도(2018년) 15.5%에서 7차년도(2024년) 23.2%까지 해마다 증가하였다. 방문형 학습지의 경우 1차년도(2018년)부터 7차년도(2024년)까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12%~15%대의 이용률을 보였다.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2% 내외의 이용률을 보였다. 비방문형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과 비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은 통합하여 질문했을 때 다소 감소하여 7차년도(2024년 기준) 3.6%였으며, 개인지도 및 그룹활동은 1차년도(2018년) 3.2%에서 7차년도(2024년) 1.3%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문화센터 이용률은 1차년도(2018년) 10%에서 3차년도(2020년)에 0.9%로 대폭 줄었다가 차츰 증가하여 7차년도(2024년)에 12.1%의 이용률을 보였다.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률은 4차년도(2021년) 3.2%에서 7차년도(2024년) 2.5%로 감소하였으며,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은 1% 미만이었으며, 시간제 교육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은 7차년도(2024년) 기준 57.7%로 6차년도(2023년) 59.3%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다.

즉, 영유아기 시간제 교육은 유형에 따라 이용률이 다른 증감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주로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제 사교육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수준을 보이고는 있었다.

〈표 III-1-20〉 연도별 시간제 교육 이용(2018~2024년)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단시간 학원	15.5 (353)	16.0 (372)	12.9 (304)	21.3 (506)	21.9 (524)	23.1 (559)	23.2 (564)
방문형학습지	15.3 (349)	14.6 (341)	12.1 (287)	15.0 (356)	12.0 (286)	12.2 (295)	11.9 (289)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2.2 (49)	1.7 (40)	1.5 (35)	2.1 (49)	2.2 (52)	2.4 (59)	1.6 (38)

13) EBS 방송시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교육에 해당함.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3.2 (72)	3.2 (74)	3.9 (91)	3.4 (80)	3.3 (79)	3.9 (94)	3.6 (88)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1.1 (26)	1.1 (25)	1.0 (23)				
개인지도 및 그룹활동	3.2 (73)	2.5 (58)	1.5 (35)	1.4 (32)	1.9 (46)	1.2 (28)	1.3 (32)
문화센터	10.0 (228)	8.2 (190)	0.9 (21)	5.7 (134)	7.6 (181)	10.4 (253)	12.1 (296)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3.2 (76)	3.4 (81)	3.2 (77)	2.5 (60)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0.9 (23)	0.4 (10)
없음						59.3 (1,435)	57.7 (1,406)

주: 1) 전체 영유아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과 이용자 수(괄호)으로, 중복 응답 문항임.  
 2) 사선으로 표현된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단시간 학원의 경우에는 체육(61.9%), 미술(35.4%) 등의 예체능 과목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방문형 학습지는 한글(44.3%), 수학 및 과학(28.9%)로 학습 위주 과목들을 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한글(24.7%) 영어(24.6%), 종합교과(23.7%) 과목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시간제 교육 종류에 따라 이용 과목이 약간 상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III-1-21〉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유형별 이용 과목(2024년)

단위: %, (명)

구분	체육	음악	미술	영어	한글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종합 교과	기타	(수)
단시간 학원	61.9	14.9	35.3	14.0	-	10.0	12.9	-	3.0	(564)
방문형 학습지	1.6	1.9	5.2	9.1	44.3	3.3	28.9	4.0	1.6	(289)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9.2	4.5	20.0	6.6	12.9	2.1	25.0	8.8	10.8	( 38)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	-	-	3.5	22.0	25.4	7.4	16.7	23.7	1.3	( 88)
개인지도 및 그룹활동	14.3	7.2	24.0	16.1	14.3	-	14.4	7.2	2.5	( 32)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2.1	1.1	1.1	24.6	24.7	5.3	17.5	23.7	-	( 60)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	6.4	-	6.4	67.2	7.3	6.4	6.4	-	( 10)

주: 1) 단시간 학원은 '한글'과 '종합교과'는 관련 문항이 없음.

2) 과목별 이용률은 해당 유형의 사교육 전체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복 이용 문항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한편, 2024년도 영유아의 문화센터 이용기관을 살펴보면 백화점, 마트 이용이 90.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공공기관 24.0%, 주민센터 6.6% 순이었다.

〈표 III-1-22〉 영유아의 문화센터 이용기관(2024년)

단위: %, (명)

백화점, 마트	주민센터	공공기관	기타	(수)
90.0	6.6	24.0	3.7	(296)

주: 1) 이용 기관을 중복응답한 결과임.  
 2) 기관별 이용률은 문화센터 전체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복 이용 문항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영유아의 문화센터 이용 과목을 살펴보면 체육 이용률이 4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통합놀이(오감, 쿠킹클래스) 36.6%, 미술 16.7%, 언어 관련(동화, 외국어 등) 8.4%, 음악 7.7%, 과학 관련 4.3% 순이었다.

〈표 III-1-23〉 영유아의 문화센터 유형별 이용 과목(2024년)

단위: %, (명)

체육	음악	미술	통합놀이 (오감, 쿠킹클래스)	언어 관련 (동화, 외국어 등)	수학 관련 (가베 등)	과학 관련	기타 (바둑, 체스 등)	(수)
45.5	7.7	16.7	36.6	8.4	1.8	4.3	3.2	(296)

주: 1) 이용 과목을 중복응답한 결과임.  
 2) 과목별 이용률은 문화센터 전체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복 이용 문항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2) 이용시간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주당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의 경우 1차년도(2018년) 3.2시간에서 3차년도(2020년) 5.6시간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이후 5차년도(2022년)까지는 5.6시간에서 3.9시간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다시 증가하여 7차년도(2024년)에는 4.3시간이었다. 방문형 학습지의 경우 매해 주당 0.6시간 정도의 이용 시간을 유지하고 있고,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은 1차년도(2018년) 1.1시간 이후 2차년도(2019년)부터는 0.7~0.8시간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주당 이용 시간은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1-24〉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주당 이용 시간(2018~2024년)

단위: 시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단시간 학원	3.2	3.5	5.6	4.2	3.9	4.2	4.3
방문형 학습지	0.6	0.5	0.6	0.6	0.6	0.6	0.6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1.1	0.7	0.8	0.8	0.7	0.8	0.7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1.0	1.1	1.6	1.7	3.6	1.3	1.2
비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1.3	1.0	1.3				
개인지도 및 그룹활동	1.9	1.7	2.1	2.8	2.2	2.2	2.0
문화센터	1.2	1.1	2.3	1.2	1.3	1.2	1.1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9	1.9	1.8	1.5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1.8	1.5

주: 1)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사선인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 3) 이용비용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이 1차년도(2018년) 13만4천원, 7차년도(2024년) 20만7천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형 학습지의 경우 증감을 반복했으나 5차년도(2022년) 이후부터 9만원대 이상을 유지하여 7차년도(2024년)에는 9만9천원이었다.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은 9~11만원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6차년도(2023년)에 13만1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7차년도(2024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13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1-25〉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월평균 이용비용(명목비용, 2018~2024년)

단위: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단시간 학원	13.4	14.2	17.0	17.6	18.0	19.7	20.7
방문형 학습지	7.4	7.2	8.2	8.6	9.6	9.3	9.9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10.2	9.1	11.4	10.2	10.7	13.1	13.3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5.6	7.6	8.3	9.2	10.7	11.3	9.9
비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8.8	8.1	8.6				
개인지도 및 그룹활동	12.7	14.8	14.8	21.2	23.1	20.5	20.7
문화센터	5.2	4.8	5.5	5.5	5.6	6.0	5.8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0.2	9.9	12.5	7.7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1.1	0.2

주: 1) 이용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사선인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 4) 만족도 및 개선요구

시간제 교육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의 경우 4차년도(2021년) 3.8점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3.9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7차년도(2024년)의 만족도는 4.0점이었다. 방문형 학습지의 경우에도 큰 증감 없이 3.6~3.8점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은 3.8~4.1점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편,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은 3.4~3.9점의 만족도를 나타냈는데, 7차년도(2024년) 점수가 3.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지도 및 그룹활동은 3.9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6차년도(2023년)와 7차년도(2024년)에 4.2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는 3.6~3.7점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에 대한 만족도는 6차년도(2023년) 3.6점에서 7차년도(2024년) 4.3점으로 향상되었다.

〈표 III-1-26〉 시간제 교육 서비스 만족도(2018~2024년)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단시간 학원	3.9	3.9	3.9	3.8	3.9	4.0	4.0
방문형 학습지	3.6	3.6	3.8	3.8	3.8	3.8	3.8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3.9	3.9	3.8	4.1	3.8	4.1	3.9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3.5	3.5	3.8	3.7	3.5	3.6	3.4
비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3.7	3.9	3.9				
개인지도 및 그룹활동	3.9	4.0	3.9	4.1	4.0	4.2	4.2
문화센터	4.0	3.8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3.7	3.7	3.8	3.6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3.6	4.3

주: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선인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2024년 단시간 학원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3.7점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의 만족도가 3.5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II-1-27〉 단시간 학원비용 만족도(2024년)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점수	계(수)
전체		9.5	55.8	26.1	8.0	0.5	3.7	100.0(564)
지역 규모	대도시	12.3	56.4	24.7	6.6	-	3.7	100.0(223)
	중소도시	4.9	54.9	29.7	9.5	1.1	3.5	100.0(258)
	읍면지역	16.4	57.3	19.0	7.3	-	3.8	100.0( 83)
	$\chi^2/F$	19.661(8)*					7***	

주: 1)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만족도는 '매우 만족=1'~'매우 불만족=5'로 측정된 수치를 역코딩 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01$ .

비대면 기타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개선 필요 사항으로 4차년도(2021년)에는 '아이들의 흥미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응답률이 33.0%로 가장 높았다. 5차년도(2022년)와 6차년도(2023년)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응답률이 각각 24.9%,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차년도(2024년)에는 '약정이나 의무사용 기간이 없었으면'이라는 응답률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해마다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III-1-28〉 비대면 기타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개선 필요 사항(2021~2024년)

단위: %(명)

구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전자 기기가 아닌 실물 혹은 종이 등을 통한 서비스가 더 많았으면	5.5	6.9	2.6	4.4
아이들의 흥미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33.0	19.4	18.2	15.0
교육 내용이 좀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7.9	9.2	13.7	9.0
교육 내용이 좀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13.4	3.2	11.8	9.4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진행할 수 있었으면		4.6	4.4	2.4
아이와 선생님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였으면	16.8	8.8	6.0	8.8
서비스 이용 후 사후 관리가 더 잘 이뤄졌으면		6.7	7.7	10.4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10.8	24.9	19.9	16.5
약정이나 의무사용 기간이 없었으면	10.0	15.8	12.8	22.9
기타	2.6	0.6	2.9	1.1
계(수)	100.0 (38)	100.0 (173)	100.0 (187)	100.0 (15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7차년도 원자료.

사교육비용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3.2점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4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22.7%로 많았다. 사교육 부담 정도는 가구소득이나 총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인 경우 평균 점수가 3.5점으로 부담 정도가 가장 높았고, 6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균 점수가 3.0점으로 가장 낮았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총 자녀수가 1명일 때 가장 높았고,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총 자녀수가 3명 이상일 경우 높았다.

〈표 III-1-29〉 사교육비용 부담 정도(2024년)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됨	보통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평균 점수	계(수)
전체		8.8	22.7	48.9	17.5	2.1	3.2	100.0(83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1.1	32.4	49.9	4.3	2.2	3.5	100.0(45)
	300~399만원	10.3	19.0	52.4	16.8	1.5	3.2	100.0(170)
	400~499만원	8.1	30.2	44.1	16.0	1.7	3.3	100.0(215)
	500~599만원	9.3	23.3	47.4	17.3	2.7	3.2	100.0(181)
	600만원 이상	7.5	15.9	51.8	22.3	2.5	3.0	100.0(219)
$\chi^2/F$		25.099(16)			3.1*			
총 자녀수	1명	7.8	19.9	52.0	16.5	3.7	3.1	100.0(176)
	2명	6.6	22.5	51.4	17.8	1.7	3.2	100.0(509)
	3명이상	17.8	26.6	36.1	17.4	1.9	3.4	100.0(146)
	$\chi^2/F$	27.766(8)***					5.6**(a)	

주: 1)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전혀 부담안됨=1’~‘매우 부담됨=5’로 측정됨. 점수가 높을수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함.

3)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01$ .

사교육 부담에도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연도에 상관없이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질까봐’라는 응답률이 매년 30%를 넘으며 가장 높았으며 7차년도(2024년)에는 47.6%로 대폭 증가하였다.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매년 26%를 넘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7차년도(2024년)에는 24.5%로 예년에 비해 응답률이 다소 감소하였다. 다

음으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라는 응답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매년 1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이다가 7차년도(2024년)에는 7.5%로 응답률이 감소하였다.

〈표 III-1-30〉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8.3	8.1	5.7	7.5	7.3
<b>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질까봐</b>	<b>31.1</b>	<b>36.2</b>	<b>35.6</b>	<b>36.1</b>	<b>47.6</b>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5.9	5.3	3.6	6.5	1.9
<b>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b>	<b>26.5</b>	<b>27.4</b>	<b>30.5</b>	<b>27.8</b>	<b>24.5</b>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2.7	1.4	2.6	2.4	2.9
<b>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b>	<b>12.0</b>	<b>11.1</b>	<b>10.5</b>	<b>10.7</b>	<b>7.5</b>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0.5	1.1	2.5	2.5	0.4
아이가 원해서	9.5	7.7	7.7	4.3	5.4
기타	1.0	1.6	1.3	2.2	2.5
모름	2.4	0.0	-	-	-
계(수)	100.0 (220)	100.0 (291)	100.0 (315)	100.0 (294)	100.0 (26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7차년도 원자료.

## 다. 기타서비스

기타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시간제 일시보육의 경우 이용 비중이 1차년도(2018년)에 1.9%로 가장 높았고, 증감을 반복하다가 7차년도(2024)에 1.3%였다. 월평균 이용 횟수와 회당 이용 시간도 대체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7차년도(2024)에 이용 횟수는 13.5회, 회당 이용 시간은 4.0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제 일시보육 월평균 비용은 1차년도(2018년)부터 5차년도(2022년)까지 7만원 아래를 유지하다가 6차년도(2023년)에 13만6천원으로 급증한 이후 7차년도(2024)에 11만6천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다만, 이용자 수가 적고 해마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키즈카페의 경우 이용 비중이 1차년도(2018년) 66.7%, 2차년도(2019년) 57.7%로 높았으나, 3차년도(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4.7%로 급감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후 4차년도(2021년)부터 다시 증가해 7차년도(2024년)에는 이용 비중이 58.6%에 달했다. 월평균 이용 횟수는 1차년도(2018년)부터 5차년도(2022년) 1.5~2.0회를 유지하다가 6차년도(2023년)에는 3.0회로 증가하였으며, 이 수치는 7차년도(2024년)에도 유지되었다. 회당 이용 시간은 2.0시간에서 2.3시간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다. 이용비용은 1만원 내외로 그다지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7차년도(2024년)에는 1만2천원이었다.

비정기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는 5차년도(2022년) 17.2%였으며, 7차년도(2024년) 20.6%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였다. 비정기 체험활동 횟수는 5차년도(2022년) 월평균 1.4회에서 6차년도(2023년)에 2.6회로 증가하여 7차년도(2024년)에도 유지되었다. 회당 이용 시간은 2.5시간에서 2.2시간으로 조금씩 감소하였고, 월평균 비용은 2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표 III-1-31〉 영유아의 기타서비스 이용 현황(2018-2024년)

단위: %, 회, 시간, 만원, (명)

구분		이용 비중	횟수(월평균)	이용 시간(회당)	비용	(수)
시간제 일시 보육	1차년도(2018년)	1.9	8.7	2.7	6.9	( 43)
	2차년도(2019년)	0.8	7.4	2.2	2.0	( 19)
	3차년도(2020년)	1.8	10.5	3.0	5.4	( 42)
	4차년도(2021년)	0.7	11.3	3.8	3.2	( 17)
	5차년도(2022년)	0.6	6.2	2.3	6.8	( 14)
	6차년도(2023년)	1.2	11.5	3.4	13.5	( 28)
	7차년도(2024년)	1.3	13.5	4.0	11.6	( 32)
키즈 카페	1차년도(2018년)	66.7	1.8	2.0	0.7	(1,518)
	2차년도(2019년)	57.7	1.7	2.0	0.6	(1,347)
	3차년도(2020년)	14.7	1.5	2.2	0.8	( 349)
	4차년도(2021년)	24.9	1.5	2.2	0.9	( 591)
	5차년도(2022년)	44.7	1.6	2.2	0.9	(1,070)
	6차년도(2023년)	55.2	3.0	2.3	1.1	(1,339)
	7차년도(2024년)	58.6	3.0	2.3	1.2	(1,426)
비정기 체험 활동	5차년도(2022년)	17.2	1.4	2.5	2.0	( 411)
	6차년도(2023년)	19.1	2.6	2.3	2.3	( 464)
	7차년도(2024년)	20.6	2.6	2.2	2.1	( 502)

주: 1)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키즈카페와 비정기 체험활동은 지난 3개월 동안 이용경험, 월평균 이용횟수이며, 1회 이용 시 시간이며,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월평균 비용, 키즈카페는 1시간당 이용비용 그리고 비정기 체험활동은 1회 이용비용임.

2) 기타서비스 이용비용은 명목비용으로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기타서비스 유형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시간제 일시보육의 경우 1차년도(2018년)와 2차년도(2019년)의 평균점수는 3.6점, 만족 비중(‘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56.5%, 62.1%이었다.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의 경우 평균 점수 4.1점, 만족 비중 각각 85.1%, 83.8%로 1차년도(2018년)와 2차년도(2019년)보다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5차년도(2022년)의 경우 평균점수 3.7점, 만족 비중 62.7%로 전년도보다 감소했고, 6차년도(2023년)는 평균점수 4.0점, 만족 비중 71.2%로 다시 증가했다가 7차년도(2024년)에 평균점수 3.9점으로 약간 감소하고 만족 비중은 74.8%로 다소 증가하였다.

키즈카페의 경우 1차년도(2018년)와 2차년도(2019년) 평균 점수 3.7점, 3차년도(2020년) 3.8점, 4차년도(2021년) 이후 3.9점으로 꾸준히 증가한 후 이후 같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만족 비중의 경우 2차년도(2019년) 63.0%를 제외하고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정기 체험활동의 경우 만족도 평균 점수는 4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만족 비중은 각각 86.9%, 82.8%, 85.8%로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 만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2〉 기타서비스 유형별 만족도(2018~2024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시간제 일시보육	1차년도(2018년)	18.7	37.8	31.9	6.9	4.7	3.6	100.0 ( 43)
	2차년도(2019년)	17.2	44.9	22.1	15.8	-	3.6	100.0 ( 19)
	3차년도(2020년)	20.9	64.2	14.9	-	-	4.1	100.0 ( 42)
	4차년도(2021년)	27.0	56.8	16.3	-	-	4.1	100.0 ( 17)
	5차년도(2022년)	20.5	42.2	29.9	6.1	1.2	3.7	100.0 ( 66)
	6차년도(2023년)	45.3	25.9	15.9	8.1	4.8	4.0	100.0 ( 141)
	7차년도(2024년)	27.5	47.3	13.4	11.2	0.5	3.9	100.0 ( 161)
키즈카페	1차년도(2018년)	9.9	60.0	25.7	4.1	0.3	3.7	100.0 (1,518)
	2차년도(2019년)	8.0	55.0	32.6	4.1	0.3	3.7	100.0 (1,347)
	3차년도(2020년)	11.2	61.7	24.8	2.1	0.3	3.8	100.0 ( 349)
	4차년도(2021년)	11.5	65.2	22.2	1.0	0.2	3.9	100.0 ( 591)
	5차년도(2022년)	15.5	63.7	19.6	0.8	0.4	3.9	100.0 (1,070)
	6차년도(2023년)	12.8	65.3	19.0	2.9	0.1	3.9	100.0 (1,339)
	7차년도(2024년)	9.2	73.0	15.1	2.6	0.1	3.9	100.0 (1,426)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비정기 체험 활동	5차년도(2022년)	22.8	64.1	12.4	0.7	-	4.1	100.0 ( 441)
	6차년도(2023년)	21.6	61.2	16.2	1.0	-	4.0	100.0 ( 464)
	7차년도(2024년)	18.5	67.3	13.5	0.6	0.2	4.0	100.0 ( 502)

주: '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로 측정된 수치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시간제 일시보육 범주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이용시간의 선택성의 경우 2022년과 2023년의 평균 점수 3.7에서 2024년에 4.0으로 높아졌다. 불만족 비중('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응답 비율)은 2022년 5.9%에서 2023년 18.8%로 증가했다가 11.1%로 다시 감소하였다. 비용, 이용 장소의 접근성, 긴급 보육의 유용성에 대한 만족도는 2023년에 조금 상승했다가 2024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 3.7점에서 2023년 3.9점으로 증가한 후 2024년에도 같은 점수를 유지하였으며, 불만족 비중은 0%에서 9.1%로 증가했다가 8.3%로 다시 감소하였다. 즉 2024년의 만족도는 2022년 대비 비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향상되었으며, 2023년 대비 이용시간의 선택성에 대한 만족도만 증가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감소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3〉 시간제 일시보육 범주별 만족도(2022~2024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22년	이용시간의 선택성	20.9	39.4	33.8	0.0	5.9	3.7	100.0 (13)
	비용	25.7	42.2	25.9	6.2	0.0	3.9	100.0 (13)
	이용 장소의 접근성	28.3	33.5	25.9	12.4	0.0	3.8	100.0 (13)
	인력의 전문성	0.0	68.2	31.8	0.0	0.0	3.7	100.0 (13)
	긴급 보육의 유용성	27.7	27.8	32.4	12.1	0.0	3.7	100.0 (13)
2023년	이용시간의 선택성	35.8	26.0	19.4	12.7	6.1	3.7	100.0 (28)
	비용	45.4	29.1	16.6	5.9	2.9	4.1	100.0 (28)
	이용 장소의 접근성	60.9	19.6	3.8	9.6	6.1	4.2	100.0 (28)
	인력의 전문성	38.7	29.0	23.1	6.2	2.9	3.9	100.0 (28)
	긴급 보육의 유용성	45.7	25.6	16.7	6.1	5.9	4.0	100.0 (28)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24년	이용시간의 선택성	26.3	53.9	8.8	11.1	0.0	4.0	100.0 (32)
	비용	28.2	34.6	22.9	14.2	0.0	3.8	100.0 (32)
	이용 장소의 접근성	31.1	48.8	5.9	14.2	0.0	4.0	100.0 (32)
	인력의 전문성	26.3	47.7	17.7	8.3	0.0	3.9	100.0 (32)
	긴급 보육의 유용성	25.5	51.6	11.8	8.3	2.7	3.9	100.0 (32)

주: '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로 측정된 수치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7차년도 원자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키즈카페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아이가 좋아해서'라는 의견이 매년 가장 많았으며, 2019년에 62.4%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의견은 매년 0.5% 이하로 가장 적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해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2018년에서 2020년까지와 2024년에는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라는 응답이 각각 16.8%, 13.3%, 16.2%로 두 번째로 많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라는 의견이 각각 14.1%, 13.4%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2023년에는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라는 의견이 14.0%로 두 번째로 우세했다.

〈표 III-1-34〉 키즈카페 이용 이유(2018~2024년)

단위: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좋아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	기타	
2018년	13.9	16.6	16.8	51.8	0.5	-	0.6	100.0 (1,520)
2019년	11.9	10.9	13.3	62.4	-	-	1.5	100.0 (1,347)
2020년	11.0	10.8	16.2	54.7	-	5.5	1.7	100.0 ( 349)
2021년	14.1	12.8	10.2	56.5	-	4.3	2.1	100.0 ( 591)
2022년	13.4	12.9	10.5	58.5	0.3	3.2	1.2	100.0 (1,027)
2023년	12.3	14.0	11.3	57.8	0.1	3.0	1.5	100.0 (1,337)
2024년	13.6	12.7	13.9	55.6	0.3	2.7	1.0	100.0 (1,426)

주: 2018~2019년에는 '지역에 적당한 공공놀이장소가 없어서' 보기가 없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2024년도에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이유는 ‘아이가 좋아해서’라는 응답률이 55.6%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13.9%,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13.6%,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12.7% 순이었다.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라는 응답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대도시의 경우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라는 응답이 현저하게 낮았다. 읍면지역은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라는 응답률이 낮은 수치였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1-35〉 가구특성별 키즈카페 이용 이유(2024년)

단위: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좋아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	기타		
전체	13.6	12.7	13.9	55.6	0.3	2.7	1.0	100.0 (1,42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3.2	13.6	13.8	54.2	0.5	3.7	1.0	100.0 ( 737)
	외벌이	14.1	11.9	14.1	57.2	0.2	1.6	0.9	100.0 ( 690)
	$\chi^2$	9.143(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4.4	5.8	8.4	66.4	1.2	2.8	1.0	100.0 ( 99)
	300~399만원 이하	14.0	9.3	15.1	58.7	-	2.1	0.9	100.0 ( 301)
	400~499만원 이하	14.0	13.5	13.3	55.8	0.5	2.1	0.7	100.0 ( 362)
	500~599만원 이하	14.0	13.6	15.1	53.0	0.3	3.1	0.8	100.0 ( 330)
	600만원 이상	12.5	16.3	14.1	52.2	0.3	3.4	1.4	100.0 ( 335)
	$\chi^2$	21.746(24)(b)							
총 자녀수	1명	17.7	9.4	17.7	51.1	-	3.3	0.8	100.0 ( 349)
	2명	12.6	13.3	13.6	56.2	0.5	2.6	1.2	100.0 ( 839)
	3명이상	11.2	15.6	9.7	60.3	0.4	2.4	0.4	100.0 ( 238)
	$\chi^2$	22.699(12)*(b)							
지역 규모	대도시	13.6	7.3	17.9	57.9	0.5	2.4	0.5	100.0 ( 531)
	중소도시	13.7	16.0	12.9	53.3	-	2.8	1.4	100.0 ( 688)
	읍면지역	13.6	16.1	7.3	57.9	1.1	3.3	0.8	100.0 ( 208)
	$\chi^2$	41.811(12)***							

주: (b)는 카이제곱 기본 가정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전체 셀의 2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 의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01$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감염병 위험 때문에’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2021년에는 91.8%가 감염병 위험 때문에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이는 점차 감소하여 2024년에는 41.9%였다. 기타를 제외하고 2023년까지는 ‘주변에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는데, 2024년에는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녀를 동반한 만남이 줄어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라는 응답률은 1% 내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10% 내외의 수준을 보였다.

〈표 III-1-36〉 키즈카페 이용하지 않는 이유(2021~2024년)

단위: %(명)

구분	주변에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없어서	감염병 위험 때문에	자녀를 동반한 만남이 줄어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기타	계(수)
2021년	2.0	91.8	1.1	0.6	1.2	3.3	100.0 (1,780)
2022년	4.8	76.5	1.3	2.7	3.2	11.6	100.0 (1,366)
2023년	9.6	52.7	4.7	6.3	8.2	18.6	100.0 (1,085)
2024년	8.6	41.9	9.4	11.7	10.9	17.5	100.0 (1,00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비정기 체험활동을 하는 이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이가 좋아해서’라는 의견이 40.1%~5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녀가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체험활동 인솔자의 해당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순이었다.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어서’와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률은 2024년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7〉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이유(2022~2024년)

단위: %(명)

구분	체험활동 인솔자의 해당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자녀가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아이가 좋아 해서	비용이 저렴 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타	계(수)
2022년	9.0	9.0	23.3	49.3	1.7	3.2	3.9	100.0 (395)
2023년	9.2	7.6	23.1	51.6	1.7	1.8	5.0	100.0 (463)
2024년	14.9	9.1	23.4	40.1	2.9	6.2	3.3	100.0 (50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체험활동 인솔자의 해당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서'라는 응답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대도시는 '아이가 좋아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어서',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률이, 중소도시는 '자녀가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와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8〉 가구특성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이유(2024년)

단위: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체험활동 인솔자의 해당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자녀가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아이가 좋아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타		
전체	14.9	9.1	23.4	40.1	2.9	6.2	3.3	100.0 (502)	
지역 규모	대도시	10.6	8.0	19.5	45.9	3.6	9.9	2.4	100.0 (223)
	중소도시	14.7	11.5	29.5	34.5	2.3	2.4	5.1	100.0 (205)
	읍면지역	28.5	5.5	18.2	38.3	2.6	5.5	1.3	100.0 ( 75)
$\chi^2$	36.271(12)***								

주: (b)는 카이제곱 기본 가정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전체 셀의 2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 의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감염병 위험 때문에'라는 응답률이 60.6%로 가장 높았던 반면 2023년과 2024년에는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률이 각 31.3%, 36.1%로 가장 높았다.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률은 점점 높아지고, ‘감염병 위험 때문에’라는 응답률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와 ‘비용이 부담되어서’라는 응답률은 2023년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1-39〉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하지 않는 이유(2022~2024년)

단위: %(명)

구분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감염병 위험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기타	계(수)
2022년	15.5	60.6	8.9	2.6	3.8	8.5	100.0 (1,998)
2023년	31.3	26.9	18.0	4.2	7.9	11.6	100.0 (1,959)
2024년	36.1	22.6	14.8	7.9	6.2	12.4	100.0 (1,93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7차년도 원자료.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을 제외하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용이 부담되어서’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총 자녀수에 따라 자녀수가 적을수록 ‘감염병 위험 때문에’라는 응답률이 높아지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부담되어서’라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라는 응답률이 증가하였고, 중소도시는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읍면지역은 ‘감염병 위험 때문에’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40〉 가구특성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하지 않는 이유(2024년)

단위: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감염병 위험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기타		
전체	36.1	22.6	14.8	7.9	6.2	12.4	100.0 (1,93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0.1	23.9	12.5	7.6	10.3	5.6	100.0 ( 134)
	300~399만원 이하	34.0	24.8	16.4	7.8	7.5	9.4	100.0 ( 385)
	400~499만원 이하	35.3	24.6	15.3	6.1	5.6	13.0	100.0 ( 586)
	500~599만원 이하	33.0	21.5	17.0	11.7	4.1	12.7	100.0 ( 408)
	600만원 이상	40.8	18.4	11.2	6.8	6.5	16.3	100.0 ( 419)
	$\chi^2$	49.039(20)***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감염병 위험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 되어서	기타		
총 자녀 수	1명	32.2	28.9	13.0	7.5	3.1	15.3	100.0 ( 583)
	2명	38.1	21.0	16.4	8.2	5.7	10.6	100.0 (1,031)
	3명이상	36.8	16.1	12.8	7.6	13.5	13.1	100.0 ( 318)
	$\chi^2$	69.239(10)***						
지역 규모	대도시	34.4	23.4	13.1	9.1	6.6	13.5	100.0 ( 721)
	중소도시	38.9	17.3	17.1	8.0	6.2	12.6	100.0 ( 901)
	읍면지역	32.2	36.1	12.2	4.7	5.3	9.5	100.0 ( 309)
	$\chi^2$	55.855(1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 2.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전체 영유아 가구 중에서 개별돌봄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는 2024년 기준 11.9%로, 2019년 이후 이 비중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10%초반의 비중을 보였다.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중은 2023년도에 14.9%로 가장 높았으며, 이 시기에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이용 비중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살펴보면, 조부모라는 응답률이 매해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3차년도(2020년)만 제외하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라는 응답률은 2차년도(2019년) 17.9%에서 3차년도(2020년) 4.9%로 급감 후 4차년도(2021년)에 16.4%로 회복하고, 이후 6차년도(2023년)에 32.8%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7차년도(2024년)에 21.1%로 감소하였다. 한편,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 3차년도(2020년) 3.5%를 제외하면 6.5~8.7% 비중을 유지하다가 7차년도(2024년)에 10.3%로 다소 증가하였다.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은 3차년도(2020년) 11.9%에서 6차년도(2023년) 7.5%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7차년도(2024년)에 3.7%까지 떨어졌다.

〈표 III-2-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2019~2024년, 중복응답)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이용율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수)	
2차년도(2019년)	17.9	8.4	69.3	10.6	(179)	10.8
3차년도(2020년)	4.9	3.5	61.1	11.9	(226)	13.5
4차년도(2021년)	16.4	6.5	75.7	8.9	(214)	12.5
5차년도(2022년)	17.0	8.7	74.3	8.7	(206)	11.9
6차년도(2023년)	32.8	8.7	67.2	7.5	(265)	14.9
7차년도(2024년)	21.1	10.3	64.9	3.7	(217)	11.9

- 주: 1) 각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비율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한 응답 비율임.  
 2)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 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3) 개별돌봄서비스는 중복 이용으로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4) 이용률은 전체 표본(가구) 중 개별돌봄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7차년도 원자료.

2024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는 조부모 64.9%,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21.1%, 민간 육아도우미 10.3%,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3.7%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에 비해 조부모나 민간 육아도우미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이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적인 성향과 다르게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이용률이 57.1%로 조부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 비율이 15.3%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조부모 돌봄 비율은 400~499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기점으로 소득이 낮아지거나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와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이용률은 높아지고 조부모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이용률은 높아지고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대도시에서 조부모 돌봄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2-2〉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2024년, 중복응답)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전체	21.1	10.3	64.9	3.7	(21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7.9	12.6	65.8	3.7	(172)
	외벌이	32.7	1.9	61.5	3.8	( 4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7.1	0.0	42.9	0.0	( 6)
	300~399만원	22.2	0.0	66.7	11.1	( 9)
	400~499만원	17.9	0.0	78.6	3.6	( 25)
	500~599만원	17.1	2.4	73.2	7.3	( 39)
	600만원 이상	21.0	15.3	61.1	2.5	(138)
총 자녀수	1명	12.4	15.7	68.5	3.4	( 86)
	2명	20.0	5.2	71.3	3.5	(102)
	3명이상	44.7	13.2	36.8	5.3	( 29)
지역 규모	대도시	13.7	11.3	71.0	4.0	(110)
	중소도시	28.3	10.1	57.6	4.0	( 90)
	읍면지역	31.6	5.3	63.2	0.0	( 17)

주: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 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2~1.7명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의 경우 3차년도(2020년)부터 5차년도(2022년)까지 감소하다가 6차년도(2023)에 32.4시간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7차년도(2024년)에 다시 15.7%로 반감되었다. 민간 육아도우미와 조부모 돌봄의 경우 2차년도(2019년) 각각 28.8시간, 27.4시간에서 7차년도(2024년) 각각 15.9시간, 16.3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의 경우 2차년도(2019년) 18.3시간부터 4차년도(2021년) 24.9시간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6차년도(2023년)에 10.0시간이었으나, 7차년도(2024년)에 12.6시간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월평균 이용비용은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2차년도(2019년) 81만7천원에서 3차년도(2020년) 85만원으로 다소 증가한 이래 6차년도(2023년) 52만8천원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7차년도



(2024년)에는 97만5천원으로 급증하였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조부모 돌봄,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이용비용은 해마다 증감이 반복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표 III-2-3〉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 이용시간, 이용비용(2019~2024년)

단위: 명, 시간, 만원, (가구)

구분		동시 돌봄 자녀수	주당 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이용비용	(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2차년도(2019년)	1.5	17.0	26.9	( 32)
	3차년도(2020년)	1.2	23.4	27.3	( 11)
	4차년도(2021년)	1.3	18.2	23.2	( 35)
	5차년도(2022년)	1.5	15.2	19.5	( 33)
	6차년도(2023년)	1.5	32.4	26.2	( 74)
	7차년도(2024년)	1.6	15.7	20.7	( 46)
	민간 육아도우미	2차년도(2019년)	1.4	28.8	81.7
3차년도(2020년)		1.5	21.6	85.0	( 8)
4차년도(2021년)		1.3	21.0	76.2	( 14)
5차년도(2022년)		1.4	21.5	74.2	( 17)
6차년도(2023년)		1.5	16.3	52.8	( 23)
7차년도(2024년)		1.2	15.9	97.5	( 23)
조부모 돌봄		2차년도(2019년)	1.5	27.4	42.8
	3차년도(2020년)	1.5	23.2	34.3	(134)
	4차년도(2021년)	1.4	22.8	35.6	(161)
	5차년도(2022년)	1.5	20.5	38.1	(148)
	6차년도(2023년)	1.4	18.9	35.2	(170)
	7차년도(2024년)	1.5	16.3	31.9	(149)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2차년도(2019년)	1.2	18.3	14.2
3차년도(2020년)		1.5	23.9	42.8	( 27)
4차년도(2021년)		1.5	24.9	32.6	( 19)
5차년도(2022년)		1.5	19.3	31.5	( 17)
6차년도(2023년)		1.6	10.0	32.1	( 18)
7차년도(2024년)		1.7	12.6	30.3	( 9)

주: 1) 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7차년도 원자료.

민간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의 민간도우미 구인 경로를 살펴보면 5차년도(2022년)에는 지인소개가 56.8%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기반 돌봄서비스 플랫폼은 29.4%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6차년도(2023년), 7차년도(2024년)에는 인터

넷기반 돌봄서비스 플랫폼이 각각 43.5%, 3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지인소개였는데, 6차년도(2023년)에는 17.4%로 급감하였다가 7차년도(2024년)에 34.8%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 III-2-4〉 민간도우미 구인 경로: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가정(2022~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사설 인력 전문 소개소	지인소개	구직광고	인터넷기반 돌봄 서비스플랫폼	여성인력 교육·훈련기관	기타	(수)
5차년도(2022년)	5.9	56.8	-	29.4	-	5.9	(17)
6차년도(2023년)	4.3	17.4	13.0	43.5	4.3	17.4	(23)
7차년도(2024년)	4.3	34.8	17.4	39.1	4.3	-	(2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7차년도 원자료.

## 나.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 1) 돌봄 시간 및 미디어 활용, 양육부담

하루 평균 가정 내 양육 시간을 살펴보면, 대체로 평일에는 8시간 내외였으며, 주말의 경우 13시간 내외였다. 가정 내 양육 시간의 대부분은 부모가 직접 돌보는 시간으로 2024년 기준 평일 7.9시간, 주말 13.1시간을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디어 이용 시간은 평일은 1시간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주말에는 2시간 가까운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단, 미디어 사용시간은 해마다 차츰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5〉 가정 내 양육 및 부모 직접 돌봄 및 미디어 이용 시간(2021~2024년)

단위: 시간, (가구)

구분	가정 내 양육		부모 직접 돌봄		(수)	미디어 이용		(수)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4차년도(2021년)	8.1	13.2	7.8	12.9	(1,708)	1.3	2.0	(1,708)
5차년도(2022년)	8.4	13.1	8.3	13.0	(1,730)	1.3	2.0	(1,730)
6차년도(2023년)	8.0	13.0	7.8	12.8	(1,773)	1.2	1.8	(1,773)
7차년도(2024년)	7.9	13.1	7.9	13.1	(1,821)	1.1	1.7	(1,821)

주: 1) 평범한 지난 주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임. 수면시간 제외.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2024년도 가정 내 양육 및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항목에 따라 맞벌이 가구 여부, 총 자녀수, 아동 연령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평일 가정 내 양육과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더 적게 나타났으나, 주말에는 차이가 없었다.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주말의 가정 내 양육과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이 더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자녀가 0세일 경우 주말에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이 가장 길고 5세일 때 가장 짧았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자녀가 어릴수록 평일 가정 내 양육 및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주말은 큰 차이가 없거나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III-2-6〉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및 부모 직접 돌봄 시간(2024년)

단위: 시간, (가구)

구분		가정 내 양육		부모 직접 돌봄		(수)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전체		7시간 53분	13시간 9분	7시간 55분	13시간 7분	(1,8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시간 24분	13시간 8분	7시간 17분	13시간 2분	( 898)
	외벌이	8시간 20분	13시간 10분	8시간 31분	13시간 12분	( 923)
	<i>t</i>	-5.5***	-0.2	-6.8***	-1.0	
총 자녀수	1명	8시간 57분	13시간 25분	9시간 3분	13시간 29분	( 664)
	2명	7시간 21분	13시간 4분	7시간 22분	13시간 3분	( 912)
	3명이상	6시간 54분	12시간 44분	6시간 54분	12시간 24분	( 245)
	<i>F</i>	50.4***(a)	4.4*	46.9***(a)	9.1***	
아동 연령	0세(2024년생)	11시간 41분	13시간 39분	11시간 42분	13시간 42분	( 159)
	1세(2023년생)	9시간 47분	13시간 20분	9시간 25분	12시간 55분	( 313)
	2세(2022년생)	7시간 44분	13시간 26분	8시간 2분	13시간 36분	( 295)
	3세(2021년생)	6시간 55분	13시간 5분	6시간 58분	12시간 57분	( 276)
	4세(2020년생)	6시간 46분	12시간 57분	6시간 48분	13시간 3분	( 268)
	5세(2019년생)	6시간 39분	12시간 48분	6시간 44분	12시간 48분	( 265)
	6세(2018년생)	6시간 48분	12시간 55분	6시간 59분	13시간 1분	( 245)
	<i>F</i>	73.9***(a)	2.1(a)	52***(a)	2.4*	

주: 1) 평범한 지난 주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임. 수면시간 제외.

2)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01$ .

2024년도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아동연령이 많을수록 대체로 평일과 주말 모두 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2-7〉 가구특성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2024년)

단위: 시간, (가구)

구분		평일	주말	(수)
전체		1시간 6분	1시간 39분	(1,821)
총 자녀수	1명	0시간 53분	1시간 13분	( 664)
	2명	1시간 10분	1시간 48분	( 912)
	3명이상	1시간 23분	2시간 18분	( 245)
	<i>F</i>	31.8***	62.2***	
지역규모	대도시	1시간 2분	1시간 31분	( 723)
	중소도시	1시간 6분	1시간 43분	( 825)
	읍면지역	1시간 14분	1시간 50분	( 273)
	<i>F</i>	4.7**(a)	6**(a)	
아동 연령	0세(2024년생)	0시간 23분	0시간 31분	( 159)
	1세(2023년생)	0시간 41분	0시간 54분	( 313)
	2세(2022년생)	1시간 5분	1시간 35분	( 295)
	3세(2021년생)	1시간 13분	1시간 48분	( 276)
	4세(2020년생)	1시간 13분	1시간 53분	( 268)
	5세(2019년생)	1시간 25분	2시간 19분	( 265)
	6세(2018년생)	1시간 28분	2시간 17분	( 245)
	<i>F</i>	43***(a)	59.1***(a)	

주: 1) 평범한 지난 주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임.

2)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1$ , \*\*\*  $p < .001$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의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부담 정도의 평균 점수는 3.2~3.3점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3개년 모두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보통', '별로 부담 안 됨' 순이었다.



〈표 III-2-8〉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의 부담 정도 변화(2021~2024년)

단위: %, 점, (가구)

구분	부담정도					평균 점수	(수)
	전혀 부담 안 됨	별로 부담 안 됨	보통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4차년도(2021년)	3.4	20.2	29.9	36.3	10.2	3.3	(1,709)
5차년도(2022년)	4.7	19.4	31.7	36.1	8.2	3.2	(1,730)
6차년도(2023년)	4.2	19.6	29.9	36.6	9.6	3.3	(1,773)
7차년도(2024년)	4.9	19.2	29.9	38.2	7.9	3.3	(1,821)

주: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의 부담 이유 1순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양육 과정의 스트레스'가 37.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체력적으로 힘들' 35.8%였으나, 2022년~2024년에는 '가사-육아 병행의 어려움'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양육 과정의 스트레스'와 '체력적으로 힘들'이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치면 '가사-육아 병행의 어려움'이 매년 60.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부담 이유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체력적으로 힘들'이 50% 내외, '양육과정의 스트레스'가 40% 내외, '나만의 시간 부재' 20~30% 내외 순이었다. 일관되지는 않지만 '체력적으로 힘들'과 '양육과정의 스트레스'의 응답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나만의 시간 부재'라는 응답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2-9〉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의 부담 이유(2021~2024년, 순위별)

단위: %, (가구)

구분	연도	①양육 과정의 스트레스	②체력적 으로 힘들	③가사- 육아 병행의 어려움	④성인 과의 교류 감소	⑤놀이출 방법을 몰라서	⑥나만의 시간 부재	⑦기타	(수)
		1순위	2021년	37.8	35.8	22.7	1.1	1.5	
	2022년	28.8	28.7	30.9	1.3	2.1	7.8	0.4	(1,314)
	2023년	27.9	30.9	31.6	1.0	2.4	5.8	0.4	(1,351)
	2024년	29.4	29.1	32.4	1.6	3.2	4.1	0.2	(1,383)
2순위	2021년	1.1	13.2	41.0	2.5	8.6	32.9	0.8	(1,306)
	2022년	14.4	22.5	29.3	2.5	5.3	24.7	0.5	(1,314)
	2023년	17.1	26.7	30.7	4.6	5.4	13.9	0.4	(1,351)
	2024년	16.0	27.5	29.4	4.2	4.4	16.9	0.2	(1,383)

구분		①양육 과정의 스트레스	②체력적으로 힘들	③가사-육아 병행의 어려움	④성인과의 교류 감소	⑤놀이줄 방법을 몰라서	⑥나만의 시간 부재	⑦기타	(수)
1+2순위	2021년	38.9	48.9	63.7	3.5	10.1	33.8	0.9	(1,306)
	2022년	43.2	51.2	60.2	3.8	7.5	32.6	0.8	(1,314)
	2023년	45.0	57.7	62.3	5.6	7.8	19.8	0.7	(1,351)
	2024년	45.3	56.6	61.7	5.8	7.6	21.0	0.4	(1,383)

주: 1) ① 양육 과정(아이가 울거나 떼를 쓸 때)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 ②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③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육아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성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어서, ⑤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⑥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2024년도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의 부담 이유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사-육아 병행의 어려움', 외벌이 가구의 경우 '체력적으로 힘들'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관되지는 않지만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 과정의 스트레스'라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자녀가 많을수록 '체력적으로 힘들'이라는 응답률은 낮아지고, '가사-육아 병행의 어려움'이라는 응답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2-10〉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의 부담 이유: 1순위

단위: %, (가구)

구분		부담이유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전체		29.4	29.1	32.4	1.6	3.2	4.1	0.2	(1,38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9.6	28.0	33.3	0.9	4.2	3.6	0.4	( 672)
	외벌이	29.1	30.2	31.5	2.3	2.3	4.6	0.0	( 71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8.6	26.2	28.6	2.4	7.1	7.1	0.0	( 42)
	300~399만원 이하	25.8	38.2	29.8	1.1	2.2	2.8	0.0	( 178)
	400~499만원 이하	26.6	30.4	30.4	2.5	3.8	6.3	0.0	( 319)
	500~599만원 이하	30.8	23.9	38.1	2.8	2.4	1.7	0.3	( 289)
	600만원 이상	31.4	28.5	31.7	0.5	3.2	4.3	0.4	( 555)
총 자녀수	1명	27.2	32.8	27.2	2.4	5.2	5.0	0.2	( 460)
	2명	30.9	28.2	33.4	1.2	2.3	3.7	0.1	( 724)
	3명이상	28.6	24.1	40.7	1.0	1.5	3.5	0.5	( 199)

주: ① 양육 과정(아이가 울거나 떼를 쓸 때)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②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③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육아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성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어서, ⑤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⑥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허용한다는 응답이 2022년 전체 76.0%에서 2024년 전체 68.0%로 감소했다. 가구특성별로는 총 자녀수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2-11〉 가구특성별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기기 사용(TV, PC, 전자기기 등) 허용 여부 (2022~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허용여부		
		그렇다	아니다	계(수)
2022년 전체		76.0	24.0	100.0 (1,730)
2023년 전체		71.3	28.7	100.0 (1,773)
2024년 전체		68.0	32.0	100.0 (1,821)
총 자녀수	1명	50.3	49.7	100.0 ( 664)
	2명	77.3	22.7	100.0 ( 912)
	3명이상	81.2	18.8	100.0 ( 245)
	$\chi^2$	151.509(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 2) 장난감 대여 및 도서 대여 서비스 활용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률은 2023년에 8.9%로 가장 높았으며, 도서 대여 서비스 이용률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여 2024년에 19.3%로 가장 높았다. 총 자녀수와 지역규모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관되지는 않지만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장난감 대여 이용률은 줄어들고, 도서 대여 이용률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 2024년 장난감 대여 이용률은 읍면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2021년 도서 대여 이용률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2〉 가구특성별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이용여부(2021~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이용률								계(수) (2024)	
	장난감 대여				도서 대여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2024		
전체	6.3	6.8	8.9	7.9	13.9	16.5	18.1	19.3	100.0 (1,821)	
총 자녀 수	1명	8.4	8.9	9.9	8.6	9.5	10.8	11.0	11.3	100.0 ( 664)
	2명	5.5	6.2	8.6	7.7	15.7	18.9	21.7	24.5	100.0 ( 912)
	3명이상	4.4	4.0	7.6	6.9	16.9	21.1	23.1	22.0	100.0 ( 245)
	$\chi^2$	6.5*	7.5*	1.4	0.801(2)	13.5**	21.2***	33.5***	43.987(2)***	
지역 규모	대도시	7.3	6.0	9.3	7.5	15.8	16.5	18.1	19.5	100.0 ( 723)
	중소도시	5.5	7.4	8.5	6.9	13.7	17.1	18.7	19.0	100.0 ( 825)
	읍면지역	5.6	7.3	9.3	12.1	8.7	14.3	16.0	19.8	100.0 ( 273)
	$\chi^2$	2.3	1.2	0.4	7.872(2)*	7.4*	1.2	0.9	0.097(2)	

주: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

장난감 대여의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월 1회가 4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도서 대여의 이용 빈도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주 1~2회, 2023년과 2024년에는 월 1회가 30% 내외로 가장 많아서 장난감 대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를 나타냈다.

〈표 III-2-13〉 장난감/도서 대여 이용 빈도(2021~2024년)

단위: %(가구)

구분	대여 이용 빈도						계(수)	
	매일	주 3~4회	주 1~2회	격주 1회	월 1회	분기별 1회		
장난감	2021년	-	-	11.2	27.1	47.7	14.0	100.0 (107)
	2022년	-	0.8	19.5	27.1	42.4	10.2	100.0 (118)
	2023년	-	-	14.6	25.3	40.5	19.6	100.0 (158)
	2024년	1.4	0.7	11.8	31.9	42.4	11.8	100.0 (144)
도서	2021년	1.3	3.4	32.9	28.3	28.7	5.5	100.0 (237)
	2022년	1.1	3.9	35.1	22.1	31.2	6.7	100.0 (285)
	2023년	0.9	2.5	29.9	29.3	32.1	5.3	100.0 (321)
	2024년	0.9	2.8	28.1	29.5	34.1	4.5	100.0 (352)

주: 1)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 이용자 기준.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장난감 대여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1년 44.9%, 2022년 66.9%, 2023년 63.9%, 2024년 5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지자체(위탁기관 포함)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2021년 20.6%, 2022년 21.2%, 2023년 17.1%, 2024년 22.9%로 두 번째로 많았다. 민간사설업체의 장난감 대여는 2021년 19.6%를 기록한 이후 대폭 줄어서 2024년에는 4.9% 수준이었다. 도서 대여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2021년 82.7%, 2022년 87.0%, 2023년 84.7%, 2024년 81.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III-2-14〉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2021년~2024년)

단위: %, 만원, 점, (가구)

구분		제공기관(중복응답)							이용 비용	만족도	(수)
		반일제 이상 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공공 시설	지자체 (위탁기 관 포함)	지역 아동 센터	민간 사설 업체	기타			
장난감	2021년	2.8	44.9	13.1	20.6	3.7	19.6	-	0.9	4.1	(107)
	2022년	0.8	66.9	11.0	21.2	0.8	6.8	-	0.5	4.2	(118)
	2023년	1.3	63.9	10.8	17.1	4.4	3.8	-	0.5	4.2	(158)
	2024년	1.4	59.7	7.6	22.9	3.5	4.9	-	0.5	4.3	(144)
도서	2021년	5.9	3.4	82.7	6.8	0.8	2.5	1.3	1.1	4.2	(237)
	2022년	7.0	6.7	87.0	3.9	-	3.9	0.4	0.1	4.4	(285)
	2023년	6.5	5.6	84.7	5.6	0.6	2.2	1.6	0.1	4.4	(321)
	2024년	4.0	6.3	81.0	7.7	0.3	3.1	2.3	0.1	4.3	(352)

주: 1)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 이용자 기준.

2) 만족도는 '매우 만족=1'~'매우 불만족=5'로 응답된 수치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3)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 3)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활용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0.2%로 가장 높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5.2%를 기록하였다. 육아물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횟수는 2024년 기준 평균 4.5회로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즉 2024년에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하였지만, 이용하는 경우 이용횟수는 더 많아졌다.

〈표 III-2-15〉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여부 및 횟수(2021~2023년)

단위: %, (가구), 회

구분	이용여부			이용횟수	
	이용함	이용안함	계(수)	평균	(수)
2021년	10.2	89.8	100.0 (1,709)	3.3	(175)
2022년	8.7	91.3	100.0 (1,730)	3.6	(150)
2023년	6.0	94.0	100.0 (1,773)	3.4	(106)
2024년	5.2	94.8	100.0 (1,821)	4.5	( 95)

주: 1) 이용 횟수는 최근 3개월간 이용 횟수이며, 서비스 이용자 기준 평균임.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반일제이상 기관이 2021년 56.0%, 2022년 62.7%, 2023년 47.2%, 2024년 4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1년 22.9%, 2024년 31.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비용은 2021년~2023년에 1만2천원~1만5천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7천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III-2-16〉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1~2023년)

단위: %, 만원, 점, (가구)

구분	제공기관(중복응답)							이용 비용	만족도	(수)
	①반일제 이상 기관	②육아 종합지원 센터	③공공 시설	④지자체 (위탁기관 포함)	⑤지역 아동 센터	⑥민간 사설 업체	⑦기타			
2021년	56.0	22.9	10.9	9.1	2.9	9.1	2.9	1.2	4.0	(175)
2022년	62.7	24.0	6.7	5.3	4.0	8.7	0.7	1.5	4.0	(150)
2023년	47.2	28.3	12.3	7.5	7.5	7.5	1.9	1.2	4.0	(106)
2024년	46.3	31.6	10.5	3.2	5.3	9.5	1.1	0.7	4.1	( 95)

주: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 4) 육아지원 서비스 정책 개선 요구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별한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이라는 의견이 4개년 모두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2021년~2023년까지는 '물품/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



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이라는 의견이, 2024년에는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이라는 의견이 35% 이상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등이 함께 제공되었으면'이라는 응답은 20% 이상, '소독 및 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쌍방향 소통이 되는 형태로 제공해 줬으면'이라는 응답률은 20% 내외로 나타났다.

〈표 III-2-17〉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정책 방향(2021~2023년, 1+2순위)

단위: %, (가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	50.6	55.6	56.5	51.9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등이 함께 제공되었으면	26.0	23.6	25.5	25.5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쌍방향 소통이 되는 형태로 제공해 줬으면	17.9	21.2	23.5	21.3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33.9	36.0	34.7	35.9
물품/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35.7	36.1	36.2	33.8
소독 및 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26.9	18.6	17.5	22.4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5.5	6.8	4.0	5.7
기타	1.7	1.4	1.1	1.5
모름/무응답	-	-	-	0.2
(수)	(1,709)	(1,730)	(1,773)	(1,821)

주: 1) 중복 응답으로,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 다. 부모 지원 서비스

부모 지원 서비스별 이용 여부 및 이용횟수를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부모교육 이용경험은 2021년 7.7%에서 2023년 14.7%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24년 12.4%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용하는 경우 이용 횟수는 2021년 2.0회에서 2024년 1.4회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였다. 부모상담의 경우 이용경험이 2021년 11.4%에서 2023년 21.3%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24년에 16.4%로 감소하였고 이용횟수는 1.4회를 유지했다. 육아멘토의 경우 이용경험은 3개년 모두 1.0% 이하로 가장 낮았으며, 이용 횟수는 2021년 2.3회였으나 2024년에는 1.6회로 감소하였다.

〈표 III-2-18〉 부모 지원 서비스별 이용 여부 및 이용횟수(2021~2024년)

단위: %, (가구), 회, (가구)

구분		이용경험여부		이용횟수	
부모교육	2021년	7.7	(1,709)	2.0	(131)
	2022년	10.2	(1,730)	1.6	(177)
	2023년	14.7	(1,773)	1.5	(260)
	2024년	12.4	(1,821)	1.4	(225)
부모상담	2021년	11.4	(1,709)	1.4	(194)
	2022년	15.0	(1,730)	1.4	(260)
	2023년	21.3	(1,773)	1.4	(377)
	2024년	16.4	(1,821)	1.4	(299)
육아멘토	2021년	0.8	(1,709)	2.3	( 13)
	2022년	1.0	(1,730)	2.4	( 18)
	2023년	0.7	(1,773)	2.1	( 13)
	2024년	0.9	(1,821)	1.6	( 16)

주: 1) 평균 이용 횟수는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부모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부모 지원 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관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였다. 특히 부모상담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86.6%~92.3%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번째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특히 부모교육에서 10.4%~16.4%, 육아멘토에서 16.7%~31.3%의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2-19〉 부모 지원 서비스별 제공기관(2021~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관	64.9	72.9	79.6	71.1	90.2	92.3	90.2	86.6	38.5	50.0	46.2	56.3
육아종합지원센터	13.7	16.4	10.4	16.0	2.6	1.9	6.1	6.7	23.1	16.7	30.8	31.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3.1	2.3	1.5	5.8	0.5	0.8	1.1	3.3	-	5.6	-	6.3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4.6	4.0	4.2	4.0	0.5	0.8	0.8	1.0	-	-	7.7	6.3



구분	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역아동센터	0.8	1.7	1.2	0.4	0.5	1.2	-	0.3	-	5.6	-	-
민간사설업체	6.1	0.6	1.9	1.8	3.1	2.3	1.6	1.7	-	5.6	7.7	-
기타	6.9	2.3	1.2	0.9	2.6	0.8	0.3	0.3	38.5	16.7	7.7	-
계 (수)	100.0 (131)	100.0 (177)	100.0 (260)	100.0 (225)	100.0 (194)	100.0 (260)	100.0 (377)	100.0 (299)	100.0 (13)	100.0 (18)	100.0 (13)	100.0 (16)

주: 1) 각 서비스별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부모 지원 서비스 중 부모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방법을 제공하는 경우가 2024년 기준 6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 38.9~49.2%, 보호자의 역할 제공 25.3~38.4% 순이었다. 부모상담의 경우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70.9~82.5%로 가장 높았는데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다음은 양육 방법 51.8~60.3%, 보호자의 역할 20.4~26.3% 순이었는데, 양육방법 또한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육아멘토의 경우 2023년을 제외하고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양육 방법이 40% 이상으로 많았는데, 응답 자수가 적어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I-2-20〉 부모 지원 서비스별 내용 분야(2021~2024년, 1+2순위)

단위: %, (가구)

구분		영유아 성장발달 관련정보	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족윤리 및 예절	가족의 건강·영양·안전교육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부모 정서 상담 및 지원	기타	(수)
		부모 교육	2021년	38.9	71.8	31.3	18.3	2.3	7.6	6.1	11.5
	2022년	49.2	62.1	38.4	15.3	5.1	4.0	3.4	11.9	2.8	(177)
	2023년	45.8	58.5	35.0	19.2	2.7	5.0	7.3	7.7	2.3	(260)
	2024년	48.0	60.9	25.3	20.0	3.6	8.4	8.0	8.0	1.3	(225)
부모 상담	2021년	82.5	60.3	26.3	3.6	2.1	2.6	1.5	7.7	1.5	(194)
	2022년	80.4	55.8	20.4	7.7	3.5	8.1	1.5	10.4	1.9	(260)
	2023년	80.4	52.8	20.4	9.0	0.8	11.7	3.7	13.3	-	(377)
	2024년	70.9	51.8	25.8	15.4	3.7	6.0	4.3	9.4	-	(299)

III.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구분	영유아 성장발달 관련정보	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족윤리 및 예절	가족의 건강·영양·안전교육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부모 정서 상담 및 지원.	기타	(수)	
육아 멘토	2021년	76.9	69.2	15.4	-	-	15.4	15.4	7.7	-	(13)
	2022년	72.2	72.2	16.7	5.6	5.6	5.6	5.6	11.0	-	(18)
	2023년	46.2	53.8	38.5	15.4	15.4	7.7	15.4	7.7	-	(13)
	2024년	81.3	43.8	6.3	25.0	-	12.5	-	6.3	-	(16)

주: 1) 각 서비스별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부모교육, 부모 상담, 육아멘토 서비스 모두 2021년과 2022년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보다 많았으나, 코로나19가 끝나가는 2023년부터는 대면 서비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대면 비율이 비대면보다 훨씬 많아졌다. 부모 교육과 부모 상담의 경우 유료 서비스 비중이 2023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만족도는 모든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해 매년 4.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부모교육과 육아멘토의 만족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2024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1〉 부모 지원 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 여부, 유료 여부 및 만족도(2021~2024년)

단위: %, 점, (가구)

구분	비대면 서비스 여부			유료 여부	만족도	(수)
	대면	비대면	대면+비대면			
부모 교육	2021년	23.7	71.8	4.6	7.6	4.1 (131)
	2022년	27.7	70.1	2.3	2.8	4.1 (177)
	2023년	72.3	23.1	4.6	1.9	4.2 (260)
	2024년	73.3	18.8	-	6.3	4.6 (225)
부모 상담	2021년	27.3	68.6	4.1	4.6	4.0 (194)
	2022년	48.5	48.8	2.7	3.1	4.1 (260)
	2023년	67.9	23.3	8.8	1.6	4.1 (377)
	2024년	76.6	21.7	1.7	3.3	4.0 (299)
육아 멘토	2021년	7.7	84.6	7.7	0.0	4.0 ( 13)
	2022년	38.9	50.0	11.1	11.1	4.1 ( 18)
	2023년	53.8	38.5	7.7	7.7	4.2 ( 13)
	2024년	81.3	18.8	-	6.3	4.6 ( 16)

주: 1) 각 서비스별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만족도는 '매우 만족=1'~'매우 불만족=5'로 응답된 수치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3)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살펴보면, 2023년을 제외하고 프로그램 확대가 해마다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3년에는 이용시간 확대 혹은 변경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던 내용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일대일 서비스 확대였으며, 2021년에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2〉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2021~2024년, 1+2순위)

단위: %, (가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대일 서비스 확대	29.7	29.8	31.8	29.5
쌍방향 서비스 확대	10.4	10.0	13.5	11.8
프로그램 확대	30.1	31.1	31.1	31.4
서비스 제공기관 접근성 개선	28.0	24.8	22.8	24.9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지원 강화	12.1	10.7	10.8	12.4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9.8	21.6	16.7	19.7
서비스 홍보 강화	20.3	25.8	25.8	25.8
이용시간 확대 혹은 변경	26.9	29.7	33.7	29.2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7.8	11.7	10.1	10.1
기타	0.3	0.2	0.2	0.3
개선 필요사항 없음	1.9	1.6	1.4	1.6
(수)	(1,709)	(1,730)	(1,773)	(1,821)

주: 1) 각 서비스별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 3.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 가. 희망하는 육아서비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경우 실제로 희망하는 양육형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차년도(2018년)와 2차년도(2019년)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의 양육을 원하는 비중이 각각 34.8%,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6차년도(2023년)까지는 유치원 이용을 원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5차년도(2022년)에 그 비율이 47.9%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7차년도(2024년)에는 다시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의 양육을 원하는 비중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어린이집 이용 자녀에 대한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2018~2024년)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1차년도(2018년)	24.8	11.3	<b>34.8</b>	26.4	1.7	1.0	100.0 (199)
2차년도(2019년)	31.6	10.0	<b>36.9</b>	19.6	1.3	0.6	100.0 (166)
3차년도(2020년)	<b>32.5</b>	11.3	31.6	20.8	1.9	1.8	100.0 (109)
4차년도(2021년)	<b>37.1</b>	9.9	33.7	18.6	0.8	-	100.0 (112)
5차년도(2022년)	<b>47.9</b>	4.5	27.5	18.9	1.1	-	100.0 (78)
6차년도(2023년)	<b>44.1</b>	0.8	26.8	24.7	3.6	-	100.0 (101)
7차년도(2024년)	25.4	15.0	31.2	24.0	2.9	1.5	100.0 (6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경우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조사기간에 걸쳐 '일을 하고 있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6차년도(2023년)에는 46.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3-2〉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어린이집 이용 자녀를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2018~2024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비용 부담 때문에	17.0	19.1	13.6	11.8	18.9	16.9	23.7
일을 하고 있어서	<b>43.5</b>	<b>38.6</b>	<b>41.1</b>	<b>41.6</b>	<b>43.4</b>	<b>46.9</b>	<b>37.6</b>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2.7	7.2	9.4	11.9	6.3	8.5	7.6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12.6	7.4	13.0	5.3	8.7	9.1	9.1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6.3	5.7	6.5	7.8	6.4	3.4	5.8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3.1	8.9	5.3	4.6	1.1	1.8	2.9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6.1	4.3	2.9	4.4	3.4	6.1	1.5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0.5	0.6	1.8	0.8	2.4	0.9	10.4
기타	8.2	8.3	6.4	11.8	9.5	6.5	1.5
계(수)	100.0 (199)	100.0 (166)	100.0 (109)	100.0 (112)	100.0 (78)	100.0 (101)	100.0 (6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경우 실제로 희망하는 양육형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 일관성이 없었다. 이는 응답자가 소수이기 때문이기도 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차년도(2018년)와 2차년도(2019년)에는 학원 등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형태의 양육을 원하는 비율이 각각 40.2%,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차년도(2020년)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의 양육을 원하는 비율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에는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53.0%,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차년도(2023년)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차년도(2024년)에는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학원 등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형태의 양육과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의 양육을 원하는 비율이 25.2%로 유사하게 높았다.

〈표 III-3-3〉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유치원 이용자녀에 대한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2018~2024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1차년도(2018년)	26.8	<b>40.2</b>	7.9	25.1	-	-	100.0 (37)
2차년도(2019년)	27.6	<b>28.9</b>	23.5	12.1	3.9	4.0	100.0 (24)
3차년도(2020년)	29.2	21.3	<b>38.5</b>	11.0	-	-	100.0 (19)
4차년도(2021년)	<b>53.0</b>	23.4	11.9	5.9	5.8	-	100.0 (18)
5차년도(2022년)	<b>41.2</b>	18.0	8.6	32.1	-	-	100.0 (22)
6차년도(2023년)	15.7	6.9	25.6	<b>47.0</b>	-	4.8	100.0 (18)
7차년도(2024년)	<b>26.2</b>	25.2	11.5	25.2	-	11.9	100.0 ( 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경우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5차년도(2022년)를 제외하고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이유는 1차년도(2018년)부터 3차년도(2020년)

까지 응답률이 20% 넘게 나타났고,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1차년도(2018년)와 2차년도(2019), 7차년도(2024년)에 2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5차년도(2022년)와 6차년도(2023년)에는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라는 응답이 각각 19.4%와 21.6%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응답자가 소수이고 해마다 응답자 수도 달라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I-3-4〉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유치원 이용자녀를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2018~2024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비용 부담 때문에	25.5	23.6	22.0	11.7	18.8	11.9	<b>27.0</b>
일을 하고 있어서	<b>30.6</b>	<b>27.5</b>	<b>38.1</b>	<b>23.6</b>	18.3	<b>42.4</b>	23.2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5.2	4.2	11.0	11.9	<b>19.8</b>	4.8	-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23.3	24.3	6.1	11.5	11.0	5.0	26.2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3.1	-	6.1	-	8.6	5.6	-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4.9	8.1	5.3	-	4.1	-	-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4.8	4.2	-	11.5	19.4	21.6	11.7
서비스 이용자가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2.6	4.0	-	-	-	-	11.9
기타	-	4.0	11.5	29.8	-	8.7	-
계(수)	100.0 (37)	100.0 (24)	100.0 (19)	100.0 (18)	100.0 (22)	100.0 (18)	100.0 (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 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1) 정부 지원 부족 부분 및 정책 범주별 개선 필요 사항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있어서 정부 지원 부족 부분을 살펴보면, 1차년도(2018년)부터 7차년도(2024년)에 이르기까지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에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차년도(2022년)의 응답률이 42.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차년도(2018년)부터 5차년도(2022년)까지는 기관보육·교육서비스에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

러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차년도(2023년)와 7차년도(2024년)에는 육아휴직 등 돌봄시간 지원에 부족함을 느끼는 응답률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5〉 정부 지원 부족 부분 변화(2018~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계(수)
	기관보육·교육 서비스	개별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기저귀 등 양육 물품 지원	
1차년도(2018년)	27.9	11.2	6.6	17.6	30.9	5.8	100.0 (1,648)
2차년도(2019년)	27.0	9.6	8.7	15.3	31.5	7.9	100.0 (1,665)
3차년도(2020년)	21.0	13.7	9.1	12.4	34.4	9.4	100.0 (1,679)
4차년도(2021년)	20.8	12.1	7.9	14.2	39.1	6.0	100.0 (1,708)
5차년도(2022년)	18.8	13.9	7.4	11.6	42.4	6.0	100.0 (1,730)
6차년도(2023년)	16.4	12.9	5.2	18.3	42.0	5.3	100.0 (1,773)
7차년도(2024년)	11.4	10.9	5.0	25.6	41.5	5.7	100.0 (1,821)

주: 1) 개별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2)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2024년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있어서 정부 지원 부족 부분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4가지 가구특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개별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육아휴직 등 돌봄시간 지원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비율이 외벌이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외벌이 가구의 경우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과 기저귀 등 양육 물품 지원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비율이 맞벌이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별 돌봄 서비스, 육아휴직 등 돌봄시간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총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지고,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와 육아휴직 등 돌봄시간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규모 별로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개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지고, 기관보육·교육서비스,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3-6〉 가구특성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계(수)	
	기관보육·교육 서비스	개별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기저귀 등 양육 물품 지원		
전체	11.4	10.9	5.0	25.6	41.5	5.7	100.0 (1,8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1.1	11.9	5.6	33.1	34.4	3.9	100.0 ( 898)
	외벌이	11.6	9.9	4.4	18.4	48.3	7.4	100.0 ( 923)
	$\chi^2$	72.060(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4.5	7.3	10.9	5.5	52.7	9.1	100.0 ( 55)
	300~399만원	7.9	6.7	4.6	18.4	51.9	10.5	100.0 ( 239)
	400~499만원	14.4	9.0	3.2	20.9	46.8	5.7	100.0 ( 402)
	500~599만원	10.0	10.5	4.7	27.8	40.7	6.3	100.0 ( 381)
	600만원 이상	11.3	13.7	5.8	30.9	34.8	3.5	100.0 ( 744)
	$\chi^2$	87.615(20)***						
총 자녀수	1명	10.4	13.9	6.0	28.3	34.9	6.5	100.0 ( 664)
	2명	12.0	8.2	4.9	24.5	45.4	5.0	100.0 ( 912)
	3명이상	11.8	12.7	2.4	22.9	44.5	5.7	100.0 ( 245)
	$\chi^2$	32.746(10)***						
지역 규모	대도시	14.0	11.1	6.5	23.0	41.1	4.4	100.0 ( 723)
	중소도시	10.1	10.1	4.4	28.5	40.7	6.3	100.0 ( 825)
	읍면지역	8.4	12.8	2.9	24.2	44.7	7.0	100.0 ( 273)
	$\chi^2$	24.410(10)**						

주: 개별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 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1$ , \*\*\*  $p < .001$ .

기관보육·교육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매년 50% 내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인구수 대비 적정 설치 및 확충으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매년 20% 내외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7〉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2018~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인구 수 대비 적정 설치 및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	18.3	20.9	22.7	12.1	16.9	19.3	19.8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50.2	53.1	49.7	52.5	51.4	49.3	49.3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	9.3	9.3	9.4	8.7	8.3	10.7	13.0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2.6	4.2	2.8	6.2	3.1	1.7	2.4
보육·교육과정(표준교육과정, 누리과정) 개선	4.6	2.9	3.4	3.9	3.4	1.7	2.9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8.3	4.2	6.5	9.0	7.7	8.3	8.2
아동학대 등 근절	5.2	2.7	3.7	5.9	7.4	3.1	1.9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	0.2	0.4	-	-	0.3	2.4	0.5
기타	1.1	1.1	0.9	0.6	1.2	0.7	1.9
개선할 부분 없음	0.2	1.1	0.9	1.1	0.3	2.8	-
계(수)	100.0 (460)	100.0 (450)	100.0 (352)	100.0 (356)	100.0 (325)	100.0 (290)	100.0 (207)

주: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개별돌봄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2차년도(2019년)를 제외하고는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공공 개별돌봄 인력 양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2차년도(2019년)에는 공공 개별돌봄 인력 양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표 III-3-8〉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2018~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공공 개별돌봄인력 양성 확대	29.3	30.6	21.3	20.3	22.5	22.4	19.7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33.2	29.4	35.7	33.8	34.2	32.5	36.4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10.3	7.5	7.8	9.7	13.3	9.2	4.0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9.8	10.6	17.8	16.9	9.2	15.8	8.6
공공 개별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	7.1	13.1	8.3	11.6	11.7	11.8	14.6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	9.8	6.9	7.8	6.3	8.3	7.9	16.2
기타	-	1.3	0.4	1.0	0.4	0.4	0.5
개선할 부분 없음	0.5	0.6	0.9	0.5	0.4	-	-
계(수)	100.0 (184)	100.0 (160)	100.0 (230)	100.0 (207)	100.0 (240)	100.0 (228)	100.0 (198)

주: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 부분으로 1차년도(2018년)와 2차년도(2019년)에는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대’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라는 응답률이 똑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차년도(2020년)부터는 ‘서비스 다양성 확대’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였다.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라는 응답률은 매년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9〉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2018~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29.4	30.3	41.2	36.6	36.7	41.3	36.3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29.4	30.3	35.9	29.9	35.9	29.3	26.4
서비스 수준 제고	21.1	15.2	9.8	11.2	9.4	13.0	8.8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19.3	20.7	11.8	18.7	17.2	14.1	20.9
기타	0.9	3.4	1.3	3.0	0.8	2.2	5.5
개선할 부분 없음	-	-	-	0.7	-	-	2.2
계(수)	100.0 (109)	100.0 (145)	100.0 (153)	100.0 (134)	100.0 (128)	100.0 (92)	100.0 (91)

주: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 부분으로 2차년도(2019년)를 제외하고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2차년도(2019년)와 3차년도(2020년)를 제외하고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라는 응답률은 2차년도(2019년)에 가장 높았고, 3차년도(2020년)에는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0〉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2018~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12.4	18.9	16.8	12.0	14.5	13.2	12.8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휴가 사용), 승급 등 인사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	14.5	7.5	7.7	7.9	11.5	9.5	12.8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	<b>32.8</b>	<b>25.6</b>	<b>28.8</b>	<b>29.8</b>	<b>25.5</b>	<b>24.6</b>	<b>27.2</b>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	<b>19.0</b>	12.6	15.4	<b>22.3</b>	<b>21.0</b>	<b>23.4</b>	<b>21.2</b>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	16.2	<b>28.0</b>	<b>23.1</b>	16.9	20.5	20.6	16.7
이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 상향	-	2.0	2.4	4.1	-	3.1	3.4
서비스 다양성 강화	4.5	3.9	4.8	6.2	6.0	3.7	5.4
기타	0.7	1.6	1.0	0.4	1.0	1.2	0.4
개선할 부분 없음	-	-	-	0.4	-	0.6	-
계(수)	100.0 (290)	100.0 (254)	100.0 (208)	100.0 (242)	100.0 (200)	100.0 (325)	100.0 (467)

주: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 부분으로 매년 '현금 지원 수준 제고'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특히 5차년도(2022년)에 48.5%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5차년도(2022년)를 제외하고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자녀 연령별 양육비 소요 핵심 범주 집중 양육비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5차년도(2022년)에는 근소한 차이로 '자녀 연령별 양육비 소요 핵심 범주 집중 양육비 제공',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순이었다.

〈표 III-3-11〉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2018~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현금 지원 수준 제고	30.5	30.7	44.6	46.0	48.5	46.1	46.5
자격 충족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	17.9	13.3	10.0	8.5	8.2	7.0	6.8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	25.5	28.2	22.5	24.0	21.0	25.3	26.2
자녀 연령별 양육비 소요 핵심범주 집중 양육비 제공	25.1	25.9	21.5	21.0	21.9	21.2	20.1
기타	0.8	1.5	0.9	0.3	0.3	0.3	-
개선할 부분 없음	0.2	0.4	0.5	0.1	0.1	0.1	0.4
계(수)	100.0 (509)	100.0 (525)	100.0 (578)	100.0 (667)	100.0 (734)	100.0 (744)	100.0 (755)

주: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양육물품 지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개선 항목으로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나 '지원 자격기준을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물품 지원량 실제 필요량 수준으로 제고'나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 등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라는 응답은 일관되지는 않지만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3-12〉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2018~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17.7	29.8	28.5	30.4	17.5	17.0	30.1
물품 지원량 실제 필요량 수준으로 제고	12.5	13.7	22.2	17.6	26.2	18.1	17.5
서비스 홍보 강화	13.5	9.9	10.1	6.9	5.8	2.1	5.8
물품 당 지원 기간 연장	9.4	4.6	5.1	8.8	9.7	17.0	17.5
지원 자격기준 확대	30.2	26.0	20.3	21.6	26.2	33.0	21.4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	16.7	14.5	12.7	13.7	10.7	9.6	6.8
기타	-	0.8	-	1.0	1.9	2.1	-
개선할 부분 없음	-	0.8	1.3	-	1.9	1.1	1.0
계(수)	100.0 (96)	100.0 (131)	100.0 (158)	100.0 (102)	100.0 (103)	100.0 (94)	100.0 (103)

주: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7차년도 원자료.

## 2) 육아지원 부족 시기 및 개선 필요 정책 범주

육아지원이 부족한 시기에 대해 5차년도(2022년)부터 7차년도(2024년)까지 모두 유아기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영아기, 임신·출산 시기 순이었다. 해가 갈수록 영아기라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임신·출산 시기라는 응답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3-13〉 육아지원 부족한 시기 변화(2022~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임신·출산 시기	영아기	유아기	(수)
5차년도(2022년)	12.8	26.2	61.0	100.0 (1,730)
6차년도(2023년)	10.9	32.4	56.7	100.0 (1,773)
7차년도(2024년)	9.6	32.5	58.0	100.0 (1,82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7차년도 원자료.

시기별 부족한 육아지원을 살펴보면 시기와 상관없이 비용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 영아기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신 영아기에는 서비스지원이라는 응답률이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지원에 대한 요구는 해마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유아기에는 비용지원 다음으로 서비스지원과 시간지원이 높게 나타났는데, 2022년과 2023년에는 서비스지원이 2024년에는 시간지원이 더 높았다.

〈표 III-3-14〉 시기별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2022~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지원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한 범주				계(수)
		비용지원	서비스지원	물품지원	시간지원	
임신·출산기	2022년	<b>70.6</b>	16.3	9.5	3.6	100.0 ( 221)
	2023년	<b>80.8</b>	11.9	4.7	2.6	100.0 ( 193)
	2024년	<b>76.4</b>	9.8	5.2	8.6	100.0 ( 174)
영아기	2022년	<b>47.7</b>	<b>28.7</b>	14.1	9.5	100.0 ( 453)
	2023년	<b>54.3</b>	<b>18.4</b>	9.6	<b>17.7</b>	100.0 ( 575)
	2024년	<b>48.4</b>	<b>23.0</b>	7.4	21.2	100.0 ( 591)
유아기	2022년	<b>65.2</b>	16.0	4.3	14.5	100.0 (1,056)
	2023년	<b>72.4</b>	13.0	1.9	12.6	100.0 (1,005)
	2024년	<b>65.2</b>	13.3	4.0	<b>17.6</b>	100.0 (1,056)

주: 각 시기가 가장 육아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개선 필요 범주를 질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7차년도 원자료.

# IV

---

##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

---

- 01 출산 및 육아휴직 등
- 02 가족돌봄제도
- 03 직장 지원 제도
- 04 유연근무제도
- 05 육아시간 지원 제도 개선 요구



## IV.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

### 1. 출산 및 육아휴직 등

영유아 가구 부모의 휴가 휴직 이용경험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부와 모 모두 해마다 이용률이 증가하여 4년간 2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휴가에 대한 부의 이용경험은 4차년도(2021) 6.7%에서 7차년도(2024년)에는 11.1%로 증가했으며, 부의 육아휴직도 4차년도(2021) 2.8%에서 7차년도(2024년)에는 5.1%로 증가하였다. 부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도 4차년도(2021)에 1.6%에서 7차년도(2024년)에는 3.0%로 증가하였다. 모의 출산휴가는 4차년도(2021)도에 13.6%에서 7차년도(2024년) 25.5%로 증가했으며, 모의 육아휴직은 4차년도(2021)도 18.6%에서 7차년도(2024년) 32.6%로 증가하고, 모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도 4차년도(2021) 6.7%에서 7차년도(2024년)에는 11.0%로 증가하였다. 단, 소비실태조사에서 출산휴가의 증가는 표본 중 후속 출산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표 IV-1-1〉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2021~2024년)

단위: %

구분	부				모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출산휴가	6.7	8.9	10.1	11.4	13.6	15.9	25.0	25.5
육아휴직	2.8	3.6	4.1	5.1	18.6	21.8	31.2	32.6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6	0.8	2.0	3.0	6.7	5.8	8.3	11.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2024년 부의 휴가 휴직 이용 경험은 가구특성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출산휴가는 가구소득, 육아휴직은 맞벌이 가구 여부, 육아기근로 단축은 맞벌이 가

구 여부와 총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의 출산휴가 이용률은 가구소득 400~499만원 이하일 때 13.2%로 가장 높았으며, 부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맞벌이 가구일 때 7.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이용률은 맞벌이일 경우,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다시말해, 맞벌이 가구들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는데, 이는 자녀돌봄이 필요성과 함께 휴직/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표 IV-1-2〉 가구특성별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부, 2024년)

단위: %, (명)

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1.4	88.6	100.0 (1,461)	5.1	94.9	100.0 (1,461)	3.0	97.0	100.0 (1,461)
맞벌이 가구	맞벌이	12.3	87.7	100.0 ( 746)	7.5	92.5	100.0 ( 746)	4.3	95.7	100.0 ( 746)
	외벌이	10.3	89.7	100.0 ( 715)	2.7	97.3	100.0 ( 715)	1.7	98.3	100.0 ( 715)
여부		$\chi^2$			17.629(1)***			8.522(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	100.0	100.0 ( 27)	3.7	96.3	100.0 ( 27)	-	100.0	100.0 ( 27)
	300~399만원 이하	5.0	95.0	100.0 ( 201)	2.5	97.5	100.0 ( 201)	1.5	98.5	100.0 ( 201)
	400~499만원 이하	13.2	86.8	100.0 ( 349)	6.0	94.0	100.0 ( 349)	3.4	96.6	100.0 ( 349)
	500~599만원 이하	12.4	87.6	100.0 ( 307)	4.6	95.4	100.0 ( 307)	2.9	97.1	100.0 ( 307)
	600만원 이상	12.5	87.5	100.0 ( 577)	5.9	94.1	100.0 ( 577)	3.5	96.5	100.0 ( 577)
			$\chi^2$			4.452(4)			3.059(4)	
총 자녀수	1명	13.4	86.6	100.0 ( 536)	5.6	94.4	100.0 ( 536)	2.2	97.8	100.0 ( 536)
	2명	10.7	89.3	100.0 ( 739)	5.0	95.0	100.0 ( 739)	2.8	97.2	100.0 ( 739)
	3명 이상	8.1	91.9	100.0 ( 186)	4.3	95.7	100.0 ( 186)	5.9	94.1	100.0 ( 186)
			$\chi^2$			0.525(2)			6.533(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

반면, 2024년 모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표본의 관측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에 있어서 이용 경험은 차이를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육아시간 지원 제도에 대한 설문은 부모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질문한 설문으로, 모의 휴가/휴직 이용 경험을 응답해야 하는 표본(모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은 대부분은 맞벌이 가구인 경우로 한정되는 상황이다. 이는 통상 아직

까지도 남성이 가계 경제를 책임지는 주 소득원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 그 이상 가구소득 집단과는 달리 휴가/휴직제도 활용 경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관측치가 9개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포착하기는 어려웠다.

〈표 IV-1-3〉 가구특성별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모, 2024년)

단위: %, (명)

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5.5	74.5	100.0 (718)	32.6	67.4	100.0 (718)	11.0	89.0	100.0 (71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5.7	74.3	100.0 (708)	32.9	67.1	100.0 (708)	11.0	89.0	100.0 (708)
	와벌이	10.0	90.0	100.0 ( 10)	10.0	90.0	100.0 ( 10)	10.0	90.0	100.0 ( 10)
		$\chi^2$			2.356(1)(b)			0.010(1)(b)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1.1	88.9	100.0 ( 9)	11.1	88.9	100.0 ( 9)	-	100.0	100.0 ( 9)
	300~399만원 이하	32.0	68.0	100.0 ( 25)	44.0	56.0	100.0 ( 25)	12.0	88.0	100.0 ( 25)
	400~499만원 이하	29.6	70.4	100.0 ( 71)	40.8	59.2	100.0 ( 71)	9.9	90.1	100.0 ( 71)
	500~599만원 이하	25.6	74.4	100.0 (156)	33.3	66.7	100.0 (156)	6.4	93.6	100.0 (156)
	600만원 이상	24.7	75.3	100.0 (457)	30.9	69.1	100.0 (457)	12.9	87.1	100.0 (457)
		$\chi^2$			6.240(4)			6.291(4)		
총 재취수	1명	28.7	71.3	100.0 (268)	36.2	63.8	100.0 (268)	8.6	91.4	100.0 (268)
	2명	24.5	75.5	100.0 (367)	31.1	68.9	100.0 (367)	12.8	87.2	100.0 (367)
	3명이상	19.3	80.7	100.0 ( 83)	27.7	72.3	100.0 ( 83)	10.8	89.2	100.0 ( 83)
			$\chi^2$			2.874(2)			2.825(2)	

주: (b)는 카이제곱 기본 가정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전체 셀의 2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 의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집단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의 경우 31.2~33.4시간이었으며, 모의 경우 30.3~31.9시간으로 30~33시간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

〈표 IV-1-4〉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2022~2024년)

단위: 시간, (명)

구분	부		모	
	평균	(수)	평균	(수)
2022년	31.2	(14)	30.5	(45)
2023년	33.1	(28)	31.9	(54)
2024년	33.4	(44)	30.3	(7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7차년도 원자료.

2024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집단을 대상으로 단축 후의 근로 시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는 평균 33.4시간, 모는 30.3시간으로 부의 근로시간이 다소 길게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시간별로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 30~35시간 근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의 경우 68.2%, 모의 경우 44.3시간으로 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모의 경우는 20시간 이하로 근무한 비율도 12.7%였다.

〈표 IV-1-5〉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2024년: 주당)

단위: %, 시간, %(명)

구분	15시간 이하	15~20시간	20~25시간	25~30시간	30~35시간	35시간 초과	평균	계(수)
부	-	-	2.3	27.3	68.2	2.3	33.4	100.0 (44)
모	5.1	7.6	2.5	40.5	44.3	-	30.3	100.0 (79)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지난 2년간 휴가/휴직의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모두 4.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전반적으로 부모다는 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의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도움 정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모의 경우에는 제도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여전히 육아의 부담은 부모다는 모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표 IV-1-6〉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도움정도(2023~2024년)

단위: 점, (가구)

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부	2023년	4.4	(144)	4.5	( 59)	4.8	(28)
	2024년	4.5	(166)	4.4	( 75)	4.6	(44)
모	2023년	4.8	(162)	4.8	(202)	4.8	(54)
	2024년	4.7	(183)	4.7	(234)	4.7	(79)

주: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지난 2년간 출산휴가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부모 모두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라는 응답과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2024년 모의 경우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라는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서 다른 수치와 차이를 보였다. 한편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와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률은 1~2% 수준으로 낮았다.

〈표 IV-1-7〉 출산휴가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부		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22.7	26.0	24.3	24.1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12.9	18.5	18.7	30.1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8.5	6.8	5.8	5.2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5.7	5.2	5.3	3.4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2.2	2.2	1.6	1.1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1.1	0.9	1.4	1.3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6.7	40.1	40.5	34.8
	기타	0.2	0.2	2.3	-
(수)		(1,288)	(1,295)	(486)	(53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지난 2년 간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부모 모두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순이었다. 한편 2023년 부의 경우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률이 2순위로 다른 수치와 차이가 있었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와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률은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8〉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부		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22.3	24.7	25.8	27.7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9.6	12.4	16.6	21.1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10.1	8.9	6.7	8.3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7.6	8.5	5.4	5.4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3.4	3.5	2.5	1.9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1.5	1.2	1.3	1.2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5.3	40.1	38.8	34.1
	기타	0.4	0.5	2.9	0.4
(수)		(1,373)	(1,386)	(446)	(48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지난 2년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부모 모두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순이었다. 한편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률은 2023년 부의 경우 2순위로 다른 경우와 차이가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모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라는 응답률은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1-9〉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부		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25.4	29.7	25.9	30.2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8.5	10.5	11.6	16.7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9.3	8.0	9.9	10.5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7.5	6.4	6.4	3.8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2.9	2.9	2.4	1.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1.4	0.8	1.3	0.9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4.7	41.3	40.1	35.8
	기타	0.3	0.4	2.7	0.5
(수)		(1,404)	(1,417)	(594)	(63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 2. 가족돌봄제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이용 경험을 4~6차년도 자료로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휴직은 부의 경우 4차년도(2021년) 1.0%에서 7차년도(2024년) 0.4%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모의 경우 4차년도(2021년) 2.1%에서 7차년도(2024년) 1.0%로 감소하였다. 가족돌봄휴가는 부의 경우 4차년도(2021년) 1.9%에서 6차년도(2023년) 3.4%로 늘어났으나 7차년도(2024년)에 2.8%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모의 경우 4차년도(2021년) 3.1%에서 7차년도(2024년) 5.7%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경험은 부모 모두 5차년도(2022년)에 비해 6차년도(2023년)와 7차년도(2024년)에 증가하였다.

〈표 IV-2-1〉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2021~2024년)

단위: %

구분	부				모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가족돌봄휴직	1.0	0.5	0.5	0.4	2.1	1.0	0.8	1.0
가족돌봄휴가	1.9	2.1	3.4	2.8	3.1	4.2	5.1	5.7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	0.6	1.1	1.1	-	1.5	4.0	3.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지난 3년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은 부의 경우 29.5~30.0시간, 모의 경우 27.0~28.8시간으로 부의 근로시간이 모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연도에 따른 차이나 경향은 별로 없었다.

〈표 IV-2-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 변화(2022~2024년: 주당)

단위: %, (명)

구분	부		모	
	평균	(수)	평균	(수)
2022년	30.0	(10)	28.7	(12)
2023년	29.5	(16)	28.8	(26)
2024년	30.0	(16)	27.0	(2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7차년도 원자료.

지난 2년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근로시간 단축제도 모두 4.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수가 매우 소수여서 해석에 주의해야 하나, 가족돌봄휴직은 상대적으로 부의 도움 정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2-3〉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움정도(2023~2024년)

단위: 점, (가구)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부	2023년	4.9	(7)	4.6	(48)	4.9	(16)
	2024년	5.0	(6)	4.9	(41)	4.8	(16)
모	2023년	4.0	(5)	4.6	(33)	4.8	(26)
	2024년	4.4	(7)	4.7	(41)	4.9	(28)

주: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지난 2년간 가족돌봄휴직 미이용자 대상으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비율은 모가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2-4〉 가족돌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부		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29.1	35.3	29.6	34.7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7.2	7.2	10.6	10.3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8.4	7.5	9.3	10.7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5.3	5.2	6.1	3.9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2.9	2.7	1.9	2.7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1.3	1.1	1.2	1.4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5.3	40.8	39.1	36.3
	기타	0.7	0.1	2.2	-
(수)		(1,425)	(1,455)	(642)	(71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지난 2년간 가족돌봄휴가 미이용자 대상으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비율은 모가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2-5〉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부		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29.3	35.8	29.7	35.0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7.3	6.9	10.6	10.3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8.4	6.8	9.5	10.8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5.0	5.1	5.2	3.8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3.1	2.5	1.8	2.4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1.2	1.2	1.1	1.6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5.0	41.2	39.4	35.9
	기타	0.7	0.5	2.6	0.1
(수)		(1,384)	(1,420)	(612)	(67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이용자 대상으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도, 가족돌봄휴가 미이용 사유와 유사하게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6〉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부		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29.2	35.9	30.3	34.8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7.3	6.4	9.8	10.1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8.5	7.5	10.3	11.4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5.5	5.1	5.5	3.6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3.0	2.6	1.8	2.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1.2	1.0	1.3	0.9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4.7	41.0	38.8	36.2
	기타	0.7	0.5	2.3	0.3
(수)		(1,416)	(1,445)	(621)	(69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 3. 직장 지원 제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 등 이 외에도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제도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 모두 2024년에 각 제도가 있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각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가 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가지 제도 중에서는 육아휴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1〉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휴직, 자녀돌봄 휴가 제도 유무(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부				모			
		있음	없음	모르겠음	(수)	있음	없음	모르겠음	(수)
근로시간 단축 지원	2023년	12.9	87.1	-	(1,432)	16.5	83.5	-	(648)
	2024년	13.3	77.6	9.1	(1,461)	18.7	74.0	7.4	(718)
육아 휴직	2023년	17.1	82.9	-	(1,432)	22.1	77.9	-	(648)
	2024년	22.2	72.0	5.7	(1,461)	31.8	63.9	4.3	(718)
자녀돌봄 휴가	2023년	12.6	87.4	-	(1,432)	16.0	84.0	-	(648)
	2024년	13.9	77.2	8.9	(1,461)	18.9	72.7	8.4	(718)

주: 본 표에서 언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육아휴직'은 법적 보장 기간 이상 지원 받은 제도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모의 자녀돌봄 관련 휴직, 휴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sup>14)</sup>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의 경우 2023년 대비 2024년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모의 경우에도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가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이용률을 비교해보면, 2024년 기준 여전히 모의 이용률이 부에 비해 확연히 높긴하나 그 편차는 2023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4) 이용 경험 기간은 조사연도 기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임. 즉, 2024년 기준 2023.7.1.~2024.6.30. 사이의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중을 의미함.

〈표 IV-3-2〉 부모의 직장 내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휴직, 자녀돌봄 휴가 제도 이용 경험(2023~2024년)

단위: %

구분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휴직		자녀돌봄 휴가	
		이용률	(수)	이용률	(수)	이용률	(수)
부	2023년	8.6	(185)	2.4	(245)	8.3	(181)
	2024년	16.0	(194)	14.2	(325)	23.6	(203)
모	2023년	32.7	(107)	24.5	(143)	14.4	(104)
	2024년	36.6	(134)	49.6	(228)	35.3	(136)

주: 1) (수)는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해당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수로, 분모에 해당함.  
 2) 본 표에서 언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육아휴직'은 법적 보장 기간 이상 지원 받은 제도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휴직, 자녀돌봄 휴가 제도의 도움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제도에서 평균 4.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의 도움 정도는 부모, 2023년과 2024년 모두 4.7점 이상이었다. 육아휴직의 도움 정도는 부의 경우 4.5점, 4.6점, 모는 4.9점, 4.7점으로 부에 비해 모의 점수가 높았으며, 자녀돌봄 휴가의 도움 정도는 부의 경우 모두 4.7점, 모의 경우 4.5점, 4.6점으로 부의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IV-3-3〉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휴직, 자녀돌봄 휴가 제도 도움정도(2023~2024년)

단위: 점, (가구)

구분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 휴직		자녀돌봄 휴가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부	2023년	4.8	(16)	4.5	( 6)	4.7	(15)
	2024년	4.8	(31)	4.6	( 46)	4.7	(48)
모	2023년	4.8	(35)	4.9	( 35)	4.5	(15)
	2024년	4.7	(49)	4.7	(113)	4.6	(48)

주: 1)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본 표에서 언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육아휴직'은 법적 보장 기간 이상 지원 받은 제도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 4. 유연근무제도

부모의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을 4~7차년도 자료로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택근무 이용률의 경우 부모 각 4차년도 11.3%, 14.5%에서 7차년도 각 3.2%, 6.8%로 차츰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되었던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시차출퇴근 이용률의 경우 부는 3.5~4.8%, 모는 4.6~6.5%, 선택근로제 이용률의 경우 부는 2.1~2.5%, 모는 2.7~3.3%로 시간이 흐름에 따른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원격근무 이용률의 경우 일관적이지는 않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6차년도(2023년)부터 조사한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기타 유형은 부의 탄력적 근무제를 제외하고 모두 7차년도(2024년)에 다소 증가하였다.

〈표 IV-4-1〉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변화(2021~2024년)

단위: %

구분	아버지				어머니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재택근무	11.3	10.5	7.3	3.2	14.5	12.6	9.7	6.8
시차출퇴근	4.0	3.5	4.8	3.7	6.5	4.6	6.2	5.3
선택근로제	2.1	1.7	2.2	2.5	2.7	3.2	3.2	3.3
원격근무	3.5	2.1	1.2	1.7	3.3	3.0	2.0	1.5
전환형시간선택제	0.7	0.2	-	-	1.9	1.0	-	-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	-	1.8	3.1	-	-	7.1	7.5
탄력적 근무제	-	-	3.1	2.5	-	-	2.2	3.1
기타 유형	-	-	0.8	1.2	-	-	1.4	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7차년도 원자료.

유연근무제도의 도움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3.8~4.6점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유연근무제의 도움 정도가 4.0~4.7점으로 선택근로제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원격근무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 2024년에는 유연근무제의 도움 정도가 3.8~4.6점으로,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고, 2023년과 마찬가지로 원격근무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것은 재택근무와 근로시간 단축근무제였으며, 나머지는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표 IV-4-2〉 유연근무제도 도움 정도 변화(2023~2024년)

단위: 점, (가구)

구분		부		모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재택근무	2023년	4.2	(104)	4.8	(63)
	2024년	4.4	( 47)	4.7	(49)
시차출퇴근	2023년	4.6	( 69)	4.7	(63)
	2024년	4.3	( 54)	4.8	(38)
선택근로제	2023년	4.7	( 31)	4.9	(21)
	2024년	4.4	( 36)	4.8	(24)
원격근무	2023년	4.0	( 17)	4.6	(13)
	2024년	3.8	( 25)	4.5	(11)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2023년	4.2	( 26)	4.5	(46)
	2024년	4.6	( 45)	4.5	(54)
탄력적 근무제	2023년	4.4	( 44)	4.9	(14)
	2024년	4.1	( 36)	4.5	(22)
기타 유형	2023년	4.5	( 11)	4.9	( 9)
	2024년	4.3	( 18)	4.7	(12)

주: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재택근무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반적으로 부모 모두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그 다음으로 부모 모두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높게 나타났는데,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그 다음은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소득이 줄어드는 게 싫어서' 순이었으나 10% 미만의 응답이었다.

〈표 IV-4-3〉 재택근무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부		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42.0	50.0	47.5	54.3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7.2	6.9	7.9	8.1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6.3	4.9	5.8	7.3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3.0	2.3	2.6	1.5

구분		부		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1.7	1.1	0.9	0.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0.6	0.7	0.3	0.4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8.7	33.7	33.3	27.5
	기타	0.5	0.5	1.7	0.3
(수)		(1,328)	(1,414)	(585)	(66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시차출퇴근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역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더 높아졌다. 그 다음은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비율은 2024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그 다음은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게 싫어서' 순이었으나 10% 미만의 응답이었다.

〈표 IV-4-4〉 시차출퇴근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부		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40.9	49.0	45.4	53.2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5.9	5.2	7.6	7.1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7.2	5.8	7.6	7.5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3.0	2.4	2.6	1.5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1.7	1.1	1.0	1.0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0.7	0.9	0.3	-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0.1	35.4	33.7	29.6
	기타	0.5	0.5	1.8	0.1
(수)		(1,363)	(1,407)	(608)	(68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라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률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IV-4-5〉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부		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42.3	50.2	45.6	54.5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5.5	5.1	7.5	6.8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7.2	5.5	6.1	7.3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3.1	2.6	2.7	1.9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1.9	1.3	1.3	0.9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0.6	1.0	0.3	0.1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8.9	34.1	34.8	28.4
	기타	0.4	0.3	1.8	0.1
(수)		(1,401)	(1,425)	(627)	(69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월격근무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역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라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률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IV-4-6〉 원격근무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부		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43.0	51.6	47.7	56.9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6.4	5.4	6.9	7.1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6.4	5.0	5.4	5.9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3.0	2.3	2.5	1.6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1.6	1.2	1.3	1.1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0.7	0.8	0.3	-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8.5	33.4	34.2	27.2
	기타	0.4	0.3	1.7	0.3
(수)		(1,415)	(1,436)	(635)	(70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도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해서'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라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률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IV-4-7〉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부		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40.7	47.7	44.0	50.3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5.5	5.9	7.0	8.7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7.7	5.3	7.6	8.0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3.6	3.5	3.5	2.7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1.9	1.7	1.2	1.2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0.6	0.8	0.3	-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9.5	34.9	34.6	28.9
	기타	0.4	0.3	1.8	0.2
(수)		(1,406)	(1,416)	(602)	(66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탄력적 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역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라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률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IV-4-8〉 탄력적 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부		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41.1	49.7	44.8	54.5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5.9	5.3	7.3	7.2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6.9	5.5	7.1	7.3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3.2	2.7	2.8	1.7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1.7	1.7	0.9	1.0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0.9	0.8	0.3	-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9.8	34.2	35.0	28.2
	기타	0.4	0.2	1.7	0.1
(수)		(1,388)	(1,425)	(634)	(69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기타 유형(재량 근무 등)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도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라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률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IV-4-9〉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부		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41.2	50.7	46.6	56.1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5.7	5.3	6.9	7.1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7.2	5.1	6.6	6.7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3.2	2.4	2.8	1.6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2.0	1.5	0.9	1.1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0.6	0.9	-	-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9.5	34.0	34.4	27.5
	기타	0.5	0.2	1.7	-
(수)		(1,421)	(1,443)	(639)	(70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전반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이는 앞서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우에는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제도가 없어서’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보였던 것과 대조를 보인다.

## 5. 육아시간 지원 제도 개선 요구

개선이 필요한 육아시간 지원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1+2순위)를 보면, 2023년에는 가족돌봄 휴직/휴가가 53.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46.5%, 육아휴직 46.4%, 유연근무 37.2%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육아휴직 46.5%, 유연근무



41.5%, 가족돌봄 휴직/휴가 41.2%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1순위만 살펴보면, 2023년에는 가족돌봄 휴직/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순이었으며, 2024년에는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순이었다. 대체적으로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5-1〉 개선이 필요한 육아 시간 지원 정책 변화(2023~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가족돌봄 휴직/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유연근무	(수)
1+2순위	2023년	53.6	46.4	46.5	16.1	37.2	(1,773)
	2024년	41.2	46.5	51.6	18.6	41.5	(1,821)
1순위	2023년	35.3	24.6	19.5	7.5	13.2	(1,773)
	2024년	27.3	27.5	21.9	6.9	16.4	(1,821)
2순위	2023년	18.3	21.8	27.1	8.6	24.0	(1,773)
	2024년	13.8	18.9	29.7	11.7	25.1	(1,82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6~7차년도 원자료.

2024년 개선이 필요한 육아 시간 지원 정책 1+2순위를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에 대한 개선 인식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돌봄 휴직/휴가에 대한 개선 인식이 높아지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에 대한 개선 인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가족돌봄 휴직/휴가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선 인식은 높아지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한 개선 인식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출산휴가와 유연근무에 대한 개선 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중소도시에서 가족돌봄 휴가/휴직에 대한 개선 의견은 가장 낮고,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선 의견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5-2〉 개선이 필요한 육아 시간 지원 정책: 1+2순위(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가족돌봄 휴직/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유연근무	(수)
전체		41.2	46.5	51.6	18.6	41.5	(1,8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9.4	42.5	56.5	15.4	45.4	( 898)
	외벌이	42.9	50.3	46.8	21.8	37.6	( 92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4.5	45.5	40.0	25.5	34.5	( 55)
	300~399만원 이하	42.3	52.3	46.9	18.8	39.3	( 239)
	400~499만원 이하	42.0	51.2	45.5	24.1	36.8	( 402)
	500~599만원 이하	42.8	44.1	54.1	16.3	41.2	( 381)
	600만원 이상	38.6	43.3	55.9	16.3	45.3	( 744)
총 자녀수	1명	39.9	53.5	48.0	22.4	35.8	( 664)
	2명	39.7	43.3	53.4	18.1	44.7	( 912)
	3명 이상	50.2	39.2	54.3	10.2	44.5	( 245)
지역 규모	대도시	44.4	45.0	51.5	18.0	40.4	( 723)
	중소도시	37.2	48.0	52.7	18.4	42.9	( 825)
	읍면지역	44.7	45.8	48.4	20.9	39.9	( 27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가족돌봄 휴직/휴가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전체적으로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이라는 응답률이 4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 44.9%, 자격해당자의 제도 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42.1%, 신청 절차의 간소화 26.4% 순이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이라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라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라는 응답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총 자녀수에 다른 특정한 경향은 없었고, 자녀수가 2명일 때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라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라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과 신청 절차의 간소화라는 응답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5-3〉 가족돌봄휴직/휴가 개선방향: 1+2순위(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개선 요구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전체		49.6	44.9	26.4	42.1	14.8	14.1	7.1	-	(75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2.0	41.2	23.2	42.9	15.5	15.5	8.2	-	(354)
	외벌이	47.5	48.2	29.3	41.4	14.1	12.9	6.1	-	(39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0.0	56.7	26.7	56.7	13.3	10.0	6.7	-	( 30)
	300~399만원 이하	58.4	48.5	26.7	40.6	9.9	13.9	2.0	-	(101)
	400~499만원 이하	44.4	47.3	24.9	40.8	14.8	16.6	10.7	-	(169)
	500~599만원 이하	44.8	42.9	32.5	41.7	17.2	12.9	7.4	-	(163)
	600만원 이상	54.4	42.2	23.7	42.2	15.3	13.9	6.6	-	(287)
총 자녀수	1명	49.1	42.3	27.5	44.2	16.2	12.5	7.5	-	(265)
	2명	50.6	48.3	25.1	39.8	13.5	14.6	6.6	-	(362)
	3명 이상	48.0	40.7	27.6	44.7	15.4	16.3	7.3	-	(123)
지역 규모	대도시	50.5	45.2	30.5	38.6	15.3	12.8	6.2	-	(321)
	중소도시	49.5	46.3	25.1	44.6	12.4	14.7	6.8	-	(307)
	읍면지역	47.5	41.0	18.9	45.1	19.7	16.4	9.8	-	(122)

주: ①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②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 ③ 신청 절차의 간소화; ④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⑤ 자격해당자의 확대; ⑥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 ⑦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2024년 기준 육아휴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라는 응답률이 53.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40.7%,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39.1%, 신청 절차의 간소화 21.5%, 자격해당자의 확대 20.1% 순이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격해당자의 확대라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라는 응답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라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라는 응답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라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이라는 응답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5-4〉 육아휴직 개선방향: 1+2순위(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개선 요구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전체		39.1	53.7	21.5	40.7	20.1	15.2	7.9	0.1	(84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1.9	57.3	16.2	38.5	17.3	17.3	9.4	0.3	(382)
	외벌이	36.9	50.6	25.9	42.5	22.4	13.6	6.7	-	(46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0.0	48.0	20.0	40.0	32.0	12.0	4.0	-	( 25)
	300~399만원 이하	28.0	51.2	24.0	48.8	22.4	15.2	8.8	-	(125)
	400~499만원 이하	35.4	51.0	23.8	40.8	21.8	15.0	8.7	-	(206)
	500~599만원 이하	40.5	55.4	22.0	39.9	19.0	16.1	6.0	-	(168)
	600만원 이상	45.0	55.9	18.9	37.9	17.7	15.2	8.4	0.3	(322)
총 자녀수	1명	39.2	51.5	22.5	45.4	21.1	11.8	6.8	0.3	(355)
	2명	40.0	53.9	20.8	38.0	20.5	17.0	8.1	-	(395)
	3명 이상	35.4	60.4	20.8	34.4	14.6	20.8	11.5	-	( 96)
지역 규모	대도시	41.5	52.0	20.9	37.8	18.8	17.2	9.2	-	(325)
	중소도시	38.4	55.3	21.7	39.6	21.5	14.4	7.6	0.3	(396)
	읍면지역	35.2	52.8	22.4	51.2	19.2	12.8	5.6	-	(125)

주: ①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②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 ③ 신청 절차의 간소화; ④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⑤ 자격해당자의 확대; ⑥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 ⑦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한편, 2024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라는 응답률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 40.7%,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29.3%, 신청 절차의 간소화 29.0%,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 22.2% 순이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와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라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와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이라는 응답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과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이라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신청 절차의 간소화라는 응답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경향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읍면지역



에서 신청 절차의 간소화, 중소도시에서는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와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표 IV-5-5〉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선방향: 1+2순위(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개선 요구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29.3	40.7	29.0	48.6	16.6	22.2	11.6	(93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8.4	37.3	28.6	51.1	16.8	23.5	11.6	(507)
	외벌이	30.3	44.7	29.4	45.6	16.4	20.6	11.6	(43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7	54.5	36.4	36.4	27.3	18.2	4.5	( 22)
	300~399만원 이하	29.5	47.3	25.0	42.9	18.8	21.4	14.3	(112)
	400~499만원 이하	30.1	38.8	26.2	50.8	17.5	21.9	10.9	(183)
	500~599만원 이하	26.2	44.2	27.7	45.6	21.4	18.4	14.6	(206)
	600만원 이상	30.8	37.3	31.5	51.2	12.7	24.5	10.1	(416)
총 자녀수	1명	28.8	42.9	33.9	46.1	19.1	18.2	9.7	(319)
	2명	28.7	38.8	28.1	50.5	14.8	23.2	13.1	(487)
	3명 이상	32.3	42.1	20.3	47.4	17.3	27.8	10.5	(133)
지역 규모	대도시	31.2	37.6	29.0	48.4	15.3	23.4	12.6	(372)
	중소도시	24.4	44.6	29.9	51.5	15.4	20.7	11.0	(435)
	읍면지역	40.2	36.4	25.8	39.4	24.2	23.5	10.6	(132)

주: ①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②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 ③ 신청 절차의 간소화; ④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⑤ 자격해당자의 확대; ⑥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 ⑦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한편, 2024년 출산휴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라는 응답률이 52.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46.0%,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41.0%, 신청 절차의 간소화 26.8% 순이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휴가/휴직 사용 일수,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없었으며,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일 경우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와 자격해당자의 확대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과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라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라는 응답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라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대도시에서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와 신청 절차의 간소화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5-6〉 출산휴가 개선방향: 1+2순위(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개선 요구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41.0	52.2	26.8	46.0	15.3	10.0	5.6	(33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2.8	55.1	23.2	45.7	12.3	11.6	5.8	(138)
	외벌이	39.8	50.2	29.4	46.3	17.4	9.0	5.5	(20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8.6	50.0	28.6	57.1	28.6	7.1	-	( 14)
	300~399만원 이하	40.0	48.9	28.9	40.0	26.7	8.9	4.4	( 45)
	400~499만원 이하	43.3	53.6	30.9	43.3	12.4	8.2	5.2	( 97)
	500~599만원 이하	30.6	53.2	32.3	51.6	12.9	9.7	6.5	( 62)
	600만원 이상	46.3	52.1	19.8	46.3	13.2	12.4	6.6	(121)
총 자녀수	1명	38.3	49.0	26.8	53.7	12.8	9.4	6.7	(149)
	2명	41.2	53.9	26.7	41.8	19.4	9.7	4.8	(165)
	3명 이상	56.0	60.0	28.0	28.0	4.0	16.0	4.0	( 25)
지역 규모	대도시	42.3	57.7	33.8	35.4	14.6	6.2	6.2	(130)
	중소도시	40.1	46.7	21.1	50.0	18.4	14.5	6.6	(152)
	읍면지역	40.4	54.4	26.3	59.6	8.8	7.0	1.8	( 57)

주: ①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②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 ③ 신청 절차의 간소화; ④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⑤ 자격해당자의 확대; ⑥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 ⑦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마지막으로 2024년 유연근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라는 응답률이 49.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 35.5%, 자격해당자의 확대 27.9%,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26.5%, 신청 절차의 간소화 25.6%,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 22.3% 순이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와 자격해당자의 확대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없었으며,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일 경우 비용 지



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와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격해당자의 확대라는 응답률은 현저하게 낮았다. 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와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이라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자격해당자의 확대라는 응답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이라는 응답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읍면지역의 경우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 중소도시의 경우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와 자격해당자의 확대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5-7〉 유연근무 개선방향: 1+2순위(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개선 요구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전체		26.5	35.5	25.6	49.4	27.9	22.3	11.4	0.1	(75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6.7	31.1	25.2	52.5	30.1	21.1	11.3	0.2	(408)
	외벌이	26.2	40.6	25.9	45.8	25.4	23.6	11.5	-	(34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1.1	47.4	21.1	47.4	15.8	31.6	10.5	-	( 19)
	300~399만원 이하	25.5	40.4	27.7	47.9	27.7	20.2	10.6	-	( 94)
	400~499만원 이하	24.3	35.8	29.1	43.2	29.1	23.6	14.2	-	(148)
	500~599만원 이하	28.7	40.8	28.0	48.4	25.5	15.9	12.7	-	(157)
	600만원 이상	27.0	30.9	22.6	53.1	29.4	24.6	9.8	0.3	(337)
총 자녀수	1명	27.3	31.1	29.0	49.6	31.9	19.3	11.3	-	(238)
	2명	26.0	36.5	24.0	52.2	26.2	22.5	10.5	-	(408)
	3명 이상	26.6	41.3	23.9	38.5	25.7	27.5	14.7	0.9	(109)
지역 규모	대도시	29.8	32.2	28.8	49.3	27.1	22.3	9.9	0.3	(292)
	중소도시	26.0	38.1	22.0	50.3	29.1	20.6	11.9	-	(354)
	읍면지역	19.3	35.8	28.4	46.8	26.6	27.5	13.8	-	(109)

주: ①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②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 ③ 신청 절차의 간소화; ④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⑤ 자격해당자의 확대; ⑥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 ⑦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분석

---

- 01 심층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개요
- 02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 03 농어촌(부스터표본)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 04 농어촌(부스터표본)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 활용 격차와 지원 요구
- 05 농어촌 영유아 가구 심층 면담



# V.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분석

## 1. 심층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개요

### 가. 심층 분석 필요성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2025년 5월 19일 발표한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sup>15)</sup>’ 결과 보고에 따르면, 농어촌 군 지역의 삶의 질 종합지수는 평균 37.26점, 도농복합시는 43.29점, 도시형 도농복합시는 51.87점으로, 지역별 삶의 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보도자료, 2025. 5. 20.).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격차는 아동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역소멸의 하나의 원인으로 거론되곤 한다.

2024년 기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89개에 달하며, 관심지역 또한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출일: 2024. 4. 12.16). 이와 같은 인구감소지역은 비단 농어촌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의 대부분이 지역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수 지표에 근거하여 선정되는데,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으로, 다수의 인구감소지수 지표가 저출생 및 육아 지원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육아 정책의 발굴 및 효율적 운영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5)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공표되고 있는 통합 지수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 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기반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해 산출되며,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보도자료, 2025. 5.20).

16)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인출일: 2024. 4.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 영유아 가구의 육아 현실을 알 수 있는 통계자료 등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육아정책 분야의 대표적인 승인 통계자료인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의 경우에도 읍면지역 표본의 수는 383가구(최효미 외, 2024b: 62)에 불과한 상황이며,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상황이나 농어촌 지역의 육아서비스 이용 어려움 등에 대한 설문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실질적인 육아 지원 요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024년 부스터표본으로 순수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 162가구를 추가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장은 2024년 부스터표본 조사가 실시된 농어촌 지역 영유아 가구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로, 농어촌 영유아 가구가 처한 육아 현실을 개관하고 실효성 높은 육아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2024년 조사된 ‘KICCE 소비실태조사’ 부스터표본뿐 아니라 본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농어촌 지역 영유아 가구가 처한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나. 분석 자료 및 분석 내용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읍면지역 표본은 231개(2023년 조사)~273개(2024년 조사)에 불과하며<sup>17)</sup>, 이들 표본 대부분이 순수한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농복합지 등에 거주하는 경우였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육아 어려움을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본조사 표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순수한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가구를 부스터표본(162가구)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의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내기 위해 대부분의 문항을 본조사 설문과 일치시켜 조사하였다. 즉, 순수한 농어촌 가구는 부스터표본으로 조사하되 본조사 설문의 모든 문항을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본조사 표본의 경우에는 농어촌 부스터표본 추가와 연동되는 일종의 부가 설문 문항에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장의 심층 분석은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육아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2024년 조사된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 분석의 내용은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육아

17) 이 연구 I장 응답자 특성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서비스 이용, 그리고 거주 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 인식과 육아 지원 요구 등이다.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 비교, 육아 지원 요구 등의 대부분의 문항은 순수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결과<sup>18)</sup>를 비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분석(빈도분석과 차이검정 등)으로 이뤄진다. 한편, 거주 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대한 분석은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결과의 기초 분석뿐 아니라 회귀 분석(OLS) 및 오하카 요인 분해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도농 지역 간 인식 격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보았다. 단, 회귀 분석(OLS) 및 오하카 요인 분해의 경우에는 분석 대상이 농어촌 지역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부스터표본과 본조사의 읍면지역을 합쳐서 구성하였다. 이는 도농 간의 격차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책 방안 도출에 보다 부합한다는 점과 부스터표본의 수가 적어 본조사 표본의 영향이 결과 편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설문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보다 구체적이고 정성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순수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 부모 10명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농어촌 영유아 가구 심층 면담 결과는 V장 5절에 제시되어 있다.

#### 다. 응답자 특성: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

본 연구에서 부스터표본으로 수집한 농어촌 영유아 가구는 총 162가구였다. 가구원 수는 4명이 76가구(4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명 이하가 54가구(33.3%)이었고, 5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32가구(19.8%)였다. 총 자녀수가 2명인 경우는 78가구(48.1%), 1명은 57가구(35.2%), 3명 이상은 27가구(16.7%)로 2명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가 83.3%이었다. 가구의 막내자녀 연령별은 2020년생(4세)인 경우는 30가구(18.5%)로 다른 연령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2018년생(6세)이 25가구(15.4%), 2019년생(5세)과 2022년생(2세)이 각각 24가구(14.8%), 23가구(14.2%)로 14%대로 나타났으며, 2021년생(3세)이 22가구(13.6%), 2024년생(0세)이 20가구(12.3%), 2023년생(1세)이 18가구(11.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18) 본조사 표본 내 농어촌(도농복합지 포함) 지역의 특징적인 사항은 앞서 II장과 III장에서 지역규모별 분석 내용으로 이미 보고된 바 있기 때문임.

맞벌이 가구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구가 96가구(59.3%)로 외벌이 가구(66가구, 40.7%)였다. 가구소득은 6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수가 60가구(3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00~499만원 이하가 32가구(19.8%), 500~599만원 이하가 29가구(17.9%), 300~399만원 이하가 27가구(16.7%), 299만원 이하가 14가구(8.6%)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과반수 이상인 54.9%의 가구가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보여 2025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sup>19)</sup>인 535만 1,000원과 유사하거나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1-1〉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 특성

단위: 가구, 명(%)

구분		전체	
전체		162	(100.0)
가구원 수	3명 이하	54	( 33.3)
	4명	76	( 46.9)
	5명 이상	32	( 19.8)
평균 가구원 수(명)		3.9	-
맞벌이 가구여부	맞벌이	96	( 59.3)
	외벌이	66	( 40.7)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4	( 8.6)
	300~399만원 이하	27	( 16.7)
	400~499만원 이하	32	( 19.8)
	500~599만원 이하	29	( 17.9)
	600만원 이상	60	( 37.0)
총 자녀수	1명	57	( 35.2)
	2명	78	( 48.1)
	3명이상	27	( 16.7)
평균 자녀 수(명)		1.8	-
막내자녀 연령별	2018년생 (6세)	25	( 15.4)
	2019년생 (5세)	24	( 14.8)
	2020년생 (4세)	30	( 18.5)
	2021년생 (3세)	22	( 13.6)
	2022년생 (2세)	23	( 14.2)
	2023년생 (1세)	18	( 11.1)
	2024년생 (0세)	20	( 12.3)

주: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자 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값으로, 명목 소득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19) 통계청 보도자료(2025.5.29).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91561> (인출일: 2025. 8. 14).

다음으로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의 부모 특성을 살펴보면, 모가 없는 가구가 1가구(0.6%), 부가 없는 가구가 2가구(1.2%)이었다. 부모 연령별로는 모의 경우 30대가 99명(6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이상이 54명(33.3%), 20대가 8명(4.9%)으로 가장 적었다. 부의 경우에는 모의 경우와 달리 40대 이상이 98명(60.5%)으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30대가 62명(38.3%)으로 모두 30대 이상이었다.

학력을 살펴보면, 모나 부의 경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모 51.6%, 부 55.0%)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이 83명(51.6%)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35명(21.7%), 전문대(2~3년제) 졸업이 34명(21.1%)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소수로 대학원 이상이 7명(4.3%), 고졸미만이 2명(1.2%) 있었다. 부의 경우도 모와 유사한 응답을 보였는데, 4년제 대학 졸업이 88명(55.0%)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37명(23.1%)으로 그 다음 순이었고, 전문대(2~3년제) 졸업이 30명(18.8%)이었고 대학원 이상이 4명(2.5%), 고졸미만이 1명(0.6%) 있었다.

〈표 V-1-2〉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 부모 특성

단위: 가구(%)

구분		모(여성)		부(남성)	
전체		162	(100.0)	162	(100.0)
연령	20대	8	( 4.9)	-	-
	30대	99	( 61.1)	62	( 38.3)
	40대 이상	54	( 33.3)	98	( 60.5)
	해당없음	1	( 0.6)	2	( 1.2)
학력	고졸미만	2	( 1.2)	1	( 0.6)
	고졸	35	( 21.6)	37	( 22.8)
	전문대(2~3년제)졸업	34	( 21.0)	30	( 18.5)
	4년제 대학 졸업	83	( 51.2)	88	( 54.3)
	대학원 이상	7	( 4.3)	4	( 2.5)
	해당없음	1	( 0.6)	2	( 1.2)

주: 모(여성)의 해당없음은 가구 내 모(여성)이 없음을 의미하며, 부(남성)의 해당없음도 가구 내 부(남성)가 없음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 부모의 근로 특성을 살펴보면, 모의 경우 취업이 90명(55.9%), 휴직 중이 9명(5.6%), 미취업이 62명(38.5%)이었다. 취업 중인 경우 임금근로자가 61명(37.9%), 비임금근로자가 29명(18.0%)이었다. 부의 경우는 대부분 취업자로 158명(98.8%)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임금근로자가 98명(61.3%), 비임금근로자가 60명(37.5%)이었고, 휴직 중과 미취업이 각각 1명(0.6%)이었다.

노동시간으로는 모의 경우 주당 37시간 5분의 근로를 하고 있었고, 부의 경우 44시간 35분의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가 모보다 7시간 30분을 더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 부모 근로 특성

단위: 가구(%), 시간 분, 명

구분		모(여성)	부(남성)	
전체		161 (100.0)	160 (100.0)	
취업여부 및 근로형태	취업	임금근로자	61 ( 37.9)	98 ( 61.3)
		비임금근로자	29 ( 18.0)	60 ( 37.5)
		무급가족종사자	-	-
		계	90 ( 55.9)	158 ( 98.8)
	휴직 중	9 ( 5.6)	1 ( 0.6)	
	미취업	62 ( 38.5)	1 ( 0.6)	
노동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시간)	37시간 5분	44시간 35분	
	수 (명)	90명	158명	

주: 1) 노동시간은 취업인 경우(휴직자 제외)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2) 미취업에는 학업 중과 구직 중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의 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211명으로 남아가 102명(48.3%), 여아가 109명(51.7%)이었다. 연령별로는 2024년생(0세)은 20명(9.5%)으로 가장 적었고, 2023년생(1세)은 22명(10.4%), 2022년생(2세)은 25명(11.8%), 2021년생(3세)은 30명(14.2%), 2020년생(4세)은 39명(18.5%), 2019년생(5세)은 38명(18.0%), 2018년생(6세)은 37명(17.5%)이었다.

〈표 V-1-4〉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 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전체	
전체		100.0	(211)
성별	남아	48.3	(102)
	여아	51.7	(109)
출생코호트 (연령)별	2018년생 (6세)	17.5	( 37)
	2019년생 (5세)	18.0	( 38)
	2020년생 (4세)	18.5	( 39)
	2021년생 (3세)	14.2	( 30)
	2022년생 (2세)	11.8	( 25)
	2023년생 (1세)	10.4	( 22)
	2024년생 (0세)	9.5	( 2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2.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 가.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 생활비 지출 및 소득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sup>20</sup>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비목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어촌(부스터표본)의 월평균 생활비는 총 332만5천 원으로, 본조사(전체 영유아 가구) 표본<sup>21</sup>에 비해 19만3천원가량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목별로 볼 때, 식비(외식비 포함)가 외식비 28만5천원(8.6%)을 포함하여 월평균 9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목별 비중 중 2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보험이 46만원으로 13.8%, 여가 및 문화생활비로는 41만4천원(12.5%)을 지출하였다. 여가 및 문화생활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여행 등(8.7%), 관람 체험학습(1.2%), 완구(1.5%), 도서구매(1.1%) 중에서 가족여행 등에 28만8천원(8.7%)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 및 문화생활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외 교통비로 32만7천원(9.8%), 피복비(의

20) 이하 '농어촌(부스터표본)'으로 표기.

21) 이하 '본조사 표본'으로 표기

류 및 신발)로는 25만2천원(7.6%), 교육/보육비로 27만6천원(8.3%),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로 17만9천원(5.4%), 통신비로는 휴대전화비 9만7천원(2.9%)을 포함하며 17만6천원(5.3%), 보건/의료비로는 15만2천원(4.6%), 기기/집기로는 10만원(3.0%)의 순으로 비목별 지출 비중을 보였다.

본조사 표본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대부분 비목에서 비목별 비중이 유사하였지만, 식비(외식비 포함)에서 본조사 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보다 10만6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었고, 교육/보육비에서는 17만9천원을 더 지출하여 식비(외식비 포함)에서의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부스터표본)이 본조사 표본보다 더 많이 지출된 비목으로는 보건/의료비와 교통비 비목으로 보건/의료비는 1만4천원, 교통비는 3만8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표 V-2-1〉 농어촌(부스터표본)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  
단위: 만원, (%)

구분	농어촌(부스터표본)		본조사	
	생활비 지출 총액	비목별 비중	생활비 지출 총액	비목별 비중
총계	332.5	(100.0)	351.8	(100.0)
1. 식비(외식비포함)	99.0	( 29.8)	109.6	( 31.2)
1-1. 외식비	28.5	( 8.6)	32.6	( 9.3)
3. 기기/집기	10.0	( 3.0)	9.1	( 2.6)
4. 피복비(의류및신발)	25.2	( 7.6)	23.4	( 6.7)
5. 보건/의료비	15.2	( 4.6)	13.8	( 3.9)
6. 교육/보육비	27.6	( 8.3)	45.5	( 12.9)
7. 여가및문화생활비	41.4	( 12.5)	42.9	( 12.2)
7-1. 가족여행 등	28.8	( 8.7)	28.7	( 8.2)
7-2. 관람 체험학습	3.9	( 1.2)	4.6	( 1.3)
7-3. 완구	4.9	( 1.5)	4.0	( 1.1)
7-4. 도서구매	3.5	( 1.1)	4.4	( 1.3)
8. 교통비	32.7	( 9.8)	28.9	( 8.2)
9. 통신비	17.6	( 5.3)	17.6	( 5.0)
9-1. 휴대전화비	9.7	( 2.9)	9.9	( 2.8)
10. 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7.9	( 5.4)	17.0	( 4.8)
11-2. 보험	46.0	( 13.8)	44.1	( 12.5)

주: 1) 비목 및 세목별 지출액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으며, 총계 대비 각 비목별 비중은 가구별로 각각 비중을 산출한 후 평균한 값임.

2) 양육비용과 비목을 일치시킨 생활비 지출은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주거비, 이전 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가구특성별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표본의 생활비 관련 지수는 엔젤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본조사 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보다 세 지수에서 모두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엔젤지수는 농어촌(부스터표본) 27.8, 본조사 표본 29.1이었으며, 슈바베지수는 농어촌(부스터표본) 8.0, 본조사 표본 8.1, 엔젤지수는 농어촌(부스터표본)24.9, 본조사 표본 26.6이었다. 즉, 본조사 표본이 교육보육비에 대한 투자도 많은 반면, 식비에 대한 부담감도 농어촌(부스터표본)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서 따라서는 엔젤지수의 외별이를 제외(농어촌 26.6, 본조사 26.3)하고는 본조사 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엔젤지수의 본조사(맞벌이 27.0, 외별이 26.3)를 제외하고 모든 지수에서 맞벌이보다 외별이 가구에서 높았다.

가구소득 구간별로는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표본이 경향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들은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농어촌(부스터표본)이든 본조사 표본이든 엔젤지수와 슈바베지수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엔젤지수의 경우 농어촌(부스터표본) 중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로 낮은 가구의 경우 31.3으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은 양육비용 부담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가중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V-2-2〉 가구특성별 농어촌(부스터표본)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구분	엔젤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농어촌	본조사	농어촌	본조사	농어촌	본조사	
전체	27.8	29.1	8.0	8.1	24.9	26.6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27.4	28.1	7.6	7.9	23.7	27.0
	외별이	28.4	30.0	8.6	8.3	26.6	26.3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9.9	30.3	10.4	10.7	31.3	24.5
	300~399만원 이하	30.1	30.8	8.0	9.3	24.3	25.6
	400~499만원 이하	28.1	30.6	7.6	8.4	24.2	26.5
	500~599만원 이하	27.4	29.3	9.1	8.1	23.9	26.7
	600만원 이상	26.3	27.6	7.1	7.5	24.5	27.2

주: 1)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가구소득은 529만6천원이었고 본조사 표본은 579만7천원으로, 본조사 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가구소득보다 50만1천원 더 높았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서는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모두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이 더 높았으며, 본조사 표본의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 차(190만9천원)보다 농어촌(부스터표본)의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 차(222만2천원)가 더 컸다.

총 자녀수별로는 본조사 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보다 모든 자녀수 구간에서 가구소득이 높았으며 본조사 표본에서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가구소득도 증가한 반면,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는 1명일 때 492만원, 2명일 때 557만5천원으로 증가하다가 3명 이상인 경우 528만1천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V-2-3〉 가구특성별 농어촌(부스터표본)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단위: 만원, (가구)

구분		농어촌(부스터표본)		본조사	
		가구소득	(수)	가구소득	(수)
전체		529.6	(162)	579.7	(1,8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20.1	( 96)	676.5	( 898)
	외벌이	397.9	( 66)	485.6	( 923)
자녀수	1명	492.0	( 57)	554.2	( 664)
	2명	557.5	( 78)	593.1	( 912)
	3명이상	528.1	( 27)	599.3	( 24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농어촌(부스터표본)의 지자체 및 직장 출산지원금 수혜 경험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이 본조사 표본보다 2.0% 더 높았으며(농어촌 17.9%, 본조사 15.9%), 총 수금액도 농어촌(부스터표본)이 본조사 표본에 비해 123만6천원 더 많았다.

반면, 직장에서의 출산지원금은 본조사 표본은 8.4%, 농어촌(부스터표본)이 4.3%가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본조사 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많았다. 단, 직장에서의 출산지원금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보다 수혜 가구가 매우 적다(농어촌 7가구, 본조사 130가구)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일단 직장의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액의 훨씬 큰 특징이 있었

다. 직장의 출산지원금은 본조사 표본이 748만1천원으로 농어촌(부스터표본)의 345만7천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표 V-2-4〉 농어촌(부스터표본) 지자체 및 직장 출산지원금

단위: %, (가구), 만원, (가구)

구분		수혜 여부			총 수금액	
		예	아니요	계(수)	금액	(수)
지자체	농어촌	17.9	82.1	100.0 ( 162)	247.1	( 29)
	본조사	15.9	84.1	100.0 (1,821)	123.5	(290)
직장	농어촌	4.3	95.7	100.0 ( 162)	345.7	( 7)
	본조사	8.4	91.6	100.0 (1,821)	748.1	(13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나. 농어촌(부스터표본) 양육비용 실태

### 1)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농어촌(부스터표본)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월평균 69만9천원으로 본조사의 78만5천원보다 8만6천원이 적었다. 농어촌(부스터표본)의 연령별 양육비용은 1세의 경우 89만5천원으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가장 높았으며, 3세가 55만7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농어촌(부스터표본)의 자녀연령별 양육비용은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본조사 표본의 경우에는 6세가 92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2세가 6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조사 표본의 양육비용은 출산 초기 다소 높았다가 영아기에 소폭 감소한 후,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교육보육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을 띄고 있다. 이에 반해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아, 농어촌 영유아 가구들의 양육 패턴이 본조사 표본과는 다른 양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표 V-2-5〉 농어촌(부스터표본)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월평균)

단위: 만원, %, (명)

구분	농어촌			본조사		
	양육비용	비중	(수)	양육비용	비중	(수)
전체	69.9	19.1	(211)	78.5	19.9	(2,434)
연령 <sup>주2)</sup>						
0세	58.5	17.6	( 20)	71.2	19.8	( 161)
1세	89.5	23.2	( 22)	70.3	19.0	( 323)
2세	70.6	20.1	( 25)	69.0	18.7	( 341)
3세	55.7	16.8	( 30)	70.8	18.6	( 365)
4세	75.9	21.1	( 39)	79.0	20.0	( 400)
5세	71.0	19.0	( 38)	87.5	21.0	( 424)
6세	67.9	16.8	( 37)	92.3	21.7	( 420)
F	2.3*(a)	2.4*(a)		13.6***(a)	7.5***(a)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연령은 생활연령을 의미함.

3)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01$ .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영유아 1인당 총 양육비용 69만원 중에서 식비(외식비 포함)가 16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가 13만7천원, 보험이 9만3천원, 교육/교육비가 9만원, 피복비(의류 및 신발)가 7만8천원 순이었다.

본조사 표본은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마찬가지로 식비(외식비 포함)가 18만7천원으로 가장 많기는 하나, 다음으로 교육/보육비(18만2천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다.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표본의 비목별 양육비용은 식비와 교육보육비, 완구 구매비, 보험료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식비와 교육보육비는 본조사 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고, 완구 구매와 보험료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이 본조사 표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즉, 순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와 도시지역(도농복합지 포함)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들 간의 양육비용의 소비 패턴이 일부 상이함을 엿볼 수 있었다.

〈표 V-2-6〉 농어촌(부스터표본)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농어촌	본조사	t
총계 (사례수)	69.9 (211)	78.5 (2,434)	2.4 *
1. 식비(외식비포함)	16.3	18.7	2.9 **
1-1. 외식비	3.9	4.3	1.1
3. 기기/집기	1.9	2.6	1.0
4. 피복비(의류및신발)	7.8	7.3	-1.3
5. 보건/의료비	5.7	4.8	-1.5
6. 교육/보육비	9.0	18.2	4.5 ***
7.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3.7	13.9	0.0
7-1. 가족여행 등	7.3	7.7	1.0
7-2. 관람 체험학습	1.4	1.6	1.0
7-3. 완구	3.0	2.4	-2.2 *
7-4. 도서구매	1.9	2.2	1.0
8. 교통비	0.7	0.6	-1.0
9. 통신비	0.1	0.1	1.0
9-1. 휴대전화비	0.0	0.1	1.7
10. 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5	5.1	-1.0
11-2. 보험	9.3	7.3	-4.8 ***

주: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

## 2) 양육비용 부담

농어촌(부스터표본)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은 식비(외식비 포함)로 27.8%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보육비(19.1%)였다. 반면, 부담되는 비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4.8%로 나타났다. 한편, 본조사 표본에서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으로 식비(외식비 포함)와 교육/보육비가 높은 응답률 순위를 보였으나 본조사 표본에서는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달리 교육/보육비가 28.9%로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식비(외식비 포함)가 24.8%였다. 또 다른 점은 원리금 상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농어촌(부스터표본)은 8.6%인데 반해, 본조사 표본은 14.6%로 나타났고, 부담되는 항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농어촌(부스터표본)에 비해 본조사(10.0%)가 4.8%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들은 가구소득이 본조사 표본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용도 적게 지출하고 이에 대한 부담감도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V-2-7〉 농어촌(부스터표본)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단위: (가구), %

구분	농어촌	본조사
(수)	(162)	(1,821)
1. 식비(외식비포함)	27.8	24.8
2. 주거 관리비	4.9	2.8
3. 기기/집기	0.6	0.5
4. 피복비(의류및신발)	0.6	0.9
5. 보건/의료비	0.6	0.8
6. 교육/보육비	19.1	28.9
7.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6.8	4.4
8. 교통비/통신비	1.2	0.4
9. 개인유지비	8.6	6.4
10. 금융상품	6.2	4.8
11. 원리금 상환	8.6	14.6
12. 이전지출	-	0.4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	0.1
14. 부담되는 항목없음	14.8	10.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적으로 지출을 축소할 비목으로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의 34.0%가 식비(외식비 포함)에서 우선적으로 지출을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30.9%가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에서 지출을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 눈여겨볼 만한 결과로는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으로 교육/보육비가 농어촌(부스터표본)이나 본조사 모두 높은 순위의 응답률(농어촌 19.1%, 본조사 28.9%)을 보인 반면,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지출을 축소할 비목으로는 매우 낮은 응답률(농어촌 1.2%, 본조사 2.9%)을 보였다. 즉, 부모들은 교육·보육에 대한 지출을 단순한 소비가 아닌, 자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며, 다른 지출 항목을 줄이더라도 교육 관련 지출만큼은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원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가구(부스터표본)에서도 교육/보육비를 줄이지 않으려는 태도는 교육의 기회비용이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표 V-2-8〉 농어촌(부스터표본)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적 지출 축소 비목

단위: %

구분	농어촌( <i>n</i> =162)	본조사( <i>n</i> =1,821)
1.식비(외식비포함)	34.0	37.7
2.주거/관리비	1.9	1.1
3.기기/집기	1.2	1.5
4.피복비(의류및신발)	9.3	6.6
5.보건/의료비	0.6	0.1
6.교육/보육비	1.2	2.9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0.9	25.9
8.교통비/통신비	2.5	1.5
9.개인유지비	6.8	10.1
10.금융상품	8.6	8.1
12.이전지출	1.2	1.9
13.기타 상품 및 서비스	-	0.3
14.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	-
15.모름/무응답	1.9	2.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다. 농어촌(부스터표본) 주거 관련 현황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거주 주택을 살펴보면, 아파트 거주가 6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21.6%, 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이 13.6%이었으며 소수로 상가주택이 1.2%, 기타가 0.6%였다. 반면, 본조사 표본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5.6%로 거의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이 10.4%였고, 농어촌(부스터표본)의 응답과는 달리 단독주택에 거주한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하였다.

〈표 V-2-9〉 농어촌(부스터표본) 거주 주택 종류

단위: %(명)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기타	계(수)
농어촌(부스터표본)	21.6	63.0	13.6	1.2	0.6	100.0 ( 162)
본조사	2.5	85.6	10.4	1.2	0.4	100.0 (1,821)
$\chi^2$	145.7(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농어촌(부스터표본)은 72.2%가 자가였고, 그 다음으로 월세가 14.2%, 전세가 9.3%, 기타(사택, 무상거주)가 4.3%였다. 반면, 본조사 표본은 자가가 57.9%로 과반수를 약간 초과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세가 29.5%, 월세가 7.1%, 기타(사택, 무상거주)가 5.4%였다.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표본을 비교해 보면, 농어촌(부스터표본)이 본조사 표본보다 자가 비율이 14.3%p 더 많았으며 월세 또한 7.1%로 2배 많았다. 반면, 전세 비중은 본조사 표본이 더 많아 농어촌(부스터표본)에 비해 20.2%p나 많았다.

〈표 V-2-10〉 농어촌(부스터표본) 거주 형태

단위: %(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사택, 무상거주)	계(수)
농어촌(부스터표본)	72.2	9.3	14.2	4.3	100.0 ( 162)
본조사	57.9	29.5	7.1	5.4	100.0 (1,821)
$\chi^2$	40.0(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다음으로 주택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48.1%였고, 별로 '부담안됨'이 17.9%, '다소 부담됨'이 15.4%, '전혀 부담안됨'은 9.9%, '매우 부담됨'은 8.6%였다. 한편, 본조사 표본에서는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적당'하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으나 '다소 부담됨'이 29.1%로 농어촌(부스터표본)보다 13.7%가 많았고, '별로 부담안됨'이 12.9%, '매우 부담됨'이 11.5%, '전혀 부담안됨'이 6.6%였다.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볼 때, 농어촌(부스터표본)은 24.0%, 본조사는 40.6%라고 응답하여 본조사에서 주택의 주거비가 부담된다고 여기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표 V-2-11〉 농어촌(부스터표본) 주택의 주거비 부담 정도

단위: %, 점, (명)

구분	부담정도					평균 점수	(수)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농어촌(부스터표본)	9.9	17.9	48.1	15.4	8.6	3.0	( 162)
본조사	6.6	12.9	40.0	29.1	11.5	3.3	(1,821)
$\chi^2/t$	18.6(4)***					-3.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 3. 농어촌(부스터표본)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 가. 농어촌(부스터표본)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1) 반일제 이상 기관

농어촌(부스터표본) 아동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표 V-3-1〉 참조),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어린이집을 62.6%가, 유치원을 23.2%가 이용하고 있었고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도 14.2%가 있었다. 한편 본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49.5%로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보다 13.1%가 낮았다. 또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27.9%이었고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1.1%가 있었다. 다만, 이는 부스터표본과 본조사 표본의 기관 이용 특성일 뿐 기관 이용 비율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게 표집된 결과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관 이용 현황은 표본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지, 농어촌 거주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는 바이다.

〈표 V-3-1〉 농어촌(부스터표본)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전체	농어촌	62.6	23.2	-	100.0 ( 211)
	본조사	49.5	27.9	1.1	100.0 (2,434)
	x2	7.6(4)			

주: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농어촌(부스터표본) 아동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표 V-3-2〉와 같다.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는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이 유치원이 39시간, 어린이집이 38.6시간으로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약 24분 더 오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조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이 36.9시간으로 같았으며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은 32시간 이용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에 비해 주당 2시간가량 긴 것으로 조사됐다.

〈표 V-3-2〉 농어촌(부스터표본)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농어촌	38.6	( 132)	39.0	( 49)	-	-
본조사	36.9	(1,205)	36.9	(680)	32.0	(27)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함. 괄호의 수치는 해당 서비스 전체 이용자 수.  
 3) 3차년도 이용시간은 시간표로 조사된 시간을 합산한 값이며, 그 외 차수는 하루 이용시간에 5일로 곱하여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농어촌(부스터표본)은 4만원, 본조사 표본은 8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 또한 본조사 표본의 월평균 이용비용(13만1천원)이 농어촌(부스터표본)의 이용비용(2만8천원)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3〉 농어촌(부스터표본)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농어촌(부스터표본)	4.0	( 130)	2.8	( 49)	-	-
본조사	8.0	(1,147)	13.1	(680)	120.3	(27)
<i>t</i>	6.2***		4.0***		-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 2) 시간제 교육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은 단시간 학원이 16.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문형 학습지(12.8%), 문화센터(10.0%)의 순이었다. 그 외에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2.8%),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2.4%), 개인 및 그룹 지도(1.4%)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조사에서도 단시간 학원이 23.2%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제 사교육이었고, 문화센터(12.1%), 방문형 학습지(11.9%)의 순이었다. 단시간 학원 이용은 본조사 표본에서 그 비중이 더 높은데 반해, 방문형 학습지 이용 비중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간제 사교육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이 63.0%로 본조사 표본에 비해 5.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4〉 농어촌(부스터표본)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단위: %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교육 관련 방송 시청	없음
농어촌(부스터표본)	16.1	12.8	2.4	3.3	1.4	10.0	2.8	-	63.0
본조사	23.2	11.9	1.6	3.6	1.3	12.1	2.5	0.4	57.7

주: 이용 비중은 해당 가구특성별 영유아 중 각 서비스 이용자 비중이며, 중복 이용 문항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문화센터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100%였으며, '백화점, 마트'에서의 이용은 14.3%, '주민센터'와 '기타'가 각각 9.5%였다. 반면, 본조사에서는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 나타난 결과와 달리, '공공기관'에서의 이용 비율은 단지 24.0%로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 보인 100% 이용한다는 결과와 차이가 컸고, 오히려 '백화점, 마트'에서의 이용 비율이 90%로 높았다. 그 외에도 '주민센터'가 6.6%, '기타'가 3.7%로 나타났다.

〈표 V-3-5〉 농어촌(부스터표본) 문화센터 이용기관

단위: %, (명)

구분	백화점, 마트	주민센터	공공기관	기타	(수)
농어촌(부스터표본)	14.3	9.5	100.0	9.5	( 21)
본조사	90.0	6.6	24.0	3.7	(296)

주: 1) 이용 기관을 중복 응답한 결과임.  
 2) 기관별 이용률은 문화센터 전체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복 이용 문항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표본 모두 '단시간 학원' (농어촌 4.0시간, 본조사 4.3시간) 이용이 월평균 4시간 이상으로 다른 시간제 사교육보다 월평균 이용시간이 길었다. 반면, '방문형 학습지'(농어촌 0.6시간, 본조사 0.6시간)나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농어촌 0.5시간, 본조사 0.7시간)은 월평균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였다.



〈표 V-3-6〉 농어촌(부스터표본)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시간

단위: 시간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교육 관련 방송 시청
농어촌(부스터표본)	4.0	0.6	0.5	2.4	1.2	1.5	1.8	-
본조사	4.3	0.6	0.7	1.2	2.0	1.1	1.5	1.5

주: 이용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에 13만8천원을 지출하고 있어 가장 많이 지출되는 시간제 사교육이었으며, '단시간 학원'에 13만3천원, '개인 및 그룹 지도'에 13만원,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에 11만3천원, '방문형 학습지'에 10만 4천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에 6만5천원, '문화센터'에도 2만3천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 표본과 비교하면, 단시간 학원과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V-3-7〉 농어촌(부스터표본)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만원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교육 관련 방송 시청
농어촌(부스터표본)	13.3	10.4	13.8	11.3	13.0	2.3	6.5	-
본조사	20.7	9.9	13.3	9.9	20.7	5.8	7.7	0.2

주: 이용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사교육 비용 부담정도에 대해서는 농어촌(부스터표본)보다 본조사 표본에서 평균 점수(농어촌 2.8점, 본조사 3.2점)가 높았다. '보통'에 응답한 비율(농어촌 48.4%, 본조사 48.9%)이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부스터표본)은 부담됨과 전혀 부담안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본조사 표본은 매우 부담됨과 부담안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평균 점수 차이로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 V-3-8〉 농어촌(부스터표본) 사교육 비용 부담정도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됨	보통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평균 점수	계(수)
농어촌(부스터표본)	6.5	27.4	48.4	11.3	6.5	2.8	100.0( 62)
본조사	8.8	22.7	48.9	17.5	2.1	3.2	100.0(831)

주: 1)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전혀 부담안됨=1'~'매우 부담됨=5'로 측정됨. 점수가 높을수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3) 기타서비스

'시간제 일시보육', '키즈카페', '비정기 체험활동' 중에서 이용 비중이 가장 큰 서비스는 '키즈카페'였으며(농어촌 47.4%, 본조사 58.6%) 그 다음으로 '비정기 체험활동'(농어촌 10.9%, 본조사 20.6%)이었고, 소수로 '시간제 일시보육'(농어촌 1.9%, 본조사 1.3%)이 있었다.

이용 횟수(월평균) 및 이용 시간(회당)을 살펴보면, '시간제 일시보육'은 이용 비중(농어촌 1.9, 본조사 1.3)이 크지는 않지만 월평균 이용 횟수가 농어촌은 8.8회, 본조사는 13.5회로 이용 횟수가 가장 많았고, 회당 이용 시간 또한 농어촌의 경우 3.8시간, 본조사는 4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이용 비중이 가장 컸던 '키즈카페'의 월평균 이용 횟수는 농어촌 3.5회, 본조사 3.0회를 이용하고 있었고, 회당 이용 시 2시간 남짓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어촌 2.1시간, 본조사 2.3시간). '비정기 체험활동'도 '키즈카페'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월평균 이용 횟수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이 3.1회, 본조사가 2.6회이었고, 회당 이용 시간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이 2.4시간으로 본조사의 2.2시간보다 12분 정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서비스의 비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시간제 일시보육'의 월평균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는 월 5만 5천원을 지출한 반면, 본조사 가구는 월 11만 6천원을 지출하여 본조사 가구가 6만 1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본조사 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 보다 월평균 이용 횟수와 회당 이용 시간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모두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시간당 1만2천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비정기 체험활동'으로는 회당 2만1천을 지출하고 있었다.

〈표 V-3-9〉 농어촌(부스터표본) 기타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회, 시간, 만원

구분		이용 비중	횟수(월평균)	이용 시간(회당)	비용	(수)
시간제 일시보육	농어촌	1.9	8.8	3.8	5.5	( 4)
	본조사	1.3	13.5	4.0	11.6	( 32)
키즈카페	농어촌	47.4	3.5	2.1	1.2	( 100)
	본조사	58.6	3.0	2.3	1.2	(1,426)
비정기 체험활동	농어촌	10.9	3.1	2.4	2.1	( 23)
	본조사	20.6	2.6	2.2	2.1	( 502)

주: 1)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키즈카페와 비정기 체험활동은 지난 3개월 동안 이용경험, 월평균 이용횟수이며, 1회 이용 시 시간이며,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월평균 비용, 키즈카페는 1시간당 이용비용 그리고 비정기 체험활동은 1회 이용비용임.

2) 기타서비스 이용 비용은 명목비용으로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나. 농어촌(부스터표본)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1)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 행태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유형은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표본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모두에서 조부모를 통한 돌봄 서비스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본조사 표본(64.9%)이 농어촌(47.8%)보다 더 높았다. 반면,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비율은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 39.1%로, 본조사(21.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또한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 13.0%, 본조사 표본에서 3.7%로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는 이용자가 없었으나, 본조사 표본에서는 10.3%가 이용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농어촌(부스터표본)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와 조부모·친인척의 활용이 높고,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은 거의 없는 반면, 본조사 표본은 민간 육아도우미와 조부모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뿐 아니라, 가정 내·비공식 돌봄 인력의 활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농어촌(부스터표본) 중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20개에 불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표 V-3-10〉 농어촌(부스터표본)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중복응답)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농어촌(부스터표본)	39.1	-	47.8	13.0	( 20)
본조사	21.1	10.3	64.9	3.7	(217)

주: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 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2)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 지원 서비스

### 가) 돌봄 시간 및 미디어 활용, 양육부담

가정 내 양육과 부모 직접 돌봄의 전체 평균 시간을 비교한 결과, 농어촌(부스터표본)은 평일에 가정 내 양육에 7시간10분, 주말에는 13시간30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 표본은 평일 7시간53분, 주말 13시간9분으로 농어촌보다 평일에는 약간 더 길고, 주말에는 약간 짧은 시간을 돌봄에 사용하고 있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앞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시간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이 본조사표본에 비해 2시간가량 길었다는 점으로,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가정 내 양육시간이 짧은 것은 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정 내 양육시간의 차이가 40분 남짓인 점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이 본조사 표본에 적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이 평일 7시간29분, 주말 13시간34분으로 본조사 표본 평일 7시간55분, 주말 13시간7분과 비교해 평일에는 다소 짧고 주말에는 더 긴 돌봄 시간을 보였다.

〈표 V-3-11〉 농어촌(부스터표본)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시간

단위: 시간, (가구)

구분	가정 내 양육		부모직접돌봄		(수)
	평일	주말	평일	주말	
농어촌(부스터표본)	7시간 10분	13시간 30분	7시간 29분	13시간 34분	( 162)
본조사	7시간 53분	13시간 9분	7시간 55분	13시간 7분	(1,821)

주: 평범한 지난 주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임. 수면시간 제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농어촌(부스터표본)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1시간19분으로, 본조사 표본은 1시간6분보다 13분 더 길었다. 주말에는 그 차이가 더 두드러졌는데, 농어촌(부스터표본) 자녀는 2시간5분 동안 미디어를 이용하는 반면, 본조사 표본은 1시간39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어촌(부스터표본) 지역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전체적으로 더 길다는 점에서, 이 차이가 어떤 요인에 근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및 이용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가지 가능성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가 제한적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V-3-12〉 농어촌(부스터표본)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단위: 시간, (가구)

구분	평일	주말	(수)
농어촌(부스터표본)	1시간 19분	2시간 5분	( 162)
본조사	1시간 6분	1시간 39분	(1,821)

주: 평범한 지난 주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표본의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에 대한 부담 정도를 비교한 결과, 농어촌 가구의 경우 '매우 부담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1%, '다소 부담됨'이 29.6%로, 전체의 40.7%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조사 표본('매우 부담됨' 7.9%, '다소 부담됨' 38.2%)의 46.1%에 비해 소폭 낮은 수치였으나,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는 '별로 부담 안 됨'(31.5%)과 '전혀 부담 안 됨'(6.2%)의 비율이 37.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농어촌(부스터표본)은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본조사 표본에 비해 높은 반면 별로 부담안됨의 비중 또한 본조사 표본에 비해 높았다.

〈표 V-3-13〉 농어촌(부스터표본)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 정도

단위: %, 점, (가구)

구분	부담정도					평균 점수	(수)
	전혀 부담안됨	별로 부담안됨	보통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농어촌(부스터표본)	6.2	31.5	21.6	29.6	11.1	3.1	( 162)
본조사	4.9	19.2	29.9	38.2	7.9	3.3	(1,82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유(1순위+2순위)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모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한 부담 이유는 ‘육아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성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어서’(농어촌 63.4%, 본조사 61.7%)였으며, 그 다음으로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농어촌 60.4%, 본조사 56.6%)였다. 반면, ‘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부담 이유로 선택한 비율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이 36.6%로, 본조사(45.3%)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부스터표본) 부모들이 양육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거나,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눈여겨볼 점으로는,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에서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모르겠어서’라는 응답이 19.8%로, 본조사(7.6) 보다 높은 비율로 나와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에서 돌봄 부담뿐 아니라 ‘놀이 방식에 대한 정보 부족’이 주요한 고민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에서 19.8%, 본조사 가구에서 21.0%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비율로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주요한 부담 이유로 지목되었다. 이는 부모들이 육아로 인해 개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정리하면, 가정 내 직접 돌봄에 있어서 부모들이 체력적 한계와 사회적 고립을 주요한 양육 부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부모 간 교류 기회 확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놀이교육 정보 제공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V-3-14〉 농어촌(부스터표본)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이유: 1+2순위

단위: %(명)

구분	부담이유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농어촌(부스터표본)	36.6	60.4	63.4	4.0	11.9	19.8	1.0	( 101)
본조사	45.3	56.6	61.7	5.8	7.6	21.0	0.4	(1,383)

주: ① 양육 과정(아이가 울거나 떼를 씌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②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③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육아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성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어서, ⑤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⑥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나) 장난감 대여 및 도서 대여 서비스 활용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장난감이나 도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장난감의 경우 이용안함이 농어촌(부스터표본)이 90.1%, 본조사가 92.1%였으며, 도서의 경우에도 80%대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농어촌 84.0%, 본조사 80.7%).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은 관련 인프라 부족, 정보 접근의 한계 혹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의 인지도 제고, 접근성 개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아동 발달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V-3-15〉 농어촌(부스터표본)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이용 여부

단위: 가구(%)

구분		이용함	이용안함	계(수)	
장난감	농어촌(부스터표본)	9.9	90.1	100.0	( 162)
	본조사	7.9	92.1	100.0	(1,821)
도서	농어촌(부스터표본)	16.0	84.0	100.0	( 162)
	본조사	19.3	80.7	100.0	(1,82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가구의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이용 시 제 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장난감 대여의 경우 농어촌(부스터표본)은 육아종합지원센터(56.3%)를 주요 이용기관으로 꼽았으며,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37.5%),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18.8%)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 표본도 '육아종합지원센터'(59.7%)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22.9%)의 이용률도 비교적 높았다. 농어촌의 경우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을 통해 장난감을 대여한 비중이 본조사 표본에 비해 14.6%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 대여의 경우 농어촌(부스터표본)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88.5%)을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본조사 표본(81.0%)과 유사한 경향이었다. 또한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15.4%)에서도 이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의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기타 경로의 활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서비스 다양성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접근성 및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V-3-16〉 농어촌(부스터표본)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제공기관

단위: %, 만원, 점, (가구)

구분		제공기관(중복응답)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장난감	농어촌(부스터표본)	-	56.3	18.8	37.5	-	-	-	( 16)
	본조사	1.4	59.7	7.6	22.9	3.5	4.9	-	(144)
도서	농어촌(부스터표본)	-	15.4	88.5	-	-	3.8	-	( 26)
	본조사	4.0	6.3	81.0	7.7	0.3	3.1	2.3	(352)

주: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다)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활용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이용여부에서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모두 이용안함이 90%이상으로 나타나(농어촌 90.1%, 본조사 94.8%)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횟수 또한 평균 농어촌(부스터표본)은 3.3회, 본조사는 4.5회로 본조사 표본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이용횟수가 많지는 않았다.

〈표 V-3-17〉 농어촌(부스터표본)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이용 여부 및 횟수

단위: %, (가구), 회, (가구)

구분	이용여부			이용횟수	
	이용함	이용안함	계(수)	평균	(수)
농어촌(부스터표본)	9.9	90.1	100.0 ( 162)	3.3	(16)
본조사	5.2	94.8	100.0 (1,821)	4.5	(95)

주: 이용 횟수는 최근 3개월간 이용 횟수이며, 서비스 이용자 기준 평균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이상 기관을 통해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1.3%였으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과 기타가 각각 12.5%로 그 뒤를 이었다. 본조사 표본 역시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31.6%),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모두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를 주로 공공영역 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농어촌(부스터표본)은 기타 항목의 응답 비율(12.5%)이 높긴 하나, 관측치가 워낙 적은 것에 기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표 V-3-18〉 농어촌(부스터표본)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제공기관

단위: %, 만원, 점, (가구)

구분	제공기관(중복응답)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농어촌(부스터표본)	56.3	31.3	12.5	12.5	6.3	6.3	12.5	(16)
본조사	46.3	31.6	10.5	3.2	5.3	9.5	1.1	(95)

주: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⑥ 민간시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을 1+2순위로 조사한 결과,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는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 개선(배송 서비스 포함)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49.4%)하였고, 다음으로는 물품/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 확대(42.0%), 물품 품질, 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개선(31.5%), 철저한 소독 및 위생 관리(27.8%), 자녀 활동 지도할 수 있는 부모용 교육·지도서 함께 제공(27.2%),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쌍방향 소통이 되는 형태로 제공(온라인 수업 포함)(18.5%),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모두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접근성 개선, 물품/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개선, 자녀와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부모

지원 교육 강화를 중요 정책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물품/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물품 품질 및 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품질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3-19〉 농어촌(부스터표본)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정책 방향: 1+2순위  
단위: %, (가구)

구분	육아 지원 서비스 정책 방향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농어촌(부스터표본)	49.4	27.2	18.5	31.5	42.0	27.8	3.7	-	( 162)
본조사	51.9	25.5	21.3	35.9	33.8	22.4	5.7	1.5	(1,821)

주: ①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배송 서비스 포함), ②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등이 함께 제공되었으면, ③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쌍방향 소통이 되는 형태로 제공해 줬으면(온라인 수업 포함), ④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⑤ 물품/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⑥ 소독 및 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⑦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4. 농어촌(부스터표본)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 활용 격차와 지원 요구

### 가. 자녀 양육과 거주 선택 관련성

자녀양육과 거주지 선택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은 아빠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가 26.4%로 가장 많았고,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지역 내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등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가 각각 17.0%였으며,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가 13.2%,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가 11.3%였다. 그 외에도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가 9.4%, 엄마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가 9.4%였다.

반면, 본 조사에서는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의 집에 살기 위해서가 23.7%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가 20.1%, 지역 내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등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가 15.5%였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표 V-4-1〉 농어촌(부스터표본) 자녀양육과 거주지 선택 관련성

단위: %, (가구)

구분	거주지 양육관련 유무	거주를 결정하게 된 사유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농어촌(부스터표본)	32.7	17.0	5.7	26.4	17.0	13.2	11.3	9.4	-	( 162)
본조사	37.0	20.1	4.2	11.6	15.5	12.7	23.7	11.3	0.7	(1,821)
x2	1.2(1)	12.9(7)								

주: ①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② 엄마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③ 아빠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④ 지역 내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등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⑤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⑥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⑦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자녀 양 시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주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는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이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아동 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이 27.2%,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이 25.3%,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접근성이 좋은 곳이 15.4%, 주거 밀집지역이 1.2%의 순이었다.

이와는 다르게 본조사에서는 아동 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을 자녀 양육 시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주요 조건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31.2%)했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이 26.4%,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을 25.0%,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접근성이 좋은 곳을 16.3%가 자녀 양육 시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주요 조건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표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4-2〉 농어촌(부스터표본) 자녀 양육 시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주요 조건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접근성이 좋은 곳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 (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 (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	주거 밀집 지역	기타	계(수)
농어촌(부스터표본)	25.3	15.4	30.9	27.2	1.2	-	100.0 ( 162)
본조사	26.4	16.3	25.0	31.2	0.9	0.2	100.0 (1,821)
$\chi^2$	3.5(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나. 거주지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

### 1) 보육, 교육, 돌봄기관 및 서비스 충분성

이 항에서는 거주지역의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의 충분성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영아자녀를 돌봐줄 어린이집의 충분 정도는 7점 만점 기준 4점대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본조사 표본은 평균 4.9점을 보여 농어촌(부스터표본)의 4.3점보다도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볼 때, 농어촌(부스터표본)은 38.8%이었지만, 본조사는 64.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유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충분한지에 대한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서도 본조사가 4.9점, 농어촌(부스터표본)이 4.2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본조사가 농어촌(부스터표본)에 비해 더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초등자녀에 대해서 방과 후에 돌봐줄 공공기관이 충분한지에 관해 농어촌(부스터표본)은 평균 4.1점, 본조사는 평균 4.3점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영아자녀나 유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에 대한 충분정도를 살펴본 결과와 비교했을 때 평균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였다.

자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대한 충분 정도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이 평균 3.4점, 본조사가 4.6점으로 본조사에서 더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과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충분 정도는 두 항목 모두 3점대의 평균 점수를 보여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 정도를 살펴본 결과에서 제일 낮은 평균 점수대를 보였다.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충분 정도의 결과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은 평균 3.3점, 본조사는 3.9점이었으며, 개별돌봄 서비스도 유사한 점수를 보였다(농어촌 3.4점, 본조사 3.9점).

마지막으로 기타 육아지원서비스의 충분 정도를 살펴보면, 농어촌(부스터표본)이 평균 3.9점, 본조사가 4.2점으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충분한 지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30%대로 농어촌(부스터표본)이 35.2%, 본조사가 37.5%로 유사하였고,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이 22.7%, 본조사가 39.0%였다.

요약해 보면,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충분 정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통 수준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돌봄 등의 충분성을 긴급돌봄이나 개별돌봄서비스 등에 비해 좀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본조사 표본과 비교하여 농어촌(부스터표본)은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데, 특히 학원 사교육 기관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큰 편차를 보였다. 다음으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충분성 인식도 본조사 표본과 농어촌(부스터표본) 사이엔 큰 편차를 보이는 항목이었다.

〈표 V-4-3〉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정도: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

단위: %, 점, (명)

구분		충분성							평균 점수	(수)
		매우 불충분	←	←	보통	→	→	매우 충분		
영아자녀를 돌봐줄 어린이집	농어촌	3.7	11.1	5.6	40.7	21.6	8.6	8.6	4.3	( 162)
	본조사	2.4	4.8	3.7	24.3	32.5	20.7	11.5	4.9	(1,821)
	$\chi^2/t$	45.6(6)***							30.3***	
유아자녀를 돌봐줄 기관	농어촌	3.7	11.1	9.9	32.7	24.7	11.1	6.8	4.2	( 162)
	본조사	3.1	4.4	4.0	24.4	30.4	24.3	9.3	4.9	(1,821)
	$\chi^2/t$	43.1(6)***							28.9***	
초등자녀를 방과 후에 돌봐줄 공공 기관	농어촌	3.1	12.3	14.8	35.8	17.9	10.5	5.6	4.1	( 162)
	본조사	4.9	6.8	8.0	35.0	28.6	12.6	4.0	4.3	(1,821)
	$\chi^2/t$	23.1(6)***							4.1*	
자녀 학원 등 사교육 기관	농어촌	9.3	22.2	19.1	27.8	14.2	5.6	1.9	3.4	( 162)
	본조사	3.5	5.4	6.4	28.2	32.5	17.8	6.3	4.6	(1,821)
	$\chi^2/t$	142.2(6)***							115.1***	

구분		충분성							평균 점수	(수)
		매우 불충분	←	←	보통	→	→	매우 충분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	농어촌	14.2	19.1	19.1	24.7	17.3	4.3	1.2	3.3	( 162)
	본조사	9.0	9.8	12.4	36.2	21.4	9.6	1.6	3.9	(1,821)
	$\chi^2/t$	33.2(6)***							23.2***	
개별돌봄서비스	농어촌	11.1	21.6	16.7	26.5	17.9	4.3	1.9	3.4	( 162)
	본조사	5.8	10.4	12.7	40.6	20.4	8.5	1.5	3.9	(1,821)
	$\chi^2/t$	36.3(6)***							22.9***	
기타 육아지원 서비스	농어촌	8.0	9.9	14.2	35.2	18.5	11.1	3.1	3.9	( 162)
	본조사	4.8	7.8	10.9	37.5	25.6	9.7	3.7	4.2	(1,821)
	$\chi^2/t$	9.0(6)							4.4*	

주: 7점 척도로, 매우 불충분이 1, 매우 충분이 7점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01$ .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자녀를 돌봐줄 어린이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는 다른 이유들도 소수 있었지만, 농어촌(부스터표본)의 72.7%, 본조사의 77.4%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했다. 유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농어촌 70.0%, 본조사 72.7%), 차이점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의 10.0%에서 서비스의 질이 나쁨이라는 이유도 다른 이유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방과 후에 초등자녀를 돌봐줄 공공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모두 수요대비 공급 부족(농어촌 53.1%, 본조사 57.1%)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기는 했으나,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초등 돌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이 16.3%로 2순위였으며, 서비스의 질이 나쁨(10.2%)이 3순위, 접근성이 좋지 않음(8.2%)이 4순위의 이유였다. 본조사의 경우에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과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이 각각 11.7%로 2순위의 이유였으며, 접근성이 좋지 않음(9.7%)도 3순위의 이유로,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표본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자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장 큰 이유가 '수요대비 공급 부족'(농어촌 48.8%, 본조사 46.2%)이었으며,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농어촌 23.2%, 본조사 20.6%)이 2순위의 이유였다.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는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수요대비 공급 부족이었으나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의 응답률의 차이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컸다(농어촌 63.5%, 본조사 45.4%).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농어촌 10.6%, 본조사 23.1%)과 접근성이 좋지 않음(4.7%, 11.4%)이라는 이유도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의 응답률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였다.

개별돌봄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접근성이 좋지 않음(10.0%)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본조사 표본은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움이라는 이유(12.4%)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육아지원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17.3%),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움(11.5%)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본조사 표본은 접근성이 좋지 않음(22.7%)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V-4-4〉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불충분 이유: 보육, 교육, 돌봄기관 및 서비스  
단위: %(명)

구분		불충분 이유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영아자녀를 돌봐줄 어린이집	농어촌	6.1	72.7	6.1	6.1	3.0	6.1	-	-	( 33)
	본조사	6.0	77.4	5.0	4.5	4.0	3.0	-	-	(199)
	$\chi^2$	1.1(5)								
유아자녀를 돌봐줄 기관	농어촌	5.0	70.0	10.0	7.5	5.0	2.5	-	-	( 40)
	본조사	5.3	72.7	4.8	6.7	7.2	2.4	0.5	0.5	(209)
	$\chi^2$	2.3(7)								
초등자녀를 방과 후에 돌봐줄 공공 기관	농어촌	6.1	53.1	10.2	16.3	8.2	4.1	-	2.0	( 49)
	본조사	11.7	57.1	4.5	11.7	9.7	4.2	0.3	0.8	(359)
	$\chi^2$	5.8(7)								
자녀 학원 등 사교육 기관	농어촌	9.8	48.8	11.0	23.2	4.9	2.4	-	-	( 82)
	본조사	8.3	46.2	5.8	20.6	13.7	1.8	2.9	0.7	(277)
	$\chi^2$	9.2(7)								

구분		불충분 이유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	농어촌	10.6	63.5	3.5	8.2	4.7	7.1	-	2.4	( 85)
	본조사	23.1	45.4	4.6	6.3	11.4	7.2	0.7	1.2	(568)
	$\chi^2$	15.5(7)*								
개별돌봄서비스	농어촌	16.3	58.8	5.0	8.8	10.0	1.3	-	-	( 80)
	본조사	16.7	49.6	6.7	8.2	0.4	12.4	4.0	2.1	(526)
	$\chi^2$	5.2(7)								
기타 육아지원 서비스	농어촌	15.4	42.3	1.9	17.3	11.5	11.5	-	-	( 52)
	본조사	16.6	40.4	5.4	9.3	22.7	3.7	0.9	0.9	(428)
	$\chi^2$	13.9(7)								

주: ①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 ②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 ③ 서비스의 질이 나쁨, ④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 ⑤ 접근성이 좋지 않음, ⑥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움, ⑦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2)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충분성

거주지역의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의 충분정도는 평균 점수가 2점 후반에서 4점대의 점수를 보였으며, 본조사 표본과 농어촌(부스터표본) 간 큰 편차를 보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놀이터, 공원, 녹지 등 야외 놀이 공간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평균 3.9점이었으며, 본조사는 4.8점이었다. 놀이터, 공원, 녹지 등 야외 놀이 공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39.5%였으며,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6.4%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더 많았다. 반면, 본조사 가구는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63.1%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관련 서비스의 충분정도는 약간의 수치 차이는 있지만 놀이터, 공원, 녹지 등 야외 놀이 공간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충분정도의 평균점수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평균 3.8점이었으며, 본조사는 4.7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화관, 체육관 등 문화 시설 및 서비스에 있어서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은 평균 2.9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고, 본조사는 4.2점을 보여 큰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는 19.2%의 가구가 '영화관, 체육관 등 문화 시설 및 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본조사 가구도 24%만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체험활동 공간 및 서비스는 모든 항목과 비교할 때,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모두에서 평균 점수(농어촌 2.9점, 본조사 3.8점)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체험활동 공간 및 서비스에서도 본조사의 평균 점수가 농어촌(부스터표본)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는 평균 2.9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고 15.4%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본조사의 경우에는 35.1%가 충분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 공간’에 대해서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이 평균 2.7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였으며, 본조사의 평균 점수는 4.2점이었다. 본조사의 평균 점수가 농어촌(부스터표본)보다 1.5점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V-4-5〉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정도: 문화 및 놀이시설 및 서비스

단위: %, 점, (명)

구분	충분성							평균 점수	(수)	
	매우 불충분	←	←	보통	→	→	매우 충분			
놀이터, 공원, 녹지 등 야외 놀이 공간	농어촌	8.0	11.7	16.7	24.1	26.5	9.9	3.1	3.9	( 162)
	본조사	3.2	3.7	6.4	23.6	33.7	20.3	9.1	4.8	(1,821)
	$\chi^2/t$	69.8(6)***							59.2***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관련 서비스	농어촌	8.6	10.5	19.8	29.0	20.4	8.0	3.7	3.8	( 162)
	본조사	2.3	4.1	7.2	27.5	32.5	18.8	7.7	4.7	(1,821)
	$\chi^2/t$	83.0(6)***							68.9***	
영화관, 체육관 등 문화 시설 및 서비스	농어촌	21.6	25.3	16.0	17.9	13.0	5.6	0.6	2.9	( 162)
	본조사	5.2	8.3	10.5	30.9	27.5	14.2	3.3	4.2	(1,821)
	$\chi^2/t$	142.2(6)***							121.7***	
체험활동 공간 및 서비스	농어촌	19.1	28.4	18.5	18.5	9.9	4.9	0.6	2.9	( 162)
	본조사	9.7	12.8	12.6	29.7	24.3	8.5	2.5	3.8	(1,821)
	$\chi^2/t$	66.7(6)***							56.1***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 공간	농어촌	27.8	26.5	14.8	16.0	9.3	4.3	1.2	2.7	( 162)
	본조사	6.8	7.9	9.2	30.4	27.8	14.6	3.3	4.2	(1,821)
	$\chi^2/t$	180.4(6)***							157.6***	

주: 7점 척도로 매우불충분이 1, 매우충분이 7점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거주지역의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긴 하나, 앞서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에 비하면 그 비중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놀이터, 공원, 녹지 등 야외 놀이 공간이 불충분한 이유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이 가장 많았고(농어촌 42.4%, 본조사 38.3%),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는 '접근성이 좋지 않음'이 15.3%,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 '서비스의 질이 나쁨'과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이 각각 11.9%였다. 한편, 본조사는 '접근성이 좋지 않음'이 20.2%로 2순위의 응답률을 보였고,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이 18.1%, '서비스의 질이 나쁨'이 13.2% 순으로,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사이에 경향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관련 서비스는 본조사 표본의 경우 접근성이 좋지 않음이 31.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에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이 22.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여,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영화관, 체육관 등 문화 시설 및 서비스가 불충분한 이유로는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37.3%),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이 32.4%,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가 13.7% 순이었으나, 본조사 표본에서는 접근성이 좋지 않음(36.2%)이 1순위의 이유였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이 29.5%,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이 20.6%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체험활동 공간 및 서비스가 불충분한 이유로는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에 가장 많은 응답률(38.3%)을 보였고, 본조사 표본은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34.6%)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외의 불충분한 이유로는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에서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에 25.2%,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에 14.3%,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 13.1%의 응답률을 보였다. 본조사 표본에서는 2순위로 응답률이 높았던 이유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23.6%)이었고, 3순위의 응답률은 접근성이 좋지 않음(21.4%)이었다.

마지막으로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 공간이 불충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이 가장 높은 응답률(농어촌 41.1%, 본조사 32.4%)을 보인 이유였으며,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농어촌 27.7%, 본조사 22.8%)이 2순위의 응

답이었다. 그 외 접근성이 좋지 않음이 불충분한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조사가 16.6%였고, 농어촌(부스터표본)이 8.9%의 응답률을 보여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 공간을 이용 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본조사 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보다 더 높았다.

〈표 V-4-6〉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불충분 이유: 문화 및 놀이시설 및 서비스

단위: %(명)

구분		불충분 이유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놀이터, 공원, 녹지 등 야외 놀이 공간	농어촌	11.9	42.4	11.9	11.9	15.3	1.7	-	5.1	( 59)
	본조사	18.1	38.3	13.2	9.5	20.2	0.4	0.4	-	(243)
	$\chi^2$	16.0(7)*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관련 서비스	농어촌	9.5	44.4	6.3	22.2	17.5	-	-	-	( 63)
	본조사	13.8	36.4	4.5	12.1	31.6	1.6	-	-	(247)
	$\chi^2$	10.0(5)								
영화관, 체육관 등 문화 시설 및 서비스	농어촌	32.4	37.3	2.9	13.7	10.8	2.0	-	1.0	(102)
	본조사	20.6	29.5	4.6	7.6	36.2	0.7	0.7	0.2	(437)
	$\chi^2$	31.1(7)***								
체험활동 공간 및 서비스	농어촌	25.2	38.3	3.7	14.0	13.1	2.8	2.8	-	(107)
	본조사	34.6	23.6	2.7	13.3	21.4	1.4	2.8	0.2	(639)
	$\chi^2$	15.0(7)*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 공간	농어촌	27.7	41.1	4.5	11.6	8.9	2.7	2.7	0.9	(112)
	본조사	22.8	32.4	7.4	13.8	16.6	0.7	6.4	-	(435)
	$\chi^2$	17.0(7)*								

주: ①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 ②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 ③ 서비스의 질이 나쁨, ④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 ⑤ 접근성이 좋지 않음, ⑥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움, ⑦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01$ .

### 3) 보건/의료시설 충분성

거주지역의 보건/의료시설의 충분성은 전반적으로 본조사의 평균 점수가 농어촌(부스터표본)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충분정도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은 평균 2.7점인데 반해 본조사는 4.4점이 나와, 큰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에 관해서는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농어촌 2.4점, 본조사 3.8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조사가 농어촌(부스터표본)보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의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인식

하는 정도가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의 경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매우 불충분’하다는 응답에 45.1%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72.9%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은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가 평균 3.5점, 본조사 표본이 평균 4.2점으로, 본조사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응급 의료기관의 충분성 또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에서 보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평균 점수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이 2.6점, 본조사가 3.9점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마지막으로 약국이 충분한지에 관한 인식에서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이 평균 3.9점, 본조사 표본이 4.9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본조사 표본의 경우 약국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8.4%로, 모든 항목들 중에서 불충분 비중이 가장 낮은 인프라로 조사됐다.

〈표 V-4-7〉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정도: 보건/의료시설

단위: %, 점, (명)

구분		충분성						평균 점수	(수)	
		매우 불충분	←	←	보통	→	→			매우 충분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농어촌	31.5	21.0	14.2	18.5	9.3	4.9	0.6	2.7	( 162)
	본조사	6.1	5.7	9.9	28.2	27.5	17.3	5.4	4.4	(1,821)
	$\chi^2/t$	214.7(6)***							191.0***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농어촌	45.1	19.8	8.0	13.0	8.6	4.3	1.2	2.4	( 162)
	본조사	12.5	11.6	11.9	28.7	21.3	10.9	3.1	3.8	(1,821)
	$\chi^2/t$	147.5(6)***							114.6***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	농어촌	15.4	10.5	14.8	35.8	14.8	7.4	1.2	3.5	( 162)
	본조사	5.7	6.9	10.0	35.9	24.8	12.8	4.0	4.2	(1,821)
	$\chi^2/t$	40.6(6)***							37.1***	
응급 의료기관	농어촌	39.5	17.3	8.6	16.0	13.0	4.3	1.2	2.6	( 162)
	본조사	11.3	9.8	10.4	29.4	23.9	12.1	3.1	3.9	(1,821)
	$\chi^2/t$	122.8(6)***							99.1***	
약국	농어촌	8.6	14.8	10.5	32.1	15.4	13.6	4.9	3.9	( 162)
	본조사	1.3	2.9	4.2	27.1	32.3	21.4	10.8	4.9	(1,821)
	$\chi^2/t$	134.3(6)***							95.4***	

주: 7점 척도로 매우불충분이 1, 매우충분이 7점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거주지역의 보건/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도, 앞서 다른 인프라 및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모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농어촌 63.0%, 본조사 59.5%)에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에 22.2%가 응답했으며, 본조사 표본은 서비스의 질이 나쁨(13.2%), 시설이라 서비스가 아예 없음(12.9%), 접근성이 좋지 않음(12.9%)에 유사한 수치로 응답했다.

한편,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불충분한 이유로는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모두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농어촌 44.9%, 본조사 36.5%)에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농어촌 40.7%, 본조사 34.4%)에도 응답률이 높았다. 그 외 본조사 표본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20.6%의 응답률을 보였다.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다양한 이유가 10%대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로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농어촌 40.9%, 본조사 34.5%)이었고, 본조사 표본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음(농어촌 16.7%, 본조사 35.8%)이었다. 그 외에도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농어촌 19.7%, 본조사 14.6%), 서비스의 질이 나쁨(농어촌 16.7%, 본조사 10.5%)이 주요한 이유였다.

응급 의료기관이 불충분한 이유로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에 41.5%(본조사 24.3%)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에 36.8%(본조사 41.0%),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 10.4%(본조사 23.7%)가 응답했다. 본조사 또한 위와 같은 이유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다만 응답률의 순서에 차이만 있었다. 농어촌(부스터표본) 및 본조사 가구가 응답한 응급 의료기관이 불충분한 이러한 이유들은 응급 의료기관 서비스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 모두 응급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약국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모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농어촌 58.2%, 본조사 45.4%)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 서비스의 질이 나쁨(농어촌 14.5%, 본조사 11.2%),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농어촌 10.9%, 본조사 10.5%)이라는 이유에 1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고, 본조사에서는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23.7%가 응답했다.

〈표 V-4-8〉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불충분 이유: 보건/의료시설

단위: %(명)

구분		불충분 이유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농어촌	22.2	63.0	4.6	-	6.5	0.9	-	2.8	(108)
	본조사	12.9	59.5	13.2	-	12.9	1.3	-	0.3	(395)
	$\chi^2$	20.5(5)***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농어촌	44.9	40.7	5.1	-	6.8	0.8	-	1.7	(118)
	본조사	36.5	34.4	6.4	-	20.6	1.2	0.5	0.5	(655)
	$\chi^2$	16.7(6)**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	농어촌	19.7	40.9	16.7	-	16.7	3.0	-	3.0	( 66)
	본조사	14.6	34.5	10.5	0.2	35.8	3.6	-	0.7	(411)
	$\chi^2$	12.9(6)*								
응급 의료기관	농어촌	41.5	36.8	9.4	-	10.4	0.9	-	0.9	(106)
	본조사	24.3	41.0	8.9	-	23.7	1.2	0.3	0.5	(573)
	$\chi^2$	18.4(6)**								
약국	농어촌	10.9	58.2	14.5	-	5.5	9.1	1.8	-	( 55)
	본조사	10.5	45.4	11.2	-	23.7	6.6	0.7	2.0	(152)
	$\chi^2$	10.9(6)								

주: ①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 ②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 ③ 서비스의 질이 나쁨, ④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 ⑤ 접근성이 좋지 않음, ⑥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움, ⑦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

#### 4) 지역공동체 및 커뮤니티 충분성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관련 지역 공동체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육아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공동체의 충분정도는 농어촌(부스터표본) 평균 3.3점, 본조사 표본이 평균 4.1점으로, 다른 모든 지표와 마찬가지로 본조사 가구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다음으로 살펴본 지역 중심의 온라인 소통방 또한 육아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공동체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 중심의 온라인 소통방의 충분정도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이 평균 3.6점, 본조사가 평균 4.3점으로 본조사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표 V-4-9〉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정도: 지역 공동체

단위: %, 점, (명)

구분	충분성							평균 점수	(수)	
	매우 불충분	←	←	보통	→	→	매우 충분			
육아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공동체	농어촌	13.0	24.1	11.1	29.6	13.6	7.4	1.2	3.3	( 162)
	본조사	5.9	6.0	10.4	40.6	24.8	9.1	3.2	4.1	(1,821)
	$\chi^2/t$	90.7(6)***							50.6***	
지역 중심의 온라인 소통방	농어촌	9.9	21.0	11.7	30.2	17.3	7.4	2.5	3.6	( 162)
	본조사	4.3	3.8	10.3	41.6	27.2	9.6	3.2	4.3	(1,821)
	$\chi^2/t$	104.4(6)***							44.2***	

주: 7점 척도로 매우불충분이 1, 매우충분이 7점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 5) 농어촌 지역의 육아 어려움과 장점

한편, 농어촌(부스터표본)에게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함에 따르는 육아 어려움에 대해 추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5점 만점 기준 보통 수준(3점대)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일자리 부족과 소득 활동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49.4%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의 또래 친구가 많지 않음은 43.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30.9%)라고 한 응답(30.9%)보다 13.0% 더 많았다. 육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인식 자체가 높지 않음(육아 친화적인 문화 미조성)에 대해서는 35.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그렇다고 한 응답은 40.8%로 그렇지 않다(23.5%)라고 한 응답보다 17.3% 많았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 및 안전·치안이 열악함(도로, 교통, 노후시설, 유해시설 등)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 중 보통(41.4%)에 응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육아용품 구매가 어려움에 대해서는 45.0%가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V-4-10〉 농어촌 지역의 육아 어려움

단위: %, 점, (명)

구분	충분성					평균 점수	(수)
	매우 충분	←	보통	→	매우 불충분		
일자리 부족과 소득 활동의 어려움	23.5	25.9	24.1	23.5	3.1	3.4	(162)
자녀의 또래 친구가 많지 않음	24.1	19.8	25.3	23.5	7.4	3.3	(162)
육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인식 자체가 높지 않음 (육아 친화적인 문화 미조성)	19.8	21.0	35.8	19.8	3.7	3.3	(162)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및 안전· 치안이 열악함 (도로, 교통, 노후시설, 유해시설 등)	16.7	17.3	41.4	17.3	7.4	3.2	(162)
육아용품 구매가 어려움	22.8	22.2	30.9	19.8	4.3	3.4	(16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반대로,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의 육아의 장점을 살펴보면, 1순위의 응답으로 아이의 신체 건강이나 정서 발달에 좋은 자연 친화적 환경에 54.3%가 답했고, 다음으로 낮은 주거 비용 부담 및 생활비 부담이 적음(주택 가격 등)에 17.9%, 친인척의 도움을 받기 용이함에 11.1% 순이었다. 2순위의 응답으로는 낮은 주거 비용 부담 및 생활비 부담이 적음(주택 가격 등)에 25.9%가 응답했으며, 아이의 신체 건강이나 정서 발달에 좋은 자연 친화적 환경에 17.3%,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 적음(여관, 술집 등)에 11.7%가 응답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농어촌(부스터표본) 육아의 장점으로서는 아이의 신체 건강이나 정서 발달에 좋은 자연 친화적 환경이 71.6%로 가장 많았고, 낮은 주거 비용 부담 및 생활비 부담이 적음(주택 가격 등)이 43.8%, 친인척의 도움을 받기 용이함이 19.8%였다. 그 외에도 육아서비스 및 기관 이용 시 낮은 경쟁률(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 등)이 14.8%,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 적음(여관, 술집 등)이 14.2%였다.

〈표 V-4-11〉 농어촌(부스터표본) 육아의 장점(순위별)

단위: %, (가구)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2순위 없음	(수)
1순위	54.3	17.9	11.1	0.6	2.5	5.6	2.5	5.6	-	-	(162)
2순위	17.3	25.9	8.6	6.8	8.0	9.3	11.7	7.4	-	4.9	(162)
1+2순위	71.6	43.8	19.8	7.4	10.5	14.8	14.2	13.0	-	-	(162)

주: ① 아이의 신체 건강이나 정서 발달에 좋은 자연 친화적 환경, ② 낮은 주거 비용 부담 및 생활비 부담이 적음(주택 가격 등), ③ 친인척의 도움을 받기 용이함, ④ 아이를 함께 돌봐주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⑤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공적 지원금(출산 지원금, 농어촌 가정 양육수당 등), ⑥ 육아서비스 및 기관 이용 시 낮은 경쟁률(국립 어린이집 입소대기 등), ⑦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 적음(여관, 술집 등), ⑧ 특별한 이점은 없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다. 농어촌 지역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 활용 격차 분석

이 항에서는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표본을 풀링한 다음, 농어촌 지역(도농복합지 포함)과 도시(대도시, 중소도시) 지역의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분석해 보았다. 이 항은 크게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대한 인식에 영유아 가구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OLS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이러한 인식의 격차가 가구 특성 등의 차이에 근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별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검증해보았다. 종속변수는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대한 인식이므로, 여기에서의 격차는 실제적인(정량적인) 인프라 공급 수준의 격차가 아닌 영유아 가구들이 인식하는 충분성의 격차라는 점에 주의가 요구된다.

### 1) 인프라 충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

먼저 농어촌 영유아 가구가 느끼는 보육, 교육,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가구원수,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 모학력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원수는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보육, 교육,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가구소득은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모 학력이 높을수록 보육, 교육,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도시(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와 총 자녀수만이 보육,

교육,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 놀이시설 등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의 경우에는 보육, 교육,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에 비해서는 더 다양한 가구 특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 모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 놀이시설 등 서비스 및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당 양육비용을 많이 쓰는 경우일수록 문화, 놀이시설 등 서비스 및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문화, 놀이시설 등 서비스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어촌 영유아 가구와 비슷하였으나, 농어촌 가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변인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문화, 놀이시설 등 서비스 및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V-4-12〉 보육,교육,돌봄 및 문화,놀이시설 등 충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 OLS

구분	보육,교육,돌봄		문화, 놀이시설 등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가구원수	-0.550 **	-0.276 ***	-0.518 **	-0.315 ***
맞벌이 여부(맞벌이 =1)	-0.285 **	-0.077	-0.354 **	-0.051
가구소득(명목, 총액)	0.001 **	-0.000	0.001 ***	0.000
총 자녀수	0.406 *	0.277 ***	0.250	0.268 **
막내자녀 연령	0.020	0.007	-0.043	0.008
모 연령	-0.019	-0.006	-0.036 *	-0.003
부 연령	-0.010	-0.002	-0.017	0.006
모 학력	0.185 **	-0.040	0.086	-0.028
부 학력	-0.049	0.011	0.042	0.092 **
응답자 성별(남성=1)	-0.228	-0.107	-0.168	0.151
가구당 양육비용	0.000	-0.000	0.001 **	-0.000
상수	-36.501	8.367	92.705	12.271
N	(431)	(1,535)	(431)	(1,535)

주: 1) 보육, 교육, 돌봄은 ① 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돌봄, ④사교육 기관, ⑤긴급돌봄, ⑥개별돌봄서비스, ⑦가족센터 등 육아지원서비스 등 총 7개 항목에 대한 충분성 인식(7점 만점 기준)을 합산하여 평균한 값임.

2) 문화, 놀이시설 등은 ① 놀이터, 공원, 녹지 등 야외놀이공간, ② 도서관 등 공공 시설 및 관련 서비스, ③ 영화관, 체육관 등 문화시설 및 서비스, ④ 체험활동 공간 및 서비스, ⑤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공간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충분성 인식(7점 만점 기준)을 합산하여 평균한 값임.

3) 농어촌 지역은 도농복합지를 포함하며, 도시 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함.

\*  $p < .10$ , \*\*  $p < .05$ , \*\*\*  $p < .01$ .

보건의료시설의 경우에는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보건의료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의 가구특성은 보건의료시설 충분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의 영유아 가구들은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가구당 양육비용이 적을수록 보건의료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지역공동체의 경우에는 농어촌 영유아 가구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모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공동체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 지역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막내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모 연령이 적을수록, 부 연령은 많을수록, 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지역공동체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가구특성에 따른 지역공동체에 대한 충분성 인식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반해, 도시 지역 영유아 가구의 경우 상당히 다양한 가구특성이 지역공동체 충분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4-13〉 보건의료시설 및 지역공동체 충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 OLS

구분	보건의료시설		지역공동체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가구원수	-0.520 *	-0.194 *	-0.512 *	-0.449 ***
맞벌이 여부(맞벌이 =1)	-0.210	-0.105	-0.154	-0.022
가구소득(명목, 총액)	0.001 *	0.000 *	0.000	-0.000
총 자녀수	0.306	0.151	0.396	0.368 ***
막내자녀 연령	-0.020	0.007	-0.033	0.032 *
모 연령	-0.018	-0.014	-0.010 *	-0.026 **
부 연령	-0.027	0.013	-0.017	0.024 *
모 학력	-0.011	-0.057	0.236 **	-0.069
부 학력	0.041	0.129 ***	-0.039	0.088 *
응답자 성별(남성=1)	-0.113	0.245 *	-0.285	0.029
가구당 양육비용	0.000	-0.000 *	0.001	0.000
상수	45.203	-9.512	71.679	-60.261
N	(431)	(1,535)	(431)	(1,535)

주: 1) 보건의료시설에는 ①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②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③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④ 응급 의료기관, ⑤ 약국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충분성 인식(7점 만점 기준)을 합산하여 평균한 값임.

2) 지역공동체는 ① 육아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공동체, ② 지역 중심의 온라인 소통방 등 총 2개 항목에 대한 충분성 인식(7점 만점 기준)을 합산하여 평균한 값임.

3) 농어촌 지역은 도농복합지를 포함하며, 도시 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함.

\*  $p < .10$ , \*\*  $p < .05$ , \*\*\*  $p < .01$ .

## 2) 오히카 요인 분해(oaxaca decomposition) 결과

## 가) 분석 방법

도농 간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대한 인식 격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은 선형 Blinder-Oaxaca 요인분해(이하 Oaxaca 요인분해) 방법이다<sup>22)</sup>. Blinder-Oaxaca 요인분해 방법은 집단 간 존재하는 격차가 차별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차이적 특성에 따른 것인지를 식별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분석 모형으로, 성별 혹은 산업별 임금 격차 등을 분해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분석 모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 A와 B의 인식 차이를  $Y_A$ 와  $Y_B$ 이라고 할 때, 각 집단의 기대 값은  $E(Y_A)$ 와  $E(Y_B)$ 이고, 두 집단 간의 기대 인식 격차는  $R = E(Y_A) - E(Y_B)$ 이다. 이때, 종속변수가 Y이고, 독립변수를 X인 선형 모형,

$Y_l = X'_l \beta_l + \epsilon_l, E(\epsilon_l) = 0, l \in (A, B)$ 에서  $E(\beta_i) = \beta_i, E(\epsilon_i) = 0$ 이라고 가정하면, 두 집단 간 격차는

$$R = E(Y_A) - E(Y_B) = E(X_A)' \beta_A - E(X_B)' \beta_B \dots\dots (\text{식 1})$$

과 같이 표현된다.

전체 격차에서 각 집단의 차이가 미친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식을 재배열하면,

$$\begin{aligned} R &= [E(X_A) - E(X_B)]' \beta_B + E(X_B)' (\beta_A - \beta_B) \\ &+ [E(X_A) - E(X_B)]' (\beta_A - \beta_B) \dots\dots (\text{식 2}) \end{aligned}$$

와 같다. 여기서  $[E(X_A) - E(X_B)]' \beta_B$ 는 두 집단 간의 독립변수의 평균 차에 해당하며,  $E(X_B)' (\beta_A - \beta_B)$ 는 독립변수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인 두 집단 사이의 계수 차이,  $[E(X_A) - E(X_B)]' (\beta_A - \beta_B)$ 는 두 집단의 계수 차이와 독립변수의 평균 차이를 곱한 값이다.

22) 분석 방법으로 제시된 수식 등은 Jann(2008)과 김태홍(2013), 최효미(2016)의 내용을 참조하거나 인용함.

여기서 두 집단 간 격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차별적 계수  $\beta^*$ 를 가정하면, 차별이 없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함수의 계수로 두 집단 간의 평균값 격차만이 반영되어,

$R = [E(X_A) - E(X_B)]'\beta^* + [E(X_A)'(\beta_A - \beta^*) + E(X_B)'(\beta^* - \beta_B)]$ 와 같이 정의된다. 이때, 전체 격차  $R$ 은 개인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sup>23)</sup>과 개인적 특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차별인  $[E(X_A)'(\beta_A - \beta^*) + E(X_B)'(\beta^* - \beta_B)]$ 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Oaxaca 요인분해를 통해 도농 간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대한 인식 격차를 확인하고, 이러한 인식 격차가 영유아 가구의 특성(차이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리적인 차별적 요인(차별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를 분해해 보았다. 통상 격차가 차이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차이적 특성을 완화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예: 현금 지원 등)을 시행해야 하며, 차별적 특성이 큰 경우에는 근본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 마련(예: 차별 금지 법안 등과 같은 법적 규제 등)에 좀 더 방점을 두는 정책 수립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나) 분석 결과

앞서 OLS 추정에 활용된 독립변수 전체에 대하여 농어촌 거주 여부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각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의 격차를 분해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농어촌 영유아 가구와 도시 지역 영유아 가구는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영유아 가구 특성 및 거주 지역 차이에 따른 것인지, 이러한 객관적 지표로는 설명되지 않은 차별적 특성인지를 오히려 요인 분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차별적 특성이 차이적 특성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보육, 교육,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의 경우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0.210(농어촌 지역이 부족함)의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 중 52.7%는 차이적 특성에 기인하며, 47.3%가 차별적 특성에 기인하였다. 보육, 교육, 돌봄 서비스 및 인

23)  $[E(X_A) - E(X_B)]'\beta^*$

프라 충분성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격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차이적 특성에 기인한 영향이 차별적 특성보다는 많은 부문이었다.

문화, 놀이시설 등 서비스 및 인프라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더욱 커져 -0.644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이적 특성이 25.9%, 차별적 특성이 74.1%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시설은 다른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비해서도 도농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분야였는데, -0.742의 격차 중 9.3%만이 차이적 특성에 기인하며, 90.7%는 차별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육아 관련 지역공동체는 -0.354의 격차가 있어, 도농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격차는 크지 않은 편이긴 했으나, 그 격차 중 71.5%가 차별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들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들에 비해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대한 인식 격차는 차이적 특성보다는 차별적 특성이 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도농 간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단지 거주지역이 농어촌이라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보육, 교육,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의 경우에는 가구특성 등 차이적 특성에 기인한 격차가 차별적 특성에 비해서는 큰 것으로 나타난 부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건의료시설 이용 등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 놀이시설 등 서비스 및 인프라 이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V-4-14〉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 격차: oaxaca decomposition

구분	보육,교육,돌봄		문화, 놀이시설 등		보건의료시설		지역공동체	
	coef.	(%)	coef.	(%)	coef.	(%)	coef.	(%)
전체 격차	-0.210	(100.0)	-0.644	(100.0)	-0.742	(100.0)	-0.354	(100.0)
차이적 특성	-0.111	( 52.7)	-0.167	( 25.9)	-0.069	( 9.3)	-0.101	( 28.5)
차별적 특성	-0.099	( 47.3)	-0.477	( 74.1)	-0.673	(90.7)	-0.253	( 71.5)

주: 농어촌 = 1인 모형 추정 결과임.

## 라. 농어촌(부스터표본)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 가구(부스터표본)는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45.1%)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25.3%), 기저귀 등 양육 물품 지원(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조사 표본의 경우에도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41.5%)과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25.6%)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응답률이 높았다. 그 외에도 기관보육·교육 서비스(농어촌 6.2%, 본조사 11.4%), 개별 돌봄 서비스(농어촌 9.3%, 본조사 10.9%),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농어촌 3.7%, 본조사 5.0%) 등이 있었으나 부족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기본적인 보육 서비스보다는 경제적 지원과 시간 확보에 대한 요구가 우선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현금 지원 부족을 응답하였는데, 이는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소득이 본조사 표본에 비해 낮은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표 V-4-15〉 농어촌(부스터표본) 정부 지원 부족 부분

단위: %, (가구)

구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계(수)
	기관보육·교육 서비스	개별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기저귀 등 양육 물품 지원	
농어촌	6.2	9.3	3.7	25.3	45.1	10.5	100.0 ( 162)
본조사	11.4	10.9	5.0	25.6	41.5	5.7	100.0 (1,821)

주: 개별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 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시기별(임신·출산기, 영아기, 유아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육아지원 범주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기 전 시기에 걸쳐 비용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임신·출산기에는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모두 비용 지원이 부족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농어촌 83.3%, 본조사 76.4%). 그 외 서비스 지원(농어촌 8.3%, 본조사 9.8%), 시간 지원(농어촌 8.3%, 본조사 8.6%)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있었으나 응답률이 높지는 않았다.

한편, 영아기에는 전반적으로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임신·출산기나 유아기에 비해 낮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는 영아 집중 투자 기조에 따른 높은 부모급여 지원금의 효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의 경우 서비스 지원(30.4%)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농어촌 표본과 본조사 표본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다만, 본조사 표본은 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가 21.2%로 농어촌(부스터표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농어촌(부스터표본)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30.4%)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영아기에 물품 지원에 대한 요구가 14.3%로, 다른 시기나 본조사 표본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인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유아기에도 다른 시기와 마찬가지로 비용 지원(농어촌 68.1%, 본조사 65.2%)에 대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나,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22.3%)가 매우 높아진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유아기는 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농어촌 22.3%, 본조사 17.6%)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농어촌 8.5%, 본조사 13.3%)보다 높게 나타난 시기였다.

〈표 V-4-16〉 시기별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단위: %, (가구)

구분	지원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한 범주					계(수)
	비용지원	서비스지원	물품지원	시간지원		
임신·출산기	농어촌	83.3	8.3	-	8.3	100.0 ( 12)
	본조사	76.4	9.8	5.2	8.6	100.0 ( 174)
영아기	농어촌	42.9	30.4	14.3	12.5	100.0 ( 56)
	본조사	48.4	23.0	7.4	21.2	100.0 ( 591)
유아기	농어촌	68.1	8.5	1.1	22.3	100.0 ( 94)
	본조사	65.2	13.3	4.0	17.6	100.0 (1,056)

주: 각 시기가 가장 육아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개선 필요 범주를 질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5. 농어촌 영유아 가구 심층 면담

### 가. 심층 면담 개요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정성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 2개 집단, 총 10명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데,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경우 다자녀 가구가 워낙 많은 상황으로 영유아 자녀가 모두 있거나 초등이상 학령기 자녀가 함께 있는 가구가 다수 표집되었다. 심층 면담 참여자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V-5-1〉 농어촌 영유아 가구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면담 회차	응답자 구분	거주 지역	면담자 성별	면담자 연령	자녀수	대상 자녀 연령	대상 자녀 이용기관
1	A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여	30대	2	2021년생	어린이집
	B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여	40대	2	2019년생	유치원
	C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여	40대	1	2019년생	유치원
	D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여	30대	2	2020년생	어린이집
	E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여	40대	2	2019년생	유치원
2	A	경사남도 함양군 함양읍	여	30대	3	2023년생	어린이집
	B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여	30대	3	2024년생	가정양육
	C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여	20대	3	2023년생	어린이집
	D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여	30대	2	2022년생	어린이집
	E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여	30대	3	2025년생	가정양육

주: 아동 연령은 면담 모집 당시 대상 아동의 연령을 의미함.

### 나.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충분성에 대한 인식

농어촌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들은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역 내 아이들이 워낙 없어서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등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즉, 해당 기관에 대해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맞춰서 보내는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저희 동네에 어린이집이 원래 3개가 있었거든요. 민간이 2개가 있었고, 국공립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둘째 같은 경우는 0세반이 세 군데 다 0세반이 없어서 1년 정도는 제가 이제 가정 보육을 하고 있다가 (후략) (면담1-A)

(전략) 어린이집이 3개밖에 없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 생각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아기의 특성 어린이집의 특성이 어떻구나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뭔가 덜 나쁜 곳을 선택하게 되는 셋 중에 그나마 덜 나쁜 곳을 선택하게 되는 (후략) (면담2-D)

(전략) 차악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솔직히 조금 조금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여기는 조금 덜 마음에 드는 이 부분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후략) (면담2-B)

지역에 어린이집 하나, 유치원 하나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후략) (면담2-C)

한편, 농어촌 특성상 휴일(토요)돌봄이나 긴급 돌봄 등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략) 둘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제가 이제 집에서 돌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도 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사이트를 가봤는데 저희 지역은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선생님 배정이 어려워서 대기가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용을 못 해서 저는 신청만 한번 해보고 이용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중략) (휴일돌봄에 대한 재질문) 5명 정원이었었는데 이제 그게 애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더 추가가 되셨어요. 그리고 애들도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가게 가면 10명쯤 되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자영업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면담1-A)

(전략) 아이 돌봄 서비스 여기 농어촌 지역에 이걸 하시는 이 관리사로 일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영유아를 전담하려면 좀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면담2-E)

## 다.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충분성에 대한 인식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충분성에 대해서는 자녀수에 따라 큰 인식 차를 보였다. 이는 자녀수가 한두 명인 경우에 이동 범위가 좀 더 넓어져 인근의 생활권역의 문화, 놀이시설을 함께 이용하게 됨에 따라는 차이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3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데리고 인근 생활권역까지 이동하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되다 보니, 근거리 지역 시설에 대한 요구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광주를 이용하거든요. 문화 시설 같은 거는 영화관도 있고 저희도 작은 영화관이랑 주변에 집 주변에 공원도 있고 이렇긴 한데 그래도 어찌 됐건 다른 더 이제 애한테 더 다양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략) 평일에는 이용하지를 못하고 주말에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다 차 타고 외곽으로 나가서 거기서 보고 오고 그런 식. (면담1-B)

저희 지역에는 놀이터도 차 타고 가야 되고. 강 건너에 이번에 새로 생긴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땐 거기는 초등학교 이상을 생각하고 만든 놀이터 같아서 저희 둘째 셋째는 놀 수가 없어요. 실내 놀이터도 차 타고 20분, 차 타고 30분. 그런 지경이라 이제 평일에는 전혀 갈 수가 없고 주말에는 또 사람이 몰리니까 갈 수가 없고 정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면담2-C)

키즈카페는 군에서 하는 거 공공형 하나 있고 내에 일반 그냥 키즈카페가 하나 있는데 공공형은 딱 한 번 무슨 예약을 엄청 막 뚫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되는 거라서 선착순으로 진짜 클릭해가지고 그걸 막 잡아가지고 딱 한 번 같이 가봤고요. 애들이랑 그리고 일반 그냥 키즈카페는 가보지 못한 게 시설 그러니까 기관 갔다 오면 4시 5시 이때는 갈 수가 없어요. (면담2-E)

저희는 놀이터라고 되어 있는 공간이 없어요. 어찌 됐든 저희는 주택이다 보니까 그냥 집 마당에서 그냥 노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면 저희도 체육공원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 가서 이제 대부분 노는 편이에요. 확실히 부족하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영화나 보고 싶거나 아니면 뮤지컬 같은 거 아이들 보고 싶어 해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순천이나 이제 광주 이제 여수까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면담2-B)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농어촌 영유아 가구들은 거의 모두가 시설 추가 확충보다는 인근 생활권역까지의 교통 편의성 제고와 인근 지역 주민들 이라도 이용 편의성 증진을 더욱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영화 같은 거는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긴 하는데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게 좀 지난 거를 영화를 보여주니까 그거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이제 영화 같은 거 보고 하려면 다른 진주시나 이런 데로 다른 데로 나가야 되고요. (면담 2-B)

자전거 썩썩 이런 거 다 차에 싣고 가서 애들 거기서 이제 한 2시간 체육공원 이제 트랙 돌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아니니까 축구 경기하고 이러면 또 못 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시민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조금 그래서 저는 주로 저희 인근 지역이 하남시, 남양주시 약간 이렇게 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천시, 광주시 이렇게 그래서 주로 이렇게 남양주 아니면 주로 하남에 많이 나가서 큰 지역에 가면 거기는 이제 곳곳에 막 놀이터가 있는 느낌이라 그 놀이터 주변에 그냥 주차해가지고 아이들이랑 그 인근 지역 가서 놀고 와야 돼서 그리고 문화시설은 없다고 봐야 돼요. (면담2-E)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애 셋이 다 참여할 수 있거나 (다른 면담자 동의: 맞아 맞아) 애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둘이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면담2-E)

예를 들면 입장료 할인이나 뭐 이런 게 다자녀 할인 정책이 있는데 타 지역 주민이라서 전혀 그런 걸 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다자녀가 갈 수 있는 기관이 이런 데 없는데 여기밖에 없는데 (중략) 그래서 약간 그런 인근 지역과 이런 게 물론 지역 예산이라서 그게 불가능할 거라는 건 알지만 이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좀 기본 주변에 이렇게 포진해 있는 그런, 시 인접 지역의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면담2-E)

단, 영유아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근거리에 위치하기를 희망하였는데, 무엇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놀이공간의 필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해 가지고 자전거를 사줘도 자전거를 아기가 타고 다닐 만한 안전한 곳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면 이제 차에 자전거를 실어 가지고 이제 차로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자전거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후략) (면담2-D)

## 라. 보건, 의료시설 및 서비스 충분성에 대한 인식

보건, 의료시설 및 서비스는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심층면담에서도 가장 부족한 육아인프라로 지목되었다.

의료시설도 없어요. 여긴 없어요. 40분 가야 돼요. 1시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동네 약국에서 해열제 사 먹고 이제 거기가 너무 머니까 의료시설이 이제 저 소아과 같은 데 이제 가 보려면 너무 머니까, 애가 그러니까 고열로 많이 차지지 않는 이상 엄두를 안 내는 거지 집에서 해열제 먹고(후략) (면담1-D)

소아과는 진짜 1시간 거리 무조건 1시간 거리 평창읍의 소아과 전문의가 이제 나와 계시고, 그것도 이제 군의관이 끝나면 몇 달 동안은 공석일 경우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강릉, 진부는 그래도 강릉이 가까운 편인데 강릉 원주 무조건 1시간 고속도로로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후략) (면담1-C)

저희 동네에는 소아과는 없고요. 의원이 두 개 정도 있어요. 약간 모든 과를 다 보시는 그런. 그래서 대기도 좀 아침에 일찍 가면 대기도 조금 많고 어르신들도 많고, 애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 하고 가벼운 거 감기나 이런 거는 그냥 동네 의원에 가는데 좀 열이 계속 며칠 난다거나 좀 애가 좀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하남이나 화도 남양주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면담1-A)

저희는 읍인데도 불구하고 의료 보건 시설은 진짜 부족한 게 소아과 한 군데 있고요. 응급실이라고 하는 데가 종합병원 안에 있는 응급실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영유아를 잘 안 받아줘요. 애가 너무 열이 나가거나 아파서 가면은 이거는 큰 병원으로 가야지 응급실에 저희 응급실에 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은 무조건 진주나 아니면 대구 쪽이나 이렇게 나가야지 해결이 되고 (면담2-A)

보건의료원 안에 이제 그 군 복무 대체하시는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냥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일 때만 가고 아니면 저희는 무조건 원주로 나가는 편이에요. (후략) (면담2-C)

보건, 의료시설 및 서비스의 부족은 농어촌 영유아 가구가 양육 과정에서 가장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하면서도 소아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의 의료 기관이 좀 더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여기로 이사 오면서 제일 걱정된 부분이 소아과 관련한 부분이었던거예요. 이사를 오고 나서 알았는데 소아과는 일단 없고 (중략) 그래서 이사 오고 나서 애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게 '여기에 병원 있어 없어' '소아과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위험한 행동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제일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중략)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애들을 이렇게 좀 다치면 안 된다. 아프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아이들 기준으로는 소아과가 없지만 또 불편한 점은 영유아 검진은 시기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기한이 많이 있고 받을 수 있는 기한이 길기는 하지만 영유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여기에는 없어요. 영유아 검진도 순천으로 나가서 받아야 되고 필수 예방 접종을 하려면 보건소에 매주 화요일 오전에 가야 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약도 어떤 약은 없는 것도 있어서 전담하는 병원에서 맞아야 되는 약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짜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그리고 영유아 검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 이렇게 좀 근처에 있는 도시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게 이걸 좀 너무 좀 불편하다 (중략) 다행히 애들이 많이 안 아파서 다행이긴 한데 입원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될까 봐 막 좀 항상 불안하죠. (면담2-D)

막내가 100일 조금 지나서 아파가지고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제 가거든요. 서울까지 이제 여기서 그래도 구급차가 그거 사이렌 키고 가면 한 30분, 40분이면 가긴 하는데 (중략) 원래는 119 소방대원분들도 원래는 경기도 소방이라서 서울에 안 간대요. 원칙적으로는 못 가는 게 원칙인데 지금 영유아를 받아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은 곳이 서울 아산밖에 없어서 거기를 부득이하게 간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외 지역을 넘어가는 게 어쨌든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약간 그런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 이게 저는 살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하남시도 인접이고 서울도 되게 인접이긴 한니까 이런 경계가 좀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자매결연을 하든 뭘 해서든 이게 좀 이 턱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긴 해요. (면담2-E)

## 마. 지역공동체 및 육아커뮤니티 충분성에 대한 인식

지역공동체 및 육아커뮤니티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지역 토박이와 이주한 가정 사이에 이견이 발견되었다. 지역 토박이의 경우 마을 공동체가 자녀들을 돌보는 문화 등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입장을 보인 데 반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가정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 정도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들 커뮤니티는 어디나 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일 같긴 한데 좀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면담1-A)

아파트가 입주자 2021년 정도 입주를 시작하면서 나이 대들이 이제 좀 비슷한 또래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가정 키우고 하는 저희 딱 네 가족이 지금 대부분 이제 품앗이처럼 제가 좀 일이 있으면 그 집에 좀 맡겼다가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딱히 뭐 맘카페도 있던 한데 그게 지금은 이제 거의 지역 카페다 보니까 홍보하는 데 거의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별로 도움을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거의 안 보고 있고 엄마들끼리 아파트 단지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엄마들끼리 좀 마음 맞는 연령에 맞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자주 소통하는 편인 것 같아요. (면담1-B)

저는 공동육아를 제가 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그런 센터라든지 요청을 해도 거리도 멀지만 저희 지역에서 품앗이를 하고 싶어도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관심 없으니까 인원이 모집하기가 어렵고, (면담1-C)

맘카페도 없고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도 없고 정말 뭐가 없어요. (면담2-C)

저희는 함양군에서 공동육아 나눔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 저도 새로 생겼을 때만 가서 등록을 하고 한두 번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안 가니까 전혀 정보가 끊겼거든요. 아예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거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정보가 다시 오지는 않구요. (면담2-A)

사람들 간의 이제 커뮤니티 같이 도시에 살 때보다는 확실히 사람들과 인사하거나 대해주거나 이런 게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웃 그 다음에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인사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후략)  
(면담2-E)

지역 안에서 토박이이신 분들끼리만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완전 배척하는 거라서 정보 공유가 너무 안 되고요. (면담2-A)

특이한 점은 농어촌 지역 정부의 정책 홍보방식으로, 육아지원 정책 또한 현수막 등을 통해 접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를 염두에 둔 정책

홍보 방식으로 보여지는데,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현수막도 좋지만 SNS나 문자 알림 등을 통한 직접적인 소통 방식을 좀 더 선호하였다.

지역 맘카페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주로 정보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봤다가 (중략) 주로 제가 정보를 보는 거는 지나다가 큰 현수막 붙었을 때 (후략) (면담2-E)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 이사 오고 나서 굉장히 좀 신선했던 부분이에요. 조금 그런 게 신선하긴 했는데 그래도 현수막을 이사 오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보는 편이에요. 바뀐 건 없나 새로운 소식이 없나 현수막. (면담2-D)

저희도 이제 제가 발품 팔아서 저는 이제 어찌 됐든 아파트에 살지 않고 이제 공동체로 같이 살지 않으니까 제가 발품을 팔아야 알 수 있는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아니면 유치원이나 그러니까 어린이집 엄마들을 만나도 이제 정말 친해지지 않으면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제가 고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읍사무소 앞에 현수막 보고 저기 이제 벌고 들어오는 거기 앞에 현수막 보고 이렇게 벌고 도서관도 거기에서 현수막 보고 거기 팸플렛보고 그래서 이제 문화센터도 이제 생긴 거 알았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고 (후략) (면담2-B)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공동육아 나눔터 이런 거 예약할 때 개인 정보 동의하면 문자 알림이 왔거든요. (중략) SNS도 좋지만 만약에 내가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이런 공지를 그냥 문자로 (중략) 카카오톡으로도 알려주지만 내가 동의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보에 대해서 계속 문자 알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의를 통해서 이제 문자나 이런 카카오톡 개인적으로라도 보내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담2-E)

보통 인스타그램 같은 거나 그런 거 이제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팔로우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이 제일 지금에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요 생각해요. (면담2-B)

## 바.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농어촌 영유아 가구들에게 확대,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육아지원 서비스를 질문하자, 최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안전한 생활환경과 인접 지역의 육아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지역 간 협력)과 교통 편의성 제고 요구가 높았다.

동네에 있는 엄마들 중에 차 없는 엄마들은 엄청 불편해해요. (중략) 무조건 택시나 차를 타고 이용해야 되니까 (중략) 택시도 잘 없어요. (중략) 저 차 없을 때 애가 막 열 펄펄 나서 이렇게 쓰러지는데 진짜 구급차 부를 뻔했거든요. 택시가 하도 안 잡혀서 (후략) (교통지원서비스에 대한 추가 질문) 구미시는 임산부 택시 우선 이렇게 배정하는 콜택시 그게 있는

데 칠곡군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통 편의 서비스가 좀 필요하긴 해요. (면담1-E)

차가 없으면 살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한 대씩은 다 있고 다 2대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집들이 왜냐하면 엄마는 애들을 데리고 차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바도 차를 써야 되잖아요. (후략) (면담1-A)

저희 집은 시골이라서 차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집에 나가면 바로 조금만 나가면 도로예요. 근데 차가 잘 안 다니다 보니까 차가 엄청 썩썩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후략) (면담2-B)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도로가 없어요. 인도가 없는 도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 앞에 차량이 별로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다니게 되면 썩썩 다니고 밤에는 그 조금만 어두워지면 이제 나가기가 좀 무서워지는 거죠. (면담2-E)

이 외에는 양육비용 지원이나 임신출산지원 중 특히 산후도우미 지원, 아이들의 교육비 지원 등의 요구가 있었다.

강원 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이 더 나오는데 돈보다도 저는 발레를 배우던, 뮈 배우던 (중략) 거의 다 무료예요. 돈이 거의 아예 안 들고 재료비 다 지원해 주고 (중략) 어디 가서 보고 배우고 체험하고 이런 게 다 무료.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좋은 것 같고 자연 환경은 당연히 자연 환경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학교에서도 특성화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학교 체육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냥 병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하 루는 태권도, 하루는 인라인 하루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성화 선생님이 어디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고 (후략) (면담1-C)

저희는 대학 보내면 대학 학비도 준다고 해가지고. 여기 저는 뼈를 여기다 묻을 거라고. (면담1-D)

교육적인 서비스가 온라인으로도 코로나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줌으로 미팅하듯이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엄청 화상 채팅이라든지 영어 교육도 그런 걸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다 무료로, 저소득층 따지지 않고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는. 영어 라든지 영어 학원 없어서 지금 서울에서는 영어 유치원 다니고 친구들은 뭐 난리 났는데, 그런 걸 떠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육 선생님 구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서는 어디 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그런 거를 많이 저는 교육적인 면이 충족이 되면 충분히 여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략) (면담1-C)

산후 건강관리사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보성 내 지역에 딱 두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략) 그걸 기다려서 시간이 넘어버 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60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후략) (면담2-B)

함양군에서는 저는 산후 도우미를 진주에서 불러서 했거든요. 함양군에도 산후 도우미가 있지만 거기는 대기를 한참 해야 된다. 그래서 진주에서 이제 이동하는 교통비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면서 산후 도우미를 했었는데 (후략) (면담2-A)

솔직히 양육비 정도 지원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면담2-C)

(전략) 언어 치료나 무슨 발달 치료를 받으려면 강릉이나 이런 어디나 원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갖고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렇게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이 아예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포기해서 조금 이제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략) 발달 센터나 뭐 이런 거를 조금 해주고 (후략) (면담1-D)

# VI

---

## 영유아 가구 정부지원금 수급 및 부모급여의 효과성

---

- 01 심층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개요
- 02 영유아 가구 정부지원금 수급 현황
- 03 부모급여의 양육부담 경감 효과 분석



## VI. 영유아 가구 정부지원금 수급 및 부모급여의 효과성

### 1. 심층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개요

저출생 현상의 심화에 따라 영유아 가구에 대한 다양한 육아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2018년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본격적인 영유아 대상의 현금급여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2018년 하반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영유아에게 지원되기 시작했으며, 2019년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하는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영유아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보편 지원의 형태를 갖추었다(최효미 외, 2024a: 339~341). 이후 영아기 집중 투자에 대한 논의가 커지면서, 2022년 법정 연령<sup>24)</sup> 기준 만0세와 만1세에게 지원되는 영아수당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3년에는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었다(최효미 외, 2024a: 339~341). 이후 2024년에는 부모급여액이 크게 상승하는 변화를 겪었다(보건복지부, 2024).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 제도는 법적으로는 「아동수당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가능한 별도의 지원 제도라 볼 수 있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sup>25)</sup>과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보미 정부지원금, 현금 급여 등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의 제도라는 점에서 아동수당과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아동의 연령(혹은 월령) 및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 등에 따라 비용 지원 체계가 각각 다르다 보니, 영유아 가구들의 경우 상당한 혼선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24년 지원 금액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4) 아동의 출생연월일을 고려한 연령으로, 월령의 개념이 강함. 출생한지 12개월이상인 경우를 만1세로 보는 연령임.

25) 유아 대상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 어린이집에 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됨. 본고에서는 유아 대상 가구에 지원되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즉 유아교육특별회계에 기반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을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지칭함.

부모급여 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제한적이다 보니,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당위성이나 기대효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모급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최효미 외(2024a: 339~355)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급여 제도 도입 초기인 2023년 4월 기준 부모급여 수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급여는 기관 이용여부 등에는 그다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아동당 양육비용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 0세 아동 중 전액 현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른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 비해 아동당 양육비용이 유의미하게 높은 현상이 부분적으로 발견되었으며, 비목별로는 부모급여의 수급이 식비를 유의미하게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됐다(최효미 외, 2024a: 339~355). 그러나, 최효미 외(2024a)는 부모급여 도입 초기인 2023년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분석 대상이 국한되어 있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조사가 시작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정부지원금 수급 현황을 조사해 왔으며, 새로운 급여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설문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부모급여 수급 현황 또한 2023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조사하여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비용 지원 정책의 수급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후, 부모급여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유아 가구가 수급하는 비용 지원 정책은 부모급여뿐 아니라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이 있으며, 자녀장려금 등 세제 지원도 포함된다.

3절에 제시된 심층 분석을 통해서는 부모급여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올해 심층 분석에서는 특히 부모급여 제도의 도입 여부뿐 아니라 수급액이 상승(만0세 70만원→100만원, 만1세35만원→50만원)하는 상황에서 영유아 가구들의 양육비용에 대한 충분성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따라서, 최효미 외(2024a)가 실질적인 양육비용 지출액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었다면, 올해 심층 분석은 영유아 가구들이 체감하는 양육비용에 대한 분석 결과라는 점을 주지하는 바이다. 또,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당 양육비용은 점차 증가하는 데 반해 현금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일 연령에서의 양육비용을 고려한 현금급여의 효과성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부모급여 제도 도입 전후인 2022년부터 2024년 3개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호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녀 연령 변화에 따르는 효과를 분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 가구 대상의 보다 효과적인 급여 지원 체계와 실효성 높은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2. 영유아 가구 정부지원금 수급 현황

### 가.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수급률은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및 아동수당은 아동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수급 시점은 2024년 4월 수급 기준이다. 즉, 2024년 기준 부모급여 수급 대상 아동은 월령 기준 0~23개월까지이므로, 2022년 생 5월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2024년 4월생까지의 수급 대상이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영유아 중 전액 현금 부모급여를 수급한 비중이 44.7%, 현금과 바우처를 받은 비중 32.7%,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을 선택한 경우 0.2%이며, 부모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2022년 4월 이전 출생아 혹은 2024년 5월 이후 출생아)가 22.3%였다. 2024년생의 경우 대부분 전액 현금을 선택하였으며, 월령이 높아질수록 현금+바우처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표 VI-2-1〉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률(2024년): 2022. 1. 1. 이후 출생아

단위: %, (명)

구분	2022. 1. 1. 출생(부모급여)					
	현금만	현금+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해당 없음	(수)	
전체	44.7	32.7	0.2	22.3	( 825)	
아동연령	0세(2024년생)	12.2	0.6	0.1	6.5	( 161)
	1세(2023년생)	26.1	13.0	0.1	0.0	( 323)
	2세(2022년생)	6.4	19.2	0.0	15.8	( 341)

주: 1) 아동을 기준으로 수급률을 산출하였음.

2) 2024년 4월에 수급하고 있는 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영유아들은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누리과정(3-5세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이다. 2021년 이전 출생아의 5.6%만이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하였으며,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 94.4%였다. 즉 2021년 이전 출생한 영유아의 94.4%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I-2-2〉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률(2024년): 2021. 12. 31. 이전 출생아

단위: %, (명)

구분		2021. 12. 31. 이전 출생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및 누리과정	(수)
전체		5.6	94.4	(889)
아동연령	3세(2021년생)	1.2	38.9	(357)
	4세(2020년생)	1.0	24.1	(223)
	5세(2019년생)	1.8	18.1	(177)
	6세(2018년생)	1.6	13.3	(132)

주: 1) 아동을 기준으로 수급률을 산출하였음.

2) 2024년 4월에 수급하고 있는 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한편, 출산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10.7%,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7.8%였다.

〈표 VI-2-3〉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률(2024년):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급여

단위: %, (가구)

구분	출산장려금	(수)	육아휴직급여	(수)
전체	10.7	(299)	7.8	(219)

주: 가구단위로 수급률을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지난 1년 동안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수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15.9%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금액은 평균 123만5천원이었다. 출산지원금 수급 여부는 가구소득이 500~599만원인 경우가 20.5%로 가장 높았으며, 총 자녀 수는 1명인 경우에 출산지원금 수급률이 높았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출산지원금 수급률이 11.6%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

주하는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한편,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은 총 자녀수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평균 211만8천원을 지원받은 데 반해, 자녀가 1명인 경우(즉, 첫째 자녀 출산의 경우)에는 평균 101만6천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VI-2-4〉 지자체 출산지원금(2024년)

단위: %, (명), 만원, (명)

구분	수혜 여부			총 수금액		
	예	아니요	계(수)	금액	(수)	
전체	15.9	84.1	100.0(1,821)	123.5	(29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6.1	83.9	100.0( 898)	122.7	(145)
	외벌이	15.7	84.3	100.0( 923)	124.3	(145)
	$\chi^2/t$	0.065(1)			-0.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3	92.7	100.0( 55)	157.5	( 4)
	300~399만원	8.4	91.6	100.0( 239)	98.5	( 20)
	400~499만원	16.4	83.6	100.0( 402)	144.4	( 66)
	500~599만원	20.5	79.5	100.0( 381)	112.4	( 78)
	600만원 이상	16.4	83.6	100.0( 744)	122.3	(122)
	$\chi^2/F$	19.350(4)***			1.3(a)	
총 자녀수	1명	18.5	81.5	100.0( 664)	101.6	(123)
	2명	15.1	84.9	100.0( 912)	124.4	(138)
	3명이상	11.8	88.2	100.0( 245)	211.8	( 29)
	$\chi^2/F$	6.837(2)*			14.7***(a)	
지역규모	대도시	11.6	88.4	100.0( 723)	100.3	( 84)
	중소도시	18.5	81.5	100.0( 825)	131.6	(153)
	읍면지역	19.4	80.6	100.0( 273)	136.8	( 53)
	$\chi^2/F$	16.729(2)***			3.1*(a)	

주: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01$ .

이 외에 직장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수급한 비중은 8.4%였으며, 수급 총액은 연간 748만1천원이었다. 직장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수급 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맞벌이 가구는 10.8%가 수급한 데 반해 외벌이 가구는 6.1%를 수급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VI-2-5〉 직장 출산지원금(2024년)

단위: %, (명), 만원, (명)

구분		수혜 여부			총 수금액	
		예	아니요	계(수)	금액	(수)
전체		8.4	91.6	100.0(1,821)	748.1	( 1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0.8	89.2	100.0( 898)	820.4	( 81)
	외벌이	6.1	93.9	100.0( 923)	628.7	( 49)
	$\chi^2/t$	13.258(1)***			0.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3	92.7	100.0( 55)	79.3	( 3)
	300~399만원	5.4	94.6	100.0( 239)	562.8	( 12)
	400~499만원	8.5	91.5	100.0( 402)	613.3	( 28)
	500~599만원	7.3	92.7	100.0( 381)	1,734.0	( 27)
	600만원 이상	9.9	90.1	100.0( 744)	437.9	( 60)
	$\chi^2/F$	5.673(4)			1.2(a)	
총 자녀수	1명	9.8	90.2	100.0( 664)	285.1	( 55)
	2명	8.2	91.8	100.0( 912)	1,104.1	( 65)
	3명이상	5.3	94.7	100.0( 245)	981.2	( 10)
	$\chi^2/F$	4.749(2)			1.5(a)	
지역규모	대도시	6.1	93.9	100.0( 723)	470.6	( 35)
	중소도시	10.3	89.7	100.0( 825)	974.5	( 75)
	읍면지역	8.8	91.2	100.0( 273)	385.1	( 20)
	$\chi^2/F$	8.968(2)*			0.7	

주: 1)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2) 수급주기가 일시금인 경우 수금액, 월마다인 경우 수금액\*12개월, 분기마다인 경우 수금액\*4개월, 연마다인 경우 수금액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01$ .

부모급여 활용처를 보면 대부분 ① 식비(외식비 포함) 67.7%, ⑥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가 52.8% 순이었다. 2024년 부모급여의 지원액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부모급여의 활용처는 2023년 조사 결과와 경향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최효미 외, 2024a: 155).

〈표 VI-2-6〉 부모급여 활용처: 1+2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급여 활용처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67.7	15.3	11.1	11.1	13.3	52.8	21.1	2.7	1.7	(76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8.4	12.8	12.6	11.5	12.3	50.8	20.9	3.4	2.5	(358)
	외벌이	67.0	17.4	9.8	10.8	14.2	54.5	21.3	2.2	1.0	(40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8.6	14.3	0.0	7.1	14.3	57.1	14.3	14.3	0.0	( 14)
	300~399만원 이하	75.5	22.3	6.4	13.8	10.6	52.1	16.0	1.1	0.0	( 94)
	400~499만원 이하	70.1	13.6	11.4	13.0	12.5	51.6	21.7	2.2	1.6	(184)
	500~599만원 이하	65.0	20.0	11.1	12.2	13.9	53.9	18.9	1.1	0.0	(180)
	600만원 이상	64.7	11.2	12.9	8.5	14.2	52.9	24.1	4.1	3.4	(295)
총 자녀수	1명	65.9	16.4	8.7	9.3	13.6	50.8	26.6	3.7	0.9	(323)
	2명	67.8	15.5	13.0	11.3	11.3	55.9	17.2	2.0	2.8	(354)
	3명이상	73.3	10.0	12.2	16.7	20.0	47.8	16.7	2.2	0.0	( 90)
지역 규모	대도시	66.0	21.4	10.7	10.4	15.2	47.2	21.0	1.9	1.3	(309)
	중소도시	70.2	12.3	12.3	10.9	11.7	56.4	18.9	3.2	2.3	(349)
	읍면지역	64.2	7.3	8.3	13.8	12.8	56.9	28.4	3.7	0.9	(109)

주: ① 식비(외식비 포함), ② 피복비, ③ 보건/의료비(영양제 등 포함), ④ 교육/보육비(교재교구비 포함), ⑤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도서구입비), ⑥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⑦ 저축 등 금융상품(어린이보험, 저축 등), ⑧ 기기/집기, ⑨ 기타.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한편, 첫만남이용권<sup>26)</sup> 활용처도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① 식비(출생 자녀 분유, 이유식비, 식재료 구입비 등) 47.1%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⑦ 산후조리비(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이용)에 활용했다는 응답이 40.7%로 두 번째로 높아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로는 ⑥ 개인유지비(출생자녀용·산모용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영유아용 로션, 물티슈, 화장지 등) 38.5%에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26)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함. 2023년 지원금은 200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정부24. 첫만남이용권 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rSvc/dtlEx/135200005015>, 인출일: 2025. 6. 11).

〈표 VI-2-7〉 첫만남 이용권 활용처: 1+2순위

단위: %(명)

구분		첫만남 이용권 활용처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47.1	16.0	19.6	5.3	5.5	38.5	40.7	21.3	0.3	(76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6.2	15.0	19.2	6.7	6.1	34.3	44.0	22.3	0.3	(359)
	외벌이	47.8	16.8	20.0	4.1	4.9	42.2	37.8	20.5	0.2	(41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0.0	7.1	21.4	0.0	7.1	42.9	42.9	28.6	0.0	( 14)
	300~399만원 이하	40.4	19.1	22.3	6.4	2.1	34.0	43.6	25.5	0.0	( 94)
	400~499만원 이하	42.7	19.5	20.5	4.9	4.9	44.9	38.4	18.4	0.0	(185)
	500~599만원 이하	56.7	15.6	15.6	6.1	7.2	37.8	35.0	20.6	0.0	(180)
	600만원 이상	45.9	13.5	20.6	5.1	5.7	36.1	44.6	22.0	0.7	(296)
총 자녀수	1명	43.2	15.4	18.8	4.3	6.2	41.7	41.4	21.9	0.6	(324)
	2명	47.6	17.7	20.8	6.2	4.2	36.9	39.2	22.5	0.0	(355)
	3명이상	58.9	11.1	17.8	5.6	7.8	33.3	44.4	14.4	0.0	( 90)
지역 규모	대도시	44.8	19.0	21.6	3.5	6.5	35.8	39.7	20.6	0.3	(310)
	중소도시	51.7	14.3	18.9	7.7	4.3	36.9	40.6	21.1	0.0	(350)
	읍면지역	38.5	12.8	16.5	2.8	6.4	51.4	44.0	23.9	0.9	(109)

주: ① 식비(출생 자녀 분유, 이유식비, 식재료 구입비 등), ② 피복비(출생 자녀용 의류, 이불, 싸개 등 포함), ③ 보건/의료비(출생자녀의 치료 등 의료비, 영양제, 산모용 약제비(한약) 등 포함), ④ 교육/보육비(기관 이용, 육아도우미 비용, 교재교구비 등 포함), ⑤ 여가 및 문화생활비(자녀용 도서구입비 등), ⑥ 개인유지비(출생자녀용·산모용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영유아용 로션, 물티슈, 화장지 등), ⑦ 산후조리비(산후조리원, 사후도우미 이용), ⑧ 출생 자녀를 위한 기기/집기(유모차, 카시트, 아기 침대 등), ⑨ 기타.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현금성 지원금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가를 조사한 결과, 약간 도움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36.8%, 보통 27.6%, 매우 도움 됨 25.2%, 2023년에 비해 매우 도움 된다는 응답 비중(2023년 18.7%)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최효미 외, 2024a: 157). 가구특성에 따라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이나 총 자녀수, 지역규모 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2-8〉 현금성 지원금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정도

단위: %, 점, (명)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됨	약간 도움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전체	25.2	36.8	27.6	8.6	1.9	3.7	100.0 (1,8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5.1	34.5	27.2	10.8	2.4	3.7	100.0 ( 898)
	외벌이	25.2	39.0	28.0	6.4	1.4	3.8	100.0 ( 923)
	$\chi^2/t$	15.492(4)**					-2.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6.4	45.5	23.6	14.5	0.0	3.6	100.0 ( 55)
	300~399만원	23.4	33.1	33.1	7.9	2.5	3.7	100.0 ( 239)
	400~499만원	25.1	38.3	27.4	7.2	2.0	3.8	100.0 ( 402)
	500~599만원	26.0	38.6	27.6	7.3	0.5	3.8	100.0 ( 381)
	600만원 이상	25.9	35.6	26.2	9.7	2.6	3.7	100.0 ( 744)
	$\chi^2/F$	20.475(16)					1.2(a)	
총 자녀수	1명	25.6	38.3	27.3	7.4	1.5	3.8	100.0 ( 664)
	2명	25.5	36.6	27.4	8.8	1.6	3.8	100.0 ( 912)
	3명이상	22.4	33.5	29.0	11.0	4.1	3.6	100.0 ( 245)
	$\chi^2/F$	11.925(8)					3.7*(a)	
지역규모	대도시	26.3	36.2	27.9	7.2	2.4	3.8	100.0 ( 723)
	중소도시	23.5	38.8	26.4	9.9	1.3	3.7	100.0 ( 825)
	읍면지역	27.1	32.2	30.0	8.1	2.6	3.7	100.0 ( 273)
	$\chi^2/F$	11.442(8)					0.3	

주: 1)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  $p < .01$ .

## 나. 세제 혜택

세제 혜택 수혜 여부 변수는 아동수당 전면 시행 시기인 2019년부터 조사에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2024년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다는 응답은 74.5%였으며,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17.2%, 자녀장려금 6.7%,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29.3% 등이었으며,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응답도 25.5%에 달했다. 자녀 기본공제 수혜 비중은 2021년 이전에는 80% 내외의 수급률을 보였으나, 2023년 74.0%까지 낮아졌으며, 2024년에도 전년보다는 소폭 상승했으나 74.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VI-2-9〉 세제 혜택 수혜 여부(2019~2024년)

단위: %, (명)

구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자녀 기본 공제	79.0 (1,129)	80.1 (1,728)	79.0 (1,528)	77.2 (1,336)	74.0 (1,312)	74.5 (1,356)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15.6 ( 143)	14.7 ( 318)	16.1 ( 312)	8.6 ( 148)	17.4 ( 308)	17.2 ( 314)
자녀 장려금	31.1 ( 291)	13.9 ( 300)	13.1 ( 254)	11.4 ( 197)	8.3 ( 147)	6.7 ( 122)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48.0 ( 511)	33.3 ( 717)	29.7 ( 575)	26.8 ( 464)	30.3 ( 537)	29.3 ( 534)
없음	- -	- -	- -	22.8 ( 394)	26.0 ( 461)	25.5 ( 46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7차년도 원자료.

세제 혜택 지원 제도별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인지율이 계속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2024년 15.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등 지원 내용을 안다고 응답한 비중은 자녀장려금이 그나마 높은 수준을 보여 45.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장려금은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수급 비중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이다. 이로 인해 실제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지가 다른 세제 제도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VI-2-10〉 세제혜택 구체적 지원금액 인지 비율(2019~2024년)

단위: %, (명)

구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알고 있음	(수)										
자녀 기본 공제	30.0	(1,129)	23.1	(1,728)	17.7	(1,348)	18.6	(1,336)	18.0	(1,312)	15.3	(1,356)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40.6	( 143)	14.2	( 318)	9.9	( 312)	19.6	( 148)	14.9	( 308)	4.5	( 314)
자녀 장려금	59.8	( 291)	42.7	( 300)	41.1	( 236)	46.2	( 197)	41.5	( 147)	45.1	( 122)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33.9	( 511)	27.3	( 717)	24.9	( 485)	23.3	( 464)	22.7	( 537)	18.7	( 53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7차년도 원자료.

### 3. 부모급여의 양육부담 경감 효과 분석

#### 가. 분석 목적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년 연구에서는 부모급여 제도의 효과성을 현금수급액의 증가로 보고,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를 합친 현금수급액이 아동의 양육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부모급여 종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다만, 2024년 연구는 2021년생부터 2023년 4월 출생아까지만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부모급여가 도입된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데이터 자체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부모급여는 도입 당시 단계적 증액을 목표로 하여 2024년에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크게 증액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부모급여의 효과성은 분석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급여 도입 전 영아수당이 지급된 2022년부터 부모급여 지급액이 상향된 2024년까지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현금지급(수당)과 기관 이용료 지원(바우처) 형태가 혼합된 제도로 설계되었다. 다만, 영아수당에 비해 지원액 수준을 크게 상향하여, 지급되는 현금급여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부모급여의 효과성을 현금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급여의 효과를 지급액 수준 자체에만 국한한 분석에서 더 나아가, 부모급여가 아동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의 제도 목적을 얼마나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가구별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수급액의 상대적 비중을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동일한 부모급여가 지급되더라도 가구별 양육비 지출규모, 소득수준, 자녀수 등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부담 완화 효과가 상이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부모급여의 효과성 분석에서 단순한 현금지급 규모만이 아니라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 및 양육비용 지출 맥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부모급여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이는 부모급여가 가구특성별, 계층별로 어떻게 상이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향후 부모급여 및 현금급여 정책의 추가 개편을 위한 논의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급여 수급액이 전체 양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핵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부모들이 인식하는 양육비용의 충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급여가 실제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 시키는지를 규명함과 동시에 가구 특성별로 효과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 나. 분석 자료

부모급여 제도는 2023년에 영아기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부모급여 도입 직전 해인 2022년에는 영아수당이 지급되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이 0, 1세에게 월 30만원 지급되었으며, 2023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2024년에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 지급되었다. 부모급여는 보육시설 이용에 따라 지급형태가 구분되는데, 가정보육을 할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고,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영아수당, 부모급여의 지급액과 지급방식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 VI-3-1]과 같다.

[그림 VI-3-1] 부모급여 도입 전후 지급 비교

단위: 만원

2022년(영아수당, '22년생부터)			2023년(부모급여)			2024년(부모급여)		
연령	만 0세		연령	만 1세		연령	만 0세	
	사실 미이용	사실 이용		사실 미이용	사실 이용		사실 미이용	사실 이용
보육	사실 미이용	월 30 (현금)	보육	사실 미이용	월 35 (현금)	보육	사실 미이용	월 50
	사실 이용	보육료 바우처 (0세반)		사실 이용	월 70 보육료 바우처 (0세반)		사실 이용	월 100 보육료 바우처 (0세반, 1세반)

주: 1) '24년 시설 이용 시 0세(바우처540천원+현금460천원), 1세(0세반인 경우 바우처540천원/ 1세반인 경우 바우처475천원+현금25천원)  
 2) '24년 0세반은 '23. 1.1. 이후 출생, 1세반은 '22.1.1.~'22.12.31. 출생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부모급여 사업안내(개정판). p.4.

이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자료이며, 2022년, 2023년에 데이터가 수집된 마지막 월인 4월 시점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분석 자료는 각 연도의 4월을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출생 시기를 기준으로 1~4월생과 5~12월생으로 구분하여 코호트를 설정하였다. 이에 코호트는 2022년 1월~4월생, 2022년 5월~12월생, 2023년 1~4월생, 2023년 5~12월생, 2024년 1~4월생으

로 구분된다. 분석은 부모급여 수급 연령인 0세, 1세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각 코호트의 데이터가 수집된 조사 시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 VI-3-1>과 같다.

<표 VI-3-1> 조사시점별 코호트 연령

조사 시점 (조사 데이터)	코호트1 (2022.1~4)	코호트2 (2022.5~12)	코호트3 (2023.1~4)	코호트4 (2023.5~12)	코호트5 (2024.1~4)
2022년 4월	0세				
2023년 4월	1세	0세	0세		
2024년 4월		1세	1세	0세	0세

본 연구에서 구분한 코호트별로 0, 1세에 지급받은 부모급여 현금지급액을 정리하였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2022년 1~4월생인 코호트1은 가정보육을 할 경우 0세에 월 30만원, 1세에 월 35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로만 지급을 받았다. 2022년 5~12월생인 코호트2와 2023년 1월~4월생인 코호트3은 0세에 가정보육 시 월 7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에 월 18만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으며, 1세에는 가정보육 시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2만5천원을 지급받았다. 2023년 5월~12월생인 코호트4와 2024년 1월~4월생인 코호트5는 0세에 가정보육 시 월 10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에 월 4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응답 가구가 이용한 양육지원 종류에 따라 부모급여 현금 수급액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표 VI-3-2> 코호트별 부모급여 유형에 따른 현금지급액

단위: 천원

부모급여		코호트1 (2022.1~4)	코호트2 (2022.5~12)	코호트3 (2023.1~4)	코호트4 (2023.5~12)	코호트5 (2024.1~4)
0세	전액현금	300	700	700	1,000	1000
	현금+보육료바우처	0	186	186	460	460
	종일제아이돌봄바우처	0	0	0	0	0
1세	전액현금	350	500	500		
	현금+보육료바우처	0	25	25		
	종일제아이돌봄바우처	0	0	0		

주: 2022년 영아수당 지급액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음.  
자료: 연구진이 작성함.

## 다. 기초 통계량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3개년 원자료에서 추출한 0세 분석에 활용된 관측치는 총 737명이다. 코호트1은 109명, 코호트2는 194명, 코호트3은 126명, 코호트4는 201명, 코호트5는 107명이었다.

먼저,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42.7%)에 비해 외벌이 가구(57.3%)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코호트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코호트1에서 외벌이 가구가 67.0%로 맞벌이 가구(33.0%)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소득은 600만원 이상이 3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00~499만원이 29.4%, 500~599만원이 25.0%로 나타났다. 모든 코호트에서 가구소득 구간이 400~599만원인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575만6천원이었다. 코호트1은 월평균 가구소득(549만6천원)이 가장 낮은 코호트였으며, 코호트3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602만9천원으로 다른 코호트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부모의 연령대가 40대 이상인 비율이 높은 코호트로 확인되어 부모의 연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총 가구원 수는 3명 이하와 4명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며 5명 이상인 경우는 15.5%에 불과하였다. 모든 코호트에서도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가구 비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코호트5에서는 5.6%에 불과하였다. 자녀수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자녀수가 1명 또는 2명인 가구가 대다수이고, 3명 이상인 가구는 12.9%였다. 특히 코호트5에서는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구가 3.7%에 그쳤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규모를 살펴보면, 중소도시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는 40.6%, 읍면지역은 14.3%였다. 특히 코호트5에서 읍면지역 비율이 20.6%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3-3〉 가구특성별 기초 통계량: 0세

단위: %(명)

구분	전체		cohort 1 (2022.1~4)		cohort 2 (2022.5~12)		cohort 3 (2023.1~4)		cohort 4 (2023.5~12)		cohort 5 (2024.1~4)	
	%	계	%	계	%	계	%	계	%	계	%	계
총계	100.0	(737)	100.0	(109)	100.0	(194)	100.0	(126)	100.0	(201)	100.0	(107)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42.7 (315)	33.0 ( 36)	47.9 ( 93)	42.9 ( 54)	40.8 ( 82)	46.7 ( 50)					
	외벌이 가구	57.3 (422)	67.0 ( 73)	52.1 (101)	57.1 ( 72)	59.2 (119)	53.3 ( 5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8 ( 6)	1.8 ( 2)	0.5 ( 1)	0.8 ( 1)	1.0 ( 2)	0.0 ( 0)					
	300~399만원	10.7 ( 79)	14.7 ( 16)	13.4 ( 26)	10.3 ( 13)	8.5 ( 17)	6.5 ( 7)					
	400~499만원	29.4 (217)	34.9 ( 38)	31.4 ( 61)	27.8 ( 35)	25.4 ( 51)	29.9 ( 32)					
	500~599만원	25.0 (184)	20.2 ( 22)	23.7 ( 46)	23.8 ( 30)	28.4 ( 57)	27.1 ( 29)					
	600만원 이상	34.1 (251)	28.4 ( 31)	30.9 ( 60)	37.3 ( 47)	36.8 ( 74)	36.5 ( 39)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575.6	549.6	572.9	602.9	576.2	573.9						
총 가구원 수	3명 이하	42.5 (313)	39.5 ( 43)	38.1 ( 74)	42.1 ( 53)	43.8 ( 88)	51.4 ( 55)					
	4명	42.1 (310)	41.3 ( 45)	44.3 ( 86)	41.3 ( 52)	40.3 ( 81)	43.0 ( 46)					
	5명 이상	15.5 (114)	19.3 ( 21)	17.5 ( 34)	16.7 ( 21)	15.9 ( 32)	5.6 ( 6)					
재취수	1명	42.1 (310)	41.3 ( 45)	38.1 ( 74)	43.7 ( 55)	41.3 ( 83)	49.5 ( 53)					
	2명	45.1 (332)	43.1 ( 47)	46.4 ( 90)	42.9 ( 54)	45.3 ( 91)	46.7 ( 50)					
	3명 이상	12.9 ( 95)	15.6 ( 17)	15.5 ( 30)	13.5 ( 17)	13.4 ( 27)	3.7 ( 4)					
지역 규모	대도시	40.6 (299)	43.1 ( 47)	38.1 ( 74)	38.9 ( 49)	43.8 ( 88)	38.3 ( 41)					
	중소도시	45.2 (333)	45.0 ( 49)	48.5 ( 94)	46.0 ( 58)	43.8 ( 88)	41.1 ( 44)					
	읍/면지역	14.3 (105)	11.9 ( 13)	13.4 ( 26)	15.1 ( 19)	12.4 ( 25)	20.6 ( 2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4' 원자료.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의 연령은 30대가 76.9%, 40대 이상이 19.8%이며, 20대는 3.3%에 불과하였다. 모의 연령도 30대가 82.9%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40대 이상과 20대가 각각 8.6%였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60% 대로 가장 많았다. 모든 코호트에서 4년제 대학 졸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코호트4, 코호트5의 경우에 모의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인 비율이 다소 높았다. 아동 성별은 남아(53.2%)의 비중이 여아(46.8%)에 비해 높았으며, 아동 성별 비율이 동일한 코호트3을 제외하고 모든 코호트에서 남아 비중이 높았다.

〈표 VI-3-4〉 부모 및 아동특성별 기초 통계량: 0세

단위: %(명)

구분		전체		cohort 1 (2022.1~4)		cohort 2 (2022.5~12)		cohort 3 (2023.1~4)		cohort 4 (2023.5~12)		cohort 5 (2024.1~4)	
		%	계	%	계	%	계	%	계	%	계	%	계
총계		100.0	(737)	100.0	(109)	100.0	(194)	100.0	(126)	100.0	(201)	100.0	(107)
부연령	20대	3.3	( 24)	7.3	( 8)	1.6	( 3)	6.4	( 8)	1.0	( 2)	2.8	( 3)
	30대	76.9	(567)	80.7	( 88)	76.8	(149)	65.9	( 83)	80.1	(161)	80.4	( 86)
	40대 이상	19.8	(146)	11.9	( 13)	21.7	( 42)	27.8	( 35)	18.9	( 38)	16.8	( 18)
모연령	20대	8.6	( 63)	11.0	( 12)	7.2	( 14)	9.5	( 12)	6.5	( 13)	11.2	( 12)
	30대	82.9	(611)	84.4	( 92)	82.5	(160)	78.6	( 99)	84.1	(169)	85.1	( 91)
	40대 이상	8.6	( 63)	4.6	( 5)	10.3	( 20)	11.9	( 15)	9.5	( 19)	3.7	( 4)
부학력	고졸이하	15.2	(112)	20.2	( 22)	14.9	( 29)	15.9	( 20)	11.4	( 23)	16.8	( 18)
	전문대졸	15.1	(111)	17.4	( 19)	15.5	( 30)	15.1	( 19)	14.4	( 29)	13.1	( 14)
	4년제대졸	63.2	(466)	58.7	( 64)	60.3	(117)	61.9	( 78)	68.7	(138)	64.5	( 69)
	대학원 이상	6.5	( 48)	3.7	( 4)	9.3	( 18)	7.1	( 9)	5.5	( 11)	5.6	( 6)
모학력	고졸이하	14.5	(107)	23.9	( 26)	18.0	( 35)	13.5	( 17)	9.5	( 19)	9.4	( 10)
	전문대졸	18.6	(137)	17.4	( 19)	17.0	( 33)	19.1	( 24)	20.4	( 41)	18.7	( 20)
	4년제대졸	60.4	(445)	56.9	( 62)	58.3	(113)	57.1	( 72)	63.2	(127)	66.4	( 71)
	대학원 이상	6.5	( 48)	1.8	( 2)	6.7	( 13)	10.3	( 13)	7.0	( 14)	5.6	( 6)
아동 성별	남아	53.2	(392)	57.8	( 63)	51.0	( 99)	50.0	( 63)	52.2	(105)	57.9	( 62)
	여아	46.8	(345)	42.2	( 46)	49.0	( 95)	50.0	( 63)	47.8	( 96)	42.1	( 4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4' 원자료.

급여형태는 모든 코호트에서 0세 때 전액현금으로 지급받은 비율이 대다수 (83.1%~94.4%)를 차지하였다. 이는 영아수당을 수급한 코호트1도 동일하였다. 한편, 전액 바우처로 지급받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선택한 경우는 전체 아동 중 1명에 불과하였다.

〈표 VI-3-5〉 급여형태별 기초 통계량: 0세

단위: %(명)

구분	전체		cohort 1 (2022.1~4)		cohort 2 (2022.5~12)		cohort 3 (2023.1~4)		cohort 4 (2023.5~12)		cohort 5 (2024.1~4)		
	%	계	%	계	%	계	%	계	%	계	%	계	
총계	100.0	(737)	100.0	(109)	100.0	(194)	100.0	(126)	100.0	(201)	100.0	(107)	
급여 형태	영아수당_ 현금	12.7	( 94)	86.2	( 94)	0.0	( 0)	0.0	( 0)	0.0	( 0)	0.0	( 0)
	영아수당_ 보육료바우처	2.0	( 15)	13.8	( 15)	0.0	( 0)	0.0	( 0)	0.0	( 0)	0.0	( 0)
	부모급여_ 보육료바우처 +현금	10.2	( 75)	0.0	( 0)	12.9	( 25)	8.7	( 11)	16.9	( 34)	4.7	( 5)
	부모급여_ 현금	74.9	(552)	0.0	( 0)	87.1	(169)	91.3	(115)	83.1	(167)	94.4	(101)
	부모급여_ 종일제 바우처	0.1	( 1)	0.0	( 0)	0.0	( 0)	0.0	( 0)	0.0	( 0)	0.9	( 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4' 원자료.

1세 분석에 활용된 관측치는 총 456명이다. 코호트1은 123명, 코호트2는 211명, 코호트3은 122명이다. 코호트4와 코호트5는 2024년 4월까지 자료에서는 1세 데이터가 조사되지 않았다.

1세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0세와 유사하게 맞벌이 가구(44.1%)에 비해 외벌이 가구(55.9%)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561만6천원으로 오히려 0세보다 낮아졌는데, 399만원 이하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총 가구원 수와 자녀수 경향은 0세와 유사하나, 1세 가구는 0세에 비해 3명 이하 비중을 줄고 4명 가구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자녀수도 2명과 3명이상 가구 비중이 증가하였다. 지역규모는 읍면지역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

〈표 VI-3-6〉 가구특성별 기초 통계량: 1세

단위: %(명)

구분		전체		cohort 1 (2022.1~4)		cohort 2 (2022.5~12)		cohort 3 (2023.1~4)	
		%	계	%	계	%	계	%	계
총계		100.0	(456)	100.0	(123)	100.0	(211)	100.0	(1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44.1	(201)	30.1	( 37)	51.7	(109)	45.1	( 55)
	외벌이 가구	55.9	(255)	69.9	( 86)	48.3	(102)	54.9	( 67)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2	( 10)	0.0	( 0)	2.4	( 5)	4.1	( 5)
	300~399만원	15.8	( 72)	18.7	( 23)	16.1	( 34)	12.3	( 15)
	400~499만원	23.9	(109)	35.0	( 43)	18.5	( 39)	22.1	( 27)
	500~599만원	22.2	(101)	17.1	( 21)	25.6	( 54)	21.3	( 26)
	600만원 이상	36.0	(164)	29.3	( 36)	37.4	( 79)	40.2	( 49)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561.6		538.4		568.5		573.0	
총 가구원수	3명 이하	39.5	(180)	36.6	( 45)	35.1	( 74)	50.0	( 61)
	4명	45.0	(205)	45.5	( 56)	48.8	(103)	37.7	( 46)
	5명 이상	15.6	( 71)	17.9	( 22)	16.1	( 34)	12.3	( 15)
자녀수	1명	38.8	(177)	39.0	( 48)	33.7	( 71)	47.5	( 58)
	2명	46.9	(214)	44.7	( 55)	51.2	(108)	41.8	( 51)
	3명 이상	14.3	( 65)	16.3	( 20)	15.2	( 32)	10.7	( 13)
지역규모	대도시	41.5	(189)	43.1	( 53)	43.6	( 92)	36.1	( 44)
	중소도시	46.3	(211)	47.2	( 58)	44.1	( 93)	49.2	( 60)
	읍/면지역	12.3	( 56)	9.8	( 12)	12.3	( 26)	14.8	( 1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4' 원자료.

부모의 연령도 4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여, 부의 30.5%, 모의 15.1%가 4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 비율은 동일하다. 아동 성별은 남아와 여아 비중의 차이가 다소 줄었으나, 남아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다만, 코호트 3의 경우는 여아의 비중이 남아에 비해 높았다.

〈표 VI-3-7〉 부모 및 아동특성별 기초 통계량: 1세

단위: %(명)

구분		전체		cohort 1 (2022.1~4)		cohort 2 (2022.5~12)		cohort 3 (2023.1~4)	
		%	계	%	계	%	계	%	계
총계		100.0	(456)	100.0	(123)	100.0	(211)	100.0	(122)
부연령	20대	2.9	( 13)	5.7	( 7)	1.9	( 4)	1.6	( 2)
	30대	66.7	(304)	70.7	( 87)	64.5	(136)	66.4	( 81)
	40대 이상	30.5	(139)	23.6	( 29)	33.7	( 71)	32.0	( 39)
모연령	20대	5.7	( 26)	11.4	( 14)	4.3	( 9)	2.5	( 3)
	30대	79.2	(361)	78.9	( 97)	76.8	(162)	83.6	(102)
	40대 이상	15.1	( 69)	9.8	( 12)	19.0	( 40)	13.9	( 17)
부학력	고졸이하	17.1	( 78)	21.1	( 26)	17.5	( 37)	12.4	( 15)
	전문대졸	15.6	( 71)	17.1	( 21)	14.2	( 30)	16.5	( 20)
	4년제대졸	59.6	(271)	55.3	( 68)	59.2	(125)	64.5	( 78)
	대학원 이상	7.7	( 35)	6.5	( 8)	9.0	( 19)	6.6	( 8)
모학력	고졸이하	17.3	( 79)	25.2	( 31)	16.6	( 35)	10.7	( 13)
	전문대졸	18.0	( 82)	20.3	( 25)	16.1	( 34)	18.9	( 23)
	4년제대졸	58.8	(268)	53.7	( 66)	60.2	(127)	61.5	( 75)
	대학원 이상	5.9	( 27)	0.8	( 1)	7.1	( 15)	9.0	( 11)
아동성별	남아	50.7	(231)	51.2	( 63)	51.7	(109)	48.4	( 59)
	여아	49.3	(225)	48.8	( 60)	48.3	(102)	51.6	( 6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4' 원자료.

2022년 1월~4월생 코호트도 모두 만 1세가 되는 2023년 4월에는 부모급여를 지급받았다. 1세의 경우는 0세와 달리 전액 현금을 지급받는 비율이 37.5%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코호트2의 경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을 같이 수급하는 비율이 74.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VI-3-8〉 급여형태별 기초 통계량: 1세

단위: %(명)

구분		전체		cohort 1 (2022.1~4)		cohort 2 (2022.5~12)		cohort 3 (2023.1~4)	
		%	계	%	계	%	계	%	계
총계		100.0	(456)	100.0	(123)	100.0	(211)	100.0	(122)
급여 형태	부모급여_보육료바우처+현금	62.3	(284)	43.1	( 53)	74.9	(158)	59.8	( 73)
	부모급여_현금	37.5	(171)	56.9	( 70)	25.1	( 53)	39.3	( 48)
	부모급여_종일제바우처	0.2	( 1)	0.0	( 0)	0.0	( 0)	0.8	( 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4' 원자료.

## 라. 코호트별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

코호트별로 0세와 1세의 월평균 부모급여(영아수당) 현금수급액을 산출하였다. 영아수당을 수급한 코호트1은 0세에 25만8천원이었으며, 2023년 0세 부모급여를 수급한 코호트2와 코호트3은 각각 63만4천원, 65만5천원이었다. 2024년에 0세 부모급여를 수급한 코호트4, 코호트5는 각각 90만9천원, 96만5천원으로 지급액이 높아짐에 따라 현금 수급액 평균도 상승하였다. 특히 가장 최근 출생아 코호트5는 부모급여 현금수급액이 1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관보육보다는 가정보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져 월평균 부모급여 현금수급액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1세의 월평균 부모급여 현금수급액은 코호트1은 19만9천원, 코호트2는 14만4천원, 코호트3에서 21만2천원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0세에 비해 1세의 경우 부모급여 지급액의 상승이 크지 않았고, 0세보다 1세는 낮은 가정보육 비율을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월평균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전체 0세 가구는 월평균 68만1천원이었고, 코호트별로는 66만5천원~69만2천원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1세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용은 69만5천원으로 0세에 비해 1만4천원 증가한 수준이었다. 코호트1은 오히려 1세의 양육비용이 0세에 비해 다소 적었으나, 이후 코호트2, 코호트3에서는 0세 비해 1세 양육비용이 증가하여, 코호트3의 월평균 양육비용은 73만3천원으로 0세에 비해 6만8천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9〉 코호트별 부모급여 평균 현금수급액 및 월평균 양육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전체	cohort 1 (2022.1~4)	cohort 2 (2022.5~12)	cohort 3 (2023.1~4)	cohort 4 (2023.5~12)	cohort 5 (2024.1~4)
0세	월평균 부모급여(영아수당) 현금수급액	70.5	25.8	63.4	65.5	90.9	96.5
	월평균 양육비용	68.1	68.1	68.3	66.5	68.4	69.2
	(수)	(737)	(109)	(194)	(126)	(201)	(107)
1세	월평균 부모급여(영아수당) 현금수급액	17.7	19.9	14.4	21.2		
	월평균 양육비용	69.5	65.7	69.4	73.3		
	(수)	(456)	(123)	(211)	(12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4' 원자료.

개별 가구 단위로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을 산출하였다. 먼저, 전체 0세 가구의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을 살펴보면, 1.41배로 양육비용에 비해 부모급여 현금수급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영아수당을 지급 받은 코호트1은 0.66배로 양육비용이 더 높았으나, 코호트2부터는 부모급여 현금수급액이 양육비용을 상회하며 코호트가 증가할수록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의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모급여가 양육비용을 부담하는 효과와 함께 자녀 출산 이후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소득보장의 효과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0세 가구의 자녀수에 따라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코호트별로 살펴보았다. 0세의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의 비중 차이는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평균에서는 1명과 2명 이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당 양육비용이 적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의 현금수급액 비중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코호트5의 경우는 3명 이상 가구에서 비중이 다른 코호트와 달리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확인한 결과 4명 이상 사례가 4가구에 불과하며, 다른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전체 1세 가구의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을 살펴보면, 0.34배로 양육비용의 약 3분의 1 수준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이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1은 0.4배, 코호트2는 0.27배, 코호트3은 0.4배로 전체 평균과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I-3-10〉 코호트별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

단위: 배

구분	전체	cohort 1 (2022.1~4)	cohort 2 (2022.5~12)	cohort 3 (2023.1~4)	cohort 4 (2023.5~12)	cohort 5 (2024.1~4)	
0세	전체	1.41	0.66	1.21	1.26	1.78	1.99
	1명	1.13	0.46	1.05	1.02	1.42	1.45
	2명	1.61	0.87	1.24	1.37	2.07	2.40
	3명 이상	1.61	0.61	1.51	1.72	1.93	4.03
	F	16.79***	7.23**	4.25**	7.64***	6.32**	7.88***

구분		전체	cohort 1 (2022.1~4)	cohort 2 (2022.5~12)	cohort 3 (2023.1~4)	cohort 4 (2023.5~12)	cohort 5 (2024.1~4)
1세	전체	0.34	0.40	0.27	0.40	/	/
	1명	0.35	0.31	0.33	0.42		
	2명	0.32	0.44	0.24	0.35		
	3명 이상	0.39	0.49	0.27	0.51		
	F	0.70	1.81	0.81	0.69		

주: 개별 가구의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을 구한 값으로 전체 평균으로 산출하는 값과 차이가 있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4' 원자료.

\*\*  $p < .01$ , \*\*\*  $p < .001$

#### 마.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0세, 1세 연령별로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독립 변수로는 가구 특성(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자녀수), 부모 특성(연령, 학력), 지역 특성(지역 규모), 아동 성별 및 코호트 변수를 포함하였다. 준거집단은 맞벌이 여부의 경우 외벌이, 부모학력은 고졸 이하, 지역규모는 대도시, 아동 성별은 남아, 코호트는 코호트1로 설정하였다. 계수 값이 양(+)으로 나타나면 해당 요인이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며, 반대로 음(-)의 값은 부모급여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 특성에서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소득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고 가정보육을 선택하여 부모급여를 전액현금으로 수급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낮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외벌이 가구일수록 가정보육을 통해 부모급여를 전액현금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가구소득 역시 0세와 1세 모두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급여 현금수급액이 양육비용을 보전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수의 경우 0세 집단에서만 정(+)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당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의 상대적 기여도가 커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한편, 부모 특성으로 연령과 학력은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규모나 아동 성별도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 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급여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효과가 개인적 특성이나 특정 지역보다는 주로 가구의 경제적·구조적 요인에 의해 좌우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 비중에서 코호트 효과는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다. 0세 가구의 경우 코호트2부터 코호트5까지 모두 코호트1에 비해 부모급여 현금수급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코호트5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제도의 도입 및 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최근 코호트일수록 부모급여의 양육비용 보전 효과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1세 아동 집단에서는 코호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요컨대, 분석결과를 통해 부모급여는 외벌이 가구이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용을 보전하는 효과가 크며, 최근 코호트일수록 그 효과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부모급여 제도가 특히 저소득층·다자녀 가구에서 실질적인 양육비 경감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VI-3-11〉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0세	1세	
가구 특성	맞벌이 여부	-0.236 **	-0.251 ***	
	가구소득(만원)	-0.000 **	-0.000 **	
	자녀수	0.375 ***	0.016	
부모특성	부연령	-0.014	-0.008	
	모연령	-0.020	0.014	
	부학력	전문대졸	0.226	0.076
		4년제졸 이상	-0.216	0.087
	모학력	전문대졸	-0.228	-0.040
4년제졸 이상		0.113	-0.135	
지역규모	중소도시	0.014	-0.020	
	읍면지역	-0.189	-0.014	
	아동성별	0.073	-0.045	
코호트	cohort 2	0.591 ***	-0.058	
	cohort 3	0.678 ***	0.065	
	cohort 4	1.183 ***	-	
	cohort 5	1.490 ***	-	

구분	0세	1세
상수	0.197	0.441 *
N	737	455

주: 준거집단: 맞벌이 가구\*외벌이, 부학력\*고졸이하, 모학력\*고졸이하, 지역규모\*대도시, 아동성별\*남아, 코호트\*cohort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4'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 바.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 항의 분석은 0, 1세 가구가 인식하는 양육비용의 충분성을 부모급여의 양육비용 경감 효과로 보고,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양육비용의 충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코호트 및 가구특성별로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고, 이어서 다중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충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0세 가구와 1세 가구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하였다.

코호트별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을 살펴본 결과, 0세 가구 전체 평균은 3.2점(5점 척도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코호트 간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 평균은 코호트2(2022.5~12월생)에서 3.0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후 최근 코호트로 갈수록 증가하여 코호트5(2024.1~4월생)에서 3.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부모급여 제도의 도입 및 확대 효과가 최근 코호트에서 일정 부분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특기할만한 점은 0세 기준 코호트1(2022.1~4월생)의 충분성 점수가 코호트2(2022.5~12월생)나 코호트3(2023.1~4월생)에 비해 높다는 점인데, 코호트1(2022.1~4월생)은 0세 시기 부모급여가 아닌 영아수당을 수급한 코호트로, 이전 가정양육수당에서 영아수당으로의 제도 변화가 있었던 시점(2022년)에서의 충분성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코호트2(2022.5~12월생)는 코호트1(2022.1~4월생)과 출생연도는 같지만, 0세 시기의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 조사가 2023년에 실시된 자료로, 조사 시점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1세 가구의 평균은 3.0점으로 코호트1에서 2.8점, 코호트2에서 2.9점, 코호트3에서 3.1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코호트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세 때 양육비용 충분성은 현금급여 지원액도 증가하였으나, 아동당 양육비

용이 물가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시기에 조사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VI-3-12〉 코호트별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 0-1세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수)
0세	전체	3.2	0.897	3.12*	(737)
	cohort 1 (2022.1~ 4)	3.2	0.784		(109)
	cohort 2 (2022.5~12)	3.0	0.952		(194)
	cohort 3 (2023.1~ 4)	3.1	0.966		(126)
	cohort 4 (2023.5~12)	3.2	0.844		(201)
	cohort 5 (2024.1~ 4)	3.3	0.875		(107)
1세	전체	3.0	0.934	2.41	(456)
	cohort 1 (2022.1~ 4)	2.8	0.894		(123)
	cohort 2 (2022.5~12)	2.9	0.898		(211)
	cohort 3 (2023.1~ 4)	3.1	1.020		(12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4' 원자료.

\*  $p < .05$

0세 시기 가구소득과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소득은 낮을수록 충분성 인식이 낮았으며, 자녀수는 많을수록 충분성 인식 수치가 낮아졌다. 특히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충분성 인식이 5점 만점 기준 2.3점으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확연히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VI-3-13〉 가구소득별, 자녀수별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 0세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수)
전체		3.2	0.897		(737)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3	1.032	7.71***	( 6)
	300~399만원	2.8	0.992		( 79)
	400~499만원	3.1	0.881		(217)
	500~599만원	3.2	0.848		(184)
	600만원 이상	3.3	0.863		(251)
자녀수	1명	3.4	0.851	20.35***	(310)
	2명	3.1	0.846		(332)
	3명 이상	2.7	1.031		( 9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4' 원자료.

\*\*\*  $p < .001$

1세 시기 가구소득과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도 0세와 경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소득은 낮을수록, 자녀수는 많을수록 충분성 인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단, 0세와 1세의 동일 가구특성별 충분성 인식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0세가 1세에 비해 대부분의 구간에서 충분성을 좀 더 높게 응답하고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구간에서만 0세(2.3점)가 1세(2.5점)에 비해 충분성을 낮게 응답하였다. 즉, 0세에 비해 1세의 경우 양육비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 점수의 격차는 좀 더 적게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자녀를 출산하는 당시(0세) 기준으로 저소득 가구들의 양육비용 부담이 훨씬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VI-3-14〉 가구소득별, 자녀수별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 1세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수)
전체		3.0	0.934		(45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5	0.850	2.72*	( 10)
	300~399만원	2.7	0.892		( 72)
	400~499만원	2.9	0.936		(109)
	500~599만원	3.0	0.761		(101)
	600만원 이상	3.1	1.029		(164)
자녀수	1명	3.1	0.872	7.13***	(177)
	2명	2.9	0.899		(214)
	3명 이상	2.6	1.110		( 6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4' 원자료.

\*  $p < .05$ , \*\*\*  $p < .001$

다음으로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의 비중이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0세 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충분성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충분성 인식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또한 부의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이상일 경우 양육비용을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이 높아지는 것에 기인한다<sup>27)</sup>. 또한 대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양육비용을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코호트별로는 코호트2(2022.5~12월생), 코호트3(2023.1~4월생)은 오히려 코호트1(2022.1~4월생)보다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이 낮았으며, 코호트2(2022.5~12월생)에서 코호트5(2024.1~4월생)를 살펴보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27) 월평균 가구소득: 고졸 이하(517.1만원), 전문대졸(565.2만원), 4년대 졸(590.6만원)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코호트2(2022.5~12월생)만 코호트1(2022.1~4월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0세의 경우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클수록 오히려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은 낮아졌다. 이는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경향성을 갖고 있으나,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은 코호트1(2022.1~4월생)이 높았던 현상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호트1(2022.1~4월생)의 경우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 조사가 실시된 시기가 2022년으로, 분석 대상 기간(2022~2024) 중에서 실제적인 양육비용이 가장 낮아<sup>28)</sup>, 영유아 부모가 체감하는 양육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일 출생연도에 태어났지만 보다 많은 부모급여를 지원받은 코호트2(2022.5~12월생) 변수의 효과가 유의미한 음수라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1세 가구의 경우에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0세와 마찬가지로 부의 학력이 4년제 이상일수록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1세 집단에서는 양육비용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1세의 경우는 0세에 비해 부모급여 지급액 자체의 증가폭이 크지 않았고, 1세에는 가정보육보다 기관보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 부모급여의 현금수급액 비중의 효과가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으로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8) 2023년 이후 높은 물가상승에 따라 실제 양육비용 지출액 증가 뿐 아니라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견됨.

〈표 VI-3-15〉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0세	1세	
가구 특성	맞벌이 여부	0.062	0.024	
	가구소득(만원)	0.001 **	0.000	
	자녀수	-0.299 ***	-0.230 ***	
부모특성	부연령	0.011	0.016	
	모연령	0.004	0.002	
	부학력	전문대졸	0.087	0.236
		4년제졸 이상	0.232 **	0.332 **
	모학력	전문대졸	-0.052	-0.352 **
		4년제졸 이상	0.055	0.028
지역규모	중소도시	0.026	-0.082	
	읍면지역	0.205 **	-0.047	
아동성별		0.061	0.137	
코호트	cohort 2	-0.207 **	0.063	
	cohort 3	-0.085	0.172	
	cohort 4	0.062	-	
	cohort 5	0.101	-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		-0.052 *	0.027	
상수		2.632 ***	2.410 ***	
N		737	455	

주: Base는 부학력-고졸이하, 모학력-고졸이하, 지역규모-대도시, 아동성별-남아, 맞벌이 가구-외벌이, 코호트-cohort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4'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한편, 좀 더 자세히 가구특성 및 코호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 자료를 코호트별로 구분하여 동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0세의 경우 코호트1(2022.1~4월생)은 가구특성은 어떤 것도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영아수당) 현금수급액 비중만이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호트2(2022.5~12월생)와 코호트3(2023.1~4월생) 자녀수가 유의미한 음수였으며,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호트4(2023.5~12월생)는 자녀수와 부의 학력이 4년제 대졸이상인 경우,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수급액 비중 등이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었으며, 코호트5(2024.1~4월생)는 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수준이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16〉 코호트별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0세

구분		cohort 1 (2022.1~ 4)	cohort 2 (2022.5~12)	cohort 3 (2023.1~ 4)	cohort 4 (2023.5~12)	cohort 5 (2024.1~ 4)	
가구 특성	맞벌이 여부	0.227	0.048	0.285	-0.025	-0.014	
	가구소득(만원)	0.000	0.000	0.001	0.001	0.001 *	
	자녀수	-0.182	-0.323 **	-0.319 *	-0.269 *	-0.342	
부모 특성	부연령	-0.000	-0.007	0.059	-0.009	0.043	
	모연령	0.014	0.018	-0.047	0.019	-0.009	
	부학력	전문대졸	0.158	-0.054	0.192	0.414	-0.370
		4년제졸 이상	0.621	0.105	0.184	0.423 *	-0.156
	모학력	전문대졸	-0.190	-0.204	0.113	-0.323	0.745 **
4년제졸 이상		-0.246	0.152	-0.332	0.017	0.722 *	
지역 규모	중소도시	0.106	0.131	-0.176	0.034	-0.126	
	읍면지역	0.032	0.523 *	-0.147	0.251	0.221	
아동성별		0.197	-0.078	0.132	-0.038	0.078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		-0.485 ***	0.023	0.084	-0.112 *	0.009	
상수		2.879 **	2.355 ***	2.724 **	2.888 ***	1.360	
N		(109)	(194)	(126)	(201)	(107)	

주: Base는 부학력-고졸이하, 모학력-고졸이하, 지역규모-대도시, 아동성별-남아, 맞벌이 가구-외벌이, 코호트-cohort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2~2024'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1세의 경우에는 0세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코호트1(2022.1~4월생)의 경우 0세 시기에는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유의미한 음의 영향이 발견되었으나, 1세 시기에는 음수이기는 하나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부의 학력이 4년제 대졸이상인 경우 충분성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호트2(2022.5~12월생)는 0세 때와 마찬가지로 자녀수가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호트3(2023.1~4월생)은 1세 때에는 자녀수의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코호트3(2023.1~4월생)은 1세 시기 모든 가구특성 변수가 하나도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자녀가 출생당 시부터 부모급여의 적용을 받았던 코호트3(2023.1~4월생)은 1세 때 부모급여 수

급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35만원→50만원)한 코호트로, 가구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충분성 인식 격차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표 VI-3-17〉 코호트별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이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1세

구분		cohort 1 (2022.1~ 4)	cohort 2 (2022.5~12)	cohort 3 (2023.1~ 4)	
가구 특성	맞벌이 여부	0.201	0.057	-0.188	
	가구소득(만원)	-0.000	0.000	0.001	
	자녀수	-0.142	-0.255 **	-0.191	
부모특성	부연령	0.004	0.014	0.022	
	모연령	-0.000	0.016	-0.010	
	부학력	전문대졸	0.433	-0.077	0.576
		4년제졸 이상	0.589 *	0.087	0.484
	모학력	전문대졸	-0.364	-0.395	-0.476
		4년제졸 이상	-0.108	0.146	-0.212
지역규모	중소도시	-0.282	-0.025	-0.036	
	읍면지역	-0.138	0.161	-0.200	
아동성별		0.331 *	0.043	0.082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		-0.144	-0.058	0.164	
상수		2.819 ***	2.037 **	2.437 *	
N		(123)	(211)	(121)	

주: Base는 부학력-고졸이하, 모학력-고졸이하, 지역규모-대도시, 아동성별-남아, 맞벌이 가구-외벌이, 코호트-cohort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2~2024' 원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 사. 시사점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통해 현금급여 지급액이 2022년~2024년에 걸쳐 점차 증가함에 따라, 최근 코호트일수록 부모급여 현금수급액의 양육비용 보전 효과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0세 가구는 부모급여 현금수급액의 비중이 클수록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이 낮아졌으나, 1세 가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0세에서 월 1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되었고 0세는 1세에 비해 가정보육을 선택하여 전액현금으로 부모급여를 수급하는 가구가 많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의 효과는 자녀수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금급여 확대 시에 다자녀 가구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당 양육비용이 감소하면서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의 비중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급여 현금수급액의 비중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은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는 자녀당 양육비용은 감소하지만,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전체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다자녀 가구들은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여러명의 자녀를 양육해야하기 때문에, 한 아동에게 충분한 수준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양육비용 감소 측면에서 아동 가구에 대한 현금급여 정책을 확대할 경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모급여의 현금수급액이 양육비용을 보전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양육비용 충분성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 자체가 낮은 집단은 여전히 양육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부모급여의 현금수급액이 양육비용을 보전하는 효과가 저소득 가구에서 큰 것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용이 고소득 가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으로, 다자녀 가구와 유사하게 저소득 가구들도 자녀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부모급여 제도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양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음을 분명한 사실이나, 여전히 저소득 가구들은 양육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저소득 아동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차등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최근 코호트일수록 부모급여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양육비용 부담 경감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급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부모급여의 제도 효과가 0세에만 집중되어 나타난 것으로 1세에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부모급여의 지급액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의 현금수급액 비중이 증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아동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급여를 확대할 경우 실질적인 지원 수요가 높은 집단에 대한 차등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VII

## 결론 및 정책 제언

- 01 영유아 현금 급여 지원 체계 정비
- 02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 03 연장보육 및 육아시간 지원 제도 실효성 제고
- 04 과도한 시간제 사교육 방지를 위한 지원 강화
- 05 농어촌 영유아 가구 육아 지원 강화



##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 1. 영유아 현금 급여 지원 체계 정비

#### 가. 주요 연구 결과

영유아 가구 대상의 비용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아동수당 지원 제도의 도입으로 아동 급여(현금 급여)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2022년 영아수당과 2023년 부모급여 제도의 도입으로, 영유아 대상의 급여 지원 제도가 현재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의 확대 등에 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에 대한 현금 지원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KICCE 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실제 2024년 기준 0세 부모급여를 수급 받은 코호트(2023년 5월 이후 출생아)의 경우에는 월평균 양육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현금 급여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상대적으로 지원금 많지 않았던 영아수당 수급자(2022년 1월생~2022년 4월생)의 경우에도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 현금수급액 비중은 0.66으로, 상당한 수준의 커버울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모급여 수급 연령이 지나는 만2세(24개월)이상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정부지원금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2023년 이후 높은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또한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2세 이상의 영유아에 대한 현금 급여인 아동수당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아동수당이 영유아의 양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감소<sup>29)</sup>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에 따라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2세이상의 영유아 가구에 있어 현금 급여의 효과는 더욱 감소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9) 아동 당 양육비용이 가장 적은 2세 기준 현금 급여 커버울은 2018년 0.17, 2019년 0.17, 2020년 0.19, 2021년 0.16, 2022년 0.17, 2023년 0.14, 2024년 0.14임. 단, 이 수치는 10만원(아동수당수급액)/평균 양육비용으로 단순 산출한 수치임.

한편, 부모급여의 효과성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급여 수급 대상 안에서도 현금급여액의 효과는 상이한 결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현금 급여의 지원은 양육비용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 가구에서 좀 더 경감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양육비용의 충분성 인식에서는 여전히 좀 더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부모급여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 가구의 아동들에 대한 투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 영아기 현금 급여(부모급여) 지급이 가정 내 양육 비중의 증감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세 이하 영아의 기관 이용률은 부모급여가 도입된 2023년을 전후하여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육아정책연구소, 2025)<sup>30)</sup>. 또한 이 연구의 심층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육비용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양육비용 충분성에 0세의 경우 오히려 음의 영향이 발견되었으며, 1세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시 말해, 영아 가구의 경우 현금 급여 수급액의 수준보다 가구 특성이 양육비용 부담에 훨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나. 정책 방안

### 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지원 수준 격차 축소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기 내에서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현금 급여의 지원 체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정책 변화에 따라 출생코호트별로도 각기 다른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제도 활용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이전에 비해 현금 급여 지원액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유아 가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할 때, **영유아기 현금 급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해 보인다. 기관(혹은 서비스) 이용 형태와 무관하게 총액 기준으로 동일한 지원금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영유아기 전 연령의 비용 지원 체계를 부모급여 형태로의 제도 전환도 검토

30) 0세 어린이집 이용율은 2022년 24.9%, 2023년 25.7%, 2024년 25.5%이며, 1세의 어린이집 이용율은 2022년 86.2%, 2023년 89.2%, 2024년 89.8%임(육아정책연구소, 2025: 31).

해볼 수 있으나, 현행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따라 보육료 및 누리과정지원금 등의 관리부처(교육부)와 아동 급여 주무부처(보건복지부)가 달라짐에 따른 혼선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지점이라 판단된다. 또한, 2세이상의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 시기 현금 급여의 인상은 사교육비 등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최효미 외, 2023: 209~222)을 고려하면, 아동 월령(연령)에 따라 2개의 현금 급여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는 한다. 다만, 큰 틀에서 현금 급여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비용 지원 체계를 좀 더 명료한 형태로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이때,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유아학비 포함)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이 연구가 아닌 최근 유보통합 과정에서 보육·교육서비스 비용 지원 체계(기관 지원금 포함)<sup>31)</sup> 개편에 대한 논의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단, 무상보육·유아교육 도입 시점에 기관 미이용자, 즉 가정 내 보육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졌던 현금 급여인 **가정양육수당은 현금 급여로서의 성격이 명백한 바, 아동 급여 지원 체계에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급여액 증액은 그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착안할 때, **영유아기 현금 급여의 지원금 수준을 연령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2)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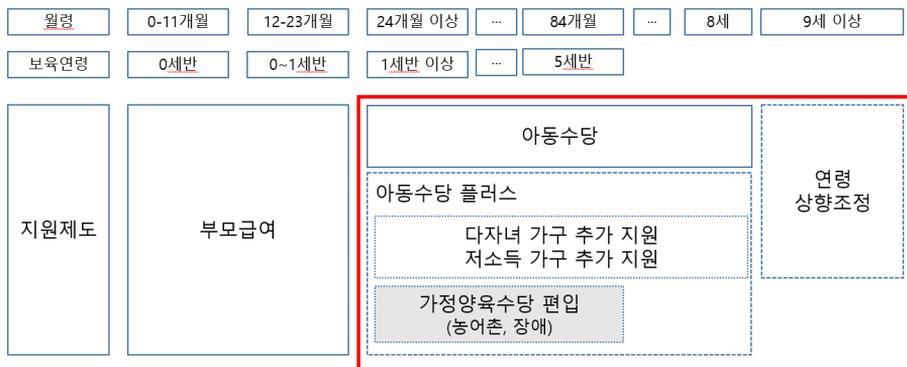
앞서 연구 결과와 여러 차례 제안된 바와 같이 영유아 가구 내에서도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아동당 투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특징이 있다. 아동 대상 현금 급여의 목적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통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보건복지부, 2025a: 3)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앞서 심층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경우 현금**

31) 표준 보육비용, 표준 유아교육비, 부모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지자체의 특수보육시책 지원금 등은 무상보육·유아교육과 연동되는 사항임.

급여의 효과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크다는 점 또한 ‘아동수당 플러스(가칭)’의 추가 신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정양육수당 제도의 경우 명백한 현금 급여의 성격을 가지지만, 무상 보육·유아교육 제도 도입 당시 기관 미이용자에 대한 보충적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 폐지 혹은 아동수당으로의 편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효미 외(2023: 209~222) 등에 따르면, 유아기 아동에 대한 현금 급여의 지원액 인상은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족했던 교육에 대한 투자 증가로 해석할 여지도 있기는 하나, 유아기 아동에게 사교육비 투자를 지금보다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때, 가정양육수당은 제도 변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 사료된다.

[그림 VII-1-1] 아동 대상 현금 급여 지원 체계 정비 방안



주: 1) 최효미 외(2024a). [그림 IX-2-1]을 수정 보완한 것임.  
 2) 실선은 현행 아동 대상 현금 급여 제도, 점선은 이 과제에서 추가적으로 제안한 지원 제도를 의미하며, 굵은 선은 아동수당 제도에 포괄되는 제도임을 뜻함.

다만, 가정양육수당이 폐지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정양육수당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집단인 농어촌 영유아 가구와 장애아동<sup>32)</sup>에 대해서는 아동수당플러스(가

32) 2025년 기준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이상 가정내 양육을 하는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되는데, 농어촌 양육수당은 월령이 24~35개월의 경우 월 15만6,000원, 36~47개월은 12만9,000원을 지원함. 24~35개월 장애영유아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을 지원함(보건복지부, 2025b: 320)

칭) 지원 제도에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농어촌 영유아 가구와 장애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 가구와 비슷하게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 3) 물가상승에 연동되는 현금 급여 지원 체계 마련 필요

높은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실질적인 양육비용 부담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1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2023년 도입되면서 아동수당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 상황으로, 0세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수준이 평균 양육비용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커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2세 이상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원만 이뤄지면서, 양육비용 대비 현금 급여 비중이 0.2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 실질 비용 산출시 활용한 각 년도의 물가상승분<sup>33)</sup>을 감안하면, 아동수당 지원금은 2018년 10만1,235원의 가치(실질비용)가 있었지만, 2024년에는 8만7,237원(실질비용)으로 하락한 상태이다. 아동당 양육비용(명목비용 기준)은 2018년 65만9천원에서 2024년 78만5천으로 증가한 상태로, 물가상승에 따른 지원금의 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은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세 이상의 영유아에 대한 현금 급여액의 인상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사료된다. 아동 대상 현금 급여액 수준은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하되 다분히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준보육비 혹은 표준유아교육비, 최저생계비 등의 산출 방식과 같이 실질적인 양육 필요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비용을 산출한 후, 이에 근거하여 지원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렇게 산출된 급여 지원 수준은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조정되는 방식으로 적정 지원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병

33) 2020년=100 기준 2018년 98.78, 2019년 99.44, 2020년 99.59, 2021년 102.12, 2022년 108.15, 2023년 111.19, 2024년 114.63이 적용됨(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18.01, 2024.12.,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20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2003&conn_path=I3) (인출일: 2025. 9. 25.).

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물가가 하락하는 시기라고 해서 기존에 지원하던 급여의 수준을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급여 수준에 대한 조정을 어떤 주기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속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 가. 주요 연구 결과

2024년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은 명목비용 기준 149만8천원으로 2023년 150만6천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실질비용 기준 전년보다 4만7천원이 감소한 130만7천원이었다.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명목비용)도 2024년 78만5천원으로 2023년 80만7천원에 비해 2만2천원이 감소하였다. 통상 가구소득이 상승하는 추세<sup>34)</sup>에 맞추어 양육비용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2024년 양육비용이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가계 생활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상승한 것<sup>35)</sup>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증가는 가파른 물가상승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즉, 생활비 명목비용은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나, 실질 생활비 총액은 2023년 339만5천원에서 2024년 339만1천원으로 오히려 소폭 하락한 상황으로, 영유아 가구들이 2023년과 2024년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영유아 가구들은 기존의 가구 전체 생활비 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비 지출 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양육비용을 소폭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2024년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감소는 양육 부담 완화의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영유아 가구들의 엔젤지수는 상승하고, 엔젤지수는 감소하는 현상을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되는 내용이다.

34) 2024년 가구소득(명목비용 기준)은 579만7천원으로, 2023년 560만1천원에 비해 19만6천원이 상승하기는 했음.

35) 2024년 생활비 지출 총액(명목비용 기준)은 388만8천원으로, 2023년 대비 11만3천원이 상승함.

한편, 일반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도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되는데, 2024년 2세의 양육비용이 0세나 1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24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전반적으로 2023년보다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1세의 경우에만 2023년 대비 2024년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1세의 양육비용은 2023년과 2024년이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0세와 1세의 경우 필수 육아용품의 구매 등을 위해 양육 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용 자체를 줄이기 어려운 현실 때문인지, 높은 부모급여액 지원에 따른 부담 경감(아동에 대한 투자 증가)에 따른 영향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2024년 높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0세와 1세의 경우에는 높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용 부담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완충된 것으로 보여진다.

생활비 지출 부담과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육비용 절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면, 교육보육비와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의 감소가 큰 편이었으며, 피복비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6)</sup>. 반면, 식비나 개인유지비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교육보육비의 감소가 어떤 요소의 영향인지를 좀 더 살펴보면, 시간제 사교육서비스의 경우 이용 비중이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며<sup>37)</sup>, 월평균 이용비용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용은 2024년 기준 어린이집 8만원, 유치원 13만 1,000원으로, 2023년 대비 어린이집은 4,000원이 상승한 데 반해, 유치원은 2,000원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반일제이상 학원의 이용 비용도 2023년 125만1천원에서 120만3천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4년 영유아의 교육보육비 감소는 유치원 이용비용의 감소가 가장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비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299만이하인 저소득 가구들은 전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해, 다른 구간에서는 양육비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sup>38)</sup>. 이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가계 생활비 지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양육비용을 조정(감축)하기 어려웠던 상

36) 영유아1인당 양육비용 기준 교육보육비는 1만7,000원, 여가 및 문화생활비는 1만5,000원이 감소함.

37) 오히려 시간제 사교육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은 2023년 59.3%에서 2024년 57.7%로 감소함.

38)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이 2024년에도 뚜렷하게 발견됨.

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기존에도 필수 육아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만 이뤄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내포한다. 따라서,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전반적으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의 부담은 훨씬 더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어 우려된다.

## 나. 정책 방안

### 1) 육아 필수재 물가 관리를 위한 기업 지원 강화

전반적인 생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육아 필수재의 물가 상승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025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여파나 세계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올해 양육비용 부담은 2024년에 비해서 더욱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종식으로 2024년 혼인율이 소폭 반등하였으며 후속적으로 출산율 감소세가 2025년 반등하는 상황<sup>39)</sup>에서 높은 양육비용은 출산율 반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높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육아용품 시장의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물가 관리 항목으로 필수 육아용품으로 분유, 이유식 등 11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주로 생애초기 육아 생필품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다행히도 관리 품목에 들어있는 육아용품 11개의 물가상승률은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유치원납입금의 물가상승률은 2024년 65.38(2000년=100기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sup>4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주로 많이 먹는 우유는 123.74, 치즈는 138.27 등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유아동복 117.60, 아동화 114.59 등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sup>41)</sup>.

39) KOSIS, 인구, 출생,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tblId%3DDDT\\_1B81A21%26orgId%3D101%26checkFlag%3DN%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tblId%3DDDT_1B81A21%26orgId%3D101%26checkFlag%3DN%26) (인출일: 2025. 10.30).

40) KOSIS, 소비자물가지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3%26tblId%3DDT\\_1J22112%26orgId%3D101%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3%26tblId%3DDT_1J22112%26orgId%3D101%26) (인출일: 2025. 10.30).

예컨대, 우유 원유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분유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나, 육아 필수품인 분유의 경우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혹은 가격 관리 정책 등을 통해 분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을 검토해 볼 직할 것이다. 실제 필수 육아용품으로 물가 관리 품목에 들어간 다수의 물품은 생애 초기 사용하는 물품인데, 생애 초기 영유아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부모급여뿐 아니라 첫만남 이용권 등 2세 이상 영유아기에 비해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영유아 가구 대상의 정부지원금이 아동에 대한 지출(투입액) 감소를 일부 완충하고 있기는 하나, 현금 급여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가격 인상을 견인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현금 급여와 같은 확장적 정책보다는 좀 더 간접적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육아 필수재의 가격 관리를 위한 기업 지원은 세제 혜택이나 원자재 가격 보조 등의 방식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직하다고 사료된다. 통상 육아용품은 육아용품만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지 않고, 기업의 여러 가지 생산품 중 육아용품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이다. 예컨대, 우유를 만드는 기업에서 분유를 만들거나, 화장품 회사에서 베이비로션도 생산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당 육아용품의 생산량 등과 연동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최근 한 자녀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고사양의 육아용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육아용품은 판매량이 많은 베스트 상품 등과 같이 실질적인 영유아 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즉, 정부 지원의 저사양 육아용품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외면당할 위험이 높아, 실질적인 양육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1) KOSIS, 소비자물가지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3%26tblId%3DDT\\_1J22112%26orgId%3D101%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3%26tblId%3DDT_1J22112%26orgId%3D101%26) (인출일: 2025. 10.30).

## 2) 저소득 가구 지원

한편, 높은 물가 상승에 따른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는 시장 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나, **저소득 가구 영유아의 경우에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물가 관리를 통한 가격 조정 및 양육비용 부담 완화는 일정 정도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저소득 가구 영유아의 보호가 적기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영유아 가구가 양육비용을 소폭 감소시킨 데 반해,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경우 가계의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양육비용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로 지출을 조정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용이 이전에도 필수재 위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높은 물가 상승은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뿐 아니라 가계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앞서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등을 통한 현금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물가 상승이 큰 시기에는 육아 필수재 중심으로 직접적인 물품 지원 등의 방식도 검토해 볼 직할 것이다.** 영유아 가구 입장에서는 현금 지원을 훨씬 선호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아동의 생존권 보호 및 타겟 집단에 대한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고려한다면, 현물 지원 방식도 효과적인 정책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통상 육아용품의 현물 지원은 생애초기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예: 분유, 기저귀, 베냏저고리 등) 위주로 구성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육아용품은 **유아기 아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유아기 아동의 경우에는 피복, 완구, 도서, 유아용 간식, 이유식 등 월령에 맞는 필수 물품으로 구성된 현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에 대한 물품 지원은 영유아 가구의 접근성 및 낙인효과 발생 방지 등을 고려할 때 **배송서비스 등을 겸하는 형태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연장보육 및 육아시간 지원 제도 실효성 제고

#### 가. 주요 연구결과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이용률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이용시간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024년의 주당 이용시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36.9시간으로, 2023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주당 이용시간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2024년 실시된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유치원보다 약간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최효미 외, 2024b: 212).

그런데, 실제 이용시간과 달리 어린이집과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한 응답은 88.8%였으며,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6.0%, 줄이고 싶다는 응답이 3.2%였다. 특이한 점은 이용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맞벌이 가구(5.3%)보다 외벌이 가구(6.7%)에서 좀 더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지금보다 이용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는 응답은 맞벌이 가구(5.6%)에서 외벌이 가구(0.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외벌이 가구의 실제 기관 이용시간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어린이집은 주당 평균 0.8시간, 유치원은 0.5시간이 짧은데,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맞벌이 가구는 주당 어린이집 6.9시간, 유치원 5.6시간을 응답하였고, 외벌이 가구는 어린이집 5.2시간, 유치원 5.5시간을 응답하였다. 외벌이 가구는 약 하루 1시간 정도 이용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상황으로, 현재 맞벌이 가구들이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하루 약 8시간) 정도는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맞벌이 가구들은 현재 어린이집 하루 평균 7.8시간, 유치원 7.6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보다 약 1시간가량 더 길게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부모의 근로시간만큼 기관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대로, 기관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기관 이용시간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고(65.2%), 10시간 이상 12시

간 미만 이용하는 경우가 17.4%로 다음이었다. 즉, 현재 기관 이용시간이 8시간 이상인 장시간 보육의 경우 영유아 부모들도 대체로 아동의 기관 이용시간이 줄어들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31분, 유치원은 7시간 20분으로(최효미 외, 2024b: 21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희망 등원시각은 8:31~9:00가 5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기는 하나, 8:30 이전에 등원하기를 희망하는 비중도 28.2%로, 실제 이 시각 등원 비율 18.4%보다 9.8%p가 높았다(최효미 외, 2024b: 215). 한편, 희망 하원 시각의 경우에도 17:31이후 하원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31.9%로, 실제 이 시각 하원 비율 13.2%에 비해 18.7%p가 높았다(최효미 외, 2024b: 215). 특히 하원시각이 18:00-19:00이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전체 기준 11.3%였으며, 19:00이후 하원을 희망하는 비중도 3.8%에 달했다(최효미 외, 2024b: 215).

그런데, 이 연구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육아휴직 등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활용 상황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용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었다. 이에 반해 가족돌봄휴가 등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유연근무제 활용률도 2024년 기준 10% 이하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1년과 2022년에는 유연근무 중에서도 재택근무 활용률이 각 14.5%와 12.6%였으나, 이후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재택근무 활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별로 조금씩 상이하긴 하나, 전반적으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sup>42)</sup> 반면,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경우에는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라는 응답 비중이 다음으로 30% 중반대가 여기에 응답하였다. 가족돌봄휴직 미이용 사유는 '제도는 있지만 대상자가 아니어서'나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가 육아 가구

42) 다음으로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오나, 이는 외별이 가구가 이에 응답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임.

로 한정되는 데 반해, 유연근무 제도는 회사 내 모든 근로자가 활용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차이로 보인다. 그런데, 유연근무나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가 자녀 돌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질문한 문항에서 모든 제도가 4점대 후반(5점 만점 기준)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영유아 가구들은 개선이 필요한 육아시간 지원 제도로 2024년 기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51.6%)<sup>43)</sup>, 육아휴직(46.5%), 유연근무(41.5%), 가족돌봄휴가/휴직(41.2%) 순으로 응답하였다. 각 제도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자격 해당자의 제도 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육아휴직은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의 개선 요구가 가장 높았다. 유연근무 제도의 경우 '자격 해당자의 제도 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 나. 정책 방안

### 1) 아침돌봄 및 저녁돌봄, 연장보육 이용 편의 증진 필요

앞서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 가구들은 현재 이용시간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현재 이용시간이 좀 더 길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은 하루 7시간 남짓인데, 희망이용시간은 하루 8시간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본보육시간 및 방과후 과정 시간 등이 7시간 남짓인 것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장보육 등을 이용할 수 있어 17시 이후에도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장보육 이용에 제약이 생겨 희망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보다 이용시간을 더 늘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아이의 장시간 기관 이용을 꺼려하는 것과 아이가 혼자 남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하루 8시간 정도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은 영유아 부모들의 이용 편의를 생각하여, **희망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3) 1+2순위 기준.

2025년 유보통합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본운영 시간을 9:00~17:00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 2025. 3.). 이는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기본보육시간에서 1시간이 길어진 것이며, 유치원의 경우는 방과후 과정(3~4시간)이 기본운영시간에 포함되는 형태로의 조정이다. 이 연구 및 보육실태조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유보통합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기본운영시간은 평균 이용시간 상으로는 부모들의 요구 수준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원시각 및 하원시각과 관련하여서는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는 좀 더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44)</sup>. 이러한 돌봄 수요는 아침돌봄(7:30-9:00)과 저녁돌봄(17:00-19:30) 지원을 통해 보완한다는 것이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기본 모형으로, 이에 대한 추가 인력 배치를 통한 촘촘한 돌봄 지원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요가 있는 모든 기관에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인건비) 소요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인력 추가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본운영시간은 9:00~17:00로 정리되면서, 오히려 영유아 부모들의 기관 이용에 제약이 심화할 위험이 있다. 요컨대, 안정적인 아침돌봄 및 저녁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함께 영유아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시간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I-3-1] 유보통합 시범학교의 운영 시간 구성



자료: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2025.3.).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계획.

44) 영유아 부모들은 8:31-9:00 등원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하원 시각 또한 17:00 이후인 비중이 36.0%에 달함(최효미 외, 2024b: 215).

아침돌봄 및 저녁돌봄의 경우 애초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목표대로 충분한 인건비 지원을 통한 추가 인력이 배치되면 가장 좋겠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돌봄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의 모색이 시급히 요구된다. 예를 들면, 지역의 돌봄 거점 기관의 지정, 설치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돌봄 거점 기관은 지역 내 돌봄 수요를 감안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영유아의 이동 등을 고려한 연계서비스(예: 픽업 등)와 양질의 돌봄 제공을 위한 지원(시설 환경 및 돌봄 프로그램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유아기 아동의 경우에는 기본운영시간 이후(하원 후) 사교육서비스나 개별돌봄서비스 등을 병행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점 기관의 설치가 정책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기관 돌봄서비스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 2)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영유아 가구의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도 기관 이용시간이 현재보다 더 길어지기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를 더욱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들의 육아시간 제도 활용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는 제도 자체가 아직 회사에 도입되지 않았거나 제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제도 활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주 4.5일제 근로 혹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앞서 기존의 육아시간 지원 제도 혹은 유연근무 제도 등의 현장 안착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라 사료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시간 지원 제도 관련 개선 방안은 각 제도별로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제도의 의무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 등 이용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해 보인다.

이때,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육아 가구만이 아닌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점이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업종(산업) 및 직종의 특성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법적 강제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등의 제도는 부모 모두가 활용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모)이 사용한다는 인식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 강제가 오히려 여성 고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으며, 대체 근로자로 채용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즉,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확장은 그 방향성과 목적 자체에는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확대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경우 모든 제도의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일자리의 업종 및 직종,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한 매우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정책들 중에서 기업들이 근로자와 함께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의 육아시간 지원 제도를 최소한 하나씩은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좀 더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또, **육아시간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는 등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4. 과도한 시간제 사교육 방지를 위한 지원 강화

### 가. 주요 연구 결과

최근 ‘7세 고시’라는 말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영유아 조기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의 문제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유아 가구 대상 대표 승인 통계 자료인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2024)’의 결과를 통해 검토해본 결과에서도,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자는 2018년 3.8%, 2021년 3.6%에 이어 2024년 3.0%로 감소세를 보였다(최효미 외, 2024b: 199).

따라서, 영유아 가구 전체의 사교육비 부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일제이상 학

원 이용 현황보다는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좀 더 면밀히 고찰해보는 것이 주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기 시간제 사교육은 주로 예체능 교과는 단시간 학원, 학습(한글 포함) 관련 교과는 방문형 학습지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시간 학원과 학습지 이용률은 해마다 등락을 반복하긴 하지만, 2024년 단시간 학원 23.2%, 방문형 학습지 11.9%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비용은 2024년 기준 20만7천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형 학습지는 2024년 9만9천원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인 2022년 이후 계속 유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효미(2024)는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제 사교육 이용 기관별 현황이 아니라 영유아 단위로 시간제 이용 현황을 산출해 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동 생활연령별로 시간제 사교육을 하나라도 이용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0세 3.2%, 1세 18.3%, 2세 16.3%, 3세 23.9%, 4세 44.3%, 5세 64.3%, 6세 83.8%였다(최효미, 2024: 6). 즉, 보육연령 기준으로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시간제 사교육 이용이 증가하고, 4세와 5세(취학전 1~2년 전) 시간제 사교육 이용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생활연령 6세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이 2018~2022년에는 70% 전후<sup>45)</sup> 수준에 그쳤으나, 2023년 83.8%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 변화로, 다른 연령에서는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이와 같이 이용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최효미 외, 2024a: 7). 영유아 당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 또한 다른 연령에서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소폭 감소하는 경향도 보이는데 반해, 6세의 경우에는 평균 4만원가량이 상승하며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최효미, 2024: 8).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에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이나 이용비용이 다른 소득 구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최효미, 2024: 9~11).

문제는 이러한 시간제 교육서비스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 만족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부담됨 + 매우 부담됨)는 비중이 31.5%, 보통이 48.9%로 전반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로

45)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은 59.1%임.

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47.6%)’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24.5%)로 응답하였다<sup>46)</sup>. 즉, 영유아 부모들이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기존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 나. 정책 방안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생각할 때, 사교육 서비스의 근절이나 축소는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과도한 사교육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부모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영유아 가구들이 하고 있는 시간제 사교육이 영유아에게 과도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분명한 것은 영유아 부모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이 제공하는 기본보육·교육과 특별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취학 1년 전에는 추가적인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정부 기관이 나서서 의도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기 어렵고, 그렇다고 시간제 사교육을 단속이나 규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음성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도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감소를 유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기관 이용시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녁돌봄 시간 등에 단순한 돌봄(그냥 지켜봄)이 아닌 아동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그램(놀이 프로그램 포함)의 제공** 등을 통해 시간제 사교육으로의 이동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저소득 가구들조차 사교육비 부담에도 사교육 이용을 시작하는 것은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또래보다 뒤쳐질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깊게 깔려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집단(저소득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에는 학습지 지원 등을 통한 지원이 시간제 사교육 이용을 감소시키는 단초가**

46) 2024년 기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EBS 등 공공 방송 콘텐츠도 대체 서비스로 유용하기는 하나 일방향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선호는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의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농어촌 영유아 가구 육아 지원 강화

### 가. 주요 연구 결과

지역 소멸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의 영유아 가구 및 유소년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는 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다<sup>47)</sup>. 즉, 농어촌에는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는 숫자는 적으나 다자녀 가구인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농어촌 지역 영유아 가구들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육아 수요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를 부스터 표본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농어촌 영유아 가구들은 본조사 표본에 비해 가구소득과 가계 지출이 낮고, 양육비용 또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부스터 표본)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69만9천원으로 본조사 표본 78만5천원보다 8만6천원이 적었다. 그런데 비목별로는 완구 구매비, 보험료 등은 농어촌(부스터 표본)의 지출이 유의미하게 더 많았고, 교육/보육비는 유의미하게 적은 특징이 있었다. 지출액 기준으로 가장 큰 편차가 발생한 비목은 교육/보육비로 농어촌(부스터 표본)은 평균 9만원을 지출하는 데 반해, 본조사 표본은 18만2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양육비용 지출액이 낮기도 하지만, 농어촌(부스터 표본)은 본조사 표본에 비해 부담되는 비목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 농어

47) KOSIS, 인구, 인구총조사,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자녀수별 가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A12\\_2015\\_1\\_10\\_60%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BC1601%26vw\\_cd%3D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A12_2015_1_10_60%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BC1601%26vw_cd%3D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인출일: 2025. 10. 30).

촌(부스터표본)은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72.2%로 본조사 표본 57.9%보다 확연히 높아 주거비 부담 또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농어촌(부스터표본)은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과 관련하여 모든 항목에서 본조사 표본보다 낮게 응답되었는데, 특히 보건/의료시설의 충분성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부스터표본)의 보건/의료서비스 충분성은 평균 점수가 7점 만점에 2.4점(분만 가능 산부인과)~3.9점(약국)으로 전체적으로 보통 이하 수준을 보였다. 반면, 본조사 표본은 3.8점(분만 가능한 산부인과)~4.9점(약국)으로 보통 이상~충분한 편으로 응답되어, 지역간 큰 편차를 보였다. 다음으로 문화,놀이시설 및 서비스와 지역공동체 및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표본 사이에 비교적 큰 편차가 존재하였다.

반면,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4점대)의 충분성을 보였다.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중에서는 긴급돌봄서비스(3.3점), 학원 등 사교육기관(3.4점)과 개별돌봄서비스(3.4점) 등이 낮은 충분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심층 면담 결과에서도 농어촌 영유아 가구들은 전반적으로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데 반해, 보건/의료 서비스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아플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육아 어려움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충분성의 격차가 가구 특성 등에 기인한 차이인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차별인지를 오하카 요인분해(oaxaca decomposition)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차별적 요인이 차이적 특성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가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보건/의료 시설의 경우에는 차별적 특성이 96.7%에 달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가 직면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잘 알 수 있었다. 다만,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충분성의 경우에는 차이적 특성이 52.7%, 차별적 특성이 47.3%로, 영유아 가구의 차이적 특성이 좀 더 큰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주 지역의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가 불충분한 이유로는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급량 자체가 적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런데, 농어촌 영유아 가구 대상 심층 면담 결과에 따르면,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가 부족

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해서라기보다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선택할 수 있는 만큼 공급량이 많지 않다)이 주로 지적되었다. 또,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실제 공급량 자체가 많지 않고,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이 나빠 아이가 다치거나 애플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 한편,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는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역 생활 권역까지 나가야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주로 언급되었다.

이때, 농어촌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라 하더라도 한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생활 권역 자체가 인근 도농복합지 혹은 도시지역으로 확장이 용이한 편으로 선택의 다양성이 낮다거나 서비스의 질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데 반해,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시설이나 서비스도 이용 자체가 어려워 공급량 자체가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어촌 영유아 가구들은 전반적으로 좀 더 광범위한 영역의 생활 권역까지의 접근성 제고와 이용 편의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육아 어려움으로는 일자리 부족(3.4점), 자녀의 또래 친구가 많지 않음(3.3점),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인식 부족(3.3점),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 및 안전, 치안의 열악함(3.2점), 육아용품 구매의 어려움(3.4점)으로 모든 부문에서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반대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것의 장점으로는 아이의 신체 건강이나 정서 발달에 좋은 자연친화적 환경(71.6%)<sup>48)</sup>, 낮은 주거 비용 부담 및 생활비 부담이 적은 것(43.8%) 등이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 나. 정책 방안

### 1)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긴급돌봄서비스 연계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영유아 가구들은 육아지원 인프라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혹은 접근성 제고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 자체가 아예 없거나 심각하게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데, 특히 소아과 등의 병원 이용조차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이가 급작

48) 1+2순위 중복응답 기준

스럽게 아프게 되는 경우에 대해 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는 도시 지역에서도 다른 육아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에 비해 충분성이 낮게 나타나는 지표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 최근 지역소멸 대응기금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SOC투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sup>49)</sup>, 인프라 중심의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국 영유아 가구들이 농어촌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중증의 질환 및 응급 상황에서는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공급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농어촌 영유아 가구들이 해당 의료기관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수단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 감기 등 일상적이거나 경증의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확충은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제도로, 고령의 어르신 돌봄 혹은 어린이집 순환 간호사 지원 제도와 같이 **이동형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이들의 치과 진료 혹은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이와 같은 이동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체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어촌 가구들은 **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아 자녀 중 한 명이 아파서 원거리의 의료기관으로 부모가 동행할 경우 다른 자녀들이 돌봄 사각에 놓이는 어려움이 병존**하는 상황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긴급돌봄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농어촌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마을 주민 간 유대감은 강한 편이지만, 고령 인구가 워낙 많은 상태로 긴급 상황에서 마을 돌봄도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잦다. 따라서, **거점 보건/의료기관 인근 등에 환아의 다른 형제자매를 돌봐줄 수 있는 긴급돌봄 기관(혹은 서비스)을 함께 확충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4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에 추가 인센티브…성과 중심 개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713> (인출일: 2025. 10. 30).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중형 병원 인근 혹은 병원 내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아이돌보미를 센터로 파견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을 돌봄 사업**<sup>50)</sup> 등의 **농어촌 확산** 등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2) 생활권역을 고려한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진 및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농어촌 영유아의 경우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면담에서는 친환경적인 거주지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기에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높았다. 이는 주변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되지 않은 아이들의 놀이공간(예: 도로변)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박물관이나 체험 공간 등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있는 소수의 기관을 반복적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낮아, 생애 초기 농어촌 지역 영유아 등의 문화적 경험에 제약이 초래되고 있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공공시설 및 공용 공간 등을 활용한 복합 문화시설을 좀 더 촘촘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정주 인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동만을 위한 시설을 여러 개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연령이 함께 이용하되 영유아들도 안전하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소규모 다용도 공연장, 도서관, 실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을 공유) 또는 다목적 공공 시설의 확충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사료된다.

한편, 같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인근 도농복합지 혹은 도시지역(생활권역) 내 문화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으나 문화적 소외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문화적 지원은 행정구역상 거주 지역을 넘어서는 **광의의 생활권역을 감안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거주지역에서 인**

50) 예)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공동체(공동체별 5인 이내) 등이 월 30시간 이상의 아동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 1인당 월20만원 지급. (경기도뉴스포털,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11291019313707C048&s\\_code=C109](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11291019313707C048&s_code=C109), 인출일: 2025. 10. 14)

근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sup>51)</sup>.

반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자녀의 돌봄 문제 혹은 다자녀가 한꺼번에 이용함에 따르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생활권역 내 문화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므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문화시설 이용의 편의성뿐 아니라 일부 비용 보조 등의 추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모두 상이할 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주민에게 제한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이다(최효미 외, 2020). 이에 따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가 인근 다른 지자체의 어린이 문화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인근 최소한 농어촌 거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좀 더 완화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영유아 가구가 서울의 어린이 박물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이용 자격을 부여하거나 입장료 등을 감면해 주는 것, 주차장 우선 이용 및 주차비 할인 등을 적용해 주는 등의 연계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경기도 내 체험 시설(예: 농촌 체험 등)을 서울시 거주 다자녀 영유아 가구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자체 간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3) 교통 및 이동 서비스 지원 강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예: 마을 버스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목적지(예: 어린이집, 병원 등)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에서 고령의 어르신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이동편의(동행)서비스 지원 제도 등을 운영 중인데<sup>52)</sup>, 이와 유사하게 **농어촌 지역 영유아 가구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검토해 볼 직하다.** 단, 영유아 가구들은 거동이 불

51) 교통 편의에 대한 논의는 3)에서 다룸.

52) 예1) 성남시 부름카 서비스: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의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을 돕기 위해 '부름카' 서비스 제공 (출처: 성남복지이음, <https://www.snbokji.net/8087>, 인출일: 2025. 10. 14).

예2) 인천 강화군 건강드림카 사업,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yor/bbs/bbs/MsgDetail.do?msg\\_seq=16271&bcd=report](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yor/bbs/bbs/MsgDetail.do?msg_seq=16271&bcd=report) (인출일: 2025. 10. 14).

편한 어르신 이동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 만큼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는 형태의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유아 가구가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찾아가기 위한 교통 서비스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 이용 및 문화 체험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으로 **찾아오는 적극적 서비스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지역으로 찾아오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치과 진료 서비스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찾아오는 공연(인형극, 놀이 활동 등), 이미 시행 중인 이동식 도서관 서비스 등의 확대, 강화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앞서 취약계층(저소득 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교육보육비 부담 경감 방안으로 제안된 비대면 교육활동 및 서비스 지원도 검토해 볼 직하다고 사료된다. 농어촌 영유아 가구들은 영유아기에는 교육보육비 지출이 도시 지역 영유아 가구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없고 서비스 제공 기관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심층면담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아동이 취학한 이후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양질의 교육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 영유아 가구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의 비대면 교육활동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다양한 **예체능 활동에 대한 방과후 활동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우수한 교사들은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농어촌 지역의 수업을 꺼려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적 지원을 통한 교사 확보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정책 홍보 및 육아커뮤니티 활성화

농어촌 영유아 가구 심층 면담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영유아 가구들은 육아지원 정책을 접하는 창구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공동체에는 영유아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동네에서 좀처럼 이러한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자체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예: 군청 등) 방문이 적은 영유아 가구들은 정보 자체를 접할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영유아 가구들은 어찌

다 도로변에서 보게 된 현수막 등을 통해 정책을 인지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아이가 보육·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기관을 통해 제도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기관에서 제공되지 않은 정보(예: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를 시기를 놓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농어촌 영유아 가구 대상의 육아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출생신고 당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여 정책 활용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정부 245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는 지역별 출산지원 정책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안내<sup>54)</sup>도 이뤄지고 있어 기본적인 사항은 이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영유아 가구들이 이에 대한 인지가 낮아, 시스템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권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탑재되지 않은 단발성의 지자체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원스톱서비스 가입 당시 추후 다른 지자체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은지 등 사전 동의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도 지자체 단위에서 SNS나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는 등 젊은 부모들에게 익숙한 매체를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안내와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53)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인출일: 2025. 10. 14).

54) 2025년 10월 기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검색되는 지자체의 출산지원 정책은 649개이며, 다자녀 가구 지원은 432개임.



## 참고문헌

-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2025. 3.).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계획.
- 김태홍(2013).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현황과 요인 분해, 여성연구, 84(1), 31-61.
- 보건복지부(2023). 2023 부모급여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부모급여 사업안내(개정판).
- 보건복지부(2025a). 2025 아동수당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5b). 2025년 보육사업안내.
- 육아정책연구소(2025). 2024 영유아 주요 통계.
- 최효미(2016).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의 임금 격차에 관한 연구 -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를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13(1), 71-92.
- 최효미(2024).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변화 추이와 특징. 이슈페이퍼 2024-03.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강은진·조미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나영·조미라·김태우·장경희·김병철(2024a).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은설·최윤경·김동훈·김지현·김자연·조혜주(2024b). 2024년 전국보육 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박은정·엄지원(2020).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조미라·우석진·김태우(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 Blow, L., Walker, I., Zhu, Y.(2005). Who Benefits from Child Benefits?. Economic Inquiry, 50(1). pp.153-170.
- Edmonds, E.(2002). Reconsidering the labeling effect for child benefits: evidence from a transition economy. Economics Letters, 76. pp.303-309.

- Jann, B(2008)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The STATA Journal 8, No.4, 453-479.
- Jones, L., Milligan, K and Stalile, M.(2019). Child cash benefists and family expenditures: Evidence from the National Child Benefi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52(4). pp.1433-1463.
- Kooreman, P(2000). The Labeling Effect of a Child Benefit System. American Economic Review, 90(3). pp.571-583.
- Raschke, C.(2012). The Impact of the German Child Benefit on Child Well-Being. IZA Discussion Paper, 6980. pp.1-60.
- Raschke, C.(2015). “The Impact of the German Child Benefit on Child Household Expenditures and Consumption,” German Economic Review, 17(4). pp.438-477.

[보도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보도자료(2025. 5. 20.). 농어업위,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1. 12.).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 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 통계청 보도자료(2025. 5. 29.).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91561> (인출일: 2025. 8. 14.).

[인터넷자료]

- 경기도뉴스포털, 아동돌봄 기회소득 올해 마지막 신청 접수 놓치지 마세요.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11291019313707C048&s\\_code=C109](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11291019313707C048&s_code=C109) (인출일: 2025. 10. 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에 추가 인센티브...성과 중심 개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713> (인출일: 2025. 10. 30.).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 이동 지원 '부름카' 서비스 확대 운영. <https://www.snbokji.net/8087> (인출일: 2025. 10. 14.).

- 인천 강화군 건강드림카 사업,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yor/bbs/bbs\\_MsgDetail.do?msg\\_seq=16271&bcd=report](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yor/bbs/bbs_MsgDetail.do?msg_seq=16271&bcd=report) (인출일: 2025. 10. 14.).
- 정부24. 첫만남이용권 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Svc/dtlEx/135200005015> (인출일: 2025. 6. 11.).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인출일: 2025. 10. 14.).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인출일: 2024. 4. 12.).

#### [통계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2018.01, 2024.12.,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20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2003&conn_path=I3) (인출일: 2025. 9. 25.).
- KOSIS, 소비자물가지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3%26tblId%3DDT\\_1J22112%26orgId%3D101%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3%26tblId%3DDT_1J22112%26orgId%3D101%26) (인출일: 2025. 10. 30.).
- KOSIS, 인구, 출생,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tblId%3DDT\\_1B81A21%26orgId%3D101%26checkFlag%3DN%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tblId%3DDT_1B81A21%26orgId%3D101%26checkFlag%3DN%26) (인출일: 2025. 10. 30.).
- KOSIS, 인구, 인구총조사,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자녀수별 가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A12\\_2015\\_1\\_10\\_60%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BC1601%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A12_2015_1_10_60%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BC1601%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인출일: 2025. 10. 30.).

[법령]

「아동수당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 20957호, 2025. 5. 27., 일부개정]



# A Study of Childrearing Costs and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 (KICCE Spending Survey 2025)

Hyo Mi Choi, Eunyoung Kim, Eun Jung Park, Tae Woo Kim, Gil Sook Kim

Reports for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5』 study were prepared separately into the 'survey' and 'analysis' parts to improve readability and completeness. As the present report belongs to the latter part, it concerns mainly with basic and in-depth analyses employing the data that has been compiled up to this point.

The basic analysis consists largely of the spending practices and childcare costs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usage of childcare services, and take-up of support measures for childcare time. We present figures using time series data, focusing on changes that have occurred from 2018 to 2024. In-depth analyses looked at themes such as 'Policy Proposals for Supporti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in Rural Communities' and the 'Efficacy of the Parental Allowance (Cohort Analysis)'.

1. Key Findings from the Basic Analysis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2018~2024) Data
  - 1) Childcare Costs
    - The per-household monthly average child-rearing costs (nominal terms)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in 2024 was 3,888,000 KRW, up 113,000 KRW compared to 2023.
      - However, when calculated in real terms, living expenditures in 2024 stood at 3,391,000 KRW, slightly down from 3,395,000 KRW in 2023.

## 2) Use of Childcare Services

- Take-up rates for childcare centers dropped slightly from 51.1% in 2018 to 49.5% in 2024. Over the same period, use of kindergartens remained fairly stable, going from 27.7% to 27.9%.
  - On the other hand, use of facilities offering half-day or longer programs rose sharply from 18.0% in 2018 to 27.6% in 2020, before falling again to 21.4% as of 2024.
  - For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n 2024, the weekly average hours of usage of half-day or longer facilities by young children and infants ranged from 35 to 36 hours. Usage hours of half-day or longer study centers varied over the years, ranging from 28 to 35 hours.
  - For young children and infants who made use of half-day or longer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no substantial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monthly average costs. In contrast, costs for half-day or longer study centers fell somewhat compared to the 7thwave(2024).
- Looking at the usage of part-time education over the years, usage was concentrated on short-term study centers (23.2%), visit-type workbooks (23.2%), and culture centers (12.1%) while 57.7% of respondents reported not using any part-time education.
  - Weekly average hours of short-term study center use fluctuated over the years, settling at 4.3 hours as of the 7thwave(2024).
  - In 2024, the usage of part-time education by young children and infants was concentrated on physical education (61.9%) and art (35.4%) in the case of short-term study centers. Usage of visit-type workbooks were more scholastically inclined, consisting mainly of Korean language (44.3%) and math / science (28.9%).
  - Looking at the monthly average costs spent on part-time education, costs for short-term study centers rose steadily over the years, starting at 134,000 KRW in the 1st wave (2018), rising to 207,000 KRW by the 7th wave (2024).

- Usage of part-time temporary care was highest in the 1st wave (2018) at 1.9%. This fluctuated over the years, settling at 1.3% as of the 7th wave (2024).
  - Monthly average costs and duration per session of part-time temporary care also fluctuated over the years, settling at an average of 13.5 sessions and 4.0 hours per session as of the 7th wave (2024), the highest levels observed.
  - Monthly average costs of part-time temporary care remained steady under 70,000 KRW from the 1st (2018) to 5th (2018) waves. This jumped to 136,000 KRW in the 6th wave (2023), falling slightly to 116,000 KRW in the 7th wave (2024).
- Among all young children and infants, the usage of at least one type of individual care service stood at 11.9% as of 2024. While this figure has fluctuated since 2019, it has remained largely at the low 10% range.
  - The most frequently-reported providers of temporary care were grandparents, representing more than 60% of responses across all waves. This was followed by MoGEF-provided caregivers except for the 3rd wave (2020). Usage of private caregivers ranged from 6.5 to 8.7% (except for the 3rd wave), rising somewhat to 10.3% as of the 7th wave (2024).
- Looking at the daily average number of hours spent on in-home childrearing, the figure was around 8 hours on weekdays and 13 hours on weekends. The number of hours parents spent directly on childbearing was around 7.9 hours on weekdays and 13.1 hours on weekends.
  - Time spent by young children on media use as of 2024 was 1.1 hours on weekdays and 1.7 hours on weekends, following a gradual downward trend over the years.
  - Usage of toy rental services was highest at 8.9% in 2023, while usage of book rentals rose gradually over the years to reach its highest figure of 19.3% in 2024.

- Looking at the providers of parental support services, childcare centers, kindergartens, and half-day or longer facilities represented the majority. As of 2024, 12.4% of parents had made use of parental training, 16.4% of parental counseling, while less than 1.0% reported making use of childrearing mentorship.
  - Parental training services mainly involved 'childrearing methods' while 'information regard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dominated in the cases of parental counseling and childrearing mentorship.

### 3) Utilization Status and Demand for Improvements regarding Policies Supporting Childrearing Time

- Looking at the use history of days off / leave among parents of young children and infants from a longitudinal view, take-up among both mothers and fathers increased year by year, almost doubling over a 4-year period.
- Looking at the take-up of family care schemes longitudinally across the 4th to 6th waves, use of family care leave tended to decrease among both mothers and fathers. Take-up of family care days off gradually rose among fathers only to decrease by the 7th wave, while take-up among mothers followed a gradual upward trend.
- In addition to legally guaranteed days off, workplace-provided schemes such as shorter work hours, childcare leave, childcare days off saw a rising frequency of availability in the responses among both mothers and fathers in 2024.
- Looking at the use of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among parents longitudinally across the 4th to 7th waves, use of in-home / remote work tended to decrease while shorter / flexible work hours and other arrangements tended to increase slightly.
- Compared to 2023, 2024 saw an overall increase in awareness regarding the need to improve childcare leave schemes.

## 2. Policy Proposals for Supporti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in Rural Communities

### 1) Motivation and Overview of this In-Depth Analysis

- This in-depth analysis is organized largely as a comparative analysis of 2024's rural booster sample and the main survey's sample. Aspects compared include the household finances and childcare costs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costs of childcare services, the perceived sufficiency of local childcare services and infrastructure, and needs regarding childcare support.
- Most questions are organized so as to compare the responses between the rural booster sample and the main survey's sample, looking at summary descriptive statistics.
- Analysis regarding the perceived sufficiency of local childcare services and infrastructure included not only a comparison of descriptive statistics but also OLS regression and Oaxaca decomposition.

### 2) Household Finances and Childcare Costs among Rural (Booster Sample) Households

- The monthly average living expenses among rural (booster sample) households was 3,325,000 KRW, which is 193,000 KRW lower than that among the main survey (all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sample. The monthly average per-child childcare expenses among the booster sample households was 699,000 KRW, which was 86,000 KRW lower than that among the main survey sample (785,000 KRW).
- Looking at type of residence, most (63.0%) households of the booster sample resided in apartments, followed by single-family homes (21.6%), multi-family homes (13.6%), commercial buildings (1.2%), and other (0.6%). The most frequently used form of childcare service was the childcare center (62.6%), followed by kindergartens (23.2%). Additionally, about 14.2% of the children were making no use of any half-day or longer facilities.

- Compared to their urban counterparts,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residing in rural areas tended to feel that childcare support services and infrastructure were inadequate. Oaxaca decomposition results suggest that, overall, discriminatory effects had a somewhat stronger influence compared to endowment effects.
- Looking at in-demand types of childcare service support, most respondents (45.1%) felt that in-cash supports such as childcare allowance were inadequate, followed by support for childcare time, such as childcare leave (25.3%), and in-kind support of childrearing supplies such as diapers (10.5%).
-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2 groups of rural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total of 10 individuals), the top perceived priority among respondents was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followed by the safety of the living environs, and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ter-regional cooperation) and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so as to share the childcare infrastructure provided by nearby communities.

### 3. Take-up of Government Subsidies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and the Efficacy of the Parental Allowance

#### 1) Motivation and Overview of this In-Depth Analysis

- The purpose of this in-depth analysis was to ascertain how the parental allowance affected the childcare cost burden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In particular, amid the increase in allowance payouts, we sought to focus on sufficiency in covering childcare costs as perceived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 Using data covering the 3-year period since the parental allowance was introduced (2022 to 2024), we conducted cohort analysis to control for the effect of children's age over time.

#### 2) Receipt Status of Government Subsidies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 For children born in 2021 or earlier, only 5.6% of respondents opted

for home care allowance while 94.4% opted for childcare costs / Nuri Curriculum support. For children born in 2022 or later, the majority of respondents (44.7%) opted for parental allowance payment fully in cash. 22.3% of respondents were not eligible for the allowance. For children born in 2024, most respondents opted for payment fully in cash, while there was a clear tendency for the cash + voucher option as the children grew.

- Most (67.7%) of the allowance was spent on food, followed by personal maintenance (52.8%). Likewise for the First Encounter Voucher, while most (47.1%) was spent on food, a substantial share of respondents reported using it on postpartum care (40.7%). Regarding how cash-type subsidies helped alleviate the childcare cost burden, there was a higher incidence of 'very helpful' responses compared to 2023.

### 3) Analysis of the Efficacy of the Parental Allowance

- Amid the gradual increase in the sum of the in-cash allowance payment from 2022 to 2024, later cohorts saw greater efficacy of the parental allowance in alleviating childcare costs.
- While among households with newborns, a higher proportion of in-cash allowance payment was associated with lower perceived sufficiency in covering childcare costs, this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among households with 1-year old children.
- As later cohorts saw higher levels of in-cash parental allowance payment, there was a marked alleviatory effect on childcare cost burdens. This result underscores the need to implement the parental allowance system in a stable manner.
- To alleviate childcare cost burdens in the future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there will need to be differentiated levels of support targeting households with higher actual need for support. Based on the findings of our analyses, we propose the following measures for improving relevant policies.

- Revamping the support system for in-cash support to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and infants
  - Need to reduce the gap in support levels between parental and child allowance
  - Consider introducing support in the form of 'child allowance plus'
  - Need to introduce a system for in-cash support that is pegged to inflation
- Support measures for alleviating childcare cost burdens
  - Strengthening corporate support for managing the affordability of essential childcare supplies
  - Support toward low-income households
- Strengthening the actual efficacy of childcare time support measures such as extended care
  - Need to improve accessibility and ease of use for morning / evening care and extended care
  - Strengthening the actual efficacy of childcare time support systems
- Strengthening support to prevent excessive use of part-time private education
  - De-incentivizing the use of part-time private education by steadily providing high-quality care services
- Strengthening support for rural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 Enhancing accessibility to healthcare / medical services and linking these up with emergency care services
  - Strengthening accessibility and ease of use of culture / recreation services tailored to local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while also strengthening support for households with multiple children
  - Strengthening support for transportation / mobility services
  - Stimulating awareness of relevant policies and participation in childcare communities

Keyword: KICCE Spending Survey, childcare costs for young children, usage of childcare services, rural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childcare support needs, efficacy of parental allowance.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  
KICCE 소비실태조사 2025  
- 하권 -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68 651333  
ISBN 979-11-6865-133-3  
ISBN 979-11-6865-131-9 (세트)